

한남대학교 학사보충서 ⑨

# 성남만록

1

城南漫錄

홍석희 지음  
洪錫熹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 일러두기

- 본서는 남평 도래풍산홍씨 기탁자료를 저본으로 하였다.
- 본서는 홍석희의 문집 초고본을 문체별로 분류하여 편집한 것이다.
- 시문 수록 순서는 대체로 문집 초고본의 순서를 따랐다.
- 글자가 마모되거나 찢긴 부분은 ■로 표기하였다.
- 성남만록 원본 책자는 총 3권으로 구성한다.
- 원본은 현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 해 제

## 1. 홍석희의 생애와 가계

홍석희(洪錫熹, 1904~1980)의 자는 여옥(汝玉), 호는 성남(城南),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아버지 홍규식(洪奎植)과 어머니 함평인 이백헌(李百憲)의 딸 사이에 남평 도천리 은사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는 송사 기우만의 제자인 아버지에게 배우고, 역시 송사 기우만의 제자인 부해(浮海) 안병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노사학맥을 이었다. 그는 이밖에도 외종형인 몽헌 류달근(柳達根)에게도 배웠으며, 장인이 된 나상균(羅尙均)에게도 수학하였다.

스승 안병택(安秉宅, 1861~1936)의 자는 처인(處仁), 호는 부해(浮海), 본관은 죽산(竹山)이다. 노사의 문인인 안달삼(安達三, 1837~1886)의 아들로, 제주도에서 도해하여 송사 문하에서 수학하고, 이후 광주지역에서 강학활동을 하면서 많은 후학을 길러낸 사람이다. 그 결과 노사학이 제주지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1893년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유명에 의해 가산을 정리하고 장성의 월송리[고산마을]로 이사하였고, 아직 이사 짐을 다 풀기도 전인 1894년에 동학도들에게 제주도에서 가져왔던 은자를 모두 약탈당한 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1898년에 동문인 쌍석(雙石) 이희용(李熙容)의 도움을 받아 장덕리(장자동)로 이사하여 서당을 열었으며, 10년 후인 1908년

에는 마침내 자신의 본채 남쪽에 서실을 만들고 강학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홍석희는 이 장자동으로 수학하러 다녔을 것인데, 스승이 1925년에 목포로 이사했기 때문에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홍석희의 가계를 보면, 시조 홍지경(洪之慶)은 1242년(고종 29)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국학직학(國學直學)을 역임한 인물로, 안동의 풍산에 정착하면서 후손들이 풍산(豐山)을 본관으로 삼게 된 것이다. 홍지경의 아들인 고려 첨의사인(僉議舍人)을 지낸 홍애(洪崖) 홍간(洪侃, ?~1304)은 시인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홍간의 아들 홍유(洪侁)는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삼관 대제학을 지냈고, 홍유의 아들 홍연(洪演)도 문과에 올라 충숙왕 때 보문각 대제학을 지냈다.

7세인 홍수(洪樹)는 평안도 성천부사를 지내다가 세조의 단종 폐위에 반대하여 화를 입게 되자 처 서산정씨의 친정이기도 한 나주 노안면 금안동을 피난처로 택했다. 홍수의 외아들인 홍귀지(洪貴枝)는 6남 2녀를 두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나주, 광산, 함평, 곡성 등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홍귀지의 아들 홍한의(洪漢義, 1482~1549)가 기묘사화를 피해서 남평 도래에 정착하면서 풍산홍씨 집성촌이 되었다.

홍한의의 아들은 주부(主簿) 홍연(洪漣)이고, 손자 호은(壺隱) 홍민언(洪民彦)은 이이(李珥)·조헌(趙憲)의 문인으로 초야에서 학덕을 쌓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종제(從弟) 홍민성(洪民聖)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지석강에서 적을 무찔렀으며, 1613년에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영월에 귀양보내졌다가 3년만에 돌아와서 귀래당(歸來堂)을 짓고 후학을 가르쳤다. 그의 아들 창애(蒼崖) 홍시정(洪時挺, 1574~1628)도 임진왜란 때 아버지를

모시고 근왕을 하였고, 인조 갑자난 때에도 거의를 하여 선공감 봉사와 제용감봉사에 제수되었다.

홍시정은 홍종희(洪鍾喜)를 낳았는데, 홍종희가 후사가 없이 사망함에 문중에서 홍시현(洪時顯)의 둘째 손자 홍석일(洪錫一)을 입계시켜 제사를 잇게 하였다. 홍석일은 홍익하(洪益河)를 낳았고, 홍익하가 후사가 없이 죽음에 동생 홍익수(洪益洙)의 아들 홍이동(洪以東)을 입계하였다. 홍이동은 주은(酒隱) 홍수원(洪壽源)을 낳았고, 홍수원은 석애(石崖) 홍봉주(洪鳳周, 1725~1796)를 낳았는데, 미호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다.

홍봉주의 아들 남애(南崖) 홍익진(洪翼鎭, 1766~1801)은 재행으로 도천(道薦)에 올라 농정소(農政疏)를 올렸다. 그 아들 홍우필(洪祐弼)은 노사 기정진(奇正鎭)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홍우필의 아들 국파(菊坡) 홍승구(洪承九, 1824~1852)는 아들이 없이 죽은 까닭에 아우 홍승백(洪承百)의 아들 석천(石川) 홍규식(洪奎植, 1871~1945)으로 뒤를 이었는데, 바로 홍석희의 부친이다.

홍규식은 8세 때 노사 기정진(奇正鎭) 선생에게 소학을 배웠고, 9세 때 노사선생이 돌아가시자 12세 때 송사 기우만(奇宇萬) 선생에게 수업하였으며, 26세 때 송사선생을 따라 거의(學義)를 하였다. 1939년에는 은사마을 뒤에 모현단(慕賢壇)을 만들고 노사선생과 송사선생을 석채하였다. 또한 집안에 흩어져 있는 선조들의 문적을 한군데로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했다.

홍석희는 이러한 아버지의 활동을 이어받아 가문의 문적을 정리·정립하고 간행하였으며, 노사학맥을 이어 강학활동과 함께 후학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이러한 홍석희

의 활동은 다음 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홍석희의 주요활동

홍석희의 활동을 살펴보면, 수학기에 해당하는 초년기 자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1924년에 지은 <향죽전(香竹傳)>이 남아있어서 20대 초기의 활동부터 약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문집초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의 책자로 남아있다. 즉 문집초고 안에는 1924년에 지은 서문과 발문만 있을 뿐이다. 그 서문에 의하면 '1924년 산재에서 독서하고 있을 때, 옛날에 함께 공부하던 동문들이 왜적(倭賊)의 녹을 먹으려고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나를 조롱하길 꼭 막혀서 시대의 변화에 불통한다고 하기에, 내가 맹세한 바의 뜻을 기록하여 향죽전이라 이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홍석희 20대는 독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향죽전 서문에 드러나듯이 주변사람들이 세태의 변화에 수용하여 내달릴 때에도 입지(立志)를 견고히 하며 자신을 지켜갔음을 알 수 있다.

30~40대의 활동은 문적이 약간 남아있어서 그것을 통해 대략을 추정해볼 수 있다. 시에는 주로 작성연대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표기가 있는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939년에 지은 <기묘원조(己卯元朝)>이고, 이후로 새해아침에 지은 시가 1950년과 1953년에 1수씩 있을 따름이다. 발문은 향죽전 외에도 1944년 <세장진필발(世藏珍筆跋)>과 1940년 <심초재현공유묵발(尋初齋玄公命直遺墨跋)> 등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세장진필(世藏珍筆)」은 총 3권이 있는데, 1권과 2권은 대부분 홍봉주(洪鳳周)와 관련된 간찰이나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필자가 이미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홍석희의 아버지 홍규식(洪奎植)에 의해서 정리된 것을 홍석희가 1944년에 3권으로 책자를 만들어 영구히 보존하는 자료로 삼은 것이다. <심초재현공명직유묵발>은 선조 홍봉주와 함께 도암(陶菴)·미호(溟湖) 두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절친이자 영암에서 은거한 현명직(玄命直)이 선조와 남평 죽림사에서 수창한 시첩이 한 폭 남아있는데, 그 후손의 부탁으로 이 시첩을 넘겨주면서 여기에 부친 발문이다.

이밖에도 「기(記)」 중에는 1949년에 외종형 류달근(柳達根)에게 지어준 <몽헌기>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데, 류달근 역시 홍규식과 안병택의 문하생이다. 그리고 1951년에 지은 <경당기>와 <초헌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문집초고에 실려있는 것 중 30~40대 작품은 이처럼 손에 꼽을 정도가 전부이다.

그렇지만 문집초고 외에도 저자의 활동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낱장 고문서 속에 들어 있는 망장(望狀)이다. 각 서원·사우에서 춘추로 제사를 지낼 때 제관(祭官)으로 추천하여 보내온 것이 망장(望狀)인데, 모두 65건이 남아있다. 가장 이른 것이 1939년 금곡사(金谷祠) 망장으로, 홍석희를 금곡사의 색장(色掌)에 정한다는 내용이다. 금곡사는 1939년에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금곡마을에 건립되어 기정진과 정의림을 배향한 곳이다. 다음 1940년 고산서원(高山書院) 망장은 9월 11일 가을 향사에 헌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고산서원은 기정진 선생이 담대헌(澹對軒)을 세우고 학문을 강론하던 곳인데 1927년에

여기에 서원을 세워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1928년에 논의 끝에 김녹휴(金錄休)·조의곤(曹毅坤)·정재규(鄭載圭)·기우만(奇宇萬)·이최선(李最善) 등 6분의 위패를 배향(配享)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김석구(金錫龜)·정의림(鄭義林) 두 분을 더 추향하여 모두 8분의 위패가 배향되었다. 홍석희는 1979년 춘향제 때 초헌관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947년 도림사(道林祠) 망장은 광산군 삼도면 도덕리의 도림사에서 가을 향사의 제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도림사는 1934년에 노사 기정진 선생과 도림마을 출신의 난와 오계수(吳繼洙, 1843~1913), 후석 오준선(吳駿善, 1851~1931)을 향사하기 위해 건립한 곳이다.

이후로도 1955년 필암서원(筆巖書院) 망장, 1957년 사산사(泗山祠) 망장, 1957년 오봉사(五峰祠) 망장, 1958년 용산사(龍山祠) 망장, 1958년 남평문묘(南平文廟) 망장, 1959년 화순 충효사(忠孝祠) 망장, 1960년 강진 남강원(南康院) 망장, 1960년 무안 평산사(平山祠) 망장, 1963년 화순 고강사(高岡祠) 망장, 1963년 남평향교(南平鄉校) 망장, 1965년 송재사(松齋祠) 망장, 1966년 광주 포충사(褒忠祠) 망장, 1966년 광주 동호사(東湖祠) 망장, 1966년 학산사(鶴山祠) 망장, 1967년 병천사(秉天祠) 망장, 1967년 등림사(登臨祠) 망장, 1967년 무양서원(武陽書院) 망장 등이 이어져 있는가하면, 나주 집성사(集成祠), 팔충사(八忠祠), 모산사(茅山祠), 나주 풍산사(楓山祠), 장성 만곡사(萬谷祠), 해남 방춘서원(芳春書院), 영귀서원(詠歸書院), 나주 용산사(龍山祠), 학산사(鶴山祠), 칠송사(七松祠), 덕림사(德林社), 봉산사(鳳山祠), 장연서원(長淵書院), 광산사(廣山祠), 보산사(寶山祠), 완계정사 산양재(山仰齋), 국암사(國巖祠), 화암사(花巖祠), 창주서원(滄洲書院), 충장사(忠壯祠), 경현서원(景賢書院), 금호사

(錦湖祠), 동산사(東山祠), 재동서원(齋洞書院), 장산사(章山祠), 정산사(鼎山祠), 구암사(龜巖祠), 금강사(錦江祠) 등지에서도 사망 전까지 보내온 망장이 더 있다. 이를 통해서 홍석희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 무렵 얼마나 많은 서원 사우가 있었던가도 알 수 있다.

전시기를 통틀어 홍석희의 가장 큰 활동은 가문의 문적을 정리하고 책자로 만드는 일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풍산홍씨문헌록(豐山洪氏文獻錄)』 간행이다. 이 책자는 홍석희가 몇 년에 걸쳐 편찬한 책으로, 1952년 12월에 석인본 3권 1책으로 간행되었는데, 풍산홍씨의 연원부터 시작하여 선산도, 지장문 등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생진편, 문과편, 천거편, 재상편, 충의, 효행, 현원, 효부, 열행 등의 인물 항목과 저작편, 지장찬술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끝에 홍석희가 지은 발(跋)이 붙어있다.

이것에 앞서 1947년에는 『풍산홍씨창애공파초(豐山洪氏蒼崖公派草)』를 만들었으며, 이후인 1962년에는 석인본 8책의 『풍산홍씨족보』도 만들었다. 그의 시 제목 <吾洪氏譜四重修, 始辛丑二月, 壬寅六月功訖, 余以不材, 專任編輯校正, 功訖日書懷>에 나타나듯이 1961년에 시작하여 1962년 6월에 끝났는데, 홍석희가 편집과 교정을 전담했던 것이다. 그리고 1977년에는 『풍홍보감(豐洪寶鑑)』도 만들었는데, 풍산홍씨대중회에서 펴낸 풍산홍씨 인물들의 목록으로, 홍석희가 서문을 쓰고, 발문은 홍석우가 썼다.

그는 풍산홍씨의 원류를 찾고 선조의 유적을 보기 위해 풍산 등지를 여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 그 여정이 순서대로 잘 나타나 있다. 즉 <秋風嶺車中>, <早發龍宮, 誤向栢石浦>, <自栢石

浦, 越嶺沿江數里, 渡禮泉上街津>, <暮渡芝尺津>, <直學公墓>, <洪崖公墓>, <申城齋室夜話>, <登蒼巖亭, 謹次洪崖先生原韻>, <豊山懷古>, <洪井>, <鷹巖山大提學公墓>, <過高陽城山村郎將公遺墟>, <感慕郎將公節義>, <郎將公墓>, <南平公墓> 등이 그것이다.

위 시 중에서 홍지경(洪之慶)의 아들인 홍애(洪崖) 홍간(洪侃, ?~1304)이 경영했던 정자 창암정(蒼巖亭)에서 차운한 시를 살펴보겠다.

<登蒼巖亭, 謹次洪崖先生原韻> 창암정에 올라 삼가 홍애선생의 시에 차운하다

千層巖立萬年洲 천 층이나 높은 암벽과 만 년 된 물가에,  
上出高亭接斗牛 위로 높이 솟은 정자가 두우성에 닿을듯하네.  
陟降先生優若見 이곳 오르내리는 선생 모습 어렵듯이 보이는 듯하네,  
黃花不盡似前秋 국화꽃은 다하지 않아 아직 가을인 것 같네.

창암정은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도로변의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선조의 유적에서 차운시를 지으면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과 가까운 곳에 시조의 묘도 있다. 홍석희는 이곳에 다녀온 후 그 인연으로 1963년 9월에는 <창암정중수기>도 지었다.

한편 홍석희가 선조의 유적을 정리하고 남긴 발문은 <계묘증광문과방목발(癸卯增廣文科榜目跋)>(1961), <사마방목발(己卯司馬榜目跋)>(1964), <주은유고발(酒隱遺稿跋)>(1964), <석애집발(石崖集跋)>(1964), <동반록발(同泮錄跋)>(1969) 등이 더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선조들의 문집인 『주은유고』와 『석애집』을 간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문집 『석천유고』와 형님의 문

집 『우남시문집』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석희의 활동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의 학맥을 유지하고 후학들을 결집한 일이다. 먼저 노사선생의 연원록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을 들 수 있다. 『노사선생연원록』은 1960년에 6권 2책으로 담대헌에서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노사의 문하생 5000여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때 지은 시 3수가 연달아 실려 있는데, 마지막 시는 경자년(1960) 1월 그믐날 석별을 하면서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庚子正月晦日, 蘆沙先生淵源錄刊所惜別> 1960년 1월 그믐에 노사선생연원록 간소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大道如川必注東 대도는 물과 같아서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드니,  
亘今惟見此心同 지금까지 본 것은 이 마음과 한가지네.

世態縱皆奔浪裡 세태가 제멋대로 모두 내달리는 속에서도,  
朋情幸忝立麻中 벗들의 정으로 다행히 삼대 속에 서게 되었네.

...

<풍영계창립원위기(風詠契勑立原委記)>에 의하면, 노사선생 연원록은 병신년(1956)에 시작하여 경자년(1960)에 끝냈는데, 장헌(莊軒) 기노장(奇老章)이 그 일을 주관했고, 운사 여창현(呂昌鉉)이 와서 일을 감독하였으며, 편집 교정은 석천(石泉) 박영봉(朴永鳳)과 홍석희가 맡아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로도 홍석희는 위의 사람들과 1968년에 『고산서원지(高山書院誌)』 1책 석인본을 간행했다. 이때 서문은 송재성(宋在晟)과 김상진(金相晉)이 쓰고, 발문은 여창현, 홍석희, 박영봉이 썼다.

다음으로는 노사선생의 대표 저작인 <납량사의(納涼私議)>

와 <외필(猥筆)>을 한글로 번역하여 널리 알리는 일을 했다. <납량사의외필역해발(納涼私議猥筆譯解跋)>에 보면, 이 글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문리과 학장인 춘전 이혁(李焌) 교수가 선생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국문으로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역해를 한 것인데, 구두와 현토가 마음에 차지 않아서 고당 김규태와 효당 김문옥 두 형이 일찍이 이 글을 숙독했다는 것을 들었기에 가서 질정을 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라 그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내용이 나온다.

<납량사의>는 노사의 여러 저술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인 46세 때 작성된 것으로, 이일분수(理一分殊)에 대한 이(理) 중심의 이해가 구체화된 것이고, <외필>은 노사 만년에 이루어진 이론으로, 기호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기의 자발적 운동에 대한 핵심 명제인 기자이(機自爾) 비유사지(非有使之)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이(理)의 철저한 주재하에 이루어진 기의 운동 변화만을 인정하는 이(理) 중심의 이기론 체계이다.

이밖에도 홍석희는 뜻을 함께 한 사람들을 규합하여 ‘풍영계(風詠契)’를 창립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풍영계창립원위기(風詠契創立原委記)>에 보면, 노사선생연원록을 간행하는 일을 끝낼 때인 1960년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계를 만들고 춘추로 담대헌에서 강신(講信)을 하자고 의논을 하였는데, 석천 박영봉(朴永鳳)이 초상을 당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1964년 겨울에야 다시 의논하고 이듬해인 1965년 봄에 광주시 구동에 있는 박영봉의 우사에서 모임을 가져서 30여 명이 모였고, 이때 호남의 동지(同志)들을 더 추천하자고 하여 계원 200명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1965년에 『풍영계안(風詠契案)』 1책이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서(序),

규약(規約), 좌목(座目)과 시 2권이 실려 있다. 이때 서문은 여창현(呂昌鉉)이 쓰고, 발문은 수록되지 않았다. 이 풍영계는 노사학맥을 이은 호남 유림이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호남의 대표적인 시사이다.

홍석희의 편찬활동은 이밖에도 더 있으니, 1955년에 『남평향교지(南平鄉校誌)』 편찬 때 감인자로 참여하였고, 1957년에 『해동시림(海東詩林)』 2책을 간행할 때 여창현 및 기노장과 함께 하고 발문을 썼으며, 1969년에는 『동문휘집(東文彙集)』을 간행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시문을 모은 것으로, 서문은 여창현, 정철환(鄭喆煥), 홍석희가 쓰고, 발문은 조규복(曹圭復)이 써서 11권 10책의 석인본으로 장성 문원편간회(文苑編刊會)에서 간행했다.

또한 노사학맥을 이은 사람들의 문집을 만드는 일을 주관하였으니, 정의림의 제자 양회갑의 『정재집(正齋集)』, 노사의 현손 기노선의 『도남집(道南集)』, 벗인 여창현의 『운사유고(雲沙遺稿)』 등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홍석희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누정활동을 들 수 있다. 당시 시문으로 이름난 사람으로 누정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홍석희도 이들과 함께 많은 누정에서 시문을 남겼다. 여기에서는 화순(능주)에 있는 침수정(枕漱亭)에서의 활동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枕漱亭次板上韻> 침수정의 액자시에 차운하다

登臨可滌六根塵 올라보면 육근의 때를 씻어낼 수 있으니,  
淨界深藏百世春 청정 세계가 백대토록 감춰져 있는 곳이네.  
高士早知山水樂 고사계선 일찍이 산수의 즐거움을 아셔서,

明時甘作草萊身 밝은 때에 달게 초야의 몸이 되셨네.

...

침수정은 춘양면 우봉리 우봉마을 옆 산중턱에 있는 정자로, 풍산인 팔우(八愚) 홍경고(洪景古, 1645~1699)가 17세기 말에 세운 정자이다. 홍경고는 허목(許穆), 윤선도(尹善道)의 문인이었다. 한때 타인의 소유로 넘어갔다가 1879년에 풍산 홍씨 후손들에 의해 다시 문중 소유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1885년에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기우만(奇宇萬)의 기(記), 정의림(鄭義林)의 찬(贊), 정시림(鄭時林)의 기후(記後), 정재규(鄭載圭)·최숙민(崔淑民)·정면규(鄭冕圭) 등의 차운시를 비롯하여 모두 36개에 달하는 많은 현판이 걸려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1889년에 정의림과 기우만이 중심이 되어 강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자 의심난 곳을 묻고 증명해주는 성대한 일이 있었다. 홍석희도 노사학파의 성지이자 족인의 누정인 이곳을 찾아서 마음의 때를 씻고 산수를 즐긴 것이다.

홍석희의 시에 나오는 누정은 산암유거(汕巖幽居, 邊時淵), 서벽당(棲碧堂, 洪宗植), 동강조대(東江釣台, 廉秉燮), 적송당(赤松堂), 지은당(池隱堂, 洪準植), 쌍류유거(雙柳幽居, 李教台), 송계당(松溪堂, 李熙鐸), 지은당(止隱堂, 洪祐廷), 석서정사(石西精舍, 金相基), 보강정(寶岡亭, 鄭重求), 광주 오로정(五老亭), 야은당(野隱堂, 金容燾), 심곡재(心谷齋), 호가정(浩歌亭), 자강유거(紫岡幽居, 金永鎰), 제월당(霽月堂, 金浩瑾), 영락정(永樂亭), 관수정(觀水亭), 서곡재(瑞谷齋, 奇權燮), 일송당(一松堂, 朴淑鉉), 서운당(瑞雲堂, 姜大澤), 봉암정(鳳菴亭, 辛承萬), 죽포정(竹

圃亭, 朴炳洪), 해은유거(海隱幽居, 邢時伯), 미현재(微顯齋, 金光德), 월호정(月湖亭, 李正奎先大人), 운암재(雲巖齋, 李正奎), 노은당(老隱堂, 鄭在學), 명운재(明雲齋, 邊鎮昇), 정재유거(淨齋幽居, 李在根), 한송재(寒松齋, 李容穆), 소은정(素隱亭, 金鎮元), 성암별업(醒菴別業, 吳采烈), 오괴정(五槐亭, 朴氏), 삼괴정(三槐亭, 文海日大人), 경운당(慶雲堂, 崔秀均), 녹암별업(鹿菴別業, 朱珽台), 오은정(鰲隱亭, 邊鎮夏), 계은당(溪隱堂, 朴永夏), 경은당(耕隱堂, 邊鎮化), 백인재(百忍齋, 金棕坤先大人), 오헌별업(梧軒別業, 權炳國), 우계정(愚溪亭), 농은당(農隱堂), 양벽정(漾碧亭), 창암정(蒼巖亭), 태봉정(太峯亭), 석초정사(石樵精舍), 후산정사(後山精舍), 부춘정(富春亭, 曹氏), 소해정(蘇海亭), 월과정(月坡堂), 양정재(養正齋), 인곡서당(仁谷書堂), 계양재(桂陽齋, 池氏), 침수정(枕漱亭), 상의정(相宜亭), 죽하정(竹下亭, 李奎憲), 초동정사(草洞精舍), 담대헌(澹對軒), 춘원정(春園亭, 金源益), 수경당(守敬堂), 이산정사(泥山精舍), 계은정(溪隱亭), 송포정(松圃亭), 영벽정(映碧亭, 綾州), 인덕정(仁德亭), 광주 풍영정(風詠亭), 탁사정(濯斯亭), 만호정(挽湖亭), 삼구정(三九亭, 呂昌鉉), 담락당(湛樂堂, 桂陽李氏), 함허정(涵虛亭, 玉果沈氏), 남천정(藍川亭), 울은당(栗隱堂), 풍천대(風泉臺, 朴魯述), 도은정사(道隱精舍), 장성 초연정(超然亭), 함평 백화정(百花亭), 석남재(石南齋) 등 8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지명이나 주인 이름을 적고 있어서 알아보기에 편하다. 그러나 대체로 연도 표기는 없어서 언제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홍석희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70대는 60대에 이어서 많은 글을 저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가 가장 저술활동이 활발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의 시문이 이미 명성이 나

서 사방에서 글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저작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문이나 기문을 빼고는 대부분 60~70% 이상이 1970년 이후에 지은 것이다. 즉 비문은 84편 중 60편 이상이 70대 때 지은 것이고, 묘갈명은 215편 중 135편 이상이 70대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석희의 만년인 1975년에는 문인들과 벗들이 ‘구경계(久敬契)’를 조직하여 홍석희의 학덕을 기리는 일을 했다. 그 계안이 남아있는데, 류겸중(柳謙重)이 쓴 서문을 보면, 을묘년(1975) 1월 19일에 창립기금을 마련하여 계를 조직했고, 이때 계장은 류겸중이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류겸중은 담양군 창평면 해곡리에 사는 사람이다.

이상에서 홍석희의 여러 활동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활동은 저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집초고에는 시가 700여 수, 문이 860여 편이 들어있으니, 적지 않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저술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 3. 홍석희의 교유인물

홍석희는 노사 학맥을 이었기 때문에 노사의 문인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듯이 교유인물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가장 친한 사람은 담대헌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을 많이 했던 장헌(莊軒) 기노장(奇老章), 운사 여창현(呂昌鉉), 석천(石泉) 박영봉(朴永鳳) 등이 아니었는가 싶다. 위 사람들은 홍석희와 함께 노사선생연원록을 만들고, 풍영계를 조직하여 운영했으며, 『해동시림(海東詩林)』, 『풍영계안(風詠契案)』, 『고산서

원지(高山書院誌)], 『동문회집(東文彙集)』 등을 간행하였다.

기노장(奇老章, 1904~1970)의 자는 공빈(公斌), 호는 장헌(莊軒)으로, 아버지는 기춘도(奇春度)이며, 노사선생의 현손이다. 노사의 사손이자 형님인 기노선(奇老善, 1876~1931)이 일찍 사망하자 고산서원 및 담대헌의 중심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석희와 동갑이라서 더욱 친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창현(呂昌鉉, 1897~1975)의 자는 문강(文強), 호는 운사(雲沙), 본관은 함양이다. 여규중(呂圭鍾)의 아들로 옥과 용계리에서 태어나 일찍 송사 기우만 문하에 나아가 수학했다. 삼구정(三九亭)을 경영했고, 유고에 『운사유고(雲沙遺稿)』가 있다. 박영봉(朴永鳳)의 자는 성소(聖韶), 호는 석천(石泉), 본관은 함양으로, 박이홍(朴以洪)의 후손이다. 송사 기우만의 문인으로, 창평 절산에서 죽림정사를 운영한 월고(月皐) 박철호(朴哲鎬, 1887~1960)의 아들이다.

이밖에도 동초(東樵) 정철환(鄭喆煥), 경당(敬堂) 최운환(崔允煥), 겸산(兼山) 안병탁(安秉柝), 고당(顧堂) 김규태(金奎泰), 호당(曉堂) 김문옥(金文鈺) 등도 역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철환(鄭喆煥, 1901~1981)은 같은 지역 사람으로, 자는 상규(尙珪), 호는 동초(東樵)이며, 정황의 후손이자 정경휴의 아들로 철야리에서 태어나 고광선(高光善)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67년 봉황면장을 지낼 때 만호정(挽湖亭)을 중수하고, 수많은 유림들의 시를 받아서 걸었다. 홍석희와 여창현도 이때 기문을 지은 것이 걸려 있다. 만호정은 철야리 유촌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 고려중엽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져 오며, 임진왜란 이후 현 위치로 이건하고 쾌심정(快心亭)이란 정호를 영평정(永平亭)이라 개칭하였으며, 언제부터인가 만호정

이라고 개칭하고 대동계를 시행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남평지역의 대표 정자이다. 역시 만호정 부근에는 1986년에 세운 정철환의 기적비(紀蹟碑)가 있다.

최윤환(崔允煥, 1890~1979)의 자는 덕선(德善), 호는 경당(敬堂), 본관은 경주(慶州)로, 영사정 최형한의 후손이자, 최상정(崔相廷)의 아들이다. 향약으로 유명한 양과동 야평마을에서 태어났다. 고광선(高光善) 문하와 율계 정기(鄭琦)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광주 이관산(泥冠山) 아래에 이산정사(泥山精舍)를 지어 학문을 강론했고, 보인계(輔仁契)를 조직하였다. 유고에 『경당만록(敬堂漫錄)』이 있다. 이에 홍석희는 이산정사 10영 차운시와 이산정사 시를 지어주었다. 10영의 제목은 ‘瑞石雲帳, 樂江漁笛, 泥山明月, 松岳落照, 竹園風光, 芝山松楸, 柳谷烟景, 院隅石泉, 臨觀池魚, 望見野穀’이다.

안병탁(安秉柝, 1904~1994)의 자는 사성(士誠), 호는 겸산(兼山), 본관은 죽산(竹山)인데, 장흥읍 건산리에서 태어나서 율계(栗溪) 정기(鄭琦, 1897~1950)의 문인이 되었으며, 1933년에는 구례군 문척면 토금리로 이사하였다. 1934년부터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1957년 가을에 초동서사(草洞書舍)라는 서당을 세워주었다. 유고에 『겸산유고(兼山遺稿)』가 있다. 홍석희는 동갑친구인 안병탁에게 초동정사(草洞精舍) 시를 지어서 보내 주기도 했다.

이때 구례에는 고당(顧堂) 김규태(金奎泰, 1902~1966)가 있었는데, 달성군 현풍 지동(池洞)에서 김봉운(金捧運)의 아들로 태어나 26세이던 1927년에 스승 율계 정기를 따라 전남 구례로 이거하였다. 율계는 노백헌 정재규(鄭載圭)의 고제로, 합천에서

1927년에 구례로 이거하여 김문옥·김규태 등을 배출한 사람이다. 35세(1936)에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에 용암재(龍巖齋)를 짓고 스승의 뜻을 받들어 후생 교육을 시작하였고, 이후 장천재(莊泉齋), 강수재(講修齋) 등에서 후학 양성과 저작에 주력하다가 생을 마쳤는데, 서예(書藝)로 당대를 풍미했다. 홍석희가 강수재에 들러 고당에게 지어준 시가 1수 있다. 유고에 『고당문집(顧堂文集)』이 있다.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鈺, 1901~1960)은 문숙공 김주정의 후예로 자는 성옥(聖玉), 호는 효당(曉堂), 본관은 광산이다. 김기추의 아들로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울계(栗溪) 정기(鄭琦)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27세 때 스승을 따라 전남 구례로 이거하였고, 뒤에 화순에서 상주하면서 중헌 윤정복(尹丁鏞)·성재 나갑주(羅甲柱)·만취 위계도(魏啓道) 등 200여명의 문생(門生)을 양성하였다. 유고에 『효당유고(曉堂遺稿)』가 있으며, 화순군 남면 절산리에 있는 도남서원(道南書院)에서 향사하고 있다.

한편 친밀하게 지낸 사람으로 전주에 살고 있는 옥담(玉潭) 기관(奇寬), 국사(菊史) 강린(姜璘, 1901~1990), 월담(月潭) 김재석(金載石) 등도 빼놓기 어렵다. 기관(奇寬, 1911~?)의 자는 공울(公栗), 호는 옥담(玉潭)으로, 노사선생의 현손이자 기우만의 손자이고, 강린(姜璘)은 호가 국사(菊史), 본관은 진주로, 1928년에 역사서인 『국로추사(菊露秋寫)』를 지은 역사학자이다. 김재석(金載石, 1895~1971)의 자는 경담(景潭), 호는 월담(月潭), 본관은 울산으로, 유집에 『월담유고(月潭遺稿)』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람들은 모두 노사학맥을 이은 인재들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기우만·고광선·정기의 문인들이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 4. 성남만록 구성

홍석희(洪錫熹)의 문집초고는 모두 29권에 걸쳐 있는데, 분량은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한 편이고, 대체적으로 같은 문체끼리 묶여 있지만 다른 것 속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본서에서는 같은 문체끼리 재편집을 시도하였다. 이것을 분류해보면, 시 700수 가량, 서(書) 620여 통, 서(序)·발(跋)·기(記)가 243편, 제문·고유문·상량문·통문이 116편, 비문 84편, 묘갈명(墓碣銘)·묘지명 223편, 묘표 140편, 행장 42편, 기타 10여편 등이 된다.

각 문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시(詩)」는 ‘시사찬(詩辭贊)’이란 이름으로 묶여져 있으며, 여기에는 700수 가량의 시가 체제와 상관없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을 시체(詩體)로 나누어보면 7언율시가 가장 많아서 290수가량이고, 다음으로 7언절구가 220수가량으로, 칠언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의 소재를 살펴보면 누정을 대상으로 한 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시(挽詩)가 많으며, 수연시(壽筵詩)도 제법 있다. 또한 시회(詩會)나 시사(詩社)에서 읊은 시도 있으니, 광주교궁시회(光州校宮詩會), 광주시사(光州詩社), 병천사시회(秉天祠詩會), 남평교궁아회(南平校宮雅會), 후산재아회(後山齋雅會), 초연정아회(超然亭雅會), 풍영계(風詠契), 무진음사(武珍吟社), 오산음사(鰲山吟社) 등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형님인 홍복희(洪復熹)의 시가 많이 들어있어서 45수나 된다는 점이다. 물론 타인의 시도 18수가 들어있다. 부인들의 열행을 드러낸 찬(贊)은 6수가 있다.

「서(書)」는 ‘왕복서(往復書)’라는 이름으로 총 4권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밖에도 「묘갈명」 책자나 「행장」 책자에도 더 실려 있어서 모두 625통이나 된다. 문집초고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분야이며, 대체적으로 시간순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다.

「서(序)」는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밖에도 「묘갈명」 책자나 「행장」 책자에도 더 실려 있어서 모두 89편이 실려 있다. 문집의 서문이나 계의 서문, 족보의 서문 등이 많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시간순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발(跋)」은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발문만 수록된 것은 아니니, 첫 번째 책자에는 발문·제문·축문이 한 책으로 묶여서 모두 85편의 글이 수록된 가운데 발문은 35편이 실려 있고, 다른 한 책에는 발문 2편과 통문 1편만 수록되어 있어서 홍석희가 저술한 발문은 모두 37편이 수록된 셈이다. 내용으로는 문집에 대한 발문이 많으니, 여기에 실린 문집으로는 주은유적(酒隱遺蹟), 주은유고(酒隱遺稿), 초헌유고(蕉軒遺稿), 송암유고(松巖遺稿), 대봉유고(大峯遺稿), 석애집(石崖集), 독암유고(篤菴遺稿), 송담유고(松潭遺稿), 덕암만록(德巖漫錄), 사류당유고(四留堂遺稿), 금재문고(欽齋文藁), 낙산시고(駱山詩稿), 시은유고(詩隱遺稿), 후송유고(後松遺稿), 송강선생문집번역동간록(松江先生文集翻譯同刊錄), 지호집(砥湖集), 천와유고(泉窩遺稿)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記)」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118편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대부분 누정기(樓亭記)와 호기(號記)이다. 기문에 나타난 누정은 ‘송학단(松鶴壇), 남덕정(覽德亭), 동강조대(東江釣臺), 우송정사(友松精舍), 봉암정(鳳菴亭), 부양정(扶陽亭), 송은정사(松隱精舍), 계은정(桂隱亭), 구성단(九成壇), 체호정(楛

好亭), 명운재(明雲齋), 지은당(止隱堂), 호가정(浩歌亭), 춘강재(春江齋), 영호정(永護亭), 귀래당(歸來堂), 용순당(勇順堂), 죽림정사(竹林精舍), 석초정사(石樵精舍), 오도막(吾道幕), 후산정사(後山精舍), 창암정(蒼巖亭), 춘과헌(春坡軒), 남계당(南溪堂), 해은당(海隱堂), 유석서실(維石書室), 경모재(敬慕齋), 서륜당(序倫堂), 만호정(挽湖亭), 추원당(追遠堂), 청연재(淸淵齋), 영안재(永安齋), 영모재(永慕齋), 광명재(光明齋), 경모재(敬慕齋), 금원정(錦原亭), 영천정(靈泉亭), 산계정(山溪亭), 벽농재(碧農齋), 춘원정(春園亭), 삼우정(森友亭), 수연재(水連齋), 승인재(崇仁齋), 옥산정(玉山亭), 승유재(承裕齋), 삼락재(三樂齋), 보성 영모재(永慕齋), 동운서실(桐雲書室), 장성 와룡재(臥龍齋), 영암 죽림정(竹林亭), 경의재(經義齋), 경모재(敬慕齋), 영호정(永護亭), 영모재(永慕齋), 염수재(念修齋), 희동정(喜同亭), 벽류재(碧柳齋), 옥과 영사재(永思齋), 송암재(松巖齋), 만취정(晚翠亭), 모송정(慕松亭), 송천정사(松泉精舍), 돈수재(敦修齋) 등 60개가 넘고, 기문에 나타난 호(號)는 ‘몽헌(夢軒), 우송(友松), 서운(瑞雲), 치석(癡石), 계봉(桂峯), 운담(雲潭), 경당(敬堂), 초헌(蕉軒), 춘전(春田), 양당(養堂), 후담(後潭), 호은(湖隱), 지암(芝菴), 월암(月菴), 향재(香齋), 신와(信窩), 송암(松庵), 만재(晩齋), 행하(杏下), 화산(華山), 운암(雲菴), 우죽(又竹), 석초(石蕉), 오강(梧岡), 매봉(梅峯), 동초(東樵), 천석(川石), 정재(靜齋), 석하(石下), 계봉(桂峯), 서봉(瑞峯), 요산(樂山), 석정(石汀), 취헌(翠軒), 달산(達山), 지은(芝隱), 덕봉(德峯), 백헌(柏軒), 죽헌(竹軒), 도포(道圃), 인암(忍菴), 오은(梧隱), 월산(月山), 봉강(鳳岡)’ 등 40개가 넘어서 모두 110개 가까이 된다.

「제문(祭文)」은 앞서 살폈듯이 별도로 한 책을 이루지 못하고

발문과 함께 묶여 있는데, 제문 25편, 축문·고유문 25편이다. 제문의 대상은 후석 오준선(吳駿善, 1851~1931), 현와 고광선(高光善, 1855~1934), 장인이자 스승인 나상균(羅尙均), 동강 김영한(金寧漢, 1878~1950), 오남 김도중(金度中, 1881~1959), 정재 양회갑(梁會甲, 1881~1961), 각헌 박흥규(朴興圭, 1889~1969), 장헌 기노장(奇老章), 월담 김재석(金載石), 소헌 최태원(崔泰遠, 1855~1939), 남하 현준호(玄俊鎬, 1889~1950), 옥산 이광수(李光秀, 1873~1953), 율계 정기(鄭琦), 석초(石蕉) 양현승(梁弦承), 시헌(時軒) 홍찬희(洪纘憲, 1882~1953), 우송거사(友松居士) 홍우선(洪祐選), 송산(松山) 홍승준(洪承俊) 및 아내와 아들 및 형님 등이다.

「상량문(上梁文)·통문(通文)」은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상량문 13편, 통문 30편, 전(箋) 1편, 왕복서 3건 등이 들어 있다. 상량문은 다른 권에 실린 것까지 모두 살펴보면 대상은 ‘월정서원(月井書院), 봉암서원(鳳巖書院), 노사선생문집장판각(蘆沙先生文集藏板閣), 귀래당(歸來堂), 영모재(永慕齋), 양계사강당(良溪祠講堂), 육우당(六友堂), 영안재(永安齋), 경모재(敬慕齋), 귀후재(歸厚齋), 필분재(苾芬齋), 무양서원(武陽書院), 죽림정(竹林亭), 사산사(士山祠), 엄이재(掩耳齋), 만취정(晩翠亭), 죽탄재(竹灘齋)’ 등 17곳이다.

「비문(碑文)」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밖에도 다른 권에 약간씩 실려 있는데 모두 합쳐보면 79편이 되고, 이중 4편은 신도비(神道碑)이다. 대체로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 성격은 추모비, 기적비, 유허비, 실적비, 제단비, 묘정비, 효행비 등 다양하다. 그중 <의사송공기적비(義士宋公紀蹟碑)>는 의사 송학묵(宋鶴默) 행적을 서술한 글

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분개하면서 밥도 못 먹었고 1908년 의병을 규합하여 활동하였지만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받다가 1909년 4월 9일 광주 감옥에서 순국한 사실을 드러냈다.

「묘갈명(墓碣銘)」은 5권의 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215편이 수록되어 있다. 문집초고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특히 홍태희(洪泰憲), 홍면희(洪勉憲), 홍민기(洪民紀), 홍진갑(洪震甲), 홍종집(洪鍾集), 홍득일(洪得一), 홍승욱(洪承旭), 홍승경(洪承慶), 홍희준(洪希俊) 등 22명의 풍산홍씨 묘갈명이 저자의 손끝에서 나왔다. 묘갈명은 저술 연대표기가 거의 되어 있지 않지만, 간간이 되어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시간순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1959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대부분은 70대 때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

「묘지명(墓誌銘)」은 1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묘지명 4편과 수장명(壽藏銘)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수장명은 살아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못자리에 부치는 글이다. 「묘표(墓表)」는 2권에 걸쳐 실려 있고, 이밖에도 묘갈명이나 다른 권에 실려 있는 것을 모두 합하면 140편이 된다. 특히 풍산홍씨 묘표가 많은데, 홍귀지(洪貴枝)를 비롯하여 13대조인 홍련(洪連, 1508~1595), 11대조인 홍시현(洪時顯, 1569~1636), 홍수봉(洪壽鵬), 홍이풍(洪以豐), 홍태일(洪太一), 홍후서(洪後瑞), 홍성희(洪聖憲), 홍익기(洪益箕), 홍동주(洪東柱), 홍변식(洪邊植), 홍경식(洪暲植), 홍승행(洪承杏), 홍우복(洪祐福), 홍규희(洪奎憲), 홍세식(洪洗植), 홍승길(洪承吉), 홍두일(洪斗一), 홍신주(洪薰周), 홍원식(洪源植), 홍경해(洪慶海), 홍수봉(洪壽鳳), 홍규식(洪奎植) 등이 해당된다. <선부군묘표(先府君墓表)>에서는 노사 기정진에게 소학을 배웠던 일, 동학설에 동요되지 않았고, 민

종렬이 호군으로 추천했지만 나아가지 않았던 일, 1896년 기우만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참여했던 일, 고종이 죽었을 때 영호정에서 곡을 한 일 등을 서술했다.

「행장(行狀)」은 2~3권에 실려 있는데, 모두 43편이 실려 있다. 행장의 대상 인물은 실린 순서대로 살펴보면 금애 홍승은(洪承殷), 시헌 홍찬희(洪纘憲), 몽헌 유달근(柳達根), 석서 김상기(金相基), 임부인(任彦準 딸, 洪德植 처), 군헌 홍우진(洪祐珍), 남우 홍우수(洪祐洙), 사은 김경현(金敬鉉), 모와 최집(崔漵), 용암 홍처일(洪處一), 수분당 변진신(邊鎭臣), 홍면주(洪冕周), 농포 유중천(柳重川), 동암 홍승수(洪承受), 현담 홍승낙(洪承樂), 설헌 홍우설(洪祐高), 후벽당 홍광희(洪光憲), 초은 박인태(朴仁泰), 사은 홍면희(洪勉憲), 신암 심능채(沈能棨), 천와 김통해(金通海), 각헌 박흥규(朴興圭), 계당 허홍필(許鴻弼), 은곡 박인현(朴仁鉉), 청강 서우흠(徐于欽), 만오 홍승조(洪承祚), 약재 봉필주(奉弼周), 임하 이규헌(李奎憲), 풍암 홍기면(洪起冕), 모산 홍우성(洪祐成), 장헌 기노장(奇老章), 취은 정덕필(鄭德弼), 지재 김영순(金永淳), 송산 홍승준(洪承俊), 전적 홍봉상(洪鳳祥), 유암 홍만선(洪萬選), 추헌 홍만우(洪萬遇), 노은 박승훈(朴承勳), 복헌거사 최규양(崔圭陽), 경당 문제술(文濟述), 농와 오철수(吳喆洙), 성성재 고명겸(高鳴謙), 고시옥(高時沃) 등인데, 역시 풍산 홍씨 인물의 행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1977년에 여행을 하고 남긴 「동유록(東遊錄)」이 있고, 선조들의 사적을 적은 기타 문장이 10편 가량 더 있다.

홍석희의 문집초고는 어떤 경우에는 해서에 가까운 바른 글씨로 정서를 한 것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필기체로 쓰고 있고, 어떤 것은 원고지를 사용하다 보니 글씨가 너무 작으며, 게다가

저자가 작은 글씨로 직접 수정을 가한 곳이 많이 있어서 입력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다. 또한 끈으로 원고를 묶을 때 원문이 속으로 들어가버린 경우도 있고, 원고의 편차가 잘못되거나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다. 교점본에서는 이러한 문장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을 하였다. 이에 애써주신 김광년, 김기림, 김홍구, 박해장, 최영희 선생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 올린다.

2023년 9월

책임연구위원 권수용

# 목차

해제(解題) .....	17
--------------	----

## 卷1 詩

詩 .....	57
春興 .....	69
己卯元朝 .....	69
庚寅元朝, 次古人韻【古人元朝詩云, 切餅爲羹滿盤香, 大椀喫得快充腸。 …】 .....	69
夕陽道中 .....	69
癸巳元朝 .....	70
謝友人見贈 .....	70
新安齋贈車君鍾轍 .....	70
覽德亭【門峴諸人士, 志喜光復, 而築是亭。】 .....	70
次林石川億齡白頭山韻【天地玄黃後, 移來幾萬秋。 應識乾坤老, 青山亦白頭。】 .....	70
城南自敘 .....	71
將入京師, 到金堤, 愛其野豁秋熟, 天晴氣爽, 口占二首 .....	71
訪邊敬仲時淵汕巖幽居敘懷 .....	71
贈別金符卿銅洙 .....	71
贈別朴汝初年在 .....	71
光州校宮詩會 三首 .....	72
休菴白先生仁傑遺愛碑閣重修有感【碑在南平】 .....	72
輓奇道南公古老善 三首 .....	73
謹次族叔宗植棲碧堂韻 .....	73
題廉洛現秉燮東江釣台【寶城】 .....	73
赤松堂 .....	73

賀曹龍岡秉采回盃	74
與光州詩社諸益, 遊無等山證心寺	74
題族叔準植池隱堂	74
訪李星三教台雙柳幽居 二首	74
題李鳴魯熙鐸松溪堂 二首	75
輓族叔棲碧堂宗植	75
題族大父祐廷止隱堂	75
輓崔素軒先生 二首	76
題崔德善允煥敬堂	76
題金贊敬相基石西精舍	76
輓外兄柳夢軒達根	76
輓族兄道湖泰憲	77
輓李屏山漢南	77
餞春 二首	78
輓吳根浩	78
題李肯堂基泳光城新築	78
題鄭重求寶岡亭	78
題光州五老亭【鄭在鎭及崔程曹劉五人】	79
次野隱堂板上韻【金容壩所築】	79
次心谷齋板上韻【晚湖里, 李氏所築】	79
輓族兄後碧光憲	79
題蔣東湖時穆光州新庄 三首	80
登雪江柳公泗浩歌亭, 次板上原韻【光州】	80
雲巖崔炳教壽筵【昌平】	80
聞姜大完大弘兄弟孝行有感【羅州】	81
輓卞尼山鍾赫 二首【高敏】	81
題金永鎰紫岡幽居【光州】	81
輓鄭鶴臯熏洪 二首	81
晚翠鄭榕壽筵【羅州】	82
溪亭文弘植壽筵【綾州】	82

石西金贊敬壽筵【光州】	82
題金浩瑾霽月堂【光州】	83
輓朴濟喆【光州】	83
菊軒崔潤九壽筵【羅州】	83
後峯高在鍊壽筵【光州】	84
賀光州詩社册立二首	84
輓承旨金東江賓漢【庚寅,京】	85
次聳珍山泣弓巖韻【高宗昇遐後,吳後石望哭之處】	85
讀魯論有感二首	85
輓高柳南光永三首	86
輓族姪後谷南善起疇	86
輓崔後素季鷹翔鉉四首	86
孝烈婦金氏贊【羅州】	87
金氏五孝閣【靈巖】	88
秉天祠詩會【光州】	88
永樂亭【吳峻庠所築,綾州】	88
賀族大父度支部主事友松回晉【名祐讓】	88
元曉寺重建後,與諸益敘會	89
過族叔官植廬墓二首	89
觀水亭【吳別業,羅州】二首	89
輓徐南秀桂洙三首	89
輓石西金贊敬相基	90
輓族兄愚堂丙憲	91
吳洪善母夫人朴氏烈行贊【靈巖】	91
華菴朴在春壽筵【長城】	91
題奇權燮瑞谷齋【光州】	91
菊堂金炳秋壽筵【靈巖】	92
東湖蔣時穆壽筵【光州】二首	92
題朴淑鉉一松堂【光州】	92
過金蘭隱炯植釋菜壇【靈巖】二首	93

次朴淑鉉先大人竹沙晴庄韻【光州】	93
南平校宮雅會二首	93
題姜大澤瑞雲堂【靈光】	94
題辛承萬鳳菴亭【玉果】	94
輓族兄時軒先生	94
濟州梁氏七旌閭世阡立碑設筵感吟【羅州】	95
大丈夫	95
誠敬	95
嘲世 其一	95
嘲世 其二	95
洗兵車行	96
有感	96
過寶城吳氏孝烈旌閭, 次李觀察根濫韻【綾州】	96
書懷	96
帽巖尹在甲壽筵【光州】	97
題羅東琳顧恩新築【靈巖】	97
孝烈婦豐川任氏贊	97
密陽金氏光會堂【忍菴金昌憲之宗會堂, 光州】	97
題朴炳洪竹圃亭【潭陽】	98
長淵祠【南平文氏】	98
世德祠【晉州鄭氏, 慶南晉州】	98
題邢時伯海隱幽居	98
題金光德微顯齋【長城】	99
題李正奎先大人月湖亭【靈巖】	99
題李正奎雲巖齋【靈巖】	99
賀李基喆豎碣其先大人墓【羅州】	99
題鄭在學老隱堂【靈巖】	100
題邊鎮昇明雲齋【長城】	100
題李在根淨齋幽居【井邑】	100
竹圃朴炳洪壽筵【潭陽】	100

題李容穆寒松齋【光州】	101
題金鎮元素隱亭【潭陽】	101
次曹圭復先大人默軒韻【昌平】	101
省齋李秉然壽筵【光州】	101
次吳采烈醒菴別業韻【鎮安】	102
玉山祠【享月坡柳彭老, 玉果】	102
題朴氏五槐亭【茂長】	102
次文海日大人三槐亭韻【光州, 代家兒起文】	102
題崔秀均慶雲堂	103
良溪祠重建禮成日有感【享青松沈氏三賢, 長城】	103
題朱珽台鹿菴別業【順天】	103
秋淵鄭淵宇壽筵【同福】	103
輓成均館博士李玉山光秀二首【潭陽】	103
輓山水軒邊仁卿鎮壽二首【長城】	104
輓月樵曹秉烈三首【高敞】	105
賀族大父慕窩承俊六十一壽朝	106
題邊鎮夏鰲隱亭【長城】	106
題朴永夏溪隱堂【長城】	106
題邊鎮化耕隱堂【長城】	106
悟齋李昌煥誦甲朝詩, 請和謹步其韻而副之【扶安】	107
崔友泳述壽母有詩, 追和	107
題金棕坤先大人百忍齋【光州】	107
題權炳國梧軒別業	107
全州題詠十五【有小序, 見序卷】	108
慶基殿【與肇慶廟, 連牆。其壯麗, 勝於肇慶廟。奉安太祖高皇帝辟容而享之。】	108
紫滿洞【全州市東, 有麒麟峯, 聳立爲全市之鎮山。山之一枝, 若飛若舞, 逶迤屈曲, …】	108
梧木臺【全州市中央之鎮山也。自麒麟峯西南落峯, 逶迤重重, 起伏之下, …】	108
豐南樓【卽全州城南門樓也。木造二層, 七楹極壯麗。朝鮮英祖年間, 經火燬圮, …】	109
謁文宣王廟【在紫滿洞之南, 全州川之北。丹雘華麗, 構造宏壯。庭下東中西三行, …】	109
風詠于寒碧堂【堂在市之東南川之濱。木造瓦葺二層, 下層石柱, 立於川流之中, …】	109

玉流洞, 謁崔欽齋秉心【寒碧堂之北, 數十步之地, 鐵道上有泉, 湧出于石壁, …】… 110

清水洞, 訪黃喪制瑞九, 信宿五夜【黃友, 自興德郡九水里, 移居于此, …】… 110

青鶴樓【在全州川之南西畔, 數十步突兀處, 石梯飛上, 疑若玄圃, 閭風朴基順…】… 110

食紫蟹【全州川產紫蟹, 至秋大肥, 味勝芻豢。漁者, 橫斷川流而障之, 中間一處, …】… 110

菁根【全州俚語云, ‘梨不如菁, 妓不如知印’, 盖云菁味之珍佳, 知印之治客也。】… 111

過三禮, 感慕族祖谷城公鍾聞遺躅, 追次參判鄭東溟斗卿贈… … 111

花園洞, 訪曹教授龍承, 讀洪流巖萬選所著山林經濟, 有感【曹友, …】… 111

大覺寺逢老釋【寺在麒麟峯之南中麓, 路通全州南中學校前, 創立未久之一小刹也。】… 111

忠州慕賢亭, 次族大父判事祐夔韻【亭在忠州金加面荷沼里, 後山之絕頂。】… 112

天安三距里垂楊 …… 112

謁族祖晚退堂貞翼公影幀【公名萬朝, 號晚退堂, 九按藩節, 歷史禮判書, …】… 112

天安日峯山, 拜族祖耳溪文獻公墓【公名良浩, 典文衡。】… 113

忠州高山臺, 拜族祖蒼崖忠獻公墓【公名景輔, 官大司憲。英祖戊申, …】… 113

燕岐箕筍洞, 拜族祖月峯景憲公墓【公名竇, 官左贊成。宰原州時, …】… 113

踰車嶺【公州】… 113

廣亭旅舍【公州】… 113

宿金蘭洞【公州】… 114

彈琴臺【忠州。新羅時, 于勒仙人彈琴處。】… 114

金生寺【忠州。新羅, 善書者金生遊處。】… 114

次錦城校宮諸彥餞春韻 …… 114

賀族大父松雲承萬壽朝 …… 115

愚溪亭【長城, 慕峴申仁植之居。長城北二面白岩】… 115

農隱堂【宋應浩。高興馬輪, 宋孝變之祖父別業】… 115

直軒【長城, 邊武淵之居】… 115

謹次漾碧亭韻【叔祖參議公諱澄之別業。舊在花浦上, 中經兵燹而圯, …】… 116

秋風嶺車中 …… 116

早發龍宮, 誤向栢石浦… 116

自栢石浦, 越嶺沿江數里, 渡醴泉上街津… 116

暮渡芝尺津 …… 116

直學公墓 …… 116

洪崖公墓	117
申城齋室夜話	117
登蒼巖亭, 謹次洪崖先生原韻	117
豐山懷古	117
洪井	117
鷹巖山大提學公墓	118
過高陽城山村郎將公遺墟	118
感慕郎將公節義	118
郎將公墓	118
南平公墓	118
族兄杏下翁壽筵【谷城石谷, 洪俸憲】	118
松沙先生文集刊所有感【庚午始役, 壬申訖功】	119
和朴兄永鳳澹對軒懷古韻【昌平節山】	119
輓鰲南金先生【長城黃龍面玉井里】	119
題太峯亭【潭陽崔京煥考槃之地。門生等起亭。潭陽】	120
賀崔敬堂允煥回甲【光州】	120
蘆沙先生淵源錄刊所有感	120
蘆沙先生淵源錄刊所, 歲暮紋別	120
庚子正月晦日, 蘆沙先生淵源錄刊所惜別	121
秋日卽事二首	121
丹楓	121
光州旅舍冬至	121
夜訪辛春岡洪烈	122
贈春岡	122
三愧亭【光州西林, 文瑜植海日大人】	122
賀呂雲沙文強八句萱闈下回甲【玉果, 今谷城郡梧山面龍溪里】	122
石樵精舍【昌平支石里, 梁宗鑄所築, 今潭陽郡南面】	123
後山精舍【綾州大谷里, 朴炳容所居, 今和順郡綾州面】	123
登曹氏富春亭, 次板上韻【亭在綾州牛峯, 筏橋邑七洞里, 曹萬燁之先祖亭】	123
蘇海亭【光州芝山面日谷, 盧蘇海鐘龍別業, 軫永先考】	123

月坡堂【光州市月山洞, 金永萬所居】	124
和曹桐雲圭復追慕父師韻	124
和曹桐雲圭復自敘	124
新春	124
河東花開洞, 次用一蠹先生韻【庚子二月二十日】	125
過河東岳陽樓, 用古人登岳陽樓韻	125
姑蘇臺, 用楓橋夜泊韻	125
晉州矗石樓, 用前人韻【二月二十一日。按高麗恭愍王十四年樓成, …】	125
又用忠毅公崔日休堂臨訣韻, 弔古	125
樓下江干有門, 庚申秋, 因慶尙兵使南公德夏狀聞, 特命旌表, …	126
自望美樓, 西至彰烈祠審謁	126
矗石樓前有旌忠壇碑, 字蝕不可讀	126
飛鳳樓, 次圃隱先生韻	126
逢全達洪, 過栗里精舍【其大人基柱, 號菊圃, 鄭老柏軒門人。…】	127
次養正齋韻【晉陽郡文山面葛村里, 金繪泰, 老柏門人。其子祐敬請詩】	127
宿仁谷書堂, 用板上韻寫懷【山清郡丹城面九印里, 權而堂書室。子昌鉉】	127
過丹城赤壁【有宋尤菴筆蹟】	127
登宜寧鳳凰臺, 用李白金陵鳳凰臺韻	128
到伽倻山紅流洞, 用孤雲先生韻	128
海印寺紅霞門, 次林石川億齡韻【寺在陝川郡伽倻面繼仁里—0, 住持李青潭】	128
觀八萬大藏經板	128
登學士臺【臺上有孤雲先生手植檜, 大可數圍, 內務部長官崔仁奎, 立碑記實。】	128
次孤雲先生入山贈老僧詩	128
與而翁朴文丈仲豪·呂雲沙文強·鄭溪軒昇卿, 宿海印寺夜話	129
挽李翠雲元雨	129
遊金陵鏡布臺	129
逢崔芝村翁炫芝村庄敘懷	129
鳩林諸君子, 朴荷汀燦宗·崔芝村炫·朴龍在·朴根在·崔洪燮	129
桐雲曹兄圭復甲朝敘懷, 求和謹次【庚子三月二十九日】	130
輓月臯朴公哲鎬四首	130

到三嘉勿溪, 宿老柏書舍【今陝川郡雙柏面陸里, 卽老柏軒鄭先生載圭書舍】	130
老柏書舍釋茶有感【庚子三月十日】	131
鄭溪軒昇卿鉉豆周甲, 敘懷追和【方居釜山市凡一洞六洞會七統五班】	131
次金聖瑞相圭溪堂韻【陝川郡龍洲面黃溪里】	131
宿池氏桂陽齋, 次板上韻【陝川郡太陽面桂洞, 池亭源】	131
曹友圭泰誦其先大人正煥松隱堂韻求詩, 難孤其意謹次【靈岩郡…】	131
金曉堂文鈺挽詞	132
次姜遜菴韻【長城郡黃龍面玉井里, 信彩大人】	132
次姜信彩荷潭韻【長城郡黃龍面玉井里, 遜菴子】	132
謹祝伯兄六十壽筵	132
漢城關門樓卽事	133
登終南山八角亭	133
九月十六日, 登三角山白雲台	133
登北漢山城	133
牙山細橋, 訪族姪起駿	133
留別族姪起駿	134
枕漱亭次板上韻【綾州】	134
三過溫陽溫泉	134
禮山合德驛, 望唐津平野	134
雞龍山甲寺, 嘲尹德榮良成庄	134
後山齋雅會	135
輓梁正齋先生三首	135
相宜亭【谷城石谷面蓮洞, 丁宗杓請。丁大睨大塔兄弟】	135
姪兒起培中高試感題【壬寅春】	135
起培還家日又題	136
吾洪氏譜四重修, 始辛丑二月, 壬寅六月功訖, 余以不材, …	136
癸卯元朝	136
癸卯元朝翌日, 得家兒起株書, 喜述	136
自昨歲臘月初四日, 雪連不止, 至癸卯春正月二十日, 雪高四五尺	137
病瘧浹月信口成吟	137

春日卽事	137
次金掃山舜衡鍾植望墓臺韻【慶南宜寧郡宮柳面正東里, 金昌仁先人】	138
題呂雲沙文強昌鉉三九亭【谷城郡梧山面龍溪里】	138
安孝子會淳居廬圖	138
雙峰寺	138
與朴成韶永鳳·安建五極淳, 遊雙峰寺二首	138
敘別朴成韶·安建五	139
後山庄贈朴友炳容【和順道谷面大谷】	139
挽鄭巽岡麟采二首【高敞郡高敞邑月山里, 鄭淳益大人】	139
次李進士奎憲竹下亭韻【長城珍原面, 李啓昉先大人】	139
挽李桂隱教洌	140
與呂雲沙昌鉉·奇莊軒老章, 遊智異山華嚴寺	140
贈小源居士李泳奎【求禮郡馬山面沙圖里】	140
講修齋, 贈金顧堂奎泰【求禮郡土旨面金內里】	140
贈別李小源泳奎	140
示同研諸友	141
讀河西先生示門人詩有感, 謹次	141
與鄭厲菴道鉉·金顧堂奎泰·宋述菴在晟·金碧農相晉	141
草洞精舍, 贈安兼山秉柝【求禮郡文尺面土金里】	141
澹對軒次李參判韻【號齋齋, 名建昌】	141
次李春田赫晬日感懷韻【光州市鷄林洞】	142
生朝周甲志感【甲辰正月十九日】	142
次龍坡晴庄韻【長城郡黃龍面黃龍里, 金源得先大人堂楹】	142
寒食	142
新鷺	142
華陽洞巖棲齋重修志感【清州市壽洞三八六四七, 朴東箕號小偵貫尙州集詩】	142
次金源益春園亭韻【長城黃龍面黃龍里】	143
金春園源益甲朝有感懷吟, 謹次	143
金顧堂奎泰·安兼山秉柝·李松儂東範, 聯筇來訪, 皆是積歲顏面, …	143
又步前韻贈三兄	144

同奇莊軒·韓的悟旭東·朴石泉永鳳·崔春江日錫, 夜發長城邊君…	144
奇莊軒韓的宿宿鄭東樵喆煥書庄, 因與東樵聯筇來訪, 步前韻共賦	144
壽莊軒晬筵	145
宿慶州市鷄林館聞鷄聲二首	145
謁新羅太宗武烈王陵追感, 得名臣金大角干庾信成統三偉勳	145
奇莊軒【伯氏作】	146
光州雲菴莊, 與雲沙顧堂的悟朴兄永鳳崔春江兄, 夜話	146
次鄭兄尙珪東樵咏	146
次鄭東樵兄生朝感題韻四首	146
次東樵自咏【伯氏】	147
次東樵生朝韻【伯氏】	147
守敬堂【忍齋崔仁煥讀書室。光山大村面良菴里崔允煥】	148
次泥山精舍十詠【敬堂崔允煥讀書室。良菴里泥場】	148
泥山精舍	149
詠歸書院重建有感【谷城郡兼面玄亭里, 許基洪】	149
次崑巖自詠【和順郡道谷面元花里, 文泰植】	149
月坡曹泰鉉姑未相斂, 聞其晬日, 有詠賡和【潭陽古西月田】	150
次松湖自詠【靈岩西湖面鳩林里, 曹永鉉】	150
安兼山秉柝余之庚友, 而以四絕壽, 余謹步其韻壽安兄	150
甲辰除夜	151
澹對軒齋宿, 夜與諸君子共賦	151
筏橋旅舍思鄉【乙巳夏, 正齋集刊時】	151
風詠契軸【代朴夏求作】	151
輓李圓臺源台	151
聞邪教設法會	152
溪隱亭【先人】	152
又【自作】	152
辛春岡洪烈壽筵【乙巳五二一】	153
風詠契軸	153
旅舍雨夜	153

秋興	153
澹對軒，與友人共賦	154
九月二十八日風詠契軸	154
輓金顧堂奎泰	154
輓梁石蕉炫承 二首	155
洛州客館，聞朴後山炳容壽筵之設，未赴替謝	155
後塘梁兄在櫳，馳書要作一日之遊，與宋雲江宰秀·鄭東樵	155
集成祠	156
次東樵除夕韻【乙巳】	156
次東樵元朝韻【丙午】	156
次南隱韻【高興郡南陽面里，金永厚大人號南隱】	156
謹次金東谷丈俊植遊瑞石韻	156
謹次齋洞書院重建韻【享西齋宋忠剛公侃以下十餘位。在高興郡東江面…】	157
宿後山書庄，贈主人	157
昌平曹氏聚斯堂【潭陽郡古西面芬香里，曹圭復】	157
烈婦海南尹氏贊【鐵川杏亭，鄭公明一夫人】	157
又【伯氏】	158
松園亭【潭陽古西面院江里，鄭海哲】	158
石泉庄，和鄭東樵·辛春岡·朴石泉諸益韻	158
暮過長城驛逢雨，宿邊時淵梅社	158
題邊時淵詩軸	159
梅社夜話	159
光州社稷壇夜賞櫻花	159
與東樵·春岡·石泉·高南農·光七·林綠泉·東漢，共賦	159
與雲沙·莊軒·東樵·石泉，登綾州映碧亭，次板上韻	159
羅州仁德亭移建落成有吟【舊在東門內蓮池畔，丙午移建于南山】	160
麥浪	160
題食山趙氏松齋【細枝食山，曹炳萬】	160
與雲沙·莊軒·東樵·石泉，遊無等山莊	160
仁德亭飲落翌日，賡吟	160

輓金雲坡丈珍鉉 三首【光州市龍鳳洞】	161
綠陰	161
登光州風詠亭	161
題風詠契軸【修契于孔泗隱家】	162
壽孔泗隱思烈【長城北二面晚舞里】	162
申知事庸雨碑成呼韻	163
祈疆土統合	163
登濯斯亭【尹芝菴杖屨之所。在南平藍石前砥石江畔】	163
丙午秋高山書院享禮，述菴宋在晟自湖西之連山，江陽李世榮	164
丙午九月風詠契，會于羅州草洞南沙亭【李東範先大人啓善氏所建】	164
謹次大老祠重修感慕韻【在驪州，享宋尤庵。述菴宋在晟請】	164
次鄭安錫松隱堂韻【光州市長燈洞】	165
朴友夏求感懷周甲晬日有詩，步其韻而贈 二首	165
山浦暮車口占	165
丙午除夕，次東樵韻	165
丁未元朝	166
次武珍吟社韻	166
題挽湖亭【鐵川】	166
謹次大老祠重修感慕韻	166
與朴石泉·尹石村丁鏡，會于牛山朴石泉書庄，夜話	167
顧堂文集刊所吟	167
次武珍吟社三月軸韻【遊社稷公園】	167
翌日再會于社稷公園	167
澹對軒，逢宜寧田溶求·三嘉鄭文永，與南北諸儒共賦	167
竹溪奉公時中旌閭重修拈韻	168
丁未四月十七日，修風詠契于毅齋魏錫漢庄	168
登天冠山【毅齋具酒肴午餐，使從者五人負而共登時，契會諸友百餘人，共登望成人海】	168
呈毅齋	168
輓金松塢基鉉【羅州公山面白沙，子瑛煥瑛燮】	169
與光羅詞友二十人，會于桂陽李氏湛樂堂【李慶鎬連編】	169

謹次光州風詠亭韻 并小序	169
汕巖邊君時淵書庄夜酌	170
留汕巖庄, 惺堂金丈熙駿, 適有臨駕, 奉呈行幃下	170
傷時	170
留別邊君時淵	170
光州忠孝里拜金忠壯公德齡廟	170
丁未秋澹對軒, 與省內士友會話	170
丁未菊秋念七, 風詠契會于澹對軒	171
陪舍伯與雲沙許柏軒俊康, 會于全州姜菊史璘庄	171
全州老松洞, 訪月潭金詞兄載石, 不遇	171
月潭書謝未遇, 謹呈二絕求和	172
忠孝里, 呈金惺堂丈熙駿 三首【光州市忠孝洞】	172
龍山祠【鐵川】	172
與金月潭載石·宋雲江宰秀·鄭東樵·羅月坡鍾瑾·李暘谷慶鎬, …	172
和朴孟鎮德泉庄韻【高興東江面馬輪德村】	173
登玉果沈氏涵虛亭, 次板上韻【今谷城郡立面霽月里】	173
康友麟煥, 請其王大人珠溪翁雲泳龍岡亭韻, 追次【高敞雅山龍藏里】	173
邊君汕巖庄雪月夜, 金毅齋黃中見訪	173
用前韻贈邊敬仲時淵	174
留汕巖庄, 適有長城諸友, 會而詠松次韻	174
又與諸友賡吟	174
輓任農隱珽淳 二首【夜山】	174
賀朴石泉成韶兄八旬萱幃下晬筵【戊申三月十五日】	174
戊申春高山書院享禮畢拈韻	175
福川諸士友築藍川亭, 有題詠追次【光州鷄林洞一區八班, 姜孟秀】	175
冠山任氏築室於其先祖三島公啓英遺墟, 龜山因地而名亭, …	175
挽崔蘭坡潤暈 二首	175
戊申四月十六日, 風詠契會于許柏軒俊康庄【任實三溪木洞】	176
呈柏軒許大兄俊康	176
訪柏軒	176

輓柳松隱洪烈 二首【光山郡本良面德林里, 柳在萬先大人】	176
登南原廣寒樓, 見庭畔垂楊, 想春香故事 二首	177
筆巖書院齋宿, 與朴石泉永鳳·李月洲康炫·尹石村丁鏡·羅誠齋	177
謁高山書院, 次鰲山吟社諸友韻	178
戊申九月十二日夜, 澹對軒齋宿唱斂	178
戊申九月二十七日, 風詠契會于澹對軒	178
勤次雪谷鄭先生誦憶先祖洪崖先生韻	178
畝長書院誌將刊, 院任丁炳直·辛昶夏·李學庸, 馳書請詩【靈光郡…】	179
洛東書院禮成拈韻謹次【慶北達成郡月背面上仁洞, 配禹玄寶諸公, …】	179
李誠菴裕興建寓葛亭於天安, 其子圭錫求詩	179
文忠祠禮成景仰韻【忠南大田市, 享淵齋宋文忠公秉璿】	180
瑞岡祠禮成拈韻謹次【光州市芳林洞八二〇一。享尹太師莘達·文肅公璿…】	180
己酉四月初五日, 風詠契會于澹對軒	181
宋友奉銓築錦原亭, 余因其請而記楣又索韻次題	181
留別鄭逸齋泓采【高敞邑月山里】	181
附逸齋韻	181
聞美人乘阿拂老機翫月世界詠而記之	181
朴瑋來母清道金氏贊【南原郡阿英面引風里, 朴瑋來】	182
挽東谷處士金公俊植 三首【長城郡黃龍面水山里】	182
次栗隱堂韻【宋在檜先大人, 光州市東雲洞栗谷】	182
挽柳農菴斗錫【潭陽郡昌平面維谷里, 柳漢相】	183
柳友時重大夫人長水黃氏挽 二首【昌平面維谷】	183
挽許古觀憲【任實郡三溪面德溪里木洞】	183
挽李月潭承雨【任實郡三溪面斗月里】	184
挽李可石浩信【靈光畝良面嶺陽里】	184
金友禎奎壽筵	185
鄭逸齋兄泓采雨中來訪, 信宿見贈謹酬 二首【七月十九日】	185
附原韻【逸齋】	185
訪朴兄永鳳牛山庄, 鄭逸齋·鄭東樵二兄昨來有吟, 追次	185
附原韻【逸齋】	186

庚戌早春	186
挽朴春坡日圭【光山郡河南面安清里, 朴鐘燮鐘玉鐘參鐘弼先大人】	187
挽朴易齋魯烈【光山郡河南面安清里, 朴敏圭先大人一名泰圭】	187
詠犬	187
龍	187
謹次石陰朴先生魯述風泉臺韻【光山郡河南面安清, 朴鐘燮】	188
庚戌二月筆巖書院齋宿, 與湖西懷德宋鶴在·嶺南河東金·關東·	188
月皐朴公哲鎬歿于庚子春二月, 十年之間三遷幽宅而終卜允臧。·	188
梅亭朴公敏熙, 隱居高興之東江, 善養其親, 聞其行而風詠者多, ·	189
權成均館長重海, 見明倫堂前古樹有鵲巢, 歲久罅隙, 春到拾·	189
附原韻【權重海, 成均館長】	189
聞成均館前古樹鵲棲育雛, 感集賢殿故事, 吟呈權館長重海	189
澹對軒享禮畢而設講, 與高雲海在鳳·呂雲沙昌鉉·鄭逸齋·	190
拜深隱李文靖公隨竹林書院	190
道南精舍, 奉厚齋洛淳講道之所也。其門人設講會, 余行萬谷祠, ·	190
奉默軒汝諧萬谷祠【默軒, 端宗朝殉節。朴彭年妹夫。長城郡森西面·】	190
謹次桐江釣臺韻【昌平曹氏, 曹桐江名國幹所築, 宣祖時人。光州市鷄林洞·】	190
訪鄭松石潤植【光州市西洞】	191
過鄭昌洪石松齋, 聞曾殉國於庚戌【南原金池面梅村, 有孫吉朝】	191
讀弔屈原賦, 擬弔屈原韻	191
九月十五日澹對軒風詠契會	191
庚戌八月二十三日筆巖書院齋宿	192
挽莊軒居士奇老章三首	192
文三梅堂驥行捕虎歌【光州市東明洞二區二0九01-三三班。元住, 寶城郡·】	192
挽普亭居士金正會【高敞郡高敞邑道山】	193
金春園源溢·金碧農相晉二兄, 與邊友敬仲時淵, 約訪弊庄有年, ·	194
附原韻	194
辛亥元朝, 和鄭祖憲韻	195
附原韻【鄭祖憲。忠北陰城郡金旺面道晴里】	195
謝陰城鄭祖憲贈丹兼祝歲韻	195

附原韻	196
謝高省窩在益寄書祝歲【長城郡黃龍面月坪里】	196
新春逢友敘懷	196
辛亥二月二十六日, 筆岩書院齋宿拈韻	196
河晚松應雲壽筵【光州市龜洞】	196
辛亥四月二十二日, 澹對軒風詠契	197
閑居	197
八月十一日丁巳筆巖書院齋宿, 與安蓬山鍾宣·宋誠齋在直諸兄共賦	197
挽月潭居士金載石 三首【全州市南老松洞一八〇의八, 月潭子鍾燮】	198
挽朴石泉永鳳	198
又挽【代舍伯】	198
挽宋述菴在晟 四首【大田市宣化三洞一六三】	199
酬鄭祖憲見贈	199
疊前韻次鄭祖憲歲暮感懷吟	199
挽許栢軒俊康 四絕【任實郡三溪面木洞】	200
賀昌平水北學求堂重建韻【潭陽郡水北面大舫里, 禹源鍾】	200
昌平禹二有軒先生祠宇下講堂重建飲落【前同人】	200
賀柳東江漢相八句萱閣下啣筵【潭陽郡昌平面維谷】	201
壬子六月之旬, 爲謁奇莊軒老章墓碣, 與莊軒二哥達舒, 訪權心齋	201
附原韻【心齋】	201
挽宋雲江宰秀	202
九月二十六日風詠契講信于長城白羊寺【契員朴南淳獨擔供備】	202
翌日躡白巖山, 經淳昌福興, 至井邑內藏寺	203
滯雨宿僧房	203
國巖祠禮成有感【靈巖郡西鳩林, 祀崔敏休公知夢】	203
次鄭祖憲癸丑正朝見贈韻	203
附原韻【鄭祖憲】	204
風詠契會【谷城郡兼面玄亭里, 許基洛氏宅, 詠歸書院】	204
謝鄭祖憲歲暮寄丹見贈韻	204
附原韻	205

挽族大父松山承俊【金安洞】	205
鰲山吟社會于長城超然亭	205
忠州荷江書院重建禮成拈韻謹次【忠州鄉校連絡事務所, 忠州市中央市場二層】	206
遊咸平百花亭次板上韻【咸平月也面外峙里, 翠松鄭基永修風詠契】	206
百花亭修風詠契	206
南原雲溪書庄風詠契會【任實郡屯南面屯基里, 主人李甲儀, 全州人, 乙巳生】	207
超然亭雅會	207
賀南江金容傑詩韻入格	208
贈邊敬仲時淵	208
讀松江先生文集有感	208
人和	208
次鄭雲鎬野隱韻【延日人, 進士熙源三男, 居古阜鎮長里, 現住, 釜山市大淵洞】	208
次奇長衍平齋韻【長城】	209
彈琴臺懷古【伽倻樂師于勒, 頻來彈琴, 故因以名臺, 壬辰亂, 忠壯公申砮, 殉節于此。】	209
忠州慕賢亭【族祖文敬公慕堂先生, 杖履之所】	209
謝李春谷詞兄康中寫送十幅屏書行【丙辰臘月】	210
曹龍岡翁舜五秉采回香筵【丙寅】	210
丁巳八日	211
鰲山吟社	211
次李斯文繼曾潤惠題榮州彰義亭韻	211
義士徐在承, 純宗乙巳舉義殉節	212
次石南齋韻【光山三道面】	212
風詠契會聚斯堂	212
桐江釣臺	212
鰲山詩友會于超然亭	213
戊午孟秋晦前五日, 金毅齋黃中·金碧農相晉·金春園源益來訪時, …	214
農菴柳公斗錫回香歌引【昌平面維谷, 柳漢相】	215
一玉鄭公圭永孝行贊【忠清北道陰城郡金旺面道晴里, 鄭祖憲】	215
謹次尹濯斯亭韻	216
餞春【庚申】	216

憂國【鰲山吟社】	216
吳君成根華甲述懷追和【光山君本良面明道里】	217
又【鳳岡】	217
追次朴在文省楸感題韻	217
追次朴在文慕其先德有感韻	217

## 卷二 書

書	221
與權昌鉉【慶南山清郡丹城面枝洞】	221
與金相圭【慶南陝川郡龍洲面黃溪里】	221
與池亨源【慶南陝川郡大陽面桂洞】	222
與鄭文永【慶南陝川郡雙柏面墨洞】	222
與金昌仁【慶南宜寧郡宮柳面正洞】	222
與鄭燦益【高敞郡高敞邑月山洞】	223
與曹圭泰【靈巖郡德津面長善里】	223
答申鴻淳【忠北報恩郡外俗離面下開里 宣炳翰言, 見住光州市】	223
南康書院儒會所僉座下【康津郡康津邑鄉校里】	224
與洪千植【光山郡本良面山陰里】	224
與奇莊軒老章【癸卯三月】	224
詠歸書院儒會所僉座下【谷城郡兼面玄亭里, 癸卯三月十八日復設禮成, …】	225
答洪潤植【和順郡春陽面牛峯里, 癸卯三月十四日寒食, 豎碑】	225
答金昌仁【慶南宜寧, 癸卯四月】	225
與呂文強昌鉉【谷城梧山面龍溪里】	226
與許愼菴基洪【谷城兼面玄亭】	226
答鄭泓采【高敞郡高敞邑月山里】	227
答鄭燦益【高敞月山】	227
答尹滋永尹奇赫	228
與李連鎬【羅州細枝面桂陽里】	228
與李昌休【和順郡綾州面萬仁里】	229

與金顧堂奎泰【求禮郡土旨面金內里】	229
與李弘信【和順郡春陽面澗里，號又竹】	230
與朴炳容【和順郡道谷面大谷里，號後山】	231
與安秉柝【求禮郡文尺面土金里，號兼山】	231
東湖祠儒會所僉座下【光山郡本良面南洞，享沈氏諸賢。儒林李教采·李禹圭·…】	232
與沈翰求【號桂峯。光州市雞林洞】	232
與李源台【號圓臺，己亥生，眞實人。慶北安東市東門洞四六番六一館，子東俊，…】	232
與李仁圭【長城郡北二面釜洞】	233
與李春田焮【潭陽郡昌平面長田里。現住，光州市雞林洞一區二七坊】	234
與金涵山天洙【長城郡黃龍面玉井里】	234
與朴永鳳【潭陽郡昌平面節山里】	235
與邊時淵【長城郡長城邑梅花洞】	235
奇孫兒七錫【京龍珠洞一九一〇七三統五班，吳培根方】	236
與金源益【號春園，長城郡黃龍面黃龍里】	236
答金源得【長城郡黃龍面黃龍里】	237
與金天洙	237
答老栢書舍儒林僉座下【柳遠洙·鄭鉉宇·沈鎮宅·鄭鉉植·鄭長圭·田溶求，…】	237
與宋基璿【高興占岩面大春里】	238
與邊敬仲時淵	238
與金顧堂奎泰【甲辰九月十八日，顧堂與安兼山秉柝·李松儂東範，訪余一宿，…】	238
上崔汶坡浚【慶州人，甲申生，慶北慶州市校里】	239
與崔植【號小坡，汶坡子。慶北慶州市校里】	240
答鄭尙珪喆煥【號東樵，鐵川】	240
與金源益【長城郡黃龍面黃龍里】	241
與李相睦【靈巖郡靈巖面望湖里】	241
答李東範【號松儂，多侍面草洞】	241
答金顧堂奎泰【求禮土旨金內】	242
答呂雲沙昌鉉【玉果龍溪】	243
與朴聖詔永鳳	244
與金顧堂	244

與鄭東樵	244
與高達林【號鶴圃，乙未生。慶北聞慶郡山陽面平地里】	244
與全炳琮【慶北安東郡豐山面下里洞】	245
答小松遺稿刊所僉君子【寶城郡福內面眞鳳里，安鍾宣】	245
答安鐘宣【寶城郡福內面眞鳳里】	246
與金正會【號普亭。全北高敞郡高敞邑道山里】	246
與金載容【慶南陝川郡龍州面黃溪里】	247
與邊敬仲時淵【長城】	247
與金衡謹【慶北安東郡臨河面川前里】	247
答崔敬堂允煥【光山郡大村面良菴里】	248
與許基洪【谷城兼面玄亭】	248
與文崑巖泰植	248
答安秉柝【求禮文尺土金】	249
花潭書院儒會所僉座下【光山郡極樂面花亭里。梁仲默·羅平集·朴燦奎·崔炳德】	249
與李圓臺源台【安東市東門洞四六六一館。云亡於此書未發之前，可爲忉怛。】	250
答梁燦承【和順郡梨陽面草坊里】	250
答高達林	250
與朴炳容	251
與梁燦承	252
與安龍伯【全南教育廳】	252
與朴鍾鴻【서울大醫院】	252
龜巖祠儒會所僉座下【谷城立面霽月。鄭雲彰·許日煥·金鎮浩·鄭遠乘·辛有善】	253
詠歸書院儒會所【兼面玄亭】	253
與邊時淵	254
與曹秉燦【高興大西面溫洞】	254
與金顧堂	254
與崔小坡植	255
與李東恩【字鶴來。安東郡陶山面土溪里。退陶宗孫源認氏子】	255
與李源裕【安東郡陶山面宜村洞】	256
與權昌鉉	256

與李春田焮	257
答崔基南【號蘭谷。潭陽郡大田面中玉里】	257
答邊敬仲時淵	258
與奇莊軒	258
答朴聖韶永鳳	259
與楊德岡柱赫【寶城郡筏橋邑筏橋里】	259
與安建五極淳【和順郡梨陽面梅花亭】	259
與梁弦承【和順郡梨陽面靑今里】	260
與鄭東樵詰煥	260
答崔基烈【潭陽郡大田面中玉里】	261
答楊德岡柱赫【寶城郡筏橋邑善根橋】	261
答孫正汶【麗水市中莊洞一三〇七〇十, 三拱酒造場】	261
與邊在德【南原郡松洞面嶺洞里】	262
與邊鍾柝【長興郡荅山面鶴池里】	262
與金元錫【靈巖郡西湖面靑龍里蘆洞】	262
與邊文鎬【在德子。南原郡松洞面嶺洞里】	262
與金昌憲在權【光州市良洞一區十五班二五九。本籍, 靈巖蘆洞갈잇골】	263
與朴東龍【長城郡珍原面山亭里】	263
答鄭東樵	263
與崔日錫【靈巖郡西面鳩林】	264
與羅東均【光山郡本良面松林里】	264
與朴燦宗【靈巖郡西面平里】	265
與李慶範【全北扶安郡白山面梧谷里】	265
褒忠祠儒會所僉座下【光山郡大村面】	265
答洪承洙【慶北安東郡豐川面申城浦】	266
答宋孝燮【高興郡東江面馬輪里】	266
與權昌鉉	266
與金燦洙【號醒農, 生庚寅。忠南論山郡連山面林里, 遯岩書院別有司】	267
與洪權植【서울特別市鐘路三街九五, 廣生堂漢藥房】	267
答洪官植【서울特別市城東區下往十里堂峴洞三四五八】	267

與柳維石謙重【一名杓重。潭陽郡昌平面維谷里】	268
與洪千植【光山郡本良面山陰里】	268
與鄭鳳休【昇州郡樂安面內雲里】	268
與申乙浩【順川市五林洞五林亭】	269
與洪承春【光山郡本良面山陰里】	269
與鄭海哲【潭陽郡古西面院江里】	269
上族大父慕菴承俊	270
答許俊康【號柏軒。任實郡三溪面木洞】	270
與許世旭【中華民國台北市合江街三十一巷六號】	270
答安寧勳【光山郡河南面診療所】	271
與文炳斗炳錫炳蘭【和順道谷面元花里】	271
與金永煥永燮永閔【羅州公山面白沙里】	271
與朴	272
與金時雨【慶北安東郡臨河面川前里】	272
答鄭東樵詰煥	273
答洪承秋【和順郡春陽面牛峯里】	273
與邊時淵	273
答高在一【大統領祕書室】	274
答高在一	274
與朴	275
答金月潭載石【全州市南老松洞, 南中學校正門前】	275
答武陽書院儒會書【光山郡飛鴉面月溪里】	276
與金容駿【光山郡飛鴉面, 風詠亭】	276
上金惺堂熙駿【光州市忠孝洞】	276
上金東谷文丈駿植【長城黃龍面水山里】	277
答許世旭【中國台北市龍江街二二九巷十二號】	277
與文鴻柱【서울, 文教部】	278
答任泰洪【龜軒。寶城郡烏城面龜山里】	278
與洪升憲【前財務部長官, 今外換銀行長, 雲植子, 生父霖植。京新堂洞】	279
與柳在萬【光山郡本良面德林里】	280

與李可石浩信【靈光畝良堂壯里】	280
與丁炳直【靈光畝良影堂里】	281
答張泳信【順川市長泉洞二三의一一】	281
答徐羅伐詩壇僉座【慶北慶州市城東洞一〇九의三】	281
答李潤奎【潭陽郡鳳山面齊月里】	282
答崔蘭谷基南【潭陽郡大田面中玉里】	282
與羅平集【光山郡大村面泥場里】	282
答柳漢相【潭陽郡昌平面海谷里】	282
與禹鍾萬【慶北達城郡月背面上仁洞, 洛東書院】	283
與辛有善【谷城郡梧山面鳳洞里。現住, 光州市良洞二區六〇, 新興洋醬店】	283
答金永福【高興郡占岩面大龍里梧里】	283
與金月潭載石【全州市南老松洞, 南中學校正門前】	284
與李仁奎【長城郡北二面釜洞】	284
與洪承澤【羅州文平面龍光里】	285
與洪承勉【서울特別市鐘路區世宗路一三九, 東亞日報社】	285
答楊德岡柱赫【寶城郡筏橋邑善根橋】	286
答李圭錫【忠南天原郡修身面百子里。爲其親誠菴裕興, 寓慕亭請韻】	287
與柳漢相【潭陽郡昌平面海谷里】	287
答洪承玖【老安面金安里】	288
答金月潭載石【全州市南老松洞 一八〇의八】	288
答柳漢相	288
與邊起燮【長城郡珍原面珍原里】	289
茅山祠儒會所僉座下【靈巖新北面茅山里】	289
與金正會【高敞郡高敞邑道山里】	289
答姜周鎮【國會圖書館長】	290
與鄭逸齋泓采【高敞郡高敞邑月山里】	291
與金永燮【榮山浦邑新榮洞, 金永燮醫院】	291
與姜周鎮	291
與鄭逸齋泓采【高敞月山里】	292
與楊德岡柱赫	292

與安重泰	292
與崔春江日錫【鳩林】	293
與洪起奭【서울城北區東仙洞二街三一, 電話940四〇八。子錫禹, 鐘路區】	293
與邊時淵	294
與宋雲江宰秀【雨津】	294
與宋述菴在晟【忠南論山郡連山驛前青銅里】	294
與趙貞熙【全北長水郡山西面桐花里】	295
答李讚熙【全北南原郡山內面立石里。送信處, 南原阿英面引月里 崔圭淵方】	296
答金容肅【忠北中原郡東良面早洞】	296
與金栗山太錫【羅州郡細枝面碧山里】	296
與朴成韶永鳳	297
與金禎奎	297
與楊德岡柱赫【寶城】	297
答李圭錫【忠南天原郡修身面百子里】	298
與邊時淵【長城邑梅花洞】	298
與閔泳軼【同福沙坪。現住, 光州市鶴洞九二〇四 電話(2)七七六〇】	299
與李仁奎【長城釜洞】	299
答金毅齋黃中【長城郡長城邑三街洞】	299
與魯錫徑【光州市公園博物館事務所, 全南博物館長】	299
與洪承澤【文平面普光里】	300
與姜性孝大澗【務安郡海際面山吉里新登】	300
與姜振奎【務安郡海際面山吉里】	300
與宋在檜【光州市東雲洞栗谷】	301
與奇世殷【光山郡西倉面金湖里金府村】	301
與柳時重【潭陽郡昌平面維谷里】	301
與柳漢相漢塚【昌平維谷】	302
與柳維石謙重【昌平維谷】	302
與許康悅 峻疇昉【任實郡三溪面德溪里】	303
與李鉉午 鉉職鉉晉鉉旭【靈光郡畝良面嶺陽里】	303
與李相鶴相默【任實郡三溪面斗月里】	303

與許栢軒俊康【任實郡三溪面德溪里】	304
與奇達舒【長城高山莊軒二子】	304
與任月坡永宰	305
與柳圓石鐘龍【谷城木寺洞面平湖里。現住, 光州鄉校】	305
與邊敬仲時淵	305
與鄭逸齋泓采	306
與金誠齋榮瓘【全北南原郡山東面木洞】	306
與奉春史萬沂【長城郡長城邑三月洞】	306
答鄭祖憲【忠北陰城郡金旺面道晴里】	307
與朴熙泰【光山郡西倉面梅湖里】	307
與朴	308
與權重海【成均館長】	310
答權重海【서울特別市鐘路區寬勳洞一九八】	311
與朴泰三【號鳳岩, 高興郡東江面馬輪里】	311
與朴孟鎮【號德泉, 高興郡東江面馬輪里德村】	312
與朴基炯【高興郡東江面馬輪里】	312
答李仁奎【長城釜洞】	312
答鄭乾永【서울特別市永登浦區禿山洞一四六의三】	313
與洪起奭【서울城北區東仙洞二街三一— 電話0490八, 探求堂, 鐘路區…】	313
與洪錫禹【探求堂, 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0—의一, 電話(2)二00四二00五。…】	314
與洪起薰【서울鐘路區慶雲洞—0—의一】	314
答姜大演李暉行【務安郡海際面廣山里, 元鉢山里】	314
答金昌憲在權【光州市農城洞一九六(三班)】	315
與金碧農相晉【長城郡長城邑泰昌洞】	316
與金春園源益【長城郡黃龍面黃龍里】	316
與金駟洙【號忍堂, 全南長城郡長城邑梅花洞, 長城教育長】	317
與金重千【長城郡森溪面白山里】	317
與邊敬仲時淵【長城郡長城邑梅花洞】	317
與李相儀【南原郡南原邑, 南原鄉校】	318
與鄭吉朝【南原郡金池面梅村里】	318

與朴炳容【和順郡道谷面大道里】	318
與文永來【靈巖郡靈巖面場岩里】	319
與李昌宇【光山郡西倉面金湖里】	319
與鄭燉信【鐵川】	319
與羅承烈【羅州郡金川面古洞里飛鶴】	320
與宋孝燮【高興郡東江面馬輪里】	320
與金熙珪【金安洞, 今潭陽郡教育廳管理課長】	320
與崔金樵善鎮【光山郡大村面良菴里】	320
答金元錫【靈巖郡西湖面青龍里, 元蘆洞】	321
答韓哲洙【長城郡北一面泊山里】	321
答朴堪鉉【和順郡南面節山里永思齋】	321
與羅承乾【羅州郡文平面五龍里】	322
與柳浩錫【全北高敞郡高敞邑蛛谷里, 現佳, 瑞石洞二四〇七】	322
與金相馨【海南郡溪谷面芳春里】	322
與文秉徽【光州市東明洞二區二〇九〇一 三三班, 元住, 寶城會泉面會寧里】	323
與楊德岡柱赫【寶城郡筏橋邑善根橋通】	323
答宋在檜【光州市東雲洞栗谷】	323
與宋旻鎮【光州市忠孝洞】	324
與金丙洙【高敞郡高敞邑道山里】	324
與梁甲洙【長城郡黃龍面筆巖里】	325
與徐相坤【鳳凰面鉄川內洞】	325
與安重泰【鳳凰面鳳洞】	325
答李潤惠【慶北安東郡陶山面土溪洞, 承旨李響山晚燾曾孫】	326
答南廷讚【晉州鄉校】	327
與鄭九錫【慶南晉陽郡二班城面龍巖里】	327
與朴熙泰【光山郡西倉面梅月里】	327
與金春園源益	328
與金碧農相晉	328
與邊敬仲時淵	328
答高省窩在益【長城郡黃龍面月坪里】	329

答鄭祖憲【忠北陰城郡全旺面道晴里】	330
與金樊溪潤東【서울特別市彌阿洞八】	330
與鄭逸齋泓采【高敞郡高敞邑月山里】	331
與金在植	331
與南岡族大父祐相【羅州鄉校】	332
與朴晚醒仁圭【羅州細枝面豐洞】	332
與朴弘軒南圭【光山郡河南面安清里】	332
與金昌憲在權【光州市農成洞一九六三班】	333
與奇玉潭寬【全州市高士洞二街三一四】	333
與金月潭載石【全州市南老松洞一八〇의八】	334
答姜菊史璘【全州市多佳洞一街六〇의二】	334
答崔春江日錫	334
答尹藍亭奇赫	335
與金蒼崖舜東【서울特別市彌阿洞八의二】	335
與族姪起薰【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10의1, 探求堂】	335
與高省菴濟杰【長城郡森溪面綾城里】	336
與邊白下東烈【長城郡北一面聖德里】	336
與金鍾燮【全州市南老松洞一八〇의八】	336
答鄭乾永【서울市永登浦區禿山洞一四六의三】	337
與朴奉洙【務安郡玄慶面牟村里】	337
與奇宇亨【光州市山水二洞三十一班四〇의六七, 柳禧錫方】	338
答宋肯齋孝燮【高興郡東江面馬輪里】	338
與柳承烈【全北金堤郡孔德面黃山里一〇六〇】	339
與李青岡浩呈【光州市弓洞三六】	339
與鄭九錫【慶南晉陽郡二班城面龍巖里】	340
答河炳列【晉州鄉校】	340
答李亨雨【光州市斗巖洞】	341
答崔敬堂允煥【光山郡大村面泥場里】	341
答文忠祠儒會【大田市龍雲洞三五六, 社團法人文忠祠】	341
與崔炳德【光山郡林谷面芳惠里】	342

與宋忠鎬【大田市宣化三洞一六三】	342
答鄭祖憲【忠北陰城郡全旺面道晴里】	342
答宋孝燮	343
與李勉窩瑛憲【咸平鄉校】	343
與辛暲烈【咸平郡羅山面松岩】	344
與鄭翠松基永【咸平郡月也面外峙】	344
與閔敬軒弘基【和順郡清風面船下里】	344
答李載哲【咸平郡咸平邑長年里白蓮洞。現住,光州市柳洞二의九,電話(2)三七六三】	345
答蔡奎泰【全北扶安郡舟山面松亭里】	345
答禹源鍾【潭陽水北面大舫里】	345
答姜菊史璘【全州市多佳洞一街六0의二】	346
與河晚松應雲	346
答權心齋昌鉉【慶南山清郡丹城面校洞】	347
與金蒼厓舜東【京彌阿洞八의二】	348
與許中菴基洛【谷城郡玉果面玉田里,玉春堂藥房】	348
答呂雲沙昌鉉【谷城梧山龍溪】	348
與許世旭【全北任實郡三溪面木洞里。現勤務,서울市里門洞,外國語大學中國語科】	349
答柳維石謙重	350
與姜璘	350
與族孫錫禹【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101의1,探求堂】	350
答族姪起薰【서울特別市鐘路區桂洞一四七의二五,大提閣 舊豐文閣】	351
答鄭祖憲【忠北陰城郡全旺面道晴里】	351
答洪正憲【金安洞】	351
與金樊溪潤東【서울城北區彌阿洞】	352
與金康顯【彌阿洞八의二】	352
與鄭逸齋泓采	353
與奉鎮華【羅州郡老安面琴谷里】	353
與朴隱齋道燮【靈巖郡西湖面陽洞】	353
與李淳泰【寶城郡鳥城面龍田里】	353
與朴恂鎬朴烈鎬【潭陽郡水北面大舫里解舫村】	354

答奉奇鍾【沁石鎮華孫。老安面琴谷】	354
與李鍾善【求禮郡馬山面沙圖里】	354
答金承顯【忠北陰城鄉校】	355
與金駟洙【麗水市教育廳】	355
與族孫錫禹	355
與柳維石謙重	356
與金春園源益	356
與金鳳鉉金洪基【長城郡森溪面水閣】	357
答曹永鉉【靈巖郡西面鳩林】	357
答鄭東樵詰煥	357
與李亨雨【光州市斗巖洞】	358
與康仁煥【光州市柳洞七의二五(五三班)】	359
與金重千【長城郡森溪面面上道里】	359
與閔丙機【海南郡黃山面燕湖里】	359
與權心齋昌鉉【慶南山淸郡丹城面江樓里校洞】	359
與崔春江日錫【鳩林】	360
與洪芳植【金安洞】	360
與邊東烈【長城北一面聖德里】	360
與宋在烈【高興郡東江面馬輪里】	361
與金春園源益	362
與族孫錫禹【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101의1, 探求堂】	362
與康仁煥【光州市西區柳洞七의二三 五三班】	362
與族孫錫禹【서울】	362
答金碧農相晉【長城郡長城邑大昌洞】	363
與鄭翰璟【慶南晉陽郡二班城面荷谷里, 農圃文學十一代孫】	363
與魏毅齋錫漢【長城郡冠山面壹洞】	363
答金源得【長城郡黃龍面黃龍里】	364
答尹錫縉【光州市鶴洞六一四】	364
答金武鎬【潭陽郡古西面東雲里東山村】	365
答柳淙鉉【50221, 長城郡珍原面鶴田里】	365

答洪起鉉【500, 光州市月山洞二洞二班】	365
答鄭祖憲【31211, 忠北陰城郡金旺邑道晴里】	365
與安兼山秉析【54111, 求禮郡文尺面土金里】	366
與金燮溪潤東【서울市城北區彌阿洞八】	366
答柳維石謙重【50013, 潭陽郡昌平面維谷里】	367
高山書院增築補修陳情書	367
與李相京【靈巖郡靈巖面望湖里】	370
筆巖書院執綱金潤東安鍾宣李道衡邊時淵朴均玉僉座【502】	370
黃山祠任員宋興鎮李百休崔炯鎮僉座【50033】	370
與李亨雨【500】	370
與金祖煥【502, 長城郡黃龍面水山里】	371
與宋正燮仕燮七燮【54312, 高興郡東江面馬輪里】	371
與崔興鎮【光州市光山洞二五番地, 大都호텔】	372
與康仁煥【500, 光州市柳洞七의二五(五三班)】	372
秉天祠【任員, 金永萬曹圭復奇世殷高云錫座下。50032, 光山郡西倉面金湖里】	372
鶴山祠儒會所【50032, 光山郡西倉面寺洞】	373
與李亨雨【号晦山。500, 光州市斗岩洞】	373
與高近錫【50032, 光山郡大村面石亭里】	373
答宋元燮【54323, 高興郡豆原面鶴林里】	374
與朴文鎬【543, 寶城郡筏橋邑池上里】	374
答松山祠儒會	374
答曉堂記念事業會【金泮三尹丁鏤羅鉀柱。50045, 和順南面節山】	374
與宋元燮【見上】	375
與鄭海英【光州市雞林洞三洞八五의二0。本籍, 光州梧峙】	375
與朴濟根【光州市山水洞二洞二十九班一九三의五】	376
答奇玉潭寬【520, 全州市高士洞二街三一二】	376
答奇鴻度【300, 忠南大田市紫陽洞二七의四一統一班】	376
與吳基柱【50005, 光州市西區林洞二班七八】	377
與吳成根【50281, 光山郡本良面明道里】	377
與崔炯鎮【50033, 光山郡大村面良菴里光谷】	378

與曹桐雲圭復【500, 光州市雞林洞三區二五二, 東和堂】	378
與奇玉潭寬【520, 全州市高士洞二街三一四】	378
與朴濟根	379
答權寧珏【380, 忠北忠州市市場二層, 忠州鄉校連絡事務所】	379
答邊時淵【502】	379
答奇玉潭寬【520】	380
答金相晉【502, 長城邑泰昌洞】	380
答奇鴻度	380
德林祠 儒林 僉座下	381
答奇玉潭寬	381
答姜璘【520, 全州多佳洞一街六〇의二】	382
答金源益	382
與李珏鉉【長城郡珍原面珍原里】	382
與李均相【長城郡珍原面珍原里】	383
答鄭東樵詰煥	383
與朴鍾璉【細枝面楓洞】	384
答柳奇遜柳得鉉【50281, 光山郡本良面德林里古岩】	384
答奇鴻度	385
答宋在檜柏軒【500-5, 光州市東雲洞栗谷】	385
答鄭雲翰【500, 光州市豐鄉洞三八】	385
答筆巖書院掌議金潤東安鍾宣邊時淵朴均玉【502】	386
答金源益【502】	386
與奇鴻度【300】	386
與曹基柱【50014, 潭陽大德面安養里】	387
與朴誠堂哲洙【52002, 現住, 서울特別市佛光洞二八〇-六五七, 本, 海南花山面月湖里】	387
與朴秉日【500, 光州東區錦南路五街二一三, 醫學博士全大教授, 東洙子哲洙姪】	387
答高愚下允柱【50011, 潭陽郡古西面校山里】	388
與李春谷康仲【任實郡屯南面新基里】	388
與李雲溪甲儀【任實郡屯南面屯基里】	389
答高光秀【50013, 潭陽郡昌平面柳川里】	389

與高永俊【50013, 潭陽郡昌平面柳川里】	390
與李柏軒震行【50128, 靈光郡大馬面元興里】	390
與曹桐雲圭復【500】	390
答李柏軒震行	391
與曹桐雲圭復	391
與羅甲運【59181, 文平面五龍里】	392
與李竹軒仁奎【長城郡北二面釜洞】	392
答李鍾萬【59026, 靈巖郡西面蜈山里】	393
答魏毅齋錫漢【59048, 長興郡冠山面堂洞】	393
答吳成根【50281, 光山郡本良面明道里】	393
答柳謙重維石【潭陽郡昌平面維谷里】	393
答禹源鍾【潭陽水北面大舫里】	394
與黃秉俊【59020, 靈巖郡靈巖邑龍興里鳥谷里】	394
答崔圭太【59026, 靈巖郡西面鳩林, 國巖祠掌議】	395
答金鍾燮【520, 全州市南老松洞一八〇-八】	395
答月潭遺稿刊所書【520, 全州市東樓鶴洞 <sup>이</sup> 三番地, 三省印刷社, 總務吳炳根, …】	395
答申元植【520, 全州市金巖洞二街五四五 <sup>의</sup> 五】	396
與高在昇【在潒在烈在辰在檄, 泥村光維子。光山郡大村面泥場里】	396
與金相會【達浩子。59025, 靈巖郡西湖面華松里】	396
與閔鍾淵鍾文鍾大鍾杰【敬軒弘基子。50076, 和順郡清豐面細清里】	397
與朴鍾垠【後山炳容子。50072, 和順郡道谷面大谷里大道里】	397
與尹菊軒堯重【50114, 光山郡三道面大山里】	397
答蔡奎泰【55051, 全北扶安郡舟山面松亭】	398
答荷江書院儒會書【38014, 忠北中原郡金加面荷潭里】	398
答長淵書院儒會書【500, 羅州郡南平面楓林里】	398
答山仰齋儒會書【吳寅泳柳相烈趙光萬柳謙重徐鍾植金漸圭安恒善。54182, …】	398
答奇鴻度【300, 大田市紫陽洞】	399
與邊敬仲時淵【502】	399
答高山書院掌議【50221, 朴南圭柳謙重羅鉀柱朴南淳柳淙鉉】	399
答吳成根【50281, 光山本良明道】	400

與吳海烈【500, 光州市西區農城洞九二의一二(二七班)】	400
答蔡奎泰【55051, 扶安郡舟山面士山里松亭部落】	400
與族孫錫禹	401
與族姪起薰	401
與李克軒冕雨【56025, 全北高敞郡古水面禮智里】	401
與金武彬【54315, 高興郡占岩面梧里】	402
與金永福【54315, 高興郡占岩面梧里】	402
與曹毅煥【500, 光州市山水二洞三十八班五三七六, 曹毅煥子曹基昌】	402
與丁宗杓【500, 光州市東區山水洞五一五의二九】	403
與族孫錫禹【110, 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一〇一의一, 探求堂】	403
與族姪起薰【110, 서울特別市鐘路區桂洞一四七의二五】	403
與孔鍊雄【潭陽郡水北面大舫里】	403
與蔡奎泰【全北扶安郡舟山面松亭里】	404
與金容肅【忠北中原郡東良面旱洞】	404
與鄭同周【57012, 鳳凰面竹谷】	405
與鄭文基【57012, 鳳凰面鐵川水閣】	405
與徐相烈【57012, 鳳凰面鐵川馬洞】	405
與宋在檜【光州市東雲洞栗谷】	405
與宋熙貞【光州市東區南洞九一】	406
與吳成根【50281, 光山郡本良面明道里】	406
與崔敬堂允煥【光山郡大村面良菴里】	406
與鄭海英【光州市雞林三洞八五의二〇】	407
答崔敬堂允煥	407
與柳漢秀【柳雲龍十五代宗孫, 有四男, 相鵬相勳相桂相宣。慶北安東郡豐川面…】	408
與柳寧夏【柳西崖十四代宗孫, 安東河回】	408
與崔敬堂允煥	409
與族大父槐山承箕【號雲山。忠州市校峴洞一七九】	409
與金源直	410
與邊敬中時淵	410
與鄭松湖雲翰	410

與吳柄烈【50114】	411
與金寬彬【54315】	411
與金道彬【543】	411
答李來儀【全北任實郡任實面渴馬里】	412
與鄭海峻【光州市梧峙洞】	412
與宋基善【高興占岩面大龍里(梧里)】	412
與金武彬	412
與金武彬	413
與金永福	413
與林晚洙林廣洙【長城郡森西面水海里】	413
與金容鶴【50003, 光州市荷白洞】	414
與金源根【56031, 全北高敞郡雅山面龍溪里】	414
與崔鶴均【17017, 羅州郡旺谷面化丁里】	414
與金相莢【50210, 長城郡北下面中坪】	415
與朴熙泰	415
與春谷康仲	415
答權寧珏【忠州市校峴洞荷江書院長】	416
與高允柱	416
與趙光萬	417
答朴來鎬【潭陽郡水北面大舫里】	417
與趙光萬	417
與朴來鎬	417
與宋大燁【高興郡占岩面鳳南里】	418
與申小春南植	418
與奇宇大【長城郡西三面大德里】	418
與李昌憲	419
與李昌憲	419
答盧源泰	420
答盧源泰	420
與盧源泰【52118】	421

與族弟亭憲	421
與盧源泰	421
與申小堂萬植申小春南植兩兄	422
與申陽元	422
與申小堂萬植申小春南植兩兄	422
與姜菊史璘	423
與奉春史萬沂	423
與金鶴珍	423
與金駟洙【500】	424
與金駟洙	424
與洪喆憲【金安】	424
與崔春江日錫	425
與宋桂伯【54315, 高興郡占岩面沙亭里】	425
答崔春江日錫	425
與鄭鳳在【咸平郡月也面月也里(蕁村衚衕)】	426
與鄭鳳在【一名應變, 咸平郡月也面月也里】	426
與金碧農相晉	427
與金相晉【50221】	427
與曹圭復	427
與金相晉	428
與鄭雲鳳【151, 서울特別市冠岳區奉天四洞五九三의三〇番四統五班】	428
與曹永晉【灑陽古西面月山】	429
答花巖祠任員高允柱金太錫鄭東會	429
與洪起薰	429
與洪起薰	430
與李啓和	430
與金宗燮【全州市南老松洞】	430
答朴在文	431
與崔敬堂允煥	431
答白永基【光州市大仁洞, 人和堂藥房】	431

與文炳善	432
與曹白鉉【潭陽郡古西面金峴里(雲峴)。現住,光州市山水二洞二六統五班三〇三】	432
芝山祠儒會所	432
與金太錫	433
答姜燐【全州市多佳洞一街六〇의二】	433
答吳成根【光州市本良面明道里】	433
與金鶴珍	434
與洪起薰【서울特別市城東區中谷洞一四一의一六。電話,四六一一八二七】	434
與吳錫萬【靈光郡畝良面三鶴里】	434
答族大父承箕【忠州市校峴洞五七九의三〇】	434
答族大父承箕【忠州市校峴洞五七九의三〇】	435
答鄭祖憲【31211,忠北陰城郡金旺面道晴里】	435
答吳成根【光山郡本良面明道里】	436
答姜菊史璘【520,全北全州市多佳洞一街六〇-二】	436
答姜菊史璘【全北全州市多佳洞一街六〇의二】	436
慰許基洛【承重孫註】	437
答金熙喆	437
答崔泳述	437
與朴學周【務安郡玄慶面平山里】	438
與金玟洙【高興郡蒲頭面細洞里。現住,光州豐鄉洞五-九】	438
與金玟洙	438
與金炳善【和順郡道谷面白巖里】	439
與丁升圭【務安郡玄慶面平山里】	439
與金鶴珍【光州市東區忠孝洞】	439
與金鶴珍【忠孝里,光山金氏忠壯公宗中派譜所】	440
與金	440
與鄭雲鳳【151, 서울特別市冠岳區新林洞九二〇二九八(八統六班)】	440
與朴	441
答李竹軒仁奎	442
答柳在萬【光山郡本良面德林里】	442

與許政許鶴許斗萬	442
與鄭松湖雲翰	443
與宋海觀璟燮【高興郡高興面南溪里】	443
與俞炳球【서울特別市江西區禾谷洞, 電信電話局】	444
與康仁煥	445
與金淳律	445
與金在華【51081, 全北益山郡黃登面不老里】	445
與丁炳勛【高興郡浦頭面吉頭里雁洞】	446
答崔圭太崔章鎬	446
與李春谷康仲	447
答昌寧曹氏門中	447
與吳成根	447
與任月坡永宰	448
答安兼山秉柝【求禮郡文尺面土金里】	448
與崔惟默【靈巖郡郡西面鳩林, 竹亭】	449
與金碧農相晉	449
與吳基柱【50005, 光州市林洞七八】	450
與金駟洙	450
與任月坡永宰	451
答金熙喆	451
答李喜鳳【長城邑梅花洞】	451
答姜菊史璘【520, 全州市多佳洞一街六〇—二】	452
答奇玉潭寬【520, 全州市太平二洞一二五七統一班, 權炳熙】	452
與羅甲運	453
答盧源泰【52118, 任實郡三溪面後川里】	453
答鄭祖憲【31211, 忠北陰城郡金旺面道晴里】	454
答徐丙極【650, 慶北榮州郡榮州邑明珠里】	454
與楊貞奎【543, 寶城郡筏橋邑善根橋通】	454
答洪哲憲【133, 서울特別市城東區求義洞二〇—〇, 新營織物工業社長】	455
與李源箕	455

答李源箕【서울特別市鍾岩洞】	455
與許中菴基洛	456
與族孫錫禹	456
與洪千植【本良面山陰里】	457
答金貞鎔【57053, 康津郡七良面永豐里】	457
與吳成根【光山郡本良面明道里】	458
答高光秀【潭陽郡昌平面柳川里】	458
答高光秀【潭陽郡昌平面柳川里】	459
答吳和烈【光山郡本良面明道里】	460
與宋海觀璟燮【高興郡高興邑南溪里】	460
與宋璟燮別紙	460
答宋海觀璟燮【高興郡】	461
與林根燁【長城郡森西面水海里】	461
與宋東圻【高興郡豆原面松亭里】	462
與曹棟承	462
答褒忠祠儒會所書【院任金相晉·崔南鎮·金裕新·奇世澤·高先春·高永斗】	462
答金昞國【南原郡寶節面眞基里】	462
與李洪林	462
答詠歸書院儒會書	463
答金碧農相晉	463
與金碧農相晉【長城郡長城邑梅花洞】	463
答安泰時【寶城郡寶城邑宅村】	464
與李春谷康仲【任實郡屯南面新基里】	464
答筆巖書院執綱僉座書	465
答奇玉潭【寬】【全州市太平洞二街一五二 權雨熙方】	465
與高在哲【光山郡大村面鴨村里】	466
與崔日錫	466
答洪起薰【서울特別市鐘路區公平洞3 前衛文學社】	466
答朴在文【濟州道濟州市老衡洞正尊部落】	467
答章山祠儒會書	468

與安鍾宣【寶城郡福內面眞鳳里圓峯里】 .....468

與柳在得【光山郡本良面德林里】 .....468

與黃秉濬【靈巖郡靈巖邑鳥谷里】 .....469

與金淳律 .....469

與丁炳勛【高興郡逋頭面雁洞里】 .....469

與沈均澤【谷城兼面大明里】 .....469

---

# 城南漫錄

---

卷一

---

詩

---



## 詩

### 春興

花明白日暖，獵獵輕風吹。  
酒熟佳賓至，詩成逸興飛。

### 己卯元朝

金鷄叫罷曙新天，萸葉初生大有年。  
獻壽堂前彩服舞，烝畀廟裡苾芬宣。  
灾消紅爐一點雪，福集霑流萬谷川。  
自是願言風雨霽，與人共樂太平烟。

庚寅元朝，次古人韻【古人元朝詩云，切餅爲羹滿盤香，大椀喫得快充腸。如知此物添年齒，誓自童時一不嘗。】

桂佩荷衣遍體香，椒醕臙餅快充腸。  
春風最厚全糧域，應使人人足着嘗。

### 夕陽道中

東風細細夕陽天，一日偷閒我獨賢。  
山間處處下樵笛，浦上家家起炊烟。  
黃鸝巧囀來楊岸，白鷺低飛窺水田。  
自得清閒人不識，三春淑景以詩傳。

## 癸巳元朝

知非不及蘧瑗賢，歲月謾催五十年。  
劣子稚孫羅膝下，願將詩禮永言傳。

## 謝友人見贈

何處得來氣岸清，相看青眼意分明。  
胸波快滌千重恟，鬢舍久藏十載名。  
憂世恨無獻玉術，績文克到透金誠。  
春風明日對樽酒，共吐珠機攄不平。

## 新安齋贈車君鍾輒

山紫照流碧，新安是別區。  
漁樵任適意，洗腆克無愁。  
戶外謝雲茶，室中誦孔朱。  
願君須益勉，至樂在來頭。

## 覽德亭【門峴諸人士，志喜光復，而築是亭。】

登臨近對德龍山，記得扁名非等閒。  
半世鬢沾望美淚，一朝眉展覩天顏。  
鳳遊勝地彩雲結，鸞賀新年佳客還。  
志喜克賢遺後計，風標落落超人間。

## 次林石川億齡白頭山韻【天地玄黃後，移來幾萬秋。應識乾坤老，青山亦白頭。】

陰庇三千里，風高百萬秋。

登天可作梯，望海若無頭。

### 城南自敘

一年詩上一年酒，半月城中半月村。  
自去自來何所事，滿栽花草作名園。

將入京師，到金堤，愛其野豁秋熟，天晴氣爽，口占二首

千年碧玉一天淨，百里黃金四野肥。  
如得長風九萬路，清秋逸興化鵬飛。

舌有萬錢腹萬卷，半生真趣最豪雄。  
經綸宇宙丈夫事，爲賀天孫織錦功。

### 訪邊敬仲時淵汕巖幽居敘懷

紫鳳山明參斗屹，黃龍江碧照人清。  
良宵共對瑤琴坐，妙韻洋洋不盡情。

### 贈別金符卿銅洙

醴芝自是有根源，對晤三旬感玉溫。  
歲暮江關相告別，臨風無語意猶存。

### 贈別朴汝初年在

舉世紛紛失趣歸，妙年進就似君稀。  
願言慥慥向前去，會見溟鵬萬里飛。

### 光州校宮詩會 三首

於皇大道日天中，萬古杏壇和氣風。  
望美惟知星拱北，養心要似水流東。  
寒梅透雪三分白，香酒發顏半日紅。  
一片靈臺埽壘處，登臨獨有惺惺翁。

世間物態閱來中，排闥誰能御爽風。  
萬里化鵬登海北，千年飛鶴復遼東。  
莫教歲暮吟頭白，留待時明折桂紅。  
素履做行餘地大，不羞安宅主人翁。

勝會光城校舍中，飄然爽氣濯清風。  
雁高月黑胡奔北，梅動春香斗欲東。  
鶴髮鳳毛連翠白，錦心繡肚纈青紅。  
相看多是當時傑，一借團遊賴化翁。  
【是歲休戰調約，故有胡奔北之語】

### 休菴白先生仁傑遺愛碑閣重修有感【碑在南平】

螭首龜趺一片春，江干苔麓可尋真。  
重修丹牖迨今日，追仰風儀憶古人。  
丹荔黃蕉麓洞酌，濃林碧草差令辰。  
永平百里山河久，三尺頌辭萬世新。 伯氏

翳苔宿草記前春，山水遺風久久真。  
棲鳳何年剪棘薈，用丹當歲壽民人。  
蘋蘩簡潔稱儀禮，棟宇重新迨吉辰。  
行旅瞻望拜稽地，永平日月倍生新。

### 輓奇道南公吉老善 三首

高臥林泉四十春，窮經求志頤清真。  
辰巳非今云速奪，可憐天不眷斯人。

淵源戚誼幸鸚隣，不誓金蘭氣味親。  
忽忽今宵樑月白，泫然未覺淚盈巾。

公臥山尤重，公歸地亦輕。  
我非阿好語，均是世人聲。

### 謹次族叔宗植棲碧堂韻

十里山光入入新，碩人邁軸餉天真。  
桃翁百代暮朝友，溪隱一庄鸚廕隣。  
富不可爲寧樂志，名非所願惟求仁。  
百年碧色長春節，誰識春中又有春。

### 題廉洛現秉燮東江釣台【寶城】

世棄君平自與疎，生涯淡泊一竿餘。  
湖山十里清閒處，孺子百年邁軸居。  
物態可憐眩玉石，高蹤還羨辨熊魚。  
滿江蘆月專管後，明燭盪香讀魯書。

### 赤松堂

雪風那處可尋真，有是赤松別一春。  
百草堂中香自襲，三神山外物尤新。

濟生何日非良手，通化當時卽至人。  
古世子房明且哲，千年幻作一朝隣。

### 賀曹龍岡秉采回盞

白頭重見舊婚春，春到龍岡興入眞。  
吉月今辰天有助，壽杯彩舞子能仁。  
荐兼祺福名傾世，永錫康寧德潤身。  
濟濟賓朋呈賀帖，應知餘蔭百年新。

### 與光州詩社諸益，遊無等山證心寺

一日清遊適好時，賓朋有約不遲遲。  
義丁雲峽採芝葉，夢斷月宮折桂枝。  
醉劇難辭情勸酒，懷深轉寫意眞詩。  
相思他日如有意，三尺瑤琴應可知。

### 題族叔準植池隱堂

碩人別業一茅堂，堂下活池天共長。  
晴日無風鏡面對，良宵弄月素波揚。  
臨深素履堪千劫，不息進修厭太康。  
世學猖狂窮道哭，翁能近取早知方。

### 訪李星三教台雙柳幽居 二首

崎嶇二舍仲冬日，誼重通家訪子居。  
先澤悠悠久不斬，百年恒得一朝如。

山外繽紛山裡閒，琴書十載頤神安。  
分明淑氣留佳境，到此渾忘蜀道難。

### 題李鳴魯熙鐸松溪堂 二首

栽活青松畔碧溪，主翁邁軸德相齊。  
近郊羞作牛山木，新浴最憎楚澤泥。  
千年白石流澄澈，十月饜風不偃低。  
千門桃李與狂浪，莫教騷人共品題。

閒撫孤松渴飲溪，高標廻出不凡齊。  
清聲將待九臯鶴，豁步可行萬里泥。  
恐濯塵踪源溜邃，爲邀佳客蓋陰低。  
堪憐守歲相期厚，吐露塵情拙句題。

### 輓族叔棲碧堂宗植

楓岳山深有隱賢，碧亭遺範幾百年。  
滿庭玉樹荀龍聚，列座陳經遼榻傳。  
兩尊兼備傾聞世，八耄享康化作仙。  
吾門此日棟樑折，叵耐悽悲淚添巾。

### 題族大父祐廷止隱堂

時好賸粧亂實真，翁能高臥意清新。  
黃花籬畔愛春土，瑞石山中遯世人。  
四壁圖書觀物理，一區煙月養心身。  
如今末路無從適，恨未當年躡後塵。

### 輓崔素軒先生 二首

履素安過八十齡，水清山碧永平城。  
玉京肆宴速佳客，未挽雲輶去去程。

滄漓世久無賢，我公有令聞宣。  
志存紫芝巖隙，德種黃槐庭前。  
康寧踰八耄久，詩禮訓二男傳。  
今朝薤露歌動，止帝還招謫仙。

### 題崔德善允煥敬堂

戰兢莅事事，平地視淵深。  
楣上大書字，知君獨苦心。

### 題金贊敬相基石西精舍

凌白香雲護碧城，雪風四面一區晴。  
雕績詩彩綺紈色，汪洋胸波河海聲。  
曆上葉花看有事，世間寒熱聽無情。  
那時膏秣從君去，帶月讀書侵曙耕。

### 輓外兄柳夢軒達根

飄然神彩頎然貌，軒若氣狀沛若言。  
松海役中高足列，樗江家裡肖雲傳。  
三逕恒多羊重友，四時佳會竹林賢。  
遂令韓愈五窮守，可惜長卿一疾綿。  
修文天上屠龍乏，簡德人間遣鶴宣。

賢母思歸斷望閭，季胤前陪共登仙。  
去去颺旋駕萬里，招招惜別輓千篇。  
已矣九原誰可作，夕陽芳草意悽然。

### 輓族兄道湖泰憲

公生五十年，遺範筆難傳。  
談克折河倒，氣思柱厦顛。  
見事風生袂，教兒走加鞭。  
修譜敦宗族，建學養俊賢。  
非直得窮乏，行道以孝先。  
咸曰奇男子，可云是謫仙。  
天意庸成玉，病來好結緣。  
松陰元亮醉，梅畔臥龍眠。  
藥裹度長歲，棋書樂一天。  
昨夜驚樛月，今朝夢鶴翩。  
嗚呼今白玉，永閉是黃泉。  
安將一幻術，更作九重原。

### 輓李屏山漢南

灘溜一條清且活，屏山世業可云深。  
實有聖經儘士子，宅居疊岳半雲林。  
間從鄉社相馳逐，不肯涇漓共混沈。  
于何更聽峨洋曲，自是斷論徵角音。  
遽奪衣冠山有猜，不遺仁哲鬼無心。  
病臥寒牀違執紼，哀些題送恨難禁。

## 餞春 二首

青車何事出城東，爲向天門赴會同。  
酒暖客亭憐去路，詩清吟社頌成功。  
歸鶻達夜冤啼血，殘朶飄風亂雨紅。  
惜別年年無盡恨，寸腸斷處白頭童。

風花飄落陌西東，堪惜韶光變態中。  
縱有踏青明日約，不辭對燭醉殘紅。

## 輓吳根浩

君年少於我一春，君胡先化我遺塵。  
君材騏驎我駑馱，君學汪洋我迷津。  
以君材學不見售，神忌鬼猜奄此辰。  
斯文少倚仰吾黨，漸孤隣。  
如君豐賦猶止此，在後沙礫恨復新。  
他日泉垓相逢地，搯子手兮吐露眞。

## 題李肯堂基泳光城新築

新築瑞陽愛一廬，月南高士不懷居。  
客來笑詫生涯足，三尺清琴滿架書。

## 題鄭重求寶岡亭

早開別業郎城東，趣味清真孰與同。  
朱露點經研物外，黃花釀酒泛壺中。  
百年心事江來月，半世塵談耳過風。

桃李繁華且莫道，巷居有樂可云通。

題光州五老亭【鄭在鎮及崔程曹劉五人】

翹然物表獨亭亭，五老一堂相忘形。  
座常客滿聞鳴玉，夜或酒行見聚星。  
養在恬閒愁域脫，工深致格夢關醒。  
就中啖味餘真樂，不啻水明與岳青。

次野隱堂板上韻【金容孺所築】

廣漠之濱早卜居，碩人不是意空疎。  
點烟題月吟無盡，採美釣鮮味有餘。  
逸趣曾栽陶潛柳，郎懷遙憶管寧鋤。  
天山吉處生涯足，酒滿清樽案有書。

次心谷齋板上韻【晚湖里，李氏所築】

結廬谷口豈無心，爲是山幽路轉深。  
最愛方塘波潏潏，靜觀寸草翠林林。  
碩人一代寬遊地，佳樹千年不改陰。  
操存有術更何願，笑彼候蟲月露吟。

輓族兄後碧光憲

風雨蕭蕭百六天，帝憐還召謫居仙。  
康成何日夢辰巳，子瞻前宵賦鶴船。  
閭閣門前紅宴設，道川洲上丹旌飄。  
七十八年人事，空樑月色只蒼然。

三碧一家十世業，悠悠清德果鮮儔。  
元凱峙停又克肖，應知食報昌來頭。

耆英宿德晨星落，前代衣冠摠古邱。  
斜日荒原無盡恨，何年遼柱鶴還遊。

### 題蔣東湖時穆光州新庄 三首

帶澗枕山關一村，萬千城市俯臨門。  
庭栽松菊成真趣，案有詩書溯道源。  
天借碩人寬軸地，日長高士樂游園。  
風光到此無涯岸，樽酒不空客又存。

瑞岳秀色照水明，正宜此世遠逃名。  
綢繆戶牖重重緻，不怕五更風雨聲。

鬪紅桃李萬千朵，詎解南山有桂花。  
占得天慳圖外地，風流不換五侯家。

### 登雪江柳公泗浩歌亭，次板上原韻【光州】

飛閣臨無地，星霜度幾回。  
憑欄人更有，餘慶添雲來。

### 雲巖崔炳教壽筵【昌平】

享康好德六旬辰，福履如川去益新。  
賀帖堆雲迎友客，斑衣繞膝悅心身。  
清標兀兀人此玉，和氣津津室滿春。

濁世清緣罕古事，聊知保隲自天申。

### 聞姜大完大弘兄弟孝行有感【羅州】

如今喜聞一家春，多是晉山萃孝人。  
養極毳甘能備數，葬頻省掃亦無巡。  
莫言混世全忘義，方信求時可得仁。  
伯仲二難允克似，五良洞裡可尋真。

### 輓卞尼山鍾爌 二首【高敞】

草溪一溜碧千年，高邑清風尤傑然。  
業傳壺老家庭好，師有松翁學問賢。  
石階松菊通三逕，玉樹芝蘭伴八元。  
萬事如今成幻夢，渡頭不覺淚沾巾。

先子同門若曉星，如何公又棄餘生。  
悵悵末路無從適，痛哭斜陽共失聲。

### 題金永鑑紫岡幽居【光州】

淑氣氤氳萃海陽，頎然高士意堂堂。  
堅心瑞石雲同立，壯志樂波天共長。  
丹桂飄風秋釀暖，紫芝浥露石流香。  
商山清曲賡高唱，最愛息交不和光。

### 輓鄭鶴臯燾洪 二首

向北古家克有孫，清標嶺嶺氣溫溫。  
前宵誦罷蘇仙賦，忽覺空樑殘月存。

珠玉玲瓏詩朶豔，龍蛟騰走筆鋒奇。  
可憎荒谷收豪去，挽紉斜陽淚雨垂。

### 晚翠鄭榕壽筵【羅州】

老安吉宅頌新年，千丈碧桃白日邊。  
地接神仙多藥草，星輝精彩近南天。  
酒成三祝兕觥觥，詩贊九如珠朶連。  
德以潤身衆福戢，清標特立可當仙。

### 溪亭文弘植壽筵【綾州】

人皆奔忙獨閒閒，曾是謫仙降世間。  
叩戶客來王赤氏，登盤菜自蓬瀛山。  
清歌飾喜香生頰，甘釀祝岡氣溢顏。  
種德君家能有穫，福祺如水日增還。 伯氏

六十溪翁興味閒，一園梅竹屋三間。  
絕塵身坐羲皇世，採藥童來方丈山。  
鸞鵠時停聯舞膝，金蘭祝賀胥歡顏。  
君家積慶無窮祿，等似汪洋活水還。

### 石西金贊敬壽筵【光州】

風儀愷悌意堂堂，眷德天翁下吉祥。  
鶴立鸞停清表列，岡高川至祝辭長。  
嬌歌妙舞筵生暖，旨酒嘉肴頰滿香。  
六十不倦真可尙，來來百歲占安康。 伯氏

兀兀清標老一堂，六旬花甲宴休祥。  
庭前鳳舞青衫列，天際陰輕白日長。  
三祝酒光甘露暖，九如詩味見珠香。  
乾乾終夜能修進，可占來來百歲康。

### 題金浩瑾霽月堂【光州】

玉立瑞山最闐間，霽天遣月入窓間。  
主人心事清如許，萬劫俱灰坐覺關。

### 輓朴濟喆【光州】

玉溫月朗粹然質，晚生叔季見世艱。  
枘鑿難合千古恨，四十年來布衣寒。

敦厚周詳龍伯高，清瘦多病馬長卿。  
銀臺玉署天上在，趣謝塵寰超鵬程。

君登仙府多宿契，我在江湖罕知音。  
非夫爲慟爲誰慟，只爲潛然淚盈襟。

### 菊軒崔潤九壽筵【羅州】

天眷仁翁錫壽康，故教南宿彩垂堂。  
挺松奏籟琴調永，叢菊挾流水味良。  
賓賀清詞飛玉屑，兒環斑舞弄春光。  
龜齡鮐背何須道，聊酌滄溟做祝觴。

## 後峯高在鍊壽筵【光州】

搖瑟斑衣室滿春，春光藹藹去尤新。  
樽如北海盈甘露，門對南天照老人。  
福與樂波方湊集，心同瑞月覺清真。  
宜家繩尺孚遐邇，濟濟金蘭摠德隣。 伯氏

苔軒古宅克傳春，福履津津與日新。  
天假良辰丁暖日，地鍾淑氣壽仁人。  
子長少歲遊能遠，伯玉此年德彌真。  
持被校宮尸俎豆，駿奔髦父暮朝隣。

遲遲白日壬辰春，鐵樹靈花氣色新。  
森立鳳儀舞孝子，飄然鶴髮坐仙人。  
邵齡神護能無恙，遐祿川流漸入真。  
數句燕詞表栢悅，歲寒相守愛芳隣。

## 賀光州詩社刵立 二首

轟天吼地是何聲，光社詩椎報日明。  
龍蟄將爲雲共化，蟲吟難與鳳爭鳴。  
應知崑玉全精彩，肯使荊楠棄挺生。  
閱劫蒼黃君莫說，當年大道砥如平。

詩壇一鐸震雷聲，日曙東天覺大明。  
林鳥無端鬪巧號，洛鍾有意以時鳴。  
寒歸江滸層冰解，春到庭前翠草生。  
聞道非熊登大夢，未遭肯伴澤吟平。

輓承旨金東江寧漢【庚寅，京】

緬憶樞衣曾幾日，通家百載誼源源。  
千尋喬木華翁宅，十世名家石室孫。  
雪榻叨趨鷄鶩劣，臯比感洽德年尊。  
今朝忽乏仰依地，痛哭聲長徹九原。 伯氏

歲華垂暮漢江頭，天降奎星精彩休。  
薇蕨登歌殷日月，菊香寫史魯春秋。  
雲山一片青邱活，樊里百年紫氣浮。  
已矣九原誰可作，斜陽芳草使人愁。

次聳珍山泣弓巖韻【高宗昇遐後，吳後石望哭之處】

哭拜先王又鞠躬，天長地久恨無窮。  
聳珍山裡淚千丈，何處青空攀劔弓。

讀魯論有感 二首

天地共參有此身，肯令碎質染污塵。  
時違蘊奔千磨玉，道泰與同四海春。  
忠孝之間生大業，詩書以外少仁人。  
聖賢真訣載方策，嘉惠蒼蒼後覺民。

儼若天君守一身，玉晶月朗淨無塵。  
簞食自有萬鍾祿，胸海能藏百世春。  
素履做行皆樂地，踐形作事是成人。  
清風高閣納涼坐，正是偷閒太上民。

### 輓高柳南光永 三首

杏廩疎雨棗秋暮，陪話津津憶舊遊。  
夢覺二關旬朔地，楓林黃菊使人愁。

於赫苔軒俎豆地，有齊季女獨賢誠。  
駿奔髦乂怒如恨，斜日吹風不盡情。

几案清明君子宅，風儀愷悌丈夫容。  
青山有力漸收傑，叔季餘生誰適從。

### 輓族姪後谷南善起疇

宗門幸有若而人，風範慈詳動四隣。  
知己清鑑公獨在，忘年雅度日相親。  
忽驚今夜空梁月，遙憶舊遊隨柳春。  
芳草長洲何寂寞，印須不見恨尤新。

### 輓崔後素季鷹翔鉉 四首

明山鍾淑氣，山下出豪英。  
清白鋤亭宅，詩禮素軒庭。  
令姿冰玉潔，高標鸞鶴停。  
既有稟賦厚，且資濡染精。  
兢業蹈繩尺，慥孜率課程。  
胡乃嗇其壽，上天亦無情。

猗歟浮海子，上溯蘆山源。  
群飲盈門蔚，充量獨公賢。

起予幾稱商，反己三悅宣。  
斯文將不喪，吾道庶有線。  
探蹟羲皇卦，覃洽左氏傳。  
奎璧遽失彩，慙然訴蒼天。

窮臘盈百六，世人棄君平。  
壹鬱酒能滌，慷慨句自成。  
雲茶非我眷，炎涼付歲情。  
數奇藏書伏，凶肆陋儒羸。  
咆哮白虎惡，舉逝丹鳳驚。**【庚寅北軍南侵】**  
此冤何處訴，天高亦難聽。

我生幸同世，同道又同師。  
芳隣鵲壓勢，知音峨洋歌。  
忍餞先化鶴，堪作後遺沙。  
安得陸雲夢，更論羲易辭。  
空擬杜陵恨，謾綴梁月詞。  
南山與東海，綿綿冤淚多。

### 孝烈婦金氏贊【羅州】

持操不易以王公，孝烈敦行動美風。  
寸草將心春日愛，栢舟矢志考年終。  
自求福履能收效，克服辛艱式就功。  
門戶如今昌厥後，可知令德與天通。

### 金氏五孝閣【靈巖】

繩繩五孝法家成，克率天章德以明。  
菽水能歡雙老志，名教遠樹萬年聲。  
詩書千卷生涯足，梅竹一庭趣味清。  
後孫追慕肯堂構，素履做行意自平。

### 秉天祠詩會【光州】

心谷山前祠秉天，綱常一理萬千年。  
蘋蘩蠲潔瞻望裡，髦乂駿奔陟降前。  
惇切朋情如琢玉，楚清詩味不餐烟。  
願言當日春風起，百丈青雲林下連。

### 永樂亭【吳峻庠所築，綾州】

流曲歸雲裡，兀然高士亭。  
松風吹不盡，盡日冷琴聽。 伯氏

龍山太古地，永樂碩人亭。  
流水環籠檻，是非無或聽。

### 賀族大父度支部主事友松回晉【名祐譔】

而康而德回婚日，八十松翁長是春。  
環舞彩衣春氣足，應知來後百千春。 伯氏

七旬六度懸弧節，六十一回旭雁辰。  
子女孫曾環舞彩，氤氳春氣滿堂新。

### 元曉寺重建後，與諸益敘會

朋來谷口喜聞鐘，有約寒鍾待我撞。  
古寺新成能起廢，名山淑景可無雙。  
麥牟登熟盈南畝，松籟納涼透北窓。  
鳥獸同群非所屑，肯令悔竇忘經邦。

### 過族叔官植廬墓 二首

我行不是偷閒身，蕭瑟寒山問棘人。  
白髮嬰衰迫服地，可知六十不忘親。

幽峽荒涼豺虎號，行人指點孝卽居。  
縱令陵谷經千變，萬古名存墓一廬。

### 觀水亭【吳別業，羅州】二首

湖光上射翠生椽，無盡風烟勝輞川。  
斜日縱魚畫裡峽，清宵邀月鏡中天。  
鶯啼綠柳簧生巧，露滴芳荷汞轉圓。  
聞說觀瀾曾有術，閒情豈願十洲仙。  
水色玲瓏照檻椽，滿庭花石似平川。  
詩書清趣送餘歲，花柳芳春樂午天。  
日暖方知魚活潑，夜光近得月團圓。  
化翁假以好風景，能使主翁作地仙。

### 輓徐南秀桂洙 三首

歷選同壤友，如公復幾多。

金玉氣骨秀，鸞鵠風彩華。  
孝友稱仁軌，清寒等原思。  
名聲符於實，朋儔遠莫加。

我以樗櫟質，猥忝蓬麻益。  
海門同追逐，僧齋久宿食。  
永期白首契，先作青山匿。  
晚來拜靈几，痛哭長太息。

難得陸雲夢，空餘樑月痕。  
振古多此恨，浮生奈無根。

### 輓石西金贊敬相基

砥礪名行率性真，石西阿澗考槃人。  
業傳詩禮能貽厥，契速芝蘭好作隣。  
曉月在樑驚劫夢，春川隨柳憶良辰。  
晨星錯落吾儕恨，鞦韆絳歌極樂濱。

鵝厓芳隣迨十年，清詩白酒暮朝緣。  
如何遽作雲鄉路，空使餘生淚自然。 右二首 伯氏

我偷潦霽北來光，忽爾攀荆綠柳傍。  
久阻溽炎相慰摯，共眠石室胥盟良。  
我緣事劇行東郭，暮且難能到勝庄。  
要謝食言明日至，豈知臯復隔霄長。  
遽驚片夢紅塵界，快乘彼雲白玉鄉。  
吾黨替零堪可惜，悲歌薤露淚滂滂。

玉琢文詞蘭馥臭，騷壇相誓意深深。  
瑤絃一夜遽悽絕，水逝山空只此心。

### 輓族兄愚堂丙熹

夫公七十四年春，恬淡生涯克守真。  
名士登門知好禮，窮交舉火賴行仁。  
天遺箕範兼全祿，世謂羲皇最上人。  
惜別大歸吾黨恨，秋風淚洒暮江濱。

### 吳洪善母夫人朴氏烈行贊【靈巖】

匹婦懿行著海東，人言不敢異而同。  
能令白日注甘露，應是丹衷徹太空。  
四德身修百劫裡，三從義正一心中。  
扶綱植紀於斯在，採摭宜編列國風。

### 華菴朴在春壽筵【長城】

十里江頭竹萬林，閒中日月古如今。  
生來頓忘紅塵味，老去愈新赤子心。  
風表可知如琢玉，邵齡遙算等仙禽。  
兒孫獻祝岡陵意，滿酌兕觥與海深。

### 題奇權變瑞谷齋【光州】

端笏群山拱揖前，碩人別業澗之邊。  
鳴湍觸石三分雪，垂柳成絲太半烟。

樵豎騎牛知日晏，野夫載酒感春傳。  
浮雲富貴非攸計，淡泊生涯期百年。

### 菊堂金炳秋壽筵【靈巖】

晬回六十復前春，占得祺祥絕世塵。  
琴瑟偕調餘興裕，芝蘭競茁晚香新。  
詩書業古傳千禩，梨酒味珍頤一身。  
勝會如今多頌祝，清歌妙舞動鄉隣。 伯氏

四面風雲獨有春，何曾淨界染醒塵。  
詩書案上研千古，鸞鳳膝前樂一新。  
和氣津津祥滿室，清標落落德輝身。  
令辰肆宴相燕賀，秩秩金蘭自遠隣。

### 東湖蔣時穆壽筵【光州】二首

世間猶有謫仙人，玉立風儀挺出身。  
寶樹陰濃和氣滿，應知遐祿百千春。

六十乾乾飭一躬，東湖行樂古今同。  
生涯趣癖雲林裡，事業心遊詩禮中。  
斑舞杯申岡似壽，華吟燕賀玉成功。  
不是尋常名下士，可知清福久能通。

### 題朴淑鉉一松堂【光州】

庭柯守歲獨春風，蒼翠自如霜雪中。  
不屑秦封留有待，主翁惟悅此心同。

### 過金蘭隱炯植釋菜壇【靈巖】二首

蘋藻享儀遠有年，翳苔石面一壇連。  
追思先進勤提命，能使後生覺懵眠。  
淨界湖山閒趣味，暮春時節好風烟。  
淡邊始覺多真樂，肯向桃源更覓仙。

鄉社祀賢自昔年，駿奔髦父座相連。  
菱塘洗硯魚吹墨，篁月鼓琴鳥醒眠。  
幽谷蕙蘭經暖雨，前川花柳帶春烟。  
三山馭鶴非能事，勝會別區亦地仙。

### 次朴淑鉉先大人竹沙晴庄韻【光州】

環竹帶沙關一村，客來相訪喜開門。  
捲簾對月琴調冷，彩菊泛杯酒氣溫。  
時理屐筇隨澗壑，更將詩禮課兒孫。  
營營塵海浮沈子，詎解瑞陽獨樂園。

### 南平校宮雅會 二首

鏡裡山光積翠微，招招印友詠而歸。  
遲遲晴晝戀龍睡，細細輕風伴鳳飛。  
厭熱朗吟白雲曲，愛香謾作綠荷衣。  
征鞭休道天將暮，遠際浮陰翳日迷。

萬象森羅極妙微，砥平周道好依歸。  
壯心便擬雲從化，俊氣直思鵬與飛。  
麗質元非草野食，丈夫何老褐寬衣。

惺惺無日非兢惕，屋漏軒通夜不迷。

### 題姜大澤瑞雲堂【靈光】

萬疊雲山好作隣，武靈勝地一家春。  
謳歌留待頌賢主，悅樂猶難贈遠人。  
秋日歸帆還有事，晴天遊屐淨無塵。  
從龍興雨非無策，伴畝方塘獨守真。

### 題辛承萬鳳菴亭【玉果】

欄頭流曲挾嶂歸，中有閒翁與世違。  
耿介不從俛首啄，清標將伴舉翔飛。  
琴張山水知音少，詩寫瓊琚和句稀。  
楚客狂歌難盡意，莫教俗子謾相非。

### 輓族兄時軒先生

淑氣毓英惠我生，昏衢揭燭輸光明。  
眞珠澤裡波濤暖，猛虎山前藜藿青。  
草木增光君子宅，詩詞能動碩人亭。  
雙清風月千年契，萬卷圖書百世情。  
孝極申寅稱子與，歲中辰巳夢康成。  
奎星失彩天無色，河嶽斂精地不平。  
驥伏鹽車違素蘊，鵬飛溟海揚丹旌。  
哀吾狂簡偃偃在，何處適從更覺醒。

## 濟州梁氏七旌閭世阡立碑設筵感吟【羅州】

精彩扶輿降碩膚，毛羅清派戶閭隆。  
立懂何處非名地，旌表當年獎美風。  
曾瘞賢人山有色，揭鑣偉蹟石爲功。  
累仁積慶昭天鑑，繼述繩繩克有終。 伯氏

七旌赫赫誠稀古，聖代可知教化隆。  
山嶽增光藏節烈，鄉閭生色動令風。  
耳雲百載多追慕，婦孺一辭頌偉功。  
三尺貞珉嵬立地，津津餘韻如天終。

## 大丈夫

閱武黃金臺，修文白玉樓。  
身撐宇宙立，德孚乾坤流。

## 誠敬

聖賢千萬語，誠敬作中央。  
飽喫膏粱味，安居風月堂。

## 嘲世 其一

山中多白石，城裡少紅衣。  
居官皆青莊，織娥斷赤機。

## 嘲世 其二

君子出青石，小人盡頰尾。

何時星宿澈，長使金甌理。

## 洗兵車行

魚雷直屠鯨鯢宅，歛鷲上衝星宿隣。  
安得銀河萬丈白，兵車永洗壽斯人。

## 有感

身倚宇宙睨萬古，蝸角蠡殼朝暮隣。  
大德難醫堯舜疾，縱聖未贖孔顏貧。  
三百杯正太百醉，五千言豈伯陽真。  
二十渡江項績敗，八旬釣渭呂勳新。  
世如盡佛終無世，人若非儒豈有人。  
最是良貴在腔子，生生不死一箇仁。

## 過寶城吳氏孝烈旌閭，次李觀察根澔韻【綾州】

聞來好說耳根清，懿德一家百世聲。  
旌表里門風化樹，興行美俗自茲成。

## 書懷

早圖書劒子長遊，未覺光陰夢裡流。  
日晏燃藜天祿閣，詩成對酒水晶樓。  
聽琴誰送篁林月，招隱人稀桂樹秋。  
春到氤氳冰盡解，順風萬里放吾舟。

帽巖尹在甲壽筵【光州】

磊落儀標德潤身，六旬行樂去尤新。  
山珍海錯皆仙味，日暖風和迨良辰。  
鸞鵠時停濃寶樹，金蘭齊會速芳隣。  
應知求福非回曲，胸海能藏壽世春。

題羅東琳顧恩新築【靈巖】

念祖聿修德可完，報恩古宅克遺安。  
世間榮辱無情視，案上詩書任意觀。  
鏡水無風魚躍活，叢篁收雨鳥聲歡。  
顧名思義善攸在，心廣道肥儀表端。

孝烈婦豐川任氏贊

崩城廿載柏舟人，九十考終白玉身。  
行篤鄉隣令望重，德孚中表雅名新。  
奉親誠敬性根孝，教子丁寧語率仁。  
匹婦堂堂嘉惠裕，遺風不啻一家春。

密陽金氏光會堂【忍菴金昌憲之宗會堂，光州】

擇居勝地別開堂，花樹生春趣味長。  
情話玉溫心吐悅，高標蘭馥座生香。  
南望雲結湖濱朗，北住月明石下光。  
不待三遷傍學舍，鸞鵠時習做祺祥。

### 題朴炳洪竹園亭【潭陽】

日下丹青耀水頭，碩人高臥與天遊。  
臨風洒落嘯歌冷，得月爽涼琴趣幽。  
三逕開時三友到，一心安處一身休。  
妬紅競紫世多事，不識南山叢桂秋。

### 長淵祠【南平文氏】

碧水鑑開白石前，悠然想像二千年。  
東邦南邑地靈處，文氏武成嶽降邊。  
甃瓦聳空翠鬪角，檀香焚處紫生烟。  
發祥毓祉昌其後，行客爭尋別有天。

萬峯拱揖一池前，長者降生千百年。  
黃鳥隔林春作主，白蘋滿渚秋無邊。  
九重水活翠藍石，千丈臺高凝月烟。  
鬣叉駿奔將事地，斗牛芒射正中天。

### 世德祠【晉州鄭氏，慶南晉州】

晉陽山水照人明，鍾氣毓賢惠我生。  
功業有光千載史，簪纓豈止一門榮。  
靈區日月非塵界，香火春秋不世情。  
碧草黃鸝無盡景，數間古廟萬年清。

### 題邢時伯海隱幽居

澗上有阿阿上村，考槃寒士養真元。  
累哉誰誦逐貧賦，可矣君吟樂志論。

菊釀盈樽秋已熟，竹陰滿戶日如昏。  
鯤鵬不似鷓鴣小，等俟東風順處存。

### 題金光德微顯齋【長城】

父謀子述一堂成，記得君家不匱誠。  
寸草常深愛日志，三公難換報春情。  
勝區無日非佳節，福地有年是太平。  
悠久積微能遂志，貽謨丁重敢云輕。

### 題李正奎先大人月湖亭【靈巖】

湖光籠月映高樓，上下天光一任浮。  
津子棹歌謾濯足，騷人瓊律幾回頭。  
觀魚心存莊生樂，仗劍志雄司馬遊。  
無忝構堂貽厥地，傳家心法更何求。

### 題李正奎雲巖齋【靈巖】

一日亭成歲暮休，羨君能解桑榆收。  
清芬約守芳蘭谷，逸趣盟深白鷺洲。  
靜案藏書稚子讀，香樽泛酒故人留。  
永言不匱真能事，世業繩繩貽厥謀。

### 賀李基喆豎碣其先大人墓【羅州】

衣冠映日動春城，慰賀李君述古情。  
孝極揄揚碑數尺，恨深風樹淚千行。  
書非不識文昌字，事是可傳仁軌名。  
嘖嘖一辭稱道足，應知後日百祺生。

### 題鄭在學老隱堂【靈巖】

安老堂中老一生，清寒水竹最多情。  
時將文酒雅懷瀉，日涉田園真趣成。  
梧月向襟照歷歷，楊風拂面吹輕輕。  
無人斯世歌招隱，獨樂桂秋爽籟聲。

### 題邊鎮昇明雲齋【長城】

揮淚思深故國春，雲山便作逍遙身。  
丹衷只恐忝先德，淨界還宜絕世塵。  
夢斷鯤鵬騰海澨，盟同鷗鷺忘江濱。  
千篇瓊律朋樽酒，綽若生平啖味真。

### 題李在根淨齋幽居【井邑】

真樂裕如在淡邊，叢桂秋山日如年。  
青氈留座傳先業，黃葛翳門絕俗緣。  
帶酒臨風歌白石，盃薇讀易焚香烟。  
炎涼曾不擾方寸，物表亭亭可是仙。

### 竹圃朴炳洪壽筵【潭陽】

遲遲春日正天中，竹圃清庄樂未窮。  
身泰頓忘霜鬢白，愔明復見鐵花紅。  
滿盤肴錯登仙味，列座衣冠動和風。  
愷悌斯翁餉厚祿，壽仁一理古今同。

### 題李容穆寒松齋【光州】

重芳捨謝松爲亭，醉裡乾坤解獨醒。  
壯志久忘雙鬢白，眞工常愛一燈青。  
生涯飽飫煙霞味，文藻輪囷錦繡屏。  
萬樹千山搖落日，堪憐守歲得稱停。

### 題金鎮元素隱亭【潭陽】

鏡水縈洄拱玉岑，探眞筇屐日相尋。  
煙霞藹藹洞還僻，松筠森森路轉深。  
載酒農談感厚意，斷金蘭契許清心。  
霽行潦止君能識，爲愛風標賡拙吟。

### 次曹圭復先大人默軒韻【昌平】

乾坤幽閉值窮陰，翠柏山中日月深。  
最愛陽雷藏一線，生憎烏舌囀千林。  
登高望美忠臣志，臨潔濯纓孺子心。  
翁作天遊軒尚在，探眞藜杖謾相尋。

### 省齋李秉然壽筵【光州】

肆筵設席速隣親，六十閒翁興味新。  
無忝無愁占福地，有花有月際佳辰。  
傾情友客埕聞谷，舞彩兒孫室欲春。  
長壽喬松寄物外，不如此世謫仙人。

次吳采烈醒菴別業韻【鎮安】

晴牕睡覺日昇東，寒士清心此與同。  
釋老謾求玄妙外，周程克念戰兢中。  
松筠節操守堅白，錦繡文章纈翠紅。  
笑彼醉生夢死客，不知澹泊若天通。

玉山祠【亭月坡柳彭老，玉果】

赳赳忠魂祀玉山，翠松百尺屋三間。  
葉鷗階草春三暮，潦藻澗蘋歲幾還。  
裹革生平心壯烈，取熊危迫意安閒。  
當年未剿島夷窟，遺恨至今隔海關。

題朴氏五槐亭【茂長】

避世閒情別業成，題詩應有不平鳴。  
懷丹謾老醫民術，獻曝空餘戀主成。  
澗瀑喧如驟雨急，松琴清引晚風生。  
浮雲富貴非關事，故逐煙霞作大盟。

次文海日大人三槐亭韻【光州，代家兒起文】

瑞石山中別業幽，乾坤不老水長流。  
暖雲藥圃眠蒼鹿，微雨魚梁泛白鷗。  
詩賦千篇猶未足，友來三逕好相求。  
名亭以愧能無愧，心地也應與天遊。

### 題崔秀均慶雲堂

海翁清韻振于東，堂構繩繩百世同。  
名下衣冠當世士，案前詩禮古家風。  
百壺春酒興無盡，三尺瑤琴樂在中。  
磊落胸海守澹泊，入真滋味與天通。

### 良溪祠重建禮成日有感【亭青松沈氏三賢，長城】

玉岑屏後鏡湖前，遙憶立祠幾百年。  
三世苾芬更有地，一時鞠草付先天。  
英靈如在應臨上，流峙增光罔有邊。  
髦乂駿奔多景慕，威儀抑抑戒初筵。

### 題朱珽台鹿菴別業【順天】

聞說鹿菴築桂林，澗雲寒翠衡門深。  
一區泉石仍成癖，萬卷詩書可養心。  
靈境曾爲天所秘，當年不許客相尋。  
南來人士多題咏，壁上香生金玉音。

### 秋淵鄭淵字壽筵【同福】

六旬日月若長春，天上閒仙謫降身。  
詩禮趨庭業守古，鼓琴宜室樂尤新。  
此席非無風樹恨，強然對酌下情伸。

### 輓成均館博士李玉山光秀 二首【潭陽】

於惟先生生不辰，後生痛哭舊朝臣。

泣弓願蹈三良趾，嘗膽恨留五賊身。  
泮館燃藜校字久，玉樓點籍馭鸞新。  
先君蘭契晨星落，無地仰依誰適親。

數載桁楊那堪說，不衰髭髮德尤新。  
丹衷無忝三生地，至恨未劄五賊臣。  
業繼石翁望已重，學從松老道成真。  
天收豪傑地如曠，嗚咽清江宙亦曠。

### 輓山水軒邊仁卿鎮壽 二首【長城】

軒豁美風度，挺生詩禮家。  
良能敦孝悌，餘事瞻文華。  
指血神能格，萱闈日再遐。  
傷時題菊史，好學問松爺。  
向日葵忱切，泣弓血淚嗟。  
玄機杳莫測，仁壽一何差。  
梁夢四旬促，鵬程九萬賒。  
青山埋玉重，白日斂精斜。  
寶樹典型在，佇看滿發葩。

我以肩隨年，金蘭早結緣。  
琴歌共皓月，花柳趁晴川。  
虛負百年約，遽作萬里仙。  
淒涼曷有已，題輓淚潸然。

輓月樵曹秉烈 三首【高啟】

昔子不遐要同研，魚書鄭重適百朋。  
爲感勤意載奔騰，江流曲曲山層層。  
鬱金酒暖碧萸赤，月山洞裡忘夏蒸。  
白玉粲香蟹鰲紫，豐沛館前吟秋登。  
主人連唱白駒曲，客子不暇賦田園。  
夏日不長秋夜短，共吟青史幾千篇。  
逸才子逐班馬跡，知音我感牙期心。  
梨棗未訖歲聿暮，一夜狐號起綠林。  
鵝雁難分知厚意，參商錯落奈薄緣。  
好事多魔非今已，勝會難再自古然。  
藥裹關心子且病，琴歌無意我獨眠。  
渭城細雨如昨日，吳州明月復幾年。  
忽驚巫咸昨夜降，五雲高處玉笛清。  
上帝招招謫仙去，鵬程九萬颺丹旌。  
空瞻梁月恨杜陵，安得塚談夢陸雲。  
回想前日已千古，題送哀些淚繽紛。

磊落胸襟慧敏質，牟陽山水毓精英。  
陳公庭下元方子，馬氏床前白眉兄。  
讀史深通班馬骨，騁論克折儀秦聲。  
可憐多少經營事，八九摠歸六里青。

夫君當日徹天恨，未慰爺孃倚閭心。  
欲說幽明多少事，魚淵千古有知音。

## 賀族大父慕窩承俊六十一壽朝

君子宅中和氣深，芝蘭其臭玉其音。  
齊眉日暖友琴樂，繞膝春生舞彩忱。  
坦道應存良驥志，閒居謾守白鷗心。  
也知遐祿由仁得，栢悅情懷綴漫吟。

## 題邊鎮夏鰲隱亭【長城】

澗阿高出碩人亭，清景悅如物外形。  
石老千年雲與白，江分兩岸柳連青。  
篁生爽籟醒塵夢，爐焚紫香讀聖經。  
咫尺斧堂移別業，多君肯構慰親靈。

## 題朴永夏溪隱堂【長城】

閉戶江村絕往還，應知心事運清閒。  
好音砒耳聽黃鳥，爽氣侵簾愛翠山。  
蘊櫝無人售美玉，論詩有酒解衰顏。  
索居難已膏車願，何日抱琴對竹間。

## 題邊鎮化耕隱堂【長城】

底事掩門碧岫東，桑麻逸趣足斯中。  
清樽臘節弟兄樂，香鮓春郊婦子同。  
蓮渚魚游經暖雨，槐庭蟬語引斜風。  
力穡能修分內事，丹心應是願年豐。

悟齋李昌煥誦甲朝詩，請和謹步其韻而副之【扶安】

悟齋春永祝生辰，聊賀賢兒善養親。  
天際輕陰非暮日，堂前壽暈自清晨。  
親朋胥悅情談劇，衷念應多孺慕新。  
六十行年何所得，經綸滿腹不憂貧。

崔友泳述壽母有詩，迫和

紫翠橫空潦盡時，賀賓南北不遲遲。  
令兒能竭知年慕，賢母頓忘哭晝悲。  
香滿金盤難老味，春生玉樹舞斑儀。  
知應仁壽荷天餉，永世君家占福祺。

題金棕坤先大人百忍齋【光州】

爲愛南山桂樹秋，結廬幽僻早知休。  
操心有術惟精一，臨事無差狃劃籌。  
翹楚風儀嶄壁立，汪洋胸海大江流。  
淡邊不盡真滋味，何屑營營名利求。

題權炳國梧軒別業

近挹清流遠吞山，盈軒淑景出人間。  
鳳鳴將待朝陽至，月色曾尋霽夜閒。  
宜與梗楠稱美質，不關桃李妬紅顏。  
炎涼未得擾方寸，猿鳥爲盟任去還。

## 全州題詠 十五【有小序，見序卷】

肇慶廟【梧木臺下西北，豐南樓之南，周圍約數百步之內，松柏蒼古，花草鬪妍，卽全州市公園也。中有古廟，碧瓦逼天，磚石布場，墻垣聳古，門扉朱紅，有儼其觀者，肇慶廟也。蓋此地，卽國祖新羅司空諱 故入廟而享之。】

松柏鬱蒼裡，有儼古廟嵬。

累仁積慶厚，享國長年來。

慶基殿【與肇慶廟，連墻。其壯麗，勝於肇慶廟。奉安太祖高皇帝晬容而享之。】

勘亂太平久，子孫五百年。

於戲不可忘，大命克配天。

紫滿洞【全州市東，有麒麟峯，聳立爲全市之鎮山。山之一枝，若飛若舞，逶迤屈曲，西落爲梧木臺。自梧木臺東上，則有鐵道，鐵道上，橫設架橋。渡橋稍上，則巒腰面南開局曰，紫滿洞。太祖之高祖，穆祖大王所居遺墟也。巒上小南下立碑，書之曰，‘穆祖大王遺墟碑’，立閣庇之，高宗太皇帝御書也。置有司，監守。】

紫光滿一洞，淑氣鐘祥來。

五百年王業，胚胎此裡開。

梧木臺【全州市中央之鎮山也。自麒麟峯西南落峯，逶迤重重，起伏之下，平圓如釜，一小岡也。登而放眺，可瞰全市。上頂，有太祖高皇帝駐蹕遺墟碑。昔太祖潛邸時，破倭賊于南邊，駐蹕于此，召見諸宗族，極歡而罷。高宗太皇帝，立碑親書立閣，庇之監守。】

有圓梧木臺，俯瞰萬門開。

聖祖曾駐蹕，同勸父老杯。

**豐南樓**【卽全州城南門樓也。木造二層，七楹極壯麗。朝鮮英祖年間，經火燬圮，族祖領議政恒齋孝安公樂性，按節完營時，重暨者也。距今二百五十餘年也。仍念孝安公，居官清白，在外則極善施之任，在內則盡匡輔之責，爲英正兩代名臣。我五代祖承旨石崖府君，深爲公所知，及其按節時憩棠之暇，臨于道川之石崖精舍，難疑答問，其蹟尙傳于家。今觀此樓，卽公按撫宣化之一政也。撫古傷今，不勝公私之感，恭賦一絕。】

城壁今安在，南門獨屹然。

恒齋重建蹟，扁揭至今傳。

**謁文宣王廟**【在紫滿洞之南，全州川之北。丹腹華麗，構造宏壯。庭下東中西三行，布以煉甃紫石，達于三門。東西廡各十間，大成殿西北有啓聖祠，大成殿後有明倫堂，堂前草萊蒼翠。墻垣頽落。盖其祠典之豐潔，可推以廟貌之儼正矣。】

於皇大道闢，夫子萬年春。

不向遺經讀，其何能淑人。

**風詠于寒碧堂**【堂在市之東南川之濱。木造瓦葺二層，下層石柱，立於川流之中，上樓，朱檻環圍，臨檻俯瞰，川流滔滔，白石鑿鑿。堂之直後，石壁削立，鐵道隧通，時時汽笛，聲震山河。景致之勝，卽全州之眉目。傳言大提學月塘崔公所建云。】

千仞石峯屹，一條鏡水碧。

風烟無盡好，朝吟到于夕。

玉流洞，謁崔欽齋秉心【寒碧堂之北，數十步之地，鐵道上有泉，湧出于石壁，而飛流瀑布者，玉流泉也。泉之東北，古木蒼翠者，玉流洞也。中有草堂，瀟灑突兀者，崔丈之書室也。丈卽良齋之高足，而隱居講道，全之士從，而矜式請益者多。余與曹君秉烈，進拜軒下，豐顏皓首，峨冠博帶，有長者風儀。其孫，年近弱冠，而總髮垂後，可知其好古家法也。洞口，有大提學月塘崔公遺墟碑。】

玉流洞邃僻，城府若仙庄。

講學有人在，名高一草堂。

清水洞，訪黃喪制瑞九，信宿五夜【黃友，自興德郡九水里，移居于此，翊贊頤齋胤錫之五代孫也。頤齋公與我五代祖承旨公，同師文敬公溪湖金先生元行。英祖己卯，同榜舉進士，嘗從承旨公，居於南平之道川，蓋以同門切偲之親也。後孫可知其通家之誼也。黃友，方居內艱，面深墨而鸞鸞，可知其古家法度濡染也。一面如舊，連日講論，承旨公頤齋公遺集。頤齋嘗作木川宰云。】

通家百歲誼，泝講至于今。

追憶兩公事，感懷自不禁。

青鶴樓【在全州川之南西畔，數十步突兀處，石梯飛上，疑若玄圃，閭風朴基順所築云。削石揭記，煉瓦象獸，彷彿於李德裕平泉庄。】

黃鶴去不返，黃鶴樓寂寂。

未聞青鶴在，可愧爾泉石。

食紫蟹【全州川產紫蟹，至秋大肥，味勝芻豢。漁者，橫斷川流而障之，中間一處，決之通流，其畔設依幕，待夜，舉火于流域，蟹集于火下，漁者擒取焉。若飛蛾撲燈，自就其擒也。全川上下處處，多漁幕。】

擒蟹朝歸屋，編蟹日賣市。  
我來秋已熟，沽酒喫珍味。

菁根【全州俚語云，‘梨不如菁，妓不如知印’，盖云菁味之珍佳，知印之冶客也。】

菁味涼似雪，菁色潔如瓊。  
細切爲醋菜，不嘆食無魚。

過三禮，感慕族祖谷城公鍾聞遺躅，追次參判鄭東溟斗卿贈別谷城公韻【族祖谷城公，中文科，嘗作三禮察訪。赴任時，一時名流，多以詩序送餞，而未得全篇，惟東溟詩，傳于五代祖承旨公所錄，隨得錄中。○按鄭詩云，“二月長安桃李輝，南征五馬疾如飛。莫言郵吏功名薄，地接鄉關是錦衣。”】

文茵朱轂映朝輝，雨歇江南雲遠飛。  
名重千秋紅桂籍，身輕二月綠荷衣。

花園洞，訪曹教授龍承，讀洪流巖萬選所著山林經濟，有感【曹友，余之舊交，而方掌教全北中學。高麗大學校教授洪以燮考證云，本是流巖所著，而世人誤認以茶山所著。】

遠包天地外，細入毛絲中。  
若論經濟學，此錄大有功。

大覺寺逢老釋【寺在麒麟峯之南中麓，路通全州南中學校前，創立未久之一小刹也。然景色玲瓏，地坵塍塹，騷人墨客之過全州者，鮮不登臨焉。有老釋，頗解文字，可與論詩，亦山中一奇事也。】

丈夫早解字，何事作山僧。

禮佛非能事，思誠百可能。

忠州慕賢亭，次族大父判事祐夔韻【亭在忠州金加面荷沼里，後山之絕頂。石壁聳白千丈，長江自江原道襄陽等地，來流合九郡之水，縈回流碧數十里，抱石壁而流，真絕勝地也。昔我族祖文敬公墓堂先生，與禹監司東溪伏龍，約居于荷沼，而未果，蓋愛其山水之勝，而有膏秣之志也。先生沒後，忠州人士，建荷江書院，於此享先生。自高宗戊辰毀撤，士林就其遺墟，封壇，而行朔望焚香，寓存羊之義。自壇上數百步，卽慕賢亭也。蓋出於不欲荒廢先生杖履之所也。癸巳菊秋，余與族大夫主事祐撰，參文敬公不祧忌辰，祭禮畢翌日，與諸宗登亭，山園盈視，川澤駭矚，一時清遊，等於爛柯之日。謹次板上韻 ○草樹曾經雨露天，中州多士尙尊賢。簪纓家勢猶今日，文藻江山續舊年。川原增彩荷潭上，棟宇重新洌水邊。先生遺躅隨時在，德業從來國史傳。右祐夔詩。】

畫中勝地鏡中天，無盡風光第一賢。

九曲江聲鳴萬古，三登山色碧千年。

先生伊昔擬居處，後學到今追感邊。

飛閣流丹壇映翠，陽春和氣百斯傳。

【九曲，九郡之水也。三登，忠州有天登山 地登山 人登山，皆亭之勝景也。】

## 天安三距里垂楊

砥平大道矢如直，垂柳千絲挾岸陰。

長短馬鞭相折處，年年征客斷腸心。

謁族祖晚退堂貞翼公影幀【公名萬朝，號晚退堂，九按籥節，歷史禮判書，官判敦寧府事，入耆社。○奉安眞影于牙山細橋而享之。】

蒼顏皓髮老卿宰，玉骨清標大丈夫。

九按方籓歲月久，棠陰到處頌歌浮。

天安日峯山，拜族祖耳溪文獻公墓【公名良浩，典文衡。】

騷壇高築籲賢俊，千丈大旗稱耳溪。

後學猶知賢太史，住驢山下拜前階。

忠州高山臺，拜族祖蒼崖忠獻公墓【公名景輔，官大司憲。英祖戊申，討逆有功，贈左贊成。○公之墓東麓，有公子禮判名漢墓。】

嶺湖鑿鼓動天地，按劍吾王怒赫然。

賴有同心忠直士，崇朝雨霽日高懸。

燕岐箕箒洞，拜族祖月峯景憲公墓【公名霽，官左贊成。辛原州時，擒橫域逆魁李仁居，策昭武元勳。】

仁居一夜弄干戈，不日將軍奏凱歌。

賢宰能當百萬甲，豐功可與日星多。

【漢宣帝云，得一賢宰，可以彌亂勝於百萬甲兵也。】

躡車嶺【公州】

老松藟葛覺山陰，九曲羊腸路轉深。

猶是湖西要衝地，客車荷馬日無禁。

廣亭旅舍【公州】

析薪採葛老夫苦，勸酒賣歌小女蕩。

山裡猶多山外態，偷閒何處可心養。

## 宿金蘭洞【公州】

廣亭十里雲霖碧，光德山中淑氣停。  
丹棗胡桃多別味，清灘白石動寒聲。  
居人不識兵戈事，過客亦忘熱鬧情。  
幸接金蘭同志友，一宵清話樂昇平。

## 彈琴臺【忠州。新羅時，于勒仙人彈琴處。】

二水中分聳一臺，何年于勒抱琴來。  
悠然追想伽椰曲，嫩竹河臨夢裡回。

## 金生寺【忠州。新羅，善書者金生遊處。】

中州山水多奇蹟，千載金生最有名。【中州，忠州也。】  
空谷草間存舊礎，滄桑一夢幾回驚。

## 次錦城校宮諸彥餞春韻

東君治轄促歸春，祖道城頭儀物新。  
鷺友留情秦管樂，花姑無語沒車塵。  
畫眉臨鏡攬懷女，仗劍對樽惜別人。  
願借天河萬丈白，滌消歲歲送離頻。

億萬年來同一春，年年臨別恨如新。  
忽驚杜宇催歸路，未覺花魂閱劫塵。  
望裡難留無跡轍，渡頭若送有情人。  
世間都是惜離者，應解此心回首頻。 右一首 代族祖南根作

## 賀族大父松雲承萬壽朝

甲周戊戌載青陽，君子弧辰值吉長。  
蘭友頌稱如玉句，麟兒祝舉引年觴。  
山鐘淑氣仁能壽，天佑福翁屋自香。  
聞有前賢九十戒，應加慥慥養餘光。

## 愚溪亭【長城，慕峴申仁植之居。長城北二面白岩】

巖花澗葉記新年，塊守深山托好緣。  
千古真情求卷裡，一春豪興在樽前。  
卷懷不銜踪難及，素履敦行業可傳。  
聞道河清將有日，肯令之子厭餐烟。

## 農隱堂【宋應浩。高興馬輪，宋孝燮之祖父別業】

五畝桑麻一草堂，安於守分故韜光。  
蒔花幽砌適微雨，飲犢清池帶夕陽。  
春酒介眉同樂歲，秋場納稼記豐鄉。  
傍人謾擬龐公業，詎識閑中意味長。

## 直軒【長城，邊武淵之居】

喫味澹寧漸入真，巷居有樂緼袍身。  
醴泉無障竟臻海，寶鑑輸精快脫塵。  
世亂不渝如矢志，道肥羞作乞墦人。  
善養浩然應有術，鄒書一部暮朝隣。

謹次漾碧亭韻【叔祖參議公諱澄之別業。舊在花浦上，中經兵燹而圯，後孫移建於道川之東，歷而揭舊名。】

興入湖山獨樂春，明時甘作等閒身。  
傳心自在肯堂外，無忝聿修在後人。

### 秋風嶺車中

秋風嶺上小春早，不盡秋風忽入裾。  
汽笛聲聲歸路促，名山淑景果何如。

### 早發龍宮，誤向栢石浦

早發龍宮行曠野，霜華滿地涉寒冰。  
尋真誤入雲山外，栢石逋邊路幾層。

### 自栢石浦，越嶺沿江數里，渡醴泉上街津

問津行客迷前路，沿渚攀崖步未伸。  
促渡橫舟登越岸，上街美酒暖生春。

### 暮渡芝尺津

芝尺舟中風欲起，醴泉江上日將曛。  
津人善識吾行色，謂向申城拜祖墳。

### 直學公墓

龍飛鳳舞午山秀，左逆長江右挾川。  
山盡水回鐘氣處，萬年直學祖孫阡。

津津餘蔭延千世，文武卿相幾百回。  
千里自南多感慕，赤雞十月我初來。

### 洪崖公墓

東來靈嶽自烽火，前帶平川向午山。  
虎踞龍盤護勝地，先生衣履托斯間。

### 申城齋室夜話

長歌對酒討情話，白髮青衿面面新。  
自北自南千里客，溯先曾是一家人。

### 登蒼巖亭，謹次洪崖先生原韻

千層巖立萬年洲，上出高亭接斗牛。  
陟降先生優若見，黃花不盡似前秋。

### 豐山懷古

天作豐山佳麗地，吾家千載舊居州。  
南來孤客是雲耳，悵黯興懷久住頭。

### 洪井

一井源源自北流，行人指點是洪井。  
昔年吾祖飲於斯，幸不廢荒保舊境。

## 鷹巖山大提學公墓

畫筆難容此吉祥，春風暖日百花香。  
誰知萬壑千峰裡，早托尊靈歲月長。

## 過高陽城山村郎將公遺墟

五百年前三世宅，草間砌石依稀存。  
安將高建數間屋，永表吾家寓景尊。

## 感慕郎將公節義

松嶽風寒天欲暮，高峰秋晚菊爛開。  
自公退食緣何事，早讀淵明歸去來。

## 郎將公墓

正方數尺莎埕石，石面鮮明不翳苔。  
麗代官啣蒼碣屹，韓天雨露老松嵬。  
吉祥龍劔藏山嶽，餘蔭卿相繼耳來。  
千里遠程多感慕，三趨階下裸將杯。

## 南平公墓

高峰山水最佳麗，桑梓舊鄉衣帶藏。  
五百年來餘蔭厚，湖南到處家聲香。

## 族兄杏下翁壽筵【谷城石谷，洪倅憲】

壽祿重重六十春，塵寰相忘餉清真。  
趨庭賢子喜兼懼，滿座佳賓德且仁。

福地居安能晦跡，心田去塞亦胖身。  
和風吹到善家裡，行樂未央日益新。 伯氏

永錫康寧不老春，翛然標格卽仙真。  
當年樂道善人慶，至理無差壽者仁。  
特地烟霞能別業，滿天風雨獨全身。  
鳳毛鸞羽非凡匹，將使家聲世世新。

松沙先生文集刊所有感【庚午始役，壬申訖功】

吾道在茲益闡明，人文間世集群成。  
精光能奪日星曜，氣脈遠通洙泗情。  
卽看鳶魚同活潑，不關宇宙禪陰晴。  
遺書編輯傳心法，昭示無窮敢曰輕。

和朴兄永鳳澹對軒懷古韻【昌平節山】

往事悠悠陳夢成，古樓對坐一燈明。  
顏瓢此地泉無廢，遼榻何年講有聲。  
風詠猶餘五六友，羹牆難盡萬千情。  
多君不忘書紳戒，應滌心田到廓清。

輓鰲南金先生【長城黃龍面玉井里】

黃龍江上玉山頭，抱道窮經八十秋。  
學業早從松老得，家聲遠自湛翁流。  
馬卿多病天何厄，原憲居貧德益周。  
乘化遽然將孰仰，臨風灑淚不禁愁。

題太峯亭【潭陽崔京煥考槃之地。門生等起亭。潭陽】

別區窈窕秘天成，自得新亭覺地明。  
黃卷尙論千載友，青氈克守一家聲。  
澗阿遺躅令人感，花柳輕風不世情。  
何處得來多淑氣，溯頭知有蘆源清。

賀崔敬堂允煥回甲【光州】

居敬于今六十辰，胸中不改自家春。  
案前勤向青篇讀，頭上應忘白髮新。  
厚誼忝盟金斷契，高標每仰玉如人。  
元來好德致遐祿，爲賀三蘭清馥振。

蘆沙先生淵源錄刊所有感

先生崛起道滋明，雨化群英各斐成。  
自北自南皆悅服，以文以德洽充情。  
却嫌諸氏儻湮沒，收錄多年歷雨晴。  
入室升堂斯宛在，無差傳受豈云輕。

蘆沙先生淵源錄刊所，歲暮敘別

浮生猶有不春春，勝地多逢知己人。  
欲雨櫛風鞭與合，鬪毫耕硯榻相隣。  
異言蛙吠都聾聵，大道砥平共率因。  
百里光關臨歲暮，別岐留約意尤新。

## 庚子正月晦日，蘆沙先生淵源錄刊所惜別

大道如川必注東，亘今惟見此心同。  
世態縱皆奔浪裡，朋情幸忝立麻中。  
松燈對話曾何日，柳舍離杯到晚風。  
寄語歸程慷慨士，待看瑞旭扶桑紅。

## 秋日卽事 二首

秋陽曝暖入書樓，清景隨哦落筆頭。  
桂萼晚留春信吐，潭心快得月精流。  
禾登新泰田家福，潦盡頓消旅路愁。  
最是農樽醞菊釀，爲稱大地百功收。 伯氏

清秋詩賦動江樓，無盡景光駭眼頭。  
野登黃稻太倉露，山吐紫霞俊彩流。  
遠信方聞鴻雁喜，佳人不見菊蘭愁。  
時來風迷誰家子，白戰荊場大賈收。

## 丹楓

萬樹秋光照眼明，暮山燁燁紫烟橫。  
艷如桂秀難分色，飄似鴉翻并有聲。  
今我車來停日晚，何人江宿待鐘生。  
枝頭變幻縱千百，象外春風不世情。

## 光州旅舍冬至

淡泊爲生忘日催，旅牕偶屬一陽來。

從知天道如流水，肯把身心作死灰。  
待價惟宜藏卞玉，論雄不屑煮曹梅。  
興懷曾瑟千年上，睨視洲洋小似盃。

### 夜訪辛春岡洪烈

城市輝煌電燭明，故人家在斷橋橫。  
行穿車悖遲爲步，晚到詩筵不敢聲。  
玉斝浮金春氣滿，楸枰落子雁陣生。  
十年書讀一宵話，好韻洋洋未盡情。

### 贈春岡

邂逅故人却忘形，錦心倒盡施丹青。  
大隱早從名市臥，浪蹤暫逐勝區停。  
誰知蠖屈將伸尺，可愛松盤特立亭。  
繾綣斯筵豪興發，不關天際已傾星。

### 三愧亭【光州西林，文瑜植海日大人】

三愧名亭出隱幽，登臨如見舊風流。  
志高幾詠擇棲鳳，色舉惟盟翔集鷗。  
做福無回甘世棄，知仁不遠反身求。  
胤賢肯構山增彩，錫類千秋續勝遊。

### 賀呂雲沙文強八旬萱闈下回甲【玉果。今谷城郡梧山面龍溪里】

萊衣弧節拜萱堂，孝養誰能致此康。  
天佑善人遐祿湊，春生寒屋瑞風長。

闡章被錦因加綬，洪量涵河未計觴。  
栢悅私情忝賀席，浮生勝會亦非常。

石樵精舍【昌平支石里，梁宗鎬所築。今潭陽郡南面】

揭厲隨宜涉險平，巖居靡是等閑情。  
雲長只悅蒼山近，谷邃堪憐蔣楚生。  
石里箕裘千古業，龍洲文物一名城。  
負薪克念惟能事，從看有秋驗早耕。

後山精舍【綾州大谷里，朴炳容所居。今和順郡綾州面】

尋師力學溯源頭，受賜丁寧揭命樓。  
菊露清晨題日月，松燈深夜讀春秋。  
長程知戒趨趨步，濁浪堪憐混混流。  
老志剛壯身粹盎，德成從識自誠求。

登曹氏富春亭，次板上韻【亭在綾州牛峯。筏橋邑七洞里，曹萬燁之先祖亭】

一陟高亭俯仰求，富春山碧大江頭。  
廣居有主安身屋，紛利無關笑蜃樓。  
濠上誰知魚躍活，林間惟聞鳥聲浮。  
如今重見肯堂構，肇錫嘉名永不幽。

蘇海亭【光州芝山面日谷，盧蘇海鐘龍別業。軫永先考】

志士行藏適以時，巖居此世筮從宜。  
儲書閣上今公擇，流水聲中孰子期。

故嫌俗客久關戶，惟有慷懷頻發詩。  
適軸生平先墓下，堪憐孝恩超人知。

### 月坡堂【光州市月山洞，金永萬所居】

此世猶開懷葛天，月坡堂靜日如年。  
詩朋到處座席滿，猿鶴慣顏酣午眠。

堂外不關雨且晴，故做淵嘿匿名聲。  
松欄風送峨洋冷，山逕朋尋雪月明。  
負郭置田餘活計，傍樽賦句裕閑情。  
窮居靡是愛長往，恐或和光見害清。

### 和曹桐雲圭復追慕父師韻

孺慕誠深山仰切，終鮮如君善日長。  
看來詩句中情溢，風韻將留百世香。

### 和曹桐雲圭復自敘

白頭志氣尚青春，向學真誠可感神。  
莫作悲歌慷慨士，天心將有祐仁人。

### 新春

青帝駕言出自東，氤氳和氣動仁風。  
共歡家室對頭白，獻祝兒孫舞袖紅。  
雁影漸稀雲塞外，梅香初聞雪塢中。  
上天惟是生生意，蘇快寒癢四海同。

河東花開洞，次用一蠹先生韻【庚子二月二十日】

興念先賢躅，悠悠幾百秋。  
頭流千疊下，一碧蟾江流。

過河東岳陽樓，用古人登岳陽樓韻

蟾津江帶頭流碧，中出岳陽百尺樓。  
不是巴陵猶勝地，洞庭湖上鏡光浮。

姑蘇臺，用楓橋夜泊韻

姑蘇城屹出重天，巖隙風寒驚鷓眠。  
俯望蟾江如鏡面，寒山鍾到渡人船。

晉州蠹石樓，用前人韻【二月二十一日。按高麗恭愍王十四年樓成，禡王五年，牧使金仲光重建。高麗時，觀察使金光奇建。英祖二十八年，七回重修。又火於庚寅之亂，己亥重建。國寶第二七六。四二八九年，社團法人古蹟會。】

英雄熱淚合成流，百里晉陽名此洲。  
曾是貞忠同殉地，休令歌舞謾登樓。  
隻禽如訴當年事，芳草喚生萬古愁。  
敬弔孤魂難忍去，吾生靡是貪優遊。

又用忠毅公崔日休堂臨訣韻，弔古

往事傷心何處問，樓前惟有大江水。  
試觀萬折東流勢，應識忠魂死不死。

樓下江干有門，庚申秋，因慶尙兵使南公德夏狀聞，特命旌表，義娘朱論介者也。晉州牧使洪伯淳，立到其前，因感有詩【按義娘，初爲崔忠毅公所愛，及崔公殉後，誘致倭將毛谷村六助，抱投江而死。娘本，全羅道長水縣人也。長水縣內溪面谷朱村，有義娘朱論介碑。縣監鄭柱石立。】

義烈滿腔子，匹婦難奪志。  
鉛粉當鋒鏑，倩笑出勇智。  
萬軍之勇將，早失用武地。  
制弄如柔羊，快投大江水。  
鋒屯忽相顧，號哭而替氣。  
桓桓大丈夫，鮮能埒此視。  
名垂太史筆，千載永不朽。  
我來多感慨，投詩致弔意。

### 自望美樓，西至彰烈祠審謁

晉陽恰似古睢陽，不死忠魂尚洋洋。  
到此難乾龍蛇淚，駿奔歲歲薦蕉黃。

### 蠹石樓前有旌忠壇碑，字蝕不可讀

歲久而石泐，字蝕不可讀。  
人皆致敬意，墮淚峴山石。

### 飛鳳樓，次圃隱先生韻

山名飛鳳揭名樓，百尺層欄孰孰依。  
夫子登臨青韻重，瑞光不盡萬年流。

逢全達洪，過栗里精舍【其大人基柱，號菊圃，鄭老柏軒門人。達洪爲其大人所築。現住，晉州市 將坵洞 五〇番의 一一】

路入晉陽栗里春，柳門深邃接篁隣。  
苔封瓦背經年久，草出庭心得雨新。  
遯世菊翁曾擇美，肯堂蘭允又能仁。  
管營摠是浮沈子，興念澗阿蒟軸人。

次養正齋韻【晉陽郡文山面葛村里，金繪泰，老柏門人。其子祐敬請詩】

喚起心神透夢關，面前自有好江山。  
玄空堪笑歸莊老，暴棄安能學舜顏。  
屋漏戒省應不愧，竿頭進步識先難。  
允賢又此肯堂構，長使餘風百代還。

宿仁谷書堂，用板上韻寫懷【山清郡丹城面九印里，權而堂書室。子昌鉉】

新安江上關仁邱，往昔而翁此隱求。  
負笈生多講北學，載醪叟或談西疇。  
意中山水仍成趣，分外功名不入謀。  
陪話澹軒千古事，晚尋遺躅作勝遊。

過丹城赤壁【有宋尤菴筆蹟】

削立丹峯高出天，清光盡入鏡中川。  
鶻巢風冷奇花裡，應有仙人不食烟。

### 登宜寧鳳凰臺，用李白金陵鳳凰臺韻

聞道鳳凰此地遊，晚來騷客好風流。  
萬花暖倒紅帳壁，二水寒生白石洲。  
今日偶然逢勝界，片身恍若翔丹邱。  
金陵遠隔青蓮古，只挹佳名更一愁。

### 到伽倻山紅流洞，用孤雲先生韻

玉澗逶迤貫重巒，雷鳴雪噴白雲間。  
先生題咏尤生色，千古人多愛此山。

### 海印寺紅霞門，次林石川億齡韻【寺在陝川郡伽倻面緇仁里一〇，住持李青潭】

萬壑紅霞裡，住筇帶日曛。  
清灘鳴白石，洗送世間紛。

### 觀八萬大藏經板

八萬藏經總是虛，幾人到此費居諸。  
思誠何處非平地，哀死榮生本一如。

### 登學士臺【臺上有孤雲先生手植檜，大可數圍。內務部長官崔仁奎，立碑記實。】

新羅崔學士，種樹此臺上。  
老檜千年碧，至今猶景仰。

### 次孤雲先生入山贈老僧詩

先生非愛青山好，明哲知機老此山。

若使文王久不作，太公應未渭濱還。

與而翁朴文丈仲豪·呂雲沙文強·鄭溪軒昇卿，宿海印寺夜話

三春烟景好，千里客程悠。

一夕椰山夢，滌消多少愁。

挽李翠雲元雨

孝友名聲動四隣，朗城佳氣毓仁人。

云亡叵耐餘生恨，惟有庭蘭保舊春。

遊金陵鏡布臺

飛落玉流鏡面斜，勝區夙絕食煙家。

波底紅帳無盡影，還是千峰躑躅花。

逢崔芝村翁炫芝村庄敘懷

一上名樓溯爽風，聽來好說胸襟通。

險程利涉方稱智，福地深耕已占豐。

志拙安逢千里驥，材高許養十尋桐。

勝區爲客雖云幸，只恨當場詩未工。

鳩林諸君子，朴苧汀燦宗·崔芝村炫·朴龍在·朴根在·崔  
洪燮·崔日錫·朴燦勛·曹在賢十數人，置酒設筵于修講  
堂，一宵清話，想起盛代風韻，寫呈諸君子

西湖襟帶鳩林流，煙景南來第一州。

美規尚傳今白鹿，淳風不變古青邱。

冬菰猶說千年史，春酒歡登百丈樓。  
歸客惟深膏秣願，更期他歲續清遊。

桐雲曹兄圭復甲朝敘懷，求和謹次【庚子三月二十九日】

降庚六禪復今庚，弧節方春萬化生。  
涉世利隨深淺地，結朋快倒輪囷情。  
奇花栢岵餐霞紫，靈水桐巖吸玉清。  
蘧瑗斯年能底化，翁應取法德彌成。

輓月臯朴公哲鎬 四首

風表溫溫德義深，早年文藻動詞林。  
如何今世非辰巳，遽使俊賢一夢沉。

咸陽世業久經年，堂構我公紹述前。  
滿架詩書又有主，爭稱胤子克家賢。

丹桃遠揚駕鶴路，青山多會炙雞賓。  
塵緣七十四年盡，今日謫仙大歸辰。

早年覲德襲清真，兼與胤賢契最親。  
千里嶺行違執紼，數篇楚些恨難伸。

到三嘉勿溪，宿老柏書舍【今陝川郡雙柏面陸里，卽老柏軒鄭先生載圭書舍】

花柳輕風假勝遊，尋眞溯上勿溪洲。  
未能立雪嗟生晚，祇向遺書心法求。

老柏書舍釋菜有感【庚子三月十日】

玉岫蒼環鏡水明，巋然柏舍是名城。  
先生陟降宛如在，百世羹牆菜禮成。

鄭溪軒昇卿鉉昱周甲，敘懷追和【方居釜山市凡一洞六洞會七統五班】

固窮安樂自家春，知化六旬彌德新。  
舉罌兒申川至壽，會心賓滿玉如人。  
山房儲卷今公擇，谷口耕田古子真。  
千里徒增燕賀意，恨深未結綠楊隣。

次金聖瑞相圭溪堂韻【陝川郡龍洲面黃溪里】

碩人別業水竹清，落落清標冠海東。  
好友來時同看月，爽懷發處獨臨風。  
尋源學溯千秋上，養性身安一屋中。  
濁世固窮能遠客，萬鍾難換白頭翁。

宿池氏桂陽齋，次板上韻【陝川郡大陽面桂洞，池亨源】

萬山窈窕一堂清，惟有秋風桂樹生。  
芬苾有年蒸祖墓，箕裘無忝繼家聲。  
淵源澄澈天雲近，椒實茂蕃升斗盈。  
我述應多鸞鳳羽，待時可見振令名。

曹友圭泰誦其先大人正煥松隱堂韻求詩，難孤其意謹次

【靈岩郡德津面長善里，曹圭泰】

人物元多以類從，高標廻出撫孤松。

篁筠聯友同期歲，桃李爲誰謾冶容。  
世雖縱橫分楚越，翁能粹古樂羲農。  
如今又見允君孝，說與清談喚起農。

### 金曉堂文鈺挽詞

我有良朋，曰曉堂子。  
睿敏邁倫，切磋不弛。  
腹笥六經，舌煎百家。  
博之約矣，吐辭則嘉。  
興漢嗟晚，奪伏何速。  
我絃斷兮，吁嗟痛哭。

### 次姜遜菴韻【長城郡黃龍面玉井里，信彩大人】

卜築雲林度幾年，有朋說與好相傳。  
泉甘宜煮通神藥，山靜高吟樂志篇。  
或把釣竿垂碧浪，更修畷耜理荒田。  
不關戶外風塵惡，存養天心守自然。

### 次姜信彩荷潭韻【長城郡黃龍面玉井里，遜菴子】

萬朵芙蓉一畝潭，天然風物擅鰲南。  
濂庭道氣翠連草，楚服清香綠映藍。  
葉受露濃銀汞轉，花能結子綠珠含。  
秋江獨秀緣何事，羞與春桃德二三。

### 謹祝伯兄六十壽筵

吾家飾喜屆青陽，積雨新晴得日良。

和氣滿堂貧亦樂，吉人如玉淡生香。  
箕裘古業能無忝，福祿遐年筮克昌。  
更願修仁齡與邵，山呼拜手獻醇芳。

### 漢城關門樓卽事

百尺樓臺春日晚，坐看億萬長安花。  
紅塵紫陌還多事，聊憶鄉山水竹家。

### 登終南山八角亭

終南削立玉芙蓉，八角亭高上上峰。  
獨樂惟能致衆怨，可憐功過不相容。

### 九月十六日，登三角山白雲坨

翩翩筇屐步寒山，直上白雲紅葉間。  
眼盡東南無地處，飄然飛興入清閒。

### 登北漢山城

漢北險關有此山，塹城高出白雲間。  
修文用武天能祚，五百年中日月閒。

### 牙山細橋，訪族姪起駿

路入名區眼豁然，津津情話悅敘天。  
雪園挺表松孤立，苔壁生香墨相連。  
千里相思曾幾日，一宵團會亦奇緣。  
讀字兒孫修孝悌，古家風韻至今傳。

## 留別族姪起駿

凍雨新晴錦水北，默籌鄉路意千端。  
兩宵對話情何極，一闋離歌酒亦寬。  
歸雲擁峽知程遠，征馬嘶風促日闌。  
惟有片心朝暮遇，諸君莫道分手難。

## 枕漱亭次板上韻【綾州】

登臨可滌六根塵，淨界深藏百世春。  
高士早知山水樂，明時甘作草萊身。  
團團皓月來懷照，展展長蕉與德新。  
不食當年收後報，承承詩禮有其因。

## 三過溫陽溫泉

地靈噴火氣，湯熱湧清泉。  
三浴宿疴痊，身輕擬作仙。

## 禮山合德驛，望唐津平野

良田萬頃眼無際，西極海邊東禮山。  
況是今年風雨若，家家困廩積如山。

## 雞籠山甲寺，嘲尹德榮良成庄

良成高出雞籠裡，甲寺風烟皆失色。  
飛瀑空懷千古恨，怒奔日夜罵狂客。

## 後山齋雅會

竹陰纈翠滴簾端，勝地清遊并二難。  
好說津津砭俗耳，旅懷便覺入寬安。

## 輓梁正齋先生 三首

直方治內外，抱道八十齡。  
衆芳皆萎折，竹林厲孤青。  
歲何非辰巳，天忽奪康成。  
餘生奈無福，嗚咽共吞聲。

忝爲通家子，受教會多年。  
遽然失依地，誰復喚我眠。

浮生好浪遊，京館滯歲月。  
病牀違執燭，卽遠未挽紼。  
晚來哭象筵，山寂流水咽。  
斜日立秋風，但覺增悽切。

## 相宜亭【谷城石谷面蓮洞，丁宗杓請。丁大睨大瑑兄弟】

悠悠秩秩浴川東，相好二難一室中。  
貲貨不曾吾汝別，枕衾恒與弟兄同。  
原鴿翩翩吟晴日，庭棣夭夭對晚風。  
爲誦斯干申賀意，應知福祿世無窮。

## 姪兒起培中高試感題【壬寅春】

吾家世業巍南州，仙閣恩綸經百秋。

繼述顯揚更有汝，自今世世可承休。

### 起培還家日又題

兄與嫂康鶴髮潤，姪中高試鳳毛華。  
天翁應解善家事，更有年年餘慶多。

吾洪氏譜四重修，始辛丑二月，壬寅六月功訖，余以不材，專任編輯校正，功訖日書懷

七百年來吾氏史，昭昭收錄八編中。  
松筠固節標仁士，帶礪重盟記偉功。  
十二文壇掌誥老，壯元及第直庠翁。  
雲仍百代萬千麗，閭閻一邦達四通。  
編輯夢軒二有手，錢梓嶺營湖臬工。  
百年續刊漢城館，編纂苦賢判事公。  
菲質猥紹三輯後，光城今歲告成功。  
願言繼述祖先志，勿替萬年孝悌忠。

【吾譜，夢軒公初編，而刊于嶺南大丘，二有齋公再編，而刊于湖南全州，判事公三編，而刊于漢城圖書館，及今四編時，余忝編校，而刊于光州。】

### 癸卯元朝

白髮三千丈，青春六十秋。  
當年伯玉化，兢業作吾樞。

### 癸卯元朝翌日，得家兒起株書，喜述

歲暮雪彌月，寒威猛且久。  
航程波滔天，驛路雪封地。

久關遠征人，鴈闕書不至。  
且聞數日前，棹摧南溟裡。  
惟疾恒多憂，到此倍思爾。  
方欲書探際，忽見爾郵紙。  
披看平安字，滿室喜更喜。  
吾家吉祥符，肇自春輝二。  
去嘗回瑞氣，上天好生意。  
慥慥乎直方，帝衷莫負矢。

自昨歲臘月初四日，雪連不止，至癸卯春正月二十日，  
雪高四五尺

五旬連雪積三尺，萬里長空叫鴈絕。  
寒烈肆威跨兩歲，梅邊暗動春消息。

雪深五尺松高立，冰鎖千重泉不息。  
萬世長春天意在，無聲無臭於斯足。

病瘴浹月信口成吟

慈陽必在窮陰後，暖日恒多久雨餘。  
天意玉成餉汝厚，大開明戶此安居。

春日卽事

花明茅屋富，客滿草茵香。  
老去非無事，但望事事良。

次金掃山舜衡鍾植望墓臺韻【慶南宜寧郡宮柳面正東里, 金昌仁先人】

痛哭聲長徹夜臺, 應知孝子號哀哀。  
天翁惟解無窮恨, 飛送咽泉枕上來。

題呂雲沙文强昌鉉三九亭【谷城郡梧山面龍溪里】

心似萬川必注東, 考槃逸趣有誰同。  
盃薇愛誦羲皇易, 隨柳曠懷伊洛風。  
客逕逶迤穿竹下, 書樓的歷掛雲中。  
伏陽思臘意無盡, 休使傍人嘲五窮。

安孝子會淳居廬圖

風風雨雨日陰陰, 虎豹聲中岳影沈。  
步石無難行路險, 臨流不憚渡頭深。  
漸凹雙坎膝穿地, 催槁數尋淚灑林。  
惟有天翁知孝子, 克昌厥後永傳心。

雙峰寺

一間古閣聳三層, 法燭床前獨老僧。  
百世風光今寂寞, 莫言窮化佛惟能。

與朴成韶永鳳·安建五極淳, 遊雙峰寺 二首

偷閒探勝鳳城州, 一路三筇溯澗流。  
層閣西林峙鼎坐, 載吟賡醉作清遊。

一撮禪房闢地幽, 招招印友謾登頭。

嚶禽舌巧清疑管，急瀑霰飛冷泄秋。  
雙對濃林休客惱，半傾荒閣喚僧愁。  
傍人不識風詠趣，將謂子平好岳遊。

### 敍別朴成韶·安建五

苦歎知音此世稀，幸緣文會吐珠機。  
詩如潔玉溫溫琢，筆化勁風颯颯飛。  
數月蘭牕薰剩馥，今朝柳舍執征衣。  
淇園猗竹留餘約，同伴晴秋惠好歸。

### 後山庄贈朴友炳容【和順道谷面大谷】

新健黃肥葡紫團，鬱金香酒十千寬。  
逢君每感丁寧意，飽德醉薰盡日歡。

### 挽鄭巽岡麟采 二首【高敞郡高敞邑月山里，鄭淳益大人】

風範遠從霞老傳，古家十世保青氈。  
槐安一夢醒何晚，脫屣人間去作仙。  
  
對衿披瀝曾何年，光館舊遊入夢圓。  
身滯長安違執紼，追送哀詞倍悵然。

### 次李進士奎憲竹下亭韻【長城珍原面，李啓昉先大人】

林亭高出破荒流，謝却紅氛任意留。  
獻賦採蓮名早擅，朗吟看竹德尤修。  
翠陰繡簟琴懷冷，爽氣凌樽菊釀休。  
碧暎琅玕鳳已去，倚欄曠憶舊風流。

## 挽李桂隱教洌

五峯叢桂映秋陽，鍾毓英豪破蒼荒。  
延客四時常有酒，葬親三月善居喪。  
言如木訥行勤篤，外若和光內直方。  
七十四年人事足，化仙縹逝白雲鄉。

空谷採芝歌白石，禋祠薦藻賦緇衣。  
青山埋玉無人贖，遼柱何年復鶴飛。

## 與呂雲沙昌鉉·奇莊軒老章，遊智異山華嚴寺

六根塵蒂到斯清，況是萍鄉兼友情。  
梵閣影斜歸路晚，更留後約託山靈。

## 贈小源居士李泳奎【求禮郡馬山面沙圖里】

紫微山色映潭清，面面煙霞不世情。  
天借碩人行樂地，圖書左右頤心靈。

## 講修齋，贈金顧堂奎泰【求禮郡土旨面金內里】

頭流萬疊鴨江東，蘭佩琤琤桂樹風。  
鍾子千年難再得，誰知樂在峨洋中。

## 贈別李小源泳奎

亭亭物標玉如清，載醉賡吟未盡情。  
他日相思錦水北，方壺明月照心靈。

## 示同研諸友

一理流行極妙微，渾然稟賦善無非。  
宮牆千仞誰窺室，夢覺雙關可透扉。  
暖日展心蕉漸秀，順風舉翼鳶高飛。  
要知克復生平事，身泰何年道自肥。

## 讀河西先生示門人詩有感，謹次

垂戒丁寧有哲人，恐教後學負天真。  
祇將遺帙三圭復，擬作生平寡過身。

與鄭厲菴道鉉·金顧堂奎泰·宋述菴在晟·金碧農相晉·金  
棲山堯元·金翠軒從洙·李玉峯福來·李愚堂鍾榮，會于  
邊君敬仲汕巖書庄，共賦【長城】

拭青相對所懷人，秋水蒹葭路入真。  
迭奏宮商清韻溢，朋情如海泮心身。

## 草洞精舍，贈安兼山秉柝【求禮郡文尺面土金里】

晦老挺生道在東，羹牆百世仰高風。  
誰知北海孝孫韻，又在全寰鼎沸中。

## 澹對軒次李參判韻【號寧齋，名建昌】

斯文萬世一陽春，瞻仰高山道益新。  
甕飲各充河水治，旌招難奪草萊貧。  
剪芟荃棘開平路，調和靈丹壽瘵人。  
賴有靈光巋然立，羹牆小子意津津。

次李春田赫晬日感懷韻【光州市鷄林洞】

周天甲子歲重新，德與齡崇可有親。  
四海風塵憂國士，十年函席育英人。  
朋來莫畫湖舟月，君去孰留槿域春。  
并世幸資鸚鵡益，舉杯遐祝赤松身。

生朝周甲志感【甲辰正月十九日】

桑蓬未遂是何人，風樹餘悲百倍新。  
千古蘧瑗朝暮遇，壯心勿替願尋真。

次龍坡晴庄韻【長城郡黃龍面黃龍里，金源得先大人堂楣】

百笏青山水一坡，風光輝映淑其何。  
春深竹氣猗如簟，鏡澈江心可數沙。  
占得清閑因永矢，較看貴介莫斯多。  
草堂大夢鴈先覺，成恨無人和浩歌。

寒食

百五令辰此日寒，東風吹雨灑霎霎。  
採蘩煮卉薦籩豆，首拜青山淚未乾。

新鷺

新鷺喃喃尋舊主，乘風暖日載春來。  
滿園花發樽盈酒，爲對親賓舉一盃。

華陽洞巖棲齋重修志感【清州市壽洞三八六의七，朴東箕號小偵

貫尚州集詩】

滄海汪洋泰嶽崇，集成群哲道融融。  
風霜雖劫難摧朽，魚水促緣遽泣弓。  
百世有辭尊攘義，後生咸受啓開功。  
宜令水石無荒廢，丹腹重新罄我衷。 代名

天作華陽瀛海東，雲開日白自清風。  
一區水石皇明世，千古羹牆大老翁。  
鼓舌宵人狐魄落，飲河俊士鯁腸充。  
不徒丹腹無忍廢，更向全書求飭躬。 自名

次金源益春園亭韻【長城黃龍面黃龍里】

憑檻感君孝永言，畢生慕若奉晨昏。  
草心藹藹誠圖報，竹色猗猗道赫喧。  
家住白雲宜採藥，賓來青眼好開樽。  
可歎世蔑親親義，安得晟時旌表門。

金春園源益甲朝有感懷吟，謹次

樂地裕如別有春，和風吹送滿家新。  
星明朱極壽仁者，水碧黃龍臥大人。  
六十年前曾赤子，萬千祥裡此良辰。  
參商未赴岡陵祝，那得裁楊作壓隣。

金顧堂奎泰·安兼山秉柝·李松農東範，聯筇來訪，皆是  
積歲顏面，共賦一絕

黃花釀熟擬登臺，却喜親朋自遠來。

落帽佳遊疑此地，朗吟劇醉任天才。

### 又步前韻贈三兄

忽上秋風弔古坵，悲歌多少不平來。  
小學書中夫子後，誰知繼述有真才。 右贈顧堂

閉門看字鳳凰坵，萬古清風鴨水來。  
處處香燈憂道日，兼山又是育英才。 右贈兼山

壯年書劒幾樓坵，挾畫長風皓月來。  
歸讀魯連多感慨，較看司馬不凡才。 右贈松農

同奇莊軒·韓的悟旭東·朴石泉永鳳·崔春江日錫，夜發長城  
邊君時淵家，向光州石泉寓庄，道中的悟兄口呼一絕走次

鰲山館外夕陽斜，一路相尋故舊家。  
二舍光城車已晚，千街燈火滿開花。

奇莊軒韓的悟宿鄭東樵喆煥書庄，因與東樵聯筇來訪，  
步前韻共賦

懷人千古晚登臺，滿袂清風客上來。  
安得賓興與聖世，爬羅山澗不遺才。

苔碧瞻星滿月臺，流清洌水湏江來。  
四千歲久多人物，歷歷採收賴子才。 右贈的悟

幾誦黃樓與鳳坵，詩思琢玉研真來。  
如今若得潤州宿，畫角青山不獨才。 右贈東樵

佳期指日夢陽垠，幾是美人如玉來。  
堪笑容長無信義，天應不棄子都才。 右疊前韻自敘

### 壽莊軒晬筵

珍城山水照人清，君子弧辰可有聲。  
高表寒松千丈碧，朗懷霽月十分明。  
研朱幾點消長義，虛白相忘熱鬧情。  
是日方稱仁者壽，天時佑吉一陽生。

### 宿慶州市鷄林館聞鷄聲 二首

月星皎潔霜華白，何處鷄聲曙色催。  
瑞氣沖融群動寂，却疑叢藪大人來。

降祥何處始鷄號，霽月光明鏡裡天。  
闕智風英如可見，憮然想像二千年。

### 謁新羅太宗武烈王陵追感，得名臣金大角干庾信成統三偉勳

男兒本有四方志，碌碌書生奈老何。  
麗質元來難自棄，千秋賡和屢屢歌。

疆土三千統一域，兵戈阻絕謾多年。  
安將武烈龍光劍，快破紛紛三八線。

## 奇莊軒【伯氏作】

疎竹寒梅一屋清，松燈不輟伊吾聲。  
卷中窮研絲豪析，筆下嶄嚴義理明。  
陽復時長君子道，山高地合壽人情。  
若翁心事我能識，會見晴天月滿生。

## 光州雲菴莊，與雲沙顧堂的悟朴兄永鳳崔春江兄，夜話

良夜清談飛玉屑，襟期灑落月星高。  
將心早許堅如石，論義驚聞細析毛。  
叔世無知懷寶士，瑟音肯讓好竽曹。  
丈夫自有平生事，笑殺子雲還拙勞。

## 次鄭兄尙珪東樵咏

燈松看字劈蘿樵，偏愛東山趣自饒。  
韓管誰書今孝悌，瀨歌君續古芻蕘。  
朝穿翠峽苔雙屐，暮飲清泉月一瓢。  
半舍難成元白社，年來其奈近還遙。

## 次鄭東樵兄生朝感題韻 四首

浩歎壽域久無晨，故舊睟朝逢好辰。  
鐵樹開花明一屋，瓏衣繞膝悅雙親。  
萊垆稱頌祈君子，星宿呈芒耀老人。  
今日朋情期待重，應師伯玉聿修身。

簡易令風可有親，林林此席會冠巾。  
黃精作飯年延久，朱露點經知益新。

胸海月明千頃夜，福田日暖四時春。  
朋交六十多少意，數句荒辭爲子陳。

天匝牝牛歲再辛，睽朝景物正彬彬。  
六旬樂事三兒孝，四面寧風一室春。  
梅竹盈園何願富，詩書滿架不憂貧。  
吾儕今日長年祝，第見寰區快掃塵。

君子無時不好辰，只存心事莫胥淪。  
福田種德恒如月，壽域生仁藹若春。  
憂樂難忘斯世事，直方交懋是天民。  
如今震土海氛熄，幸作化中難老身。

#### 次東樵自咏【伯氏】

芝爲餐飯桂爲樵，記得山人逸趣饒。  
覓句良辰朋翰墨，吹歌空谷伴芻蕘。  
林端雲白暖粧屋，岩隙泉清冷飲瓢。  
座有親賓樽有酒，脫流華髮任逍遙。

#### 次東樵生朝韻【伯氏】

上堂無處奉昏晨，知子蓼莪悲此辰。  
難抑下沈能飾喜，且邀舊契穩攄親。  
碧桃實熟供仙味，黃菊泉甘飲壽人。  
白首同庚深有意，願言共作戰兢身。

守敬堂【忍齋崔仁煥讀書室。光山大村面良菰里崔允煥】

始終一念兢兢地，只見冰淵底薄深。

讀罷丹書清夜坐，團團梧月照胸襟。

次泥山精舍十詠【敬堂崔允煥讀書室。良菰里泥場】

凌白閑雲裡，樓高瑞石東。

陶翁千古後，持悅子惟同。 瑞石雲帳

樂崗春雨足，漁笛水東西。

層浪歸帆晚，天雲遠與齊。 樂江漁笛

莫道泥山邃，人居地以名。

峯頭邀霽月，高出讀書聲。 泥山明月

掛岵穿雲艷，彩光不得消。

半空橫射暮，疑是隋虹橋。 松岳落照

琅玕盈斗熟，燁燁動香風。

中有鳳凰啄，不隨凡羽同。 竹園風光

舊代衣冠盡，只看丘壟留。

想應霜露節，怵惕思悠悠。 芝山松楸

千絲垂柳碧，薄暮翠烟深。

牧笛聲聲裡。 沿溪古道尋。 柳谷烟景

巖隙清泉出，一瓢飲冷流。

生涯於此足，樂志正休休。院隅石泉

無風鏡水澈，汕汕躍群魚。  
茲裡天機察，靜觀樂有餘。臨觀池魚

杭稻熟充羨，一望十里郊。  
安豐便此地，莫使傍人嘲。望見野穀

### 泥山精舍

林亭高出日遲遲，灑落襟期擇所之。  
竹月擺簾紋綺活，松風拍戶冷琴奇。  
愛深泉石心難奪，養在性情物莫移。  
知足平生無別事，不悲陋巷少人知。

### 詠歸書院重建有感【谷城郡兼面玄亭里，許基洪】

河回九曲岳千尋，一廟重新柏樹深。  
知遇恩隆題墨竹，卷懷義大老山林。  
雞縣化洽牛刀力，牲幣敬將衿佩心。  
莫使迷生窮道哭，洋洋陟降在天臨。

### 次崑巖自詠【和順郡道谷面元花里，文泰植】

萬峽交牙關一村，巖棲逸趣道能存。  
知心微眇擇精養，見義分明析忽論。  
只把琴書爲活計，滿栽松菊作名園。  
無人山外詠招隱，巾幅婆婆秋桂軒。

月坡曹泰鉉姑未相敘, 聞其晬日, 有詠賡和【潭陽古西月田】

聞君晬筵欲相尋, 好德致年孰有今。  
繩尺無違平地步, 直方交養對天心。  
墨香瓊什頌詞富, 春滿瓏衣和氣深。  
遙祝長生難盡意, 佇期文酒一床臨。

次松湖自詠【靈岩西湖面鳩林里, 曹永鉉】

大隱南來何處尋, 西湖東畔碧松陰。  
潛龍閑臥吟秋水, 老鶴高棲夢月林。  
寶筏利行風定日, 嚴霜那奪歲寒心。  
清商浩發少人識, 莫使蛩音謾浸侵。

安兼山乘柝余之庚友, 而以四絕壽, 余謹步其韻壽安兄

道氣昂揚耳順日, 風儀宛是太清來。  
同庚遠隔相思地, 恨未趨筵稱壽盃。

五鳳山前多瑞氣, 良辰好友誰誰來。  
碧桃實熟釀春酒, 王母恭舉千歲盃。

鴨頭水綠開靈境, 方丈山光入戶來。  
箇裡有餘長世術, 採歸瑤草釀春盃。

問君進德取何術, 鴨綠江清來復來。  
志益壯時身益泰, 岡陵不待祝年盃。

## 甲辰除夜

竟夜松燈久不寐，一堂婦子對慇懃。  
立揚恐負雙親志，繼述僅刊三世文。  
晚雨洗消殘峽雪，長風快掃滿天雲。  
窓前梅蕾透寒綻，應是待明春色醞。【是年三世文集刊行故云】

## 澹對軒齋宿，夜與諸君子共賦

剝上長留碩果春，年年復見滿枝新。  
看花數葉謾多事，門外往來摠別人。

## 筏橋旅舍思鄉【乙巳夏，正齋集刊時】

一枕悠悠遠客懷，故園風物夢魂開。  
玉梅已落海棠發，山雨新晴竹月來。  
訪友有時題鳳去，課兒何日屠龍回。  
妻藏好酒十千斗，應待我歸新服裁。

## 風詠契軸【代朴夏求作】

濯清振袂溯長風，納納乾坤俯仰中。  
相馬無人來冀北，擲金有孰講遼東。  
玉溫最愛難渝白，桂辣何嫌晚吐紅。  
只信天機元不二，直方可是故豪雄。

## 輓李圓臺源台

圓臺高士溫如玉，早向心中萬理求。  
好把十圖燹繹久，知君學術溯源頭。

江湖病臥星霜久，天意分明庸玉成。  
詎解未醒辰巳夢，遂令故舊轉悽情。

千里相期朝暮遇，寸心曾吐一書中。  
友道百年鮮有子，我車十月俶于東。  
古今橫豎言無盡，酬酢淺深酒不窮。  
興倒渾忘華白髮，臭應惟喜轉青瞳。  
誰知月夜清琴響，幻作薤歌沍臘風。  
安將枕上陸雲夢，談易幽堂快脫蒙。

### 聞邪教設法會

騁舌籍天誑萬端，驅人入慝似無難。  
胸中莒墨吾能事，千古賢師四勿顏。

### 溪隱亭【先人】

鳴湍瀉檻垂高邱，天借碩人蒞軸遊。  
耕釣適情真樂地，琴書得意好風流。  
樹功百載茂乃德，不食當年穀爾謀。  
舉世奔忙堪可笑，羨公林下早知休。

### 又【自作】

向溪飛閣壓東邱，不是尋常騷客遊。  
椎琢文章鳴一代，不貪名利退中流。  
活水白雲千里志，碧松脩仰百年謀。  
別般排置畫難得，明月清酒共與休。

## 辛春岡洪烈壽筵【乙巳五二一】

君我相看六十生，憐君較我德尤成。  
論詩不輟因心璧，置酒常多會友情。  
仁術欲開丹廣濟，操行能守道分明。  
是年遐祿宜爾，頌賀衣冠城市傾。

## 風詠契軸

搏以雷霆散以風，流行一理妙微中。  
衆星拱處辰居此，四海春時帝出東。  
鳳舉早知千仞狃，佳辛留待九秋紅。  
詠歸新服良有意，素履安舒便是雄。

陽春惠我送天風，佳興偏多觴詠中。  
麗景遍隨花上下，高朋咸萃水西東。  
但令心地守虛白，不願緋袍拖紫紅。  
熙穰無非聽理帥，休將皂隸較爭雄。 伯氏

## 旅舍雨夜

鐵屋雨聲多，石階簷溜急。  
鄉愁輾轉夜，遠客睡難洽。

## 秋興

造化成功告有秋，乾坤到處好風流。  
禾登野盡黃金幕，雲捲天通碧玉樓。  
蠟燭照經聽子讀，菊英浮酒會朋遊。

漑根只爲須成實，困廩峰高滿滿收。

### 澹對軒，與友人共賦

江心似鏡蘆花明，總是清秋不世情。  
天借良辰多士會，敬將蘋藻拜先生。

### 九月二十八日風詠契軸

銛詩白戰互鳴真，繡肚便粧甲冑身。  
黃卷師存宜酌古，丹田道蘊可知新。  
朋交雖異東西隔，神遇已同朝暮隣。  
但恐美人消息晏，榛苓一曲拂香巾。

高山仰止可尋真，誓作生平寡過身。  
屋漏無慙誠克徹，竿頭不歇步尤新。  
相資幸是蓬麻益，久敬誰非鶻鷹隣。  
會待明春花滿發，一天風浴彈衣巾。 伯氏

### 輓金顧堂奎泰

早歲能志學，從師居鳳城。  
方壺萬疊碧，鴨綠一帶清。  
靈境宜考槃，身泰道自亨。  
弄墨奪造化，究經入微精。  
臨酒發豪宕，論詩鳴不平。  
衡泌雖幽閼，南服擅名聲。  
學子競坌集，濟濟難容鬢。  
凜風襲區宇，靈光自崢嶸。

強艱衛吾道，開牖惠後生。  
上天不愆德，鳳翮忽遠征。  
山河斂精氣，奎宿失彩晶。  
蘭契矢無渝，胡乃棄我輕。  
縱有菊爛漫，大白誰與傾。  
我欲歌白雪，清商孰有賡。  
秋風獨悽立，鷄絮欠餞程。  
叵耐難作恨，拭淚寫衷情。

### 輓梁石蕉炫承 二首

竹屋深深書滿架，一瓢飲冷不憂貧。  
風姿磊落今安覲，七十光陰一夢新。

洛州夏雨論詩夜，瑞石秋風把酒時。  
遽爾化成千古事，空樑月色轉悽其。

### 洛州客館，聞朴後山炳容壽筵之設，未赴替謝

惠風吹送善家春，菜舞丹心寸草新。  
地擬仲居能樂樂，情深陶話可親親。  
只緣薄客虹橋驛，未赴良辰竹樹隣。  
拙句替陣無限意，闡章錦綉養天真。

後塘梁兄在櫛，馳書要作一日之遊，與宋雲江宰秀·鄭東樵·奇莊軒·朴後山·辛春岡·朴石泉永鳳，共赴敘懷，呈後塘主人

數間書屋一松燈，有約清宵訪我朋。

竹館鳴琴知己少，山村肴酒樂年登。  
堪憐水石環粧玉，不換功名擢伐冰。  
白首逍遙遊物外，羨君氣岸邁千層。

### 集成祠

之蘇之佛日，菜禮尙羊存。  
碩果千秋熟，誰云道不尊。

### 次東樵除夕韻【乙巳】

漏壺滴滴漸催輕，剪燭終宵不盡情。  
計絕舊塵清掃洗，爲將新薦宿齊明。  
道心但可天同樂，德業惟因歲久成。  
坐待曉鍾春與到，故教妻子酒頻傾。

### 次東樵元朝韻【丙午】

羲和有事早迎新，紅日昇東四海春。  
隣里拜爭懷橘子，公門賀集履珠賓。  
簞瓢陋巷來顏氏，花柳前川遇伯淳。  
德與年脩惟我願，孜孜念善自清晨。

### 次南隱韻【高興郡南陽面里，金永厚大人號南隱】

桂樹秋風樂，何嫌紫誥遲。  
鳳吹和者少，會待後人知。

### 謹次金東谷丈俊植遊瑞石韻

須友錦溪累溯回，轉成瑞石一樽開。

他年可記山中事，陪得東翁賦句來。

謹次齋洞書院重建韻【享西齋宋忠剛公侃以下十餘位。在高興郡東江面馬輪里，宋孝燮】

清節千秋作首陽，傷心不忍道莊光。  
一堂芬苾盡忠孝，孰與先生風韻長。

宿後山書庄，贈主人

休道山門布褐寒，良田百畝早遺安。  
案前且有書千卷，四海風塵一任寬。

昌平曹氏聚斯堂【潭陽郡古西面芬香里，曹圭復】

十世梓鄉肯一堂，昌山花樹帶春芳。  
龍嘘火渚人初降，魚釣桐江日亦長。  
右壁畫盡難易白，雕甍苔久厚封蒼。  
環筵俊秀唾珠玉，醉月罰撫金谷觴。

烈婦海南尹氏贊【鐵川杏亭，鄭公明一夫人】

竹斑皇淚，湘鳴千秋。  
杏飛尹魂，鐵名南州。  
誠貫日月，前後一流。  
歸告有地，可云無差。  
王命旌宅，煌煌道周。  
彤管有直，顯微闡幽。  
孝孫克述，公于八陬。  
嗟哉鄭門，世無與儔。

又【伯氏】

貞三日夫婦之義，從容下就遂同穴。  
杏翁有妻，嗚呼烈哉。  
順數月母子之恩，刀斫磨磷注指血。  
杏翁有女，嗚呼孝哉。  
粹百年金玉之精，分類立篇付劊劊。  
杏翁有孫，嗚呼賢哉。  
追感先子之狀直，況是宅相之親切。  
誦慕之深，其可已言哉。  
一家之風，表臬樂萬古哉。

松圃亭【潭陽古西面院江里，鄭海哲】

碩人成癖澗阿幽，永矢考槃曾結樓。  
萬國腥羶難眺夏，一區清爽獨生秋。  
琴藏山水書藏道，花映欄干月映洲。  
瘦鶴孤鳴安在主，登臨悵憶舊風流。

石泉庄，和鄭東樵·辛春岡·朴石泉諸益韻

生平固寡病昏慵，晚逐芳隣此住筇。  
六馬馭心纏朽索，七絃動指聽寒松。  
買書只爲窮年學，開廩將收萬斛舂。  
自是可游昭曠地，微軀何必願羲農。

暮過長城驛逢雨，宿邊時淵梅社

暮天雨意滿寒空，兩岸燈花一路通。  
還住歸鞭梅竹社，清緣有數賴天翁。

## 題邊時淵詩軸

滿軸瓊琚意不空，翻驚詩話渙然通。  
非復阿蒙真有子，還羞焚眉白頭翁。

## 梅社夜話

五更風雨一燈明，詩話清飛碎玉聲。  
言志曾非侯鳥嘯，南豐何事以無名。

## 光州社稷壇夜賞櫻花

登臯放眺久依筇，乘興相忘白鬢翁。  
綵燭玲瓏千架上，清歌縹緲萬花中。  
誰家白酒春如暖，此地紅塵夜不空。  
滿目繁華非我事，更期觴詠舞雩風。

## 與東樵·春岡·石泉·高南農光七·林綠泉東漢，共賦

大海名山入夢頭，早年胡不子長遊。  
蠓蠓來去動千軸，繭栗區分畫六洲。  
文物堪嗟難睹夏，襟期自負朗吟秋。  
二三幸有金蘭契，翰墨場中歲月流。

## 與雲沙·莊軒·東樵·石泉，登綾州映碧亭，次板上韻

水如鏡面映層欄，甃餽參差碧玉盤。  
太守風流練歲久，美人消息渺天端。  
江山到此詩難已，烟景無邊酒亦寬。  
慷慨男兒千古志，狂歌盡日故爲歡。

羅州仁德亭移建落成有吟【舊在東門內蓮池畔，丙午移建于南山】

新亭仁德水南阜，鬪角飛甍耀日高。  
柳葉箭神誰學楚，鳴鳩風正可吟曹。  
波吞百里江心闊，石立千尋嶽氣豪。  
從古斯筵遵禮飲，二難傾盡百盃醪。

麥浪

風入平郊近夕陽，麥疇萬頃碧波長。  
薰魂謾自尋泥滑，魚夢應疑擲餌香。  
精衛難成填海地，愚公可作移山鄉。  
田村上下炊煙起，悅見蜃樓興欲狂。

題食山趙氏松齋【細枝食山，曹炳萬】

瞻彼青青想子襟，高標宛在後凋林。  
早從勝地安棲息，肯與奔波胥溺沈。  
皓月三更聞鶴報，白雲十里愛山深。  
滿篇瓊律是何富，可賀允君堂構心。

與雲沙·莊軒·東樵·石泉，遊無等山莊

三月江南霖雨歇，名山物色倍增光。  
高朋況是招招起，一日清遊意味長。

仁德亭飲落翌日，賡吟

春城雨歇翠交微，新服初成可詠歸。  
天作勝區環纈錦，地多淳俗不關扉。

讌文較射才兼至，飽德酣薰興欲肥。  
回首斜陽奇景又，紫霞艷艷凌樽輝。

### 輓金雲坡丈珍鉉 三首【光州市龍鳳洞】

蘆山屹屹碧，千丈松高立。  
立雪誰誰傑，公能堂室入。

龍盤九十歲，極樂江波清。  
噓氣雲成白，飄然上太清。

昔也拜牀薰沐浴，今焉哭几涕漣深。  
青山近日收豪盡，其奈蕭條我士林。

### 綠陰

樹樹林林處處亭，千峰萬壑照人青。  
錦裝驛路馬行緩，烟纈丘隅鷺去停。  
節屆黃梅香浥雨，日斜碧柳影籠汀。  
蕩彼桑間醜難道，何當習禮聳觀聽。

### 登光州風詠亭

極樂江頭第一亭，湖山百里眼全青。  
地雷忽吼車輪去，場藿登歌客馬停。  
傾世文章環繡壁，順風檣楫渺歸程。  
勝區半日清遊足，只有天翁一任聽。

題風詠契軸【修契于孔泗隱家】

路挾松杉映翠微，鳩筇競自四方歸。  
朗吟碧岫因題葉，新浴清流却振衣。  
黃雨夜沾梅欲熟，紅冠午唱健初肥。  
泗山廟下續風詠，曠懷席間曾瑟稀。 伯氏

泗山雨歇惠風微，印友招招共詠歸。  
幸有知音歌白石，肯追迷道哭青衣。  
流金麥氣黃初熟，抽水秧心綠正肥。  
并世又存朝暮遇，休愁南北面相稀。

水複山重路轉微，東南佳客胥爭歸。  
伊今天地酣銅臭，從古英雄出布衣。  
四月始聞鶯語滑，萬山最愛樹林肥。  
逢迎千里同心契，正是清遊此世稀。 起灑

壽孔泗隱思烈【長城北二面晚舞里】

夫子家門德不微，泗翁壽席客多歸。  
綵舞庭前繞玉樹，聽簧枝上囀金衣。  
孝能爲業祥應降，敬與俱生道自肥。  
況是聖祠蘋藻潔，不徒胡考到今稀。 伯氏

簞瓢一巷樂寒微，靡子同誰惠好歸。  
舞里風清懷舍瑟，聖祠潔藻賦緇衣。  
鹿鳴是日嘉賓至，槐綠多年古蔭肥。  
好德康寧惟若此，泗山勝會正今稀。

百里湖山入翠微，弧辰有酒客爭歸。  
生芻空谷人如玉，寶樹盈庭綵爛衣。  
千世業能傳禮法，一生志不願輕肥。  
聖祠有主將蘋藻，舞里感深曾瑟稀。

### 申知事庸雨碑成呼韻

宣化南州問幾春，一聲豐口到今新。  
清和四月棠陰碧，墮淚碑前拱揖人。

### 祈疆土統合

如今天不眷吾東，南北爲治各異同。  
漆室憂深祈暝日，戍樓勞久嘯寒風。  
結盟敵血頻洄上，決策運籌孰幄中。  
聞道河清期已近，太和應速掃陰窮。

### 登濯斯亭【尹芝菴杖履之所。在南平藍石前砥石江畔】

臨流酌酒賦清詩，不覺全寰大火時。  
直上鵬圖應有待，孔昭魚伏可難欺。  
千年石白傳奇蹟，十里松青問古枝。  
只爲濯斯風韻久，征鞭斜日故遲遲。

【文氏始祖武成公，自石函出。休菴白公仁傑宰南平時，栽松十里防水害。】

丙午秋高山書院享禮，述菴宋在晟自湖西之連山，江陽  
李世榮自嶺南之草溪，湖南左右道諸友亦多來會，呼韻  
于澹對軒上共賦

溯回葭露暮江頭，印友招招作勝遊。  
千里逢迎非易事，清宵埋跋故連留。

丙午九月風詠契，會于羅州草洞南沙亭【李東範先大人啓善氏  
所建】

楓葉飄丹錦水頭，良辰勝地獲天遊。  
金蘭契熟無生面，文酒盟新上古樓。  
樂志便多佳事業，素行剩得好風流。  
二難四美九秋會，可使名聲他日留。

錦城高出大江頭，有約令辰作勝遊。  
蘭契一場鳴佩玉，楓林九月上高樓。  
耽文飽喫芻豢味，樂道焉知歲月流。  
會事如今稀此世，山中他日可名留。 伯氏

謹次大老祠重修感慕韻【在驪州，享宋尤庵。述菴宋在晟請】

大老祠成二百年，珠丘咫尺穆清前。  
春秋日月長明地，華夏江山舊有田。  
魚水縱成千載合，膽薪未解一心懸。  
重新丹腹蘋藻潔，士氣昂揚喜不眠。 自己吟

次鄭安錫松隱堂韻【光州市長燈洞】

羨君避世卜深山，鎮日松風聽裡閑。  
歲去能知薑桂味，春來肯市否桃顏。  
菴僧乞句穿雲至，野叟談農載酒還。  
長夜青燈晉賦誦，襟期磊落出人間。

朴友夏求感懷周甲晬日有詩，步其韻而贈 二首

清表亭亭德器成，滿堂和氣若春生。  
山牙疊疊因遯跡，書味溫溫厚養情。  
初動陽雷辰值吉，那無福藟日抽萌。  
高歌松茂爲君祝，蒼鬱盈庭共守盟。

寬軸寤歌一草堂，誦君好德致年長。  
恢量擬海無崖岸，高表如松凌雪霜。  
教子良謨書滿架，留朋款計藿餘場。  
湖光山綠使人玉，何屑仙方沆瀣觴。

山浦暮車口占

烟波平野白，雲帳半天黃。  
烏骨群兒子，躡塵嬉路傍。

丙午除夕，次東樵韻

壯心尚擬不渝初，歲暮其何知益疎。  
但可窮通修已俟，那將歡戚撥懷書。  
暗香襲砌梅將吐，殘冷侵欄雪尙餘。  
咫尺先阡瞻拜處，半生風樹泣臯魚。

## 丁未元朝

太一今朝自太初，鐘聲到處曉星疎。  
元亨不外正中道，泰吉無差象象書。  
椒釀暖缸新酒熟，梅開寒朶暗香餘。  
東風好借扶搖力，萬里騰鵬變化魚。

## 次武珍吟社韻

去年會復是年初，約重千金誼不疎。  
清楚難粧唐宋句，精微願研孔朱書。  
一梅喜占春風到，萬壑何嫌沍氣餘。  
納納乾坤真我有，任他活潑等鳶魚。

## 題挽湖亭【鐵川】

近挹平湖遠引岡，美兼奧曠擅南鄉。  
麗朝日月天應久，哲社花林地亦長。  
俗尙崇文折蓮桂，人安有業藝麻桑。  
繽紛驪墨登臨處，環壁佳詩競播香。

## 謹次大老祠重修感慕韻

寧陵日月幾何年，古廟崇崇陟降前。  
聖主曾歡魚有水，良臣何賦暮歸田。  
扶陽正道朱門述，憂國丹心北斗懸。  
不忍廢荒後人責，聞來賢苦感難眠。 伯氏

與朴石泉·尹石村丁鍏，會于牛山朴石泉書庄，夜話

春來無物不生新，正是儒門洗冷陳。  
風浴元非分外事，峨洋自有音中人。  
一氣飛躍搃天地，四達聰明惟我身。  
此世論心誰若子，逐年作會未知頻。

顧堂文集刊所吟

德積能文有顧堂，汪洋浩噩入多方。  
織來雲錦溢千幅，貫得隋珠盈幾箱。  
宜使遺言傳久遠，詢謀登梓競奔忙。  
典型髣髴斯中見，一讀於歎又一傷。

次武珍吟社三月軸韻【遊社稷公園】

我衣明着子冠峨，携上層城放浩歌。  
野雨快晴添景麗，山花滿發適人過。  
幸尋樂土忘愁域，肯逐浮生沒劫波。  
壇社如今成遊地，興亡相禪奈無何。

翌日再會于社稷公園

東風細細吹無盡，天地氤氳搃是花。  
一氣無私隨處好，短詩纔罷又長歌。

澹對軒，逢宜寧田溶求·三嘉鄭文永，與南北諸儒共賦

星河耿耿月西斜，濟濟淵源萃一家。  
瞻仰坐春縱未及，禋儀適值滿庭花。

## 竹溪奉公時中旌閭重修拈韻

公有至誠感在天，虎馴魚陟可書年。  
不惟綽袂君思重，百世高風萬口傳。

## 丁未四月十七日，修風詠契于毅齋魏錫漢庄

彈冠是日振新衣，獨赴清流溷濁時。  
長嘯短歌洵樂只，良辰美景矧兼之。  
冠山勝地襟雙水，首夏芳陰足萬枝。  
蔣逕不荒來往處，子盈樽酒我能詩。

人文漸變舊冠衣，嘆息吾生未遇時。  
氣欲翔鳳懷點也，興思蘭飲擬羲之。  
臨流智可今匏葉，傲世謀違折桂枝。  
南北幸逢知己友，孰如此日一篇詩。 伯氏

登天冠山【毅齋具酒肴午餐，使從者五人負而共登時，契會諸友百餘人，共登望成人海】

層峰削玉出重天，地盡東南大海連。  
最是香風真世界，松花亂雨襲衣邊。

## 呈毅齋

百笏冠山一布衣，才高其奈未遭時。  
樂居陋巷希顏氏，難送窮神笑退之。  
白石清灘鳴曲曲，黃梅香雨浥枝枝。  
多君晚暮斐然就，朗誦衛風淇澳詩。

輓金松塢基鉉【羅州公山面白沙，子瑛煥瑛燮】

卓犖吾松塢，菟裘是白沙。  
大修夫子廟，克述文安家。  
餘慶庭蘭馨，令風里俗佳。  
云亡叵耐憫，掩淚寫哀些。

與光羅詞友二十人，會于桂陽李氏湛樂堂【李慶鎬連鎬】

窮村苦熱送如年，趁此微涼友席連。  
樵豎滿懷山裡果，茶童新汲石竇泉。  
花林有主傳春馥，猿鶴慣賓酣午眠。  
今日桂陽多勝事，更求何處別神仙。

謹次光州風詠亭韻 并小序

朝鮮承文院判校，漆溪金公彥瑠，仕明宗朝，與退溪·晦齋·高峰，彙征大猷。及群壬當路，正士不容，公退于光山極樂江上，築風詠亭，逍遙卒歲。公有楣吟，自退陶高峰以下，至于近代鴻碩之賡和，因成東詩粹集。公之卓犖，襟懷恬靜，氣節可以不朽於千古，何其盛哉！丙午初夏，約省內詩友數十訪公之遺躅。公之後孫容駿，携出家藏斗酒，且餉以白餐，因與賦詩，竟日而歸。楣韻，則不敢續貂以犯唐突之誅矣。容駿兄再三有請，勤意不可孤，謹步而寫景仰之意。

大人心事正休休，後樂先憂滌冗愁。  
俊氣直思千仞鳳，閑居曾下九江洲。  
古家詩禮耳孫襲，晟世功名槐院留。  
卓犖風流望未及，溯回漫賦蒼葭秋。

## 汕巖邊君時淵書庄夜酌

城中淨屋似山村，咫尺醒塵不入門。  
賢主已勤留客意，無巡夜酌自初昏。

## 留汕巖庄，惺堂金丈熙駿，適有臨駕，奉呈行幃下

先生風格超人間，長道行旆任往還。  
陪話萍鄉多感慨，寸腸得得富如山。

## 傷時

百家充塞巧爭鳴，今日同聲有幾個。  
取遠求難誠恠事，願將利劍快剗破。

## 留別邊君時淵

行人臨發故遲遲，只爲談情未盡時。  
朝暮遇存離合外，驛頭莫惜贈鞭枝。

## 光州忠孝里拜金忠壯公德齡廟

天降英雄佑國家，奈何貝錦任橫斜。  
忠魂不死千秋後，氣吐長虹血吐花。

## 丁未秋澹對軒，與省內士友會話

知己相逢古所難，逢時却忘布衣寒。  
裸將先哲兼修講，吾輩誰如是席歡。

丁未菊秋念七，風詠契會于澹對軒

生世擬居第一流，得何歡矣失何愁。  
鹽車未見良蹄服，丹穴方知瑞羽留。  
妍媸難逃臨鏡面，寸尋不止步竿頭。  
高山淑氣常無盡，眞景須從這裡求。 伯氏

乾坤納納歲華流，來不須歡往豈愁。  
密契遠猶朝暮遇，至言久可筌蹄留。  
丈夫有樂遊青史，季女忘飢到白頭。  
鳴鼓聲中昭聖訓，阿誰違背敢從求。

陪舍伯與雲沙許柏軒俊康，會于全州姜菊史璘庄

暮天征馬盈門，南北親朋會以文。  
文學朋樽千載後，風儀愷悌孰如君。

全州老松洞，訪月潭金詞兄載石，不遇

清庄何處在，東與麟峯比。  
皓月盈潭冷，老松翳壁翠。  
松下問童子，童子爲余語。  
先生將墓享，早向玉川去。  
徊徨如有失，靜言久延佇。  
曾是通家子，題鳳非其所。  
愧余信不大，嘆余行太遲。  
索筆留名還，倘起吳州思。

月潭書謝未遇, 謹呈二絕求和

魚字吐靈犀, 雙擎三復圭。

我叨蠅付驥, 君奈鳳隣鷄。

哀些感先誼, 古人不盡情。

曠起杜羔敬, 孝思孰與京。

忠孝里, 呈金惺堂丈熙駿 三首【光州市忠孝洞】

早占坦平成大家, 不愁窮道萬千斜。

但將忠孝傳心法, 喬木春風滿發花。

銳意攻詩淹百家, 臨題順義任平斜。

吟來忽覺香牙頰, 也是玲瓏繡肚花。

陪話清宵訂百家, 星河耿耿月西斜。

烹鷄奠酒挑詩興, 香滿龍池墨生花。

龍山祠【鐵川】

採蘋澗酌水西東, 兩世精禋一祠中。

向北忠丹垂暮日, 艸心孝永報春風。

雲仍繼述詢謀叶, 襟佩駿奔慕仰同。

諷吉年年敬無斃, 禮儀秩秩與神通。

與金月潭載石·宋雲江宰秀·鄭東樵·羅月坡鍾瑾·李暘谷  
慶鎬, 宿安氏敘樂堂, 次板上韻

不遺先基又肯堂, 念修作業入無方。

槐黃經歲望陰厚，李白盈園趁日芳。  
酒依金谷清詞滑，家在鳳山瑞氣長。  
從古睦婣能化俗，淳風可但一門光。

和朴孟鎮德泉庄韻【高興東江面馬輪德村】

檻外清泉日注東，惺惺早有主人翁。  
進工只在盈科後，止善由來浹洽中。  
不逐世波混和淤，引爲胸海靜無風，  
休言湍決謾多事，潤下元能不異同。

登玉果沈氏涵虛亭，次板上韻【今谷城郡立面霽月里】

今上名亭惹古愁，何年處士寤歌留。  
涵虛氣若參天在，潛伏名猶與世浮。  
雨添岸綠懷人草，月冷江空夢鶴舟。  
只爲雲仍賢肯構，奩輪無替百千秋。

康友麟煥，請其王大人珠溪翁雲泳龍岡亭韻，追次【高敞雅山龍藏里】

聽鳥看花記換年，腥塵不染淨區全。  
谷深遠啓朋三逕，潭碧常涵月一天。  
夢斷名題蓮桂上，謀臧身老梓楸前。  
後人如述山中事，逸此龍岡孰可傳。

邊君汕巖庄雪月夜，金毅齋黃中見訪

雪色濃銀月滿天，鴈聲錯落暮江邊。  
幸荷賢友山陰訪，劒筑鳴心互與傳。

## 用前韻贈邊敬仲時淵

清景還多栗烈天，寒梅欲放雪籬邊。  
多君剩得三餘力，燭繹羣經擬永傳。

## 留汕巖庄，適有長城諸友，會而詠松次韻

干雲落落未侵埃，綠髮不同歲月催。  
願養大材營廣廈，挺生清表立高台。  
獨藏清韻隨風發，豈怕寒威駕雪來。  
一語後彫冠萬德，仙方謾道釀花杯。

## 又與諸友賡吟

大丈夫當處事明，市童不識道肥輕。  
莫言淵嘿太寥寂，理到極時雷却聲。

## 輓任農隱珽淳 二首【夜山】

秋雨光山惜別時，餘情未了故遲遲。  
爲言興到無攸怕，雪月山陰指後期。  
雪滿山中人不見，悠悠一念向南馳。  
忽驚皓月空櫟照，詎意大歸莫挽之。

我來自北聞凶報，霜滿寒天夜已深。  
早起奔馳巷門哭，薤歌動處盡神心。

## 賀朴石泉成韶兄八旬萱幃下啐筵【戊申三月十五日】

導入腴肥啖味真，羣陰世界保陽春。

膝前環率兒孫到，萊舞夫妻獻壽親。

### 戊申春高山書院享禮畢拈韻

道存漸進勿急忙，況復握苗而助長。

試看庭前固根樹，一經暖雨萬花香。

### 福川諸士友築藍川亭，有題詠追次【光州鷄林洞一區八班，姜孟秀】

綠楊結社盡清流，肚裏湔除萬種愁。

勝事多因花笑至，嘉賓幾賦鹿鳴留。

啖真僻地知滋味，步坦長程蹄上頭。

里仁宛在藍田約，千古淳風可此求。

### 冠山任氏築室於其先祖三島公啓英遺墟，龜山因地而名亭，飲落以書見速，未赴次韻而呈【寶城烏城面龜山里，任泰洪】

吉叶神龜別業開，庭槐陰密記曾栽。

醺文可但尋常事，應有餘祥到耳來。

### 挽崔蘭坡潤輦 二首

丹旌何處去，遙指白雲間。

士女哭相送，砥江五月寒。

疇昔友朋情，遽然一夢驚。

青山無盡恨，挽紼空吞聲。

戊申四月十六日，風詠契會于許柏軒俊康庄【任實三溪木洞】

長佩陸離峨角巾，執儀棣棣德爲隣。  
壯心休喟隨年退，盛事惟圖與道伸。  
任實地仁傳美俗，清和時勝歇氛塵。  
但令友誼如金石，第見孔嘉必在新。

漚酒君家用葛巾，講修契事盡芳隣。  
薦花宛是錦茵坐，題葉何煩紙軸伸。  
空谷有人清似玉，名山築室夙逃塵。  
吾生不止吟哦已，佳興年年益復新。 伯氏

呈柏軒許大兄俊康

柏老恒峨烏角巾，圖書萬卷是芳隣。  
對樽仗劍悲歌發，投轄屠雞故誼伸。  
雅度海涵吞衆壑，清標玉立脫纖塵。  
切磋幸托蓬麻益，剗去胸茅感意新。

訪柏軒

金爲沙礫玉爲塵，孰若箕裘百世新。  
宛在西湖清景裡，斜陽停馬幾多人。  
【柏軒之先祖西湖公名愷，有西湖四景詩，辭甚清澆，蘆翁序其遺稿，甚稱敬之。】

輓柳松隱洪烈 二首【光山郡本良面德林里，柳在萬先大人】

喚愁吹雨德林寒，前代衣冠送遠山。  
嗟爾典型猶有地，孤兒泣血淚成斑。

大明洞裏識荊晚，款洽風情感世罕。  
回首遽然千古跡，遙遙雲樹涕空漣。

### 登南原廣寒樓，見庭畔垂楊，想春香故事 二首

娉娥貞血滿腔丹，喝脅威風奪志難。  
太守訊刑嚴火裡，郎君聲息渺雲端。  
繡衣持節來何晚，角枕留綠去復寬。  
今世多分樂昌鏡，興懷淑烈發於嘆。

雲鬢花顏衣彩丹，騰空仙女降韃端。  
五陵公子相來遇，三月良辰共合歡。  
夢外薰砧輕別久，望中繡使復緣曼。  
帶方父老誇鄉產，千首瓊琚堆詠嘆。

### 筆巖書院齋宿，與朴石泉永鳳·李月洲康炫·尹石村丁鏡·羅誠齋鉀柱·柳晴岡在寬，共賦 二首

東南襟佩如雲集，耿耿星河月滿天。  
禋薦蘋蘩追白鹿，賡題詩句和青蓮。  
瞻望先哲同人地，已占吾林大有年。  
休恨明朝歌折柳，長令歲歲復斯筵。

黃龍江上蒹葭秋，正是懷人幾溯流。  
南北跼音青眼拭，依稀烟景錦囊收。  
詩盈一軸聯珠玉，月上中天轉斗牛。  
但使年年斯會續，豈愁白髮漸侵頭。

謁高山書院, 次鰲山吟社諸友韻

大道如天仰止高, 傾時俊乂浹薰陶。  
瑞鳳耀彩翔千仞, 仙鶴瀉聲唳九臯。  
遠慮俗儒眩走向, 闡明理學忘疲勞。  
縱多碁說州仇輩, 應悔泉原罪莫逃。

戊申九月十二日夜, 澹對軒齋宿唱敘

仰止高山道在東, 沿閩求泗一符同。  
濟濟駿奔兼講會, 當年幸續古儒風。

戊申九月二十七日, 風詠契會于澹對軒

釀菊千鐘萸醑黃, 年年此會邱珍陽。  
先生道德羹墻久, 後學禮儀芬苾長。  
玉佩琤鳴皆勝類, 絃歌清轉是名鄉。  
衆芳萎蕤何須說, 惟見庭松不染霜。 伯氏

參三黔首問玄黃, 肯使胸懷等子陽。  
月照千江心共白, 風驅萬里氣同長。  
素行何處非平地, 直道無時是樂鄉。  
與子多年聞此義, 胡愁鬢髮近添霜。

勤次雪谷鄭先生誦憶先祖洪崖先生韻

道直不容世, 何傷黜遠端。  
早懂補闕職, 晚作臥治官。  
十二家聲大, 億千第祿闌。

竹書糗耀德，方識爲孫難。

畝長書院誌將刊，院任丁炳直·辛昶夏·李學庸，馳書請  
詩【靈光郡畝良面影堂里，享襄度公李天祐·驪陽君·月城君·四梅堂·晚  
翠堂·寒泉堂·新峯諸李公】

丹牖重新古廟清，蹢蹢衿佩致齊明。  
武靈地勝今看禮，襄度功豐永有聲。  
踵出六賢遺績遠，精禋一體縉儀成。  
垂常刻琰非無頌，敢賦高山仰止誠。 右伯氏

尙表忠功祠武靈，潤蘋洞酌薦禋明。  
麒麟閣屹曾圖像，鐵券書丹永樹聲。  
位極人臣榮已厚，謨遺孫子德全成。  
無令地水歸荒廢，奔走衿紳共輸誠。

洛東書院禮成拈韻謹次【慶北達成郡月背面上仁洞。配禹玄寶  
諸公，享文僖公易東禹先生倬又號白雲】

天降先生大易東，孰疑吾道古今同。  
心通傳義分明裡，事契爻辭妙默中。  
近水樓明萬秋月，向陽埧暖一春風。  
安如陸夢能談塚，聽說玄玄到極窮。【院有近水樓向陽埧】

李誠菴裕興建寓慕亭於天安，其子圭錫求詩

未上高亭已識真，早年聽說孝思人。  
生平孺慕爲能子，每事戰兢不忘親。

歲去應深風樹恨，春來復感草心新。  
修身正是安豐地，肇錫嘉名擇處仁。【天原郡修身面百子里】

文忠祠禮成景仰韻【忠南大田市，享淵齋宋文忠公秉璿】

夷陟西山魯踏東，先生大義正相同。  
春秋傳受華陽下，日月爭光誕宇中。  
爲百世師傳正脉，眞天下士勵儒風。  
澗蘋洞酌羹墻地，陟降神明庶與通。 右自己咏

文忠祠屹錦江東，濟濟駿奔髦士同。  
佳水明山輝映裡，挺松老柏鬱蒼中。  
蠹讎忍說當年事，忠節尙欽百世風。  
從古人生惟直己，方知大義與天通。 右代安友長基

瑞岡祠禮成拈韻謹次【光州市芳林洞八二의一。享尹太師莘達·  
文肅公瓘·文康公彥頤·南原伯威·咸安伯敦·文顯公珪】

太師家世耀吾東，千載箕裘孰有同。  
三氏共源流溯遠，六賢合餼禮從中。  
莘莘俎豆應神格，濟濟衣冠振士風。  
瑞嶽蒼蒼錦溪活，應知祀事與無窮。 伯氏

山從北起水歸東，溯脉尋源義與同。  
高麗太師千載後，瑞岡景慕一宗中。  
六賢仰止羹墻日，三氏永言敦睦風。  
最是洋洋絃誦溢，古家後慶也無窮。【瑞岡祠名景慕齋名】

己酉四月初五日，風詠契會于澹對軒

歲去尤當惜寸陰，願窮義理入精深。  
但令平日懷良玉，肯向中宵獻密金。  
才固鶴臯稟異質，禮宜松柏有貞心。  
丁寧聖訓如醇味，不厭醞陶任意斟。

宋友泰鎰築錦原亭，余因其請而記楣又索韻次題

錦山高出玉人亭，淡泊生涯久忘形。  
事必兢兢寧有咎，心由惺惺可臻醒。  
近多爽籟風鳴竹，遠占清光月滿汀。  
尚褻闈章何處得，五車書裡一燈青。

留別鄭逸齋泓采【高敞邑月山里】

清風鎮日我懷開，滌熱何論朔飲盃。  
千古峨洋聽未盡，更期見月抱琴來。

附逸齋韻

胸茅欲以講論開，數日留君曷飲盃。  
獨有歲寒然後約，百年不厭往而來。

聞美人乘阿拂老機翫月世界詠而記之

冷魄團團受日明，乘機發智可人行。  
金波泛艇游身活，桂朶爲簪插首橫。  
出入廣寒與蟾步，騁馳碧落遡鵬程。  
如將此道修文德，四海平安大業成。

朴瑋來母清道金氏贊【南原郡阿英面引風里，朴瑋來】

有美金氏女，及笄歸誰家。  
姓朴名準彥，氏亦密城嘉。  
舅姑曰孝婦，承順佐夫子。  
夫子嬰奇疾，刀圭罔效死。  
指血甦二日，竟乃誓下從。  
爲傍人之救，不得夫穴同。  
勤儉治產業，夜夜續燈紅。  
蔘連餌熊膽，教子做眞工。  
樂道善人事，贊詞傾全省。  
我是城南子，於嘆續題詠。  
謂告瑋來曰，無使不孝弟。  
及爲倭鷹犬，蔑耻敢論字。  
不可以糝糠三百石埋明珠一顆。

挽東谷處士金公俊植 三首【長城郡黃龍面水山里】

騷壇赤幟高千丈，俗士聞風走且僵。  
公去當年誰復主，青山空掩讀書堂。

久矣河陽烏節度，遂令溫石老山門。  
旻天惟有垂憐意，白玉樓成屬以文。

澹軒皓月談經夜，瑞石清灘滌署時。  
緬憶陪遊成幻夢，寒山執紼轉悽其。

次栗隱堂韻【宋在檜先大人，光州市東雲洞栗谷】

藏修可但萬重山，栗里清風屋數間。

世襲箕裘千卷積，心湔熱鬧一身閒。  
素行無處非平地，大覺當年破夢關。  
松老菊黃門巷邃，陶令朝暮好相還。

大人遯跡不干山，直在城門咫尺間。  
芋栗一園家計活，圖書四壁道心閑。  
未知此世誰當路，爲樂先天久掩關。  
翁去惟留風與月，年年復向古堂還。 右一首代人作

### 挽柳農菴斗錫【潭陽郡昌平面維谷里，柳漢相】

九老峯前一老翁，高標玉立志圓通。  
令名爭斗四隣仰，仁德如山八耄隆。  
大地荒涼風雪裡，吉人湮沒草萊中。  
化兒底事多猜戲，難百其身贖永終。

### 柳友時重大夫人長水黃氏挽 二首【昌平面維谷】

曾聞淑德述君子，況復兒賢善養之。  
剪髮資凡非惟昔，高門萐祿兆於斯。

柳門亦有長孫氏，八耄康寧送永終。  
泣血兒孫競鸞鳳，山南家世見吾東。

### 挽許古觀憲【任實郡三溪面德溪里木洞】

精若鍊金溫似玉，古觀風骨罕矚今。  
不待清樽豪宕氣，覃研黃卷勅持心。  
前山木熟無人食，新月溪迴若子襟。

君去堪憐沙石我，九原何日好相尋。

清庄昔日逢君話，說到秋風惠我尋。  
秋盡江南人不見，浪吟哀些自傷心。

### 挽李月潭承雨【任實郡三溪面斗月里】

光陰六六水如流，月潭居士大歸秋。  
謾使同庚沙石後，寒風落木惹人愁。

### 挽李可石浩信【靈光畝良面嶺陽里】

忠厚通敏質，戰兢養直方。  
考槃寤歌永，水竹一清庄。  
月朝評不僻，雅望重南方。  
余以肩隨列，結交強十霜。  
昔哭敬堂日，信宿披心腸。  
蕝臙清且膩，白粲玉盃香。  
古人稱鷄黍，感嘆意勤良。  
恐失來往禮，約余訪弊堂。  
厥後僅周歲，公奄居母喪。  
冗擾未奔慰，替紙申母傷。  
欒棘堊廬裡，奈此遽云亡。  
以若純至孝，九原憾應長。  
天端人不見，殘月照空樑。  
何人留沙石，題挽淚滂滂。

## 金友禎奎壽筵

丈夫高尚志，六十豈云老。  
碩學蘊瑗化，德與年益邵。

## 鄭逸齋兄泓采雨中來訪，信宿見贈謹酬 二首【七月十九日】

一聲伐木破幽閑，青眼人來好對看。  
埋祓論書忘竟夜，無魚飯麥恨居山。  
憐吾鶴髮侵頭黑，惜子龍泉守靸寒。  
知己相逢何以贈，至情惟在不言間。

行者倍勞住者閑，感歎六舍雨中看。  
高朋爲意深如海，傲屋生光大若山。  
鉅野禾登將占熟，古園竹挺幾經寒。  
尊師述祖重來事，至理元無外此間。

### 附原韻【逸齋】

尋舊霖中自不閑，老來麗澤好相看。  
君能處世如深水，我勉行身重泰山。  
經夏以前難識熟，閱冬然後始知寒。  
莫言會面難容易，心遇朝朝暮暮間。

## 訪朴兄永鳳牛山庄，鄭逸齋·鄭東樵二兄昨來有吟，追次

病軀少可暫偷閑，北走光城對舊看。  
東老襟期朗似月，逸翁風格重於山。  
有懷只切聽琴冷，乘興還宜訪雪寒。  
多感主人投轄意，吝情數日去留間。

## 附原韻【逸齋】

我訪石泉夜雪寒，東樵又至喜相看。  
海桑堪歎景湖水，懷襄難崩瑞石山。  
休道吾人時易失，且論松柏歲方寒。  
兩兄高調驚鸞鶴，多愧鐘聽少此間。  
爲客越旬還覺閑，所懷朋舊摠相看。  
面衰頭白年流水，文說學論心少山。  
如水可傷時極亂，近春何患臘今寒。  
丈夫若免滔滔是，雖在世間出世間。逸齋【見余至疊前韻而吟】

百里能來一策閑，鬢毛無改舊時看。  
窮陬永平隣白水，仙居高敞近青山。  
晚景桑榆年德邵，後凋松柏歲監寒。  
仁江烟雨方壺月，幾度相思夢寐間。東樵

群賢搜我浹旬閑，松柏端宜雪中看。  
抱道豈憂逢季世，藏書無處不名山。  
繡燈畫角新街沸，瘴雨荒烟古驛寒。  
談屑霏霏皆寶玉，深收猶恐漏塵間。石泉

## 庚戌早春

送盡殘寒啓泰陽，對時攬物興懷長。  
獮祭江干昭見伏，草穿地甲細聞香。  
爭門學子開工促，于鉅農夫俶載忙。  
春酒農家多少熟，招招詩友共壺觴。

挽朴春坡日圭【光山郡河南面安清里，朴鐘變鐘玉鐘參鐘弼先大人】

石翁溯蘆源，開牖家學傳。  
鯉庭趨詩禮，公能早斐然。  
研經析毫忽，持心履冰淵。  
頹崩喪父師，泣血畢三年。  
世值百六厄，考槃矢永言。  
吟哦風泉月，播獲粟里田。  
地水不荒廢，士誦紹述賢。  
庶幾享胡考，醫瘡後生癩。  
鬼猜天不怒，騎箕遽化仙。  
奈此雲林寂，哀些綴一篇。

挽朴易齋魯烈【光山郡河南面安清里，朴敏圭先大人一名泰圭】

先王言服高人志，八十三年草一廬。  
鷄夢兕無黃白異，東山不起士林淒。

詠犬

搖尾乞憐爲主容，步何忙也睡何慵。  
追鼠缺砌能探穴，搏兔中山直上峯。  
伺食認聽炊婦履，守門歡報好賓筇。  
今年應見來葵貢，北狄南蠻摠順從。

龍

尊王水國小長江，四海一家成大邦。  
變化雲中神莫測，文明天下德無雙。

袞袍映日金千甲，貝闕通宵月入窓。  
不待臭聲君道大，百靈秘怪畢來降。

謹次石陰朴先生魯述風泉臺韻【光山郡河南面安清，朴鐘燮】

石陰朴先生，當前韓國革却讎金不受，累被脅喝而全節。日登前岡飛龍臺，北望嘯唏，寓匪風下泉之懷。先生沒後四年庚申，賢胤春坡公日圭，築其地而高之樹石而刻曰風泉臺。士林樂赴，相與歌詠有軸，遂成山中古事。春坡公之胤鐘燮，請余賡和，忘拙謹次。

底意先生陟彼臺，眼前無物不茹哀。  
秋風入社禾交秀，春草埋宮鶯獨來。  
龍臥當年君子隱，河清何日聖人回。  
悲歌慷慨知音少，泛泛黃花痛飲盃。

庚戌二月筆巖書院齋宿，與湖西懷德宋鶴在·嶺南河東金·關東江陵崔永大，共賦

種得千年碩果春，有何霜雪剝天真。  
滿枝摠是生生意，莫惑剪花做別人。

月皐朴公哲鎬歿于庚子春二月，十年之間三遷幽宅而終卜允臧。孝子爲親安厝之誠，可爲感欽也。余於公爲通家子，而初因嶺行，再爲身恙，皆違執紼。今於三遷，爰見玄和出地，不禁追慕，重新賡以重挽二絕

前代風流書一架，滿庭春色郁芝蘭。  
三遷宅兆牛眠地，卜吉叶從餘慶寬。

端嶷風標豪宕氣，耆英何歲葬青山。  
緬襄禮備前和出，追慕重新涕淚漣。

梅亭朴公敏熙，隱居高興之東江，善養其親，聞其行而  
風詠者多，閱其詩集賡題【高興東江面馬輪，朴基炯】

樂聞人善孰非真，詩讀梅亭百首珍。  
若說南方名勝地，安豐正是東江濱。

權成均館長重海，見明倫堂前古樹有鵲巢，歲久罅隙，春  
到拾枯枝泥土而補修之，卵育其雛，嘆聖殿未修，有吟  
遠寄，見示謹次

補葺前棲又育雛，迨無風雨豫安扶。  
有人館上因多感，聖殿重修可已乎。

附原韻【權重海，成均館長】

余嘗觀明倫堂前古樹上有鵲構巢棲息，歲久頽滲，乃拾枯柯以鋪  
底，啣泥土以塗側，有似綢繆備陰雨，故感成短絕

鵲巢庭樹養新雛，修補誠勤顛欲扶。  
聖殿頽滲看彼岸，人而可不鳥如乎。

聞成均館前古樹鵲棲育雛，感集賢殿故事，吟呈權館長  
重海

年年鵲至卵而雛，吾道如今庶可扶。  
知是堂中有賢者，休徵膺處詠於乎。

澹對軒亭禮畢而設講，與高雲海在鳳·呂雲沙昌鉉·鄭逸  
齋泓采·孔泗隱思烈·高愚堂濟夏吟

三月高山春氣好，萬花兩岸一溪來。  
駿奔餘席弦歌溢，到此胸茅洞若開。

拜深隱李文靖公隨竹林書院

聖主文治冠我東，早年啓沃有賢公。  
肫淵執德功垂遠，千載甘盤道與同。

道南精舍，奉厚齋洛淳講道之所也。其門人設講會，余  
行萬谷祠，路過精舍，聞而參席

庭花經雨十分開，朋自西南有約來。  
絃誦洋洋千古意，名區此日詎辭盃。

奉默軒汝諧萬谷祠【默軒，端宗朝殉節。朴彭年妹夫。長城郡森  
西面寶生里，奉性九】

何年廟宇建斯州，古柏森森碧澗流。  
取舍熊魚生瞥眼，江潭奚暇楚平遊。

謹次桐江釣臺韻【昌平曹氏，曹桐江名國幹所築，宣祖時人。光州  
市鷄林洞東和堂，曹圭復】

勝區無處不樓台，亂滯疇如到此開。  
蘋渚風晴垂釣日，柳橋月入換魚盃。  
輪蹄結路多朋客，詩禮承家有耳來。  
料得當年嘉遯趣，視他青紫一浮埃。

訪鄭松石潤植【光州市西洞】

西風吹送武珍秋，芋栗君家幾斗收。  
藏酒令辰曾芝菊，聽松盡日久依樓。  
結廬雖僻開三逕，執德惟高處一流。  
談劇俱忘頭髮白，洞然心事與天遊。

過鄭昌洪石松齋，聞曾殉國於庚戌【南原金池面梅村，有孫吉朝】

高士名亭特地開，曠懷往蹟久徘徊。  
帝秦耻大身東蹈，望美誠丹首北回。  
戶外長青伯夷蕨，門前猶熟大明梅。  
魂兮不死聞髣髴，風烈松青石白臺。

讀弔屈原賦，擬弔屈原韻

搏鵬原是潛溟魚，出處行藏貴素居。  
鸞鷲早懲棲枳棘，織離何苦伏鹽車。  
汨羅水咽千秋恨，熊繹廷寥一夜虛。  
功大能慙儉佞輩，荔蕉筒奠敬陳書。

九月十五日澹對軒風詠契會

保道山高出太清，扶與淑氣自分明。  
真工必逐竿頭進，幽德應從屋漏生。  
楓菊召余九秋景，金蘭托爾百年情。  
鬢邊休歎千莖雪，潦霽隨時任止行。 伯氏

鳴球夏玉一遊清，仰止高山道氣明。  
地久猶傳簞食巷，天仁必壽腹書生。  
但教日夕孜吾德，肯逐炎涼渾世情。  
風詠能存千古意，樽前休唱白頭行。

### 庚戌八月二十三日筆巖書院齋宿

古祠有奕是名鄉，俎豆如今式紫陽。  
絃誦有聲全黑宰，先生風韻與天長。

### 挽莊軒居士奇老章 三首

訥言敏行從容德，斷斷誠存述蘆翁。  
不出家爲士林則，孰競佑文衛道功。

公遽云亡我悵然，試將一語問蒼天。  
幾追跼蹐人間壽，胡厄斯文速奪賢。

相資鵜雁惟公在，公欲何之忽棄余。  
王陸談經猶可得，願成一夢穩眠餘。

文三悔堂驥行捕虎歌【光州市東明洞二區二〇九의一 三三班。元住，寶城郡會泉孝寧里，文秉徽】

文家有子善養親，家在深山虎豹隣。  
春宵月落五鼓作，愧底聲來若鱗鱗。  
父認乳犢欲驅苙，推戶風生是何因。  
非犢伊虎忽咆虓，銛齒差鋸啣翁身。  
子自外晚救未及，虎走山中父殞神。

痛父非命心如蝕，復讎何日眉展顰。  
越砥磨劒閃三尺，秦市求砲餉八珍。  
綠藪隙岩逐日搜，白額班頰入夢頻。  
忽聞吼震北山峽，率鉞懷劒一超臻。  
負隅逞猛嘯風烈，二鉞縮脰恟莫伸。  
孝子艱怒直馳入，兩瞳刺得一劒刃。  
二鉞直發毒丸去，虎翻飄葉忽轉塵。  
鬻解凶軀剗肝肚，祭之父靈痛如新。  
鄉里吐舌驚嘆曰，孝哉孰與儔斯人。  
世人謾爲物慾蔽，由少艾妻子忘眞。  
試聽文氏捕虎曲，孰無父母若天仁。

### 挽普亭居士金正會【高敞郡高敞邑道山】

淑氣坤圮處，人生牟陽城。  
清姿競玉立，高標若鸞停。  
世業睡堂屹，門路蘆源清。  
書畫文三絕，忠恕和一生。  
珠須五更彩，驥望千里程。  
伯樂既難遇，卞和久不逞。  
睠斯菴裘地，永言山水情。  
達夜麟經讀，盡日松風聽。  
蔣逕知己到，孔樽任意傾。  
彼何人赤芾，陽陽蔽敢庭。  
不負讀書意，羞與共營營。  
歲何非辰巳，康成夢未醒。  
奎壁失光彩，山河斂精靈。  
詞林將蕭索，吾黨奈零丁。

城南有舊友，聞之神忽驚。  
昔記陋室日，約訪錦水汀。  
未遑踐前約，翩翩向玉京。  
詎料含蓼問，永作隔幽明。  
青山白雲裡，未遂攀紉誠。  
淒寂寒窓臥，見此將換星。  
奈爾瀆綿晚，忍淚題一行。  
難作九原恨，萬端意丁寧。

金春園源溢·金碧農相晉二兄，與邊友敬仲時淵，約訪弊庄有年，而庚戌臘念三日，忽敲衡泌，余以是日方治孫兒七錫婚行于海南閔氏門，故未遂穩紱，一會一分莫非有數存焉，而好事多魔，今古同恨。臨分索筆書懷，而追次郵呈，以助一粲。

剝琢衡門有故人，鰲山舊約覺今真。  
記得風詠千秋意，興到無時不暮春。 右和春園

世上功名付別人，林泉假我養清真。  
多聞直諒東南得，傾倒窮論萬古春。 右和碧農

寒山無伴久須人，感嘆相尋意轉真。  
半餉難能十年讀，惠然倘不負明春。 右和汕巖

### 附原韻

恒營一訪指南人，歲暮寒天路入真。  
梅亦待吾含笑否，清談半日滿堂春。 右春園

有約曾年訪故人，晴窓鎮日吐情真。  
適因家慶盃盤積，更祈將來萬福春。 右碧農

百里聯筇訪道人，道山道水境尤真。  
吐情未盡更留約，岸柳庭梅不遠春。 右汕巖

### 辛亥元朝，和鄭祖憲韻

寒山又見舊春廻，華髮何傷歲月催。  
椒酒味香浮白溢，蘭朋意摯寄丹來。  
暎階萸莢觀初葉，環膝兒孫誦有垓。  
無盡東風喚醒我，洞然胸次十分開。【祖憲寄神聖辟瘟丹，祝歲】

### 附原韻【鄭祖憲。忠北陰城郡金旺面道晴里】

謹賀三元辛亥廻，誰嫌天道歲華催。  
送年深謝前疎遠，迎歲爲祈後福來。  
先務國威揚遍世，且令民廩積如垓。  
德門富貴吾何祝，萬朶花餘未盡開。

### 謝陰城鄭祖憲贈丹兼祝歲韻

寄丹遙祝瑞年廻，感嘆如忘自鬢催。  
湖海無關千里隔，暮朝有過一書來。  
迎春新曙同聽漏，看月何時共上垓。  
廚冷報鮮山野味，和題蕪句赤衷開。

## 附原韻

四始瑞暉今又廻, 賁新人事自相催。  
禦災常禦由貪至, 求福宜求以善來。  
雲樹重重懷舊契, 冰壺片片照靈垓。  
菲丹倘不忝尊德, 欲助高門祥運開。

## 謝高省窩在益寄書祝歲【長城郡黃龍面月坪里】

書中如見意中人, 心畫情辭面面真。  
春到家家新酒熟, 那知吾輩賦陽春。

## 新春逢友敘懷

剝琢衡門客佳筇, 新春假我又相逢。  
居山謾道生涯淡, 有友相尋興味濃。  
雪魄衝寒梅數點, 烟光帶暮柳千重。  
清香不斷同人席, 元吉何須卜筮從。

## 辛亥二月二十六日, 筆岩書院齋宿拈韻

特立筆峯萬古青, 先生隻鍵啓千扃。  
宸章歷歷香凝閣, 廟柏森森翠滿庭。  
間席幾多時雨化, 遺篇長使夢關醒。  
後學羹牆高景地, 莘莘俎豆拜英靈。

## 河晚松應雲壽筵【光州市龜洞】

多君有子介長春, 滿室和風物物新。  
不待天壇栽藥草, 已看王屋隱仙人。

歌清白珧鮮知己，書讀黃庭早養真。  
非是尋常詩酒會，也應福履自親親。

### 辛亥四月二十二日，澹對軒風詠契

薄榘艷菌此何時，幸筮東南得友隨。  
德已飽薰兼進酒，才能繪素可言詩。  
際聞谷鳥遷喬木，佇看溟魚出墨池。  
萬善盡從誠敬至，焚香執易學先知。

伐木聲中喚友時，名區假我好相隨。  
山高奔在千年史，萋莠吟來七月詩。  
厭厭欲清驚世耳，登登苦索飲牛池。  
舊隣先契多斯地，論輒披襟感已知。 伯氏

### 閑居

道川襟帶是名區，剩得箕裘五百秋。  
處世無妨隨地樂，存心惟欲與天遊。  
松篁隙砌栽黃菊，文酒團筵到白頭。  
但使兒孫長覓字，生涯此外更何求。

### 八月十一日丁巳筆巖書院齋宿，與安蓬山鍾宣·宋誠齋 在直諸兄共賦

析毫剖忽入精微，天地古今摠範圍。  
素履行藏孰非道，先生當日克憂違。

挽月潭居士金載石 三首【全州市南老松洞一八〇의八, 月潭子鍾  
燮】

湛作然承家學正, 鶴城名閥海之東。  
源流混混半千載, 復覲安仁善述風。

早擅詩中傑, 晚兼酒上仙。  
人間能事畢, 馭鶴上青天。

傾肺講先契, 忘形度幾年。  
峨洋無復和, 蛛網玉琴纏。

挽朴石泉永鳳

縱謂心交朝暮遇, 較諸追逐亦差疎。  
憶曾光館澹軒約, 十五星霜暮復朝。

歲暮荒山風雨慘, 送君叵耐心悽絕。  
字隨運肘飛花落, 詩以吐咳磨玉潔。  
南土逢迎端自此, 東文彙集已成厥。  
切磋一席曾何日, 只是空樑冷晚月。

青山送故人, 白髮鮮知己。  
胸塞復何言, 嗚呼慟哭已。

又挽【代舍伯】

歷數湖州文苑友, 如君清表幾多人。  
家傳瑞北青氈久, 詩沿劔南白玉珍。

四友同勗澹軒契，千金曾買綠楊隣。  
寒天歲暮悲風起，傾省衣冠哭送辰。

### 挽宋述菴在辰 四首【大田市宣化三洞一六三】

文正文忠其揆一，斯文正脉一家中。  
生平汲汲負薪念，善述安仁復我公。

斯文厄處人同厄，君子亡時道亦亡。  
舞鱖號狸難忍見，畫心不獨爲公喪。

秋陽正曝普文山，肇祀淵翁歲幾還。  
猥忝駿奔裸獻禮，識荆卽席兩心歡。

道同千里不能遠，書問面歡許已知。  
黃鳥篇中難贖恨，空令沙石涕漣洏。

### 酬鄭祖憲見贈

無人識我名，七十城南耕。  
花發芳春至，舟浮大水生。  
早知誠可徹，不道事難平。  
願言養夜氣，凌雲自寸萌。

### 疊前韻次鄭祖憲歲暮感懷吟

湖中風佩名，義耒心田耕。  
道肥忘白首，仁富濟蒼生。  
事有終身樂，行多四面平。

安能見叔度，鄙吝復難萌。

挽許栢軒俊康 四絕【任實郡三溪面木洞】

陽川名閣帶方東，老栢亭亭白雪中。

一夜狂風遽摧折，草堂寂寂碧山空。

昨歲云亡石與莊，如今君又逝何忙。

廣寒遊帖成千古，沙石空留奈踽涼。

去冬折筩遠相招，云是賢兒旭雁朝。

未赴勤情何處訴，晚來一哭只增怊。

人生果是風前火，來者其誰去者誰。

惟有七旬攸好德，令名可使世間留。

賀昌平水北學求堂重建韻【潭陽郡水北面大舫里，禹源鍾】

覺舍巋然聖岳東，炫燠物物古今同。

騷壇赤幟翻晴日，講樹嬰禽習晚風。

道術但求忠恕上，心思分明正邪中。

重新是日深長意，只爲斯文永泰通。

昌平禹二有軒先生祠宇下講堂重建飲落【前同人】

何年古廟此山東，興廢異時景仰同。

講舍重成森柏裡，穀朝又值定星中。

先生勇退旋初服，後嗣廉明襲剩風。

碧草黃鸝令宛在，到斯誰不感無窮。

賀柳東江漢相八旬萱闈下晬筵【潭陽郡昌平面維谷】

養德林間歲月長，君家自此萃祺祥。  
恭將詩禮跟前武，喜率兒孫拜北堂。  
心事已如天日白，名聲遠播谷蘭香。  
賓朋雲集樽如海，祝誦萊垆幾百章。

壬子六月之旬，爲謁奇莊軒老章墓碣，與莊軒二哥達舒，  
訪權心齋昌鉉于丹城校洞，心齋以三絕贈別走次

托契初心正不輕，如何麗澤尙難成。  
疎慵自頌千愆積，十載重來紱寸情。

文壇近日尙佻輕，非子孰知安且成。  
一筆能不朽千古，泉臺庶慰舊朋情。

客筇草率發何忙，惜別仁堂睡不成。  
笑指晴天一輪月，嶺湖同看照心情。

附原韻【心齋】

衝炎遠役視如輕，爲是茹心到得成。  
死者泉臺知也未，平生難負故人情。

底事不諒人重輕，余非玄晏可能成。  
惟緣一見分千古，以此聊酬抱恨情。

我病未能步履輕，挽留數日好遊成。  
一宵詎盡積年抱，更願明春續此情。

## 挽宋雲江宰秀

空谷人如玉，勝遊足別區。  
淡雲鬢鬢出，清瀆汪汪流。  
絕俗孤棲鶴，忘機老泛鷗。  
唱商凝白雪，麗澤拭青眸。  
佳句盈新軸，陳經滿古樓。  
秋風相送處，江咽雲空愁。

寂寂雲江上，蒹葭白露秋。  
懷人人不見，其奈怒如愁。

白雲臺屹碧波頭，天借雲江八十秋。  
乘化西風歸路促，江聲哽咽雲悠悠。

芳隣世世永平鄉，雅會年年風詠社。  
短律長歌摠一夢，白頭送訣悲何似。 右二首 伯氏

## 九月二十六日風詠契講信于長城白羊寺【契員朴南淳獨擔供備】

丹楓叢裡白羊秋，萬斛烟霞摠點頭。  
九月寒山遠停轍，雙溪勝地晚登樓。  
爲人疇可兼三樂，守己吾希處一流。  
知是窮通皆有命，天機活潑任優遊。

重講斯筵到幾秋，無限勝景在來頭。  
看書已識千年友，携酒今登百丈樓。  
白髮羞追竹林跡，丹心願溯泗洙流。

吾人不道僧家事，只愛清閑一日遊。 右一首 伯氏

翌日躡白巖山，經淳昌福興，至井邑內藏寺

攀蘿梯石透峯回，人謂稀年尚不衰。  
只爲滿山楓葉好，吾生非是悅如來。

行行遠自白羊回，迨此楓林未萎衰。  
曾道沙門外倫理，却驚待價習如來。

【僧熙默號待價堂，其徒等壬辰亂倡義，此寺曾熙默所住也。】

滯雨宿僧房

征馬未發雨來時，一宿僧房此夕宜。  
短律長歌賡相和，曉牕不覺打鐘遲。

國巖祠禮成有感【靈巖郡西鳩林，祀崔敏休公知夢】

柏老巖蒼是古城，鍾生豪傑大名聲。  
澗蘋澗酌駿奔地，倍感遺謨惠後生。

杜陵不忍唾青城，百世如今尚有聲。  
一片鳩林亦清界，我今致敬拜先生。 右一首 伯氏

次鄭祖憲癸丑正朝見贈韻

歲環更始見天真，德萬年來共是春。  
介壽連添舞斑稚，辟瘟遠有贈丹人。  
氣因升斡三陽泰，官協恭寅庶政新。

將此生生無盡喜，反吾心上盍求仁。

### 附原韻【鄭祖憲】

乾道循環更始真，不聞聲臭又迎春。  
我斟柏酒招隣友，誰施桃符濟世人。  
隨處風光依舊好，改容物色倍前新。  
難忘平日深恩誼，敢以蕪詞頌德仁。

### 風詠契會【谷城郡兼面玄亭里，許基洛氏宅，詠歸書院】

詠歸堂上詠而歸，九月良辰適授衣。  
潭影露澄千尺邃，楓光競艷萬山飛。  
剖籬可就宮庭火，析忽方知道理微。  
曾瑟於吾朝暮遇，莫言此世勝遊稀。 伯氏

楓菊良辰可詠歸，薄言乘約拂秋衣。  
鹿歡會侶呦呦號，鴈伴來賓矻矻飛。  
鍾鼎豈非君子樂，草萊不愧匹夫微。  
知音逢處奏山水，休道人間好事稀。

### 謝鄭祖憲歲暮寄丹見贈韻

索處難爲壹鬱情，向誰洞豁說我情。  
浪吟白露懷人句，只切黃禽喚友情。  
有客天端多感惠，慰吾歲暮寄溫情。  
願將此日贈丹意，肚裏恒存壽世情。

## 附原韻

歲暮難禁仰慕情，頻望雲樹若無情。  
每承清誨多蒙德，敢瀆尊聽或領情。  
松保蒼髯凌臘候，梅藏紅萼待春情。  
先祈祖國統邦業，更祝高門增吉情。

## 挽族大父松山承俊【金安洞】

至孝根天莫與儔，兒童走卒誦咸休。  
六霜廬側虎來馴，萬仞巖巔泉湧流。  
靈藥遠求箕邑夜，瓜瓜再薦象筵秋。  
後人如續善行錄，應使夫公處士頭。 右伯氏

嗟我松山子，人亡事可傳。  
溫溫德似玉，斷斷誠通天。  
喪值後前歲，哀如大小連。  
虎來衛聖室，嶺關湧清泉。  
未或衍盈罄，瓜重熟薦籩。  
悅歡傾邑里，歌詠溢詩篇。  
福善惟天理，奪賢奈鬼銜。  
百身誰可贖，慟哭淚漣漣。

## 鰲山吟社會于長城超然亭

浩發商聲徹太空，超然閣裡滿清風。  
脩程寵翰差期約，暇日芳樽與子同。  
志遠神遊千載上，道肥樂在一瓢中。  
眼前儘有佳田地，堪笑猖狂泣路窮。

忠州荷江書院重建禮成拈韻謹次【忠州鄉校連絡事務所，忠州市中央市場二層】

先生祠宇宛其先，老柏森森漢水邊。  
碧草待春生古砌，丹荔誡日薦新籩。  
功名已頌三朝士，道學優爲百世賢。  
大德元來垂裕厚，相承良輔耀青篇。

遊咸平百花亭次板上韻【咸平月也面外峙里，翠松鄭基永修風詠契】

名亭高士臥，心事與天遊。  
對月晴山裡，看花叢樹頭。  
松琴寒奏砌，菊釀香凌葛。  
感艷前脩躅，一篇詩未優。 右伯氏

燦爛百花裡，昔年高士遊。  
經綸已笥腹，名利遠烏頭。  
子讀書盈架，賓來酒湧筓。  
從何得此計，寧靜致優優。

百花亭修風詠契

一年無若此良時，天氣清和白日遲。  
薰亟成巢丹暎閣，梅曾結子綠陰枝。  
討心重講斷金契，醜酒賡歌伐木詩。  
倘子解吾山水曲，傍人應亦謂牙期。 右伯氏

天氣清和適好時，名亭剩得任棲遲。  
呦呦鹿食燕賓日，嚶嚶鶯遷喚友枝。

爛興猶嫌無量酒，鳴情或寫不平詩。  
明朝惜別如相問，桂樹秋風又有期。  
忠州荷江書院復建禮成拈韻謹次

齊明今夕感懷先，優肅如存瞻仰前。  
亂世鎮危豎嶺節，晟時啓沃侍經筵。  
荷江俎豆衿紳走，星斗功名竹帛傳。  
只爲槐陰常不盡，賢公良輔踵相速。 伯氏

南原雲溪書庄風詠契會【任實郡屯南面屯基里，主人李甲儀，全州人，乙巳生】

自古名庄絕俗塵，千章喬木燾陰新。  
書中自有馳名士，林下寧無尚志人。  
雲掃天關淨浮玉，霜酣楓葉艷生春。  
我行又是逢佳節，酒興詩情摠入真。 伯氏

風標羣落弗同塵，百世箕裘業日新。  
壯志擬爲天下士，養心恒做卷中人。  
幾經盤錯庸成玉，長攝溫和悅若春。  
勝地幸逢開口笑，肯從何處更尋真。

### 超然亭雅會

詞林何處是登年，重到名亭意豁然。  
壯志猶曾擬鯤化，初心敢忘學鶯遷。  
芳樽暇日千愁滌，黃菊良辰四美全。  
莫使傍人虛浪笑，吾生肯作竹林賢。

## 賀南江金容傑詩韻入格

楓落龍江九月寒，勝區文會兩兼難。  
不知誰是壯元士，惟有南江最魁顏。

## 贈邊敬仲時淵

循環天道戰于乾，只有至誠無息焉。  
吾友早年能解此，多般事業負雙肩。

## 讀松江先生文集有感

德如涑水直淮陽，歷數名公不可當。  
千古餘生忝私淑，盪薇讀集倍羹牆。 伯氏

正道元來若太陽，片時雲翳亦何傷。  
百年不待公論定，一部全書卽憲章。

## 人和

國步如今賦式微，正當寅協莫相非。  
金懸燕市驥將至，鍾斷荆庭鳥鴉飛。  
伐鼓淵淵歌有駢，修戈閃閃講無衣。  
和風促使陰崖解，北叟東翁盍盍歸。

次鄭雲鎬野隱韻【延日人，進士熙源三男。居古阜鎮長里，現住，釜山市大淵洞】

百畝良田五畝廬，占年登稔按莫書。  
經難已識遺安計，守分還甘服力居。

志在義農憶千代，道尊孔孟講三餘。  
大淵洞裡能知隱，自樂天機活潑魚。

### 次奇長衍平齋韻【長城】

早年踏盡好江山，晚暮藏修偃息安。  
萬國風雲都熱鬧，一區泉石自清閑。  
鹿因慣客聽來杖，魚不驚人食釣竿。  
長祓燭前還有事，細將義易點朱看。

彈琴臺懷古【伽椰樂師于勒，頻來彈琴，故因以名臺。壬辰亂，忠壯公申砮，殉節于此。】

高坳削立逼青天，回首悠悠憶舊筵。  
元帥貞忠震三國，樂師清韻耀千年。  
晚風落葉寒江上，暮峽彤霞映日邊。  
到此孰能無感慨，筆花生紙以詩傳。

層出高臺別有天，興懷偉蹟設華筵。  
黃花酒熟逢佳節，白石苔封度幾年。  
古調如聞細風裡，忠魂猶咽暮江邊。  
餘生感慨同今古，護國精神久永傳。 海石

忠州慕賢亭【族祖文敬公墓堂先生，杖履之所】

流丹飛閣南中天，肇錫嘉名揭慕賢。  
克襲箕裘如昨日，敬將俎豆復前年。  
香風不盡荷潭上，爽氣猶凌冽水邊。  
土石生光無忍廢，羹牆誠意到今傳。 伯氏

謝李春谷詞兄康中寫送十幅屏書行【丙辰臘月】

宗事鞅掌滯漢陽，晚逐飄楓回梓鄉。  
墳簾堪樂增曠日，孔懷鬱陶拜棣牀。  
兄曰俄而講吾契，芝蘭成團長水庠。  
中有春翁爲余語，未見卯君我思長。  
我有揮毫盈十幅，爲我傳致卯君庄。  
齋來行橐置案上，待君之還已泱望。  
多感佳貺出厚眷，披閱井井雙手忙。  
歸如白雪華鮮紙，字字珠玉振清香。  
墨池波暖魚吹黑，筆鋒風急兔輪黃。  
腕如剛鐵能扛鼎，氣生清秋可凌霜。  
穀雨鬼泣雲羃羃，花落雪飛日茫茫。  
萬樹琪莖與瑤幹，千仞鳳翥又龍翔。  
況是前賢真正句，不等騷客汗漫章。  
意味深長蘊壘壘，韻格清楚鳴鏘鏘。  
梧型麻紐綃緣飾，便是活畫一屏障。  
不待丹青風物好，惟向白直趣思良。  
書生對此堪可愛，葦戶自是倍生光。  
阿誰較誇有長物，大貝南金不可當。  
我乏瓊琚何以報，傾倒困廩有秕糠。  
歲寒尤切相守意，爲供一粲綴燕行。

曹龍岡翁舜五秉采回盞筵【丙寅】

白頭重見舊婚春，春到龍岡物物新。  
盈軸瓊章賓客賀，滿庭綵舞子孫仁。  
荐兼祺福名傾世，永錫康寧德潤身。  
惟有天翁多佑善，餘蔭豈止百年新。

## 丁巳八日

億千萬世同是人，萬億兆軀殊其人。  
仁義禮智均賦人，耳目口鼻同形人。  
太倉稊米是微人，天地位育是大人。  
爲萬世開太平人，往古來今有幾人。  
歲後第七日亦人，地支第三辰亦人。  
我亦億兆中一人，焚香讀易師聖人。

## 鰲山吟社

朗吟白雪曲生寒，滌署閑憑六月欄。  
菡萏初抽紅萬鏃，筍芽已籜綠千竿。  
林亭早遂文人會，澗陸相尋隱士寬。  
逢處每忘塵世事，斯遊難作等閑看。

花山玉立洛江清，天作河回擅勝名。  
謙翁遺風長百世，槐陰交錯綠盈庭。

亭亭儀表溫溫德，宛是名家濡染人。  
堂構半千如一日，只緣心法克求仁。  
秋風孤客一筇閑，楓落河回碧瀨寒。  
終夕情護先誼講，題名留與後人看。  
乙卯九月二十九日 豐山 洪錫熹

## 次李斯文繼曾潤憲題榮州彰義亭韻

貞忠湮沒六旬塵，賁隧營亭適此辰。  
扶漢輸誠曾討賊，帝秦爲辱卽捐身。

心無死矣終能顯，德不孤兮必有隣。  
節彼壯元千古色，也應血化碧嶙峋。 伯氏

### 義士徐在承，純宗乙巳舉義殉節

蠹矣孤忠沒劫塵，居然歲月六周辰。  
出師未捷惟嘗膽，過賊長諷快殞身。  
直筆如今傳野史，大名自是動鄉隣。  
麗牲有刻亭高出，髣髴魂凝碧氣峋。

### 次石南齋韻【光山郡三道面】

幽人偏愛碧山居，凌白香雲護薜廬。  
早植天心敦孝友，更將至理索圖書。  
菱塘或擲忘機釣，苔逕時荷採藥鋤。  
且賀允君肯堂構，登臨佳客幾聯裾。

### 風詠契會聚斯堂

鳴陽勝地聚斯堂，濟濟賓朋一座芳。  
竹廟舊墟憐柏老，昌山古業賀川長。  
樽前已足忘吾白，形外何須問彼蒼。  
剩得仙緣塵世上，閨風不願紫霞觴。 伯氏

### 桐江釣臺

蘭郁芝青護石臺，化翁何日別天開。  
桐江處士曾垂釣，柳店斜腫幾換盃。  
黃鱖貪香桃已落，白鷗刷羽兩初來。

聞風景仰尋遺躅，晚逐雲孫躡後埃。

### 鰲山詩友會于超然亭

古人謾賦蟋吟堂，冬暖如春白日長。  
龍臥波清疑洛水，鳳啼山屹戀岐岡。  
聽私只爲琴音冷，栽菊非謀酒味良。  
不是役心觴詠裡，相資麗澤送餘光。

百叢黃菊一孤城，八十閑翁眼界明。  
書劍蹉跎少歲志，澗阿邁軸晚時情。  
孝思斷斷能無忝，詩興悠悠少不平。  
傾省朋交聲氣合，賡題佳句幾篇成。

■矣郢門歌雪曲，■哉玄圃醉霞觴。  
丈夫何有平生事，心可存時道可長。  
會事如今再武陽，主翁厚誼正難當。  
清琴切切峨洋曲，美酒灑灑琥珀光。 又南

淨室無塵宜讀字，賢祠有血敬陳觴。  
吾人氣味永相合，涯角焉知道阻長。  
道脈千年溯紫陽，幸何文會武夷當。  
聖賢萬語皆從直，時俗千紉李和光。 城南

沂浴如聞鏗鼓瑟，蘭遊莫說曲流觴。  
黃鸝喚友啼無盡，若慰吾人別路長。  
折簡招招又武陽，清和四月吉長當。  
賢朋濟濟芝蘭臭，麗景重重錦繡光。 海石

滿栽蕪菊匝如城，金朶垂黃照眼明。  
逸興賡吟張翰句，芳心默契屈原情。  
知天樂處仁從得，與世忘時意自平。  
杯飲寒泉因寫露，白頭青史幾篇成。 又南

習靜幽人宅古城，滿庭黃菊十分明。  
粲英早會忠臣趣，寫露堪憐處士情。  
祇爲視金如芥小，每多行路似砥平。  
相思漫漫山南北，守歲寒盟拙句成。 海石

武夷山下是名城，栽菊閑翁意自明。  
泛酒過求招友興，插頸早起避塵情。  
清風栗里懷陶潛，落日湘流悼屈平。  
枕菜飲泉多鬻鑠，老來佳句幾篇成。 城南

戊午孟秋晦前五日，金毅齋黃中·金碧農相晉·金春園源益  
來訪時，殘暑猶肆餘虐，而新涼未售爽氣 八耄老人登百  
里之程委訪知舊，實非易事。余當躬謝，而姑未討暇，適  
聞鰲山吟社契會在邇，爲赴席末，以謝三詞兄繾綣之意

神交若愚暮而朝，百里朋鄉亦不遙。  
溫故書如燭故火，養新德學展新蕉。  
詩椎碎玉江關動，耨鉏揮金谷口寥。  
易簡方成天下位，笑他百舌鼓簧饒。

農菴柳公斗錫回香歌引【昌平面維谷，柳漢相】

白首砥行，若石奮而無恙，  
丹田怡養，學錢鏗之長年。  
桃復夭春，雁回嚙旭，  
豈弟君子，農菴柳公。  
以鶴髮鮐背，重角帽繡施。  
斑綵繞膝而行酒并鸞鵠之時停，  
縞綦聯肩而同牢永鼓瑟之于樂。  
是可爲人世之瑞，豈但曰室家之祺。  
茲盖，  
作善則降百祥，積德而有餘慶。  
申柏悅之意，昌松茂之辭。

一玉鄭公圭永孝行贊【忠清北道陰城郡金旺面道晴里，鄭祖憲】

維湖之右，縣曰雪城。  
山紫水碧，里美道晴。  
爰降善士，八溪之鄭。  
表德命汝，圭永厥名。  
世稱雅號，一玉先生。  
早與二兄，事親殫誠。  
九世喪母，戚若長成。  
父苦痰嗽，祈藥之靈。  
鶉止于雪，巖隙蔘青。  
孝感攸格，若天卑聽。  
父沒居廬，三霜泣塋。  
軒有瞻望，慕若定省。

齋置道莊，樂在育英。  
國蔑獻靖，義宗商經。  
孟筍王鯉，莫競爲榮。  
世降典弛，閭蔑表旌。  
安得發揮，式樹風聲。  
黃繭幼婦，庶可千齡。

### 謹次尹濯斯亭韻

斯間結屋託身安，揭厲何曾涉險難。  
蘭畹露晞因刈蓴，魚江雨細更垂竿。  
地清竟日多行樂，道直無時不盡歡。  
鞦韆滄浪千古意，美人消息渺天端。

### 餞春【庚申】

年年此別在東城，一曲離歌咽轉清。  
睡蝶驚風醒穩夢，歸鶻竟日訴哀聲。  
男兒尚有桑蓬志，世態何多熱鬧情。  
春去猶看春不盡，高朋滿座酒盈觥。

### 憂國【鰲山吟社】

春聲已鐸海之東，政議如何尙異同。  
奸譎相時彎羿弩，強隣伺釁劫秦風。  
誰將管樂扶傾策，克輸臯夔輔翊忠。  
天意人心必相合，也應未久吉而通。

豐功偉烈莫能先，緩急安危十八年。

可恨吾邦當否運，頗嘆同室薄因緣。  
雲騰風湧揮神策，海闊天高奮鐵拳。  
大澤深山龍虎逝，回思往績意悽然。

### 吳君成根華甲述懷追和【光山君本良面明道里】

南中藹蔚令名馳，老益乾乾此可知。  
家翁裕餘川至祿，兒賢飾喜酒盈卮。  
願期伯玉當年化，休誦蓼蕭是日悲。  
天際輕陰非薄暮，滿堂賀客發遲遲。

### 又【鳳岡】

令譽如雷遠近馳，省修不懈頤良知。  
客來閩圃爭題軸，兒祝岡陵敬舉卮。  
縱我未呈出關畫，請君莫誦蓼蕭悲。  
老人星照祥生屋，無盡春風白日遲。

### 追次朴在文省楸感題韻

春雨秋霜幾百年，怵悽展墓孝心傳。  
念茲追遠本能立，由邇推遐德可全。  
逸興瓢揚風拂爽，閑情瀟灑月初圓。  
天應錫類如君者，掘井那無湧清泉。

### 追次朴在文慕其先德有感韻

洋洋絃誦動江村，兩世遺謨悅若存。  
琴酒不徒留友客，箕裘可使襲雲昆。

一生剩得情明賦，兩達能兼齒德尊。  
羨子能勤堂構意，醴芝自是有根源。

---

城南漫錄

---

卷二

---

書

---



## 書

### 與權昌鉉【慶南山清郡丹城面枝洞】

仁谷書堂一夜話，讀十年書，斯世不易得底勝事，而歸期鞭心固挽強別，送者悵然，行者豈安心乎？歸後即擬一書，仰謝眷注之厚，懶成習冗爲生，見歲再改而未果，自訟于中，不敢弛也。謹詢，經體膺祺，明窓棐几，道腴日着？地遠人遐，恨無由得餘波及，益切離索之憂。錫憲，伊時還棲後，身糜校譜，旅京幾餘，又泊于光，近始還家。絕交黃卷，辜負知舊，歲月亦多，自覺憐悶。先大人先生，曾者陪杖於高山祠享禮時，承誨日夕，受賜者多矣。其入先生昔日燕申之所，不無羹牆之忱，故自不覺文辭生澁，謹次板上原韻而呈，覽後揮棄仰望耳。會晤未易，臨紙忡悵。不備謹狀。

壬寅八月。

### 與金相圭【慶南陝川郡龍洲面黃溪里】

錫憲，以窮山渙認，猥參柏舍享禮，獲睹樽俎之秩秩，駿奔之踳踳。揆分則濫，幸何可言？歸當書謝于僉君子，而因循未暇，歲忽再周。設以此心自處，朝暮遇人，孰信之？茲荷尊執不較之洪，先施惠函，滿紙繾綣，良感眷愛之深。但摛謙太多，而其於淺生，稱道過當，謙固美德，因此益信蘊藉之厚。譽人以浮實，實非所望於以德愛人之地也。尤所悚慙。謹未審，慥索益佳，溪居趣味，剩得三公不換底意否？溯洄伊人，如在水一方，只發道阻且長之嘆。錫憲。數三年間，以私門校譜，或館于京，或泊于光，擾擾度日，實多未遑於知舊

聞問之節。所以謝覆，致此稽緩，倘恕燭否？仙楣次韻，重違勤教，走草以呈，覽餘即付于休紙堆如何？

壬寅八月。

### 與池亨源【慶南陝川郡大陽面桂洞】

頃年一宿仙庄，觀德挹薰，觀感良多，逢別恩恩，迄今爲悵。仰想洞門窈窕，溫燭佳迪，恒切翹祝。錫憲，數三年間，泊于京館及光舍，爲私門校譜事也。近纔還巢，眷安爲幸耳。溪軒鄭兄，奄作千古人，逝者已矣，奈吾黨漸孤何？聞不覺潸然交涕。道塗相左，未遂一次拜哭，只以唁書，付慰其允君矣。想尊亦同此恨也。桂陽齋次韻，難極盛教，今纔草呈，尊在後付丙爲可，是仰是仰耳。

壬寅八月。

### 與鄭文永【慶南陝川郡雙柏面墨洞】

錫憲言。山中尚有舊曆，知先本生大人常期已過，而顧此身絆校譜，未得拜哭洩哀於靈筵。繼以仰慰兄體，居諸迅駛，此歲又秋而垂半矣。懶者常習，倘可恕諒否？仰惟孝思之至，不以已期而弛哀也。不審此辰制體支勝？惟冀加愛，以副平日本生大人慈愛之意。錫憲，遠塗奔慰，已是無梯。謹奉狀，且以細書，修唁于令季僉哀兄，惟冀諒在。

壬寅八月。

### 與金昌仁【慶南宜寧郡宮柳面正洞】

錫憲白。不意凶變，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疇昔晉拜時，雖知其病患沈重，意謂以哀兄孝思之至，必有天感神佑，宜享無疆之遐壽矣。天不可諶，神不可度，果至於斯乎？聽琴亭松風，

九曲溪清瀑，管領無主，應爲之嗚咽矣。仰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小祥，哀痛奈何？罔極奈何？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身縻譜役，末由奔慰，其於憂戀，悲係增深。謹奉疏，仰惟諒察。不備謹疏上。

### 與鄭燦益【高敞郡高敞邑月山洞】

錫憲白。錫憲數三年來，奔走于譜役，知舊聞問之儀，缺如者多矣。先大人喪事，尤其是千萬夢寐之外，茫不記承訃與否。茲承先王夫人訃音，始知哀兄荐遭承重，尤不禁驚愕。然而先大人祥禫，經過與否，亦不可詳，故不敢以一辭仰慰，只以一紙唁疏，替慰先王夫人喪事。仰惟恕諒。

壬寅八月。

### 與曹圭泰【靈巖郡德津面長善里】

頃遊月岳鳩林，歸路，同文春軒崔春江，憩于校宮，獲遂覲降之願。厚被款接，風誼之迥出，固所欽服。況因兩友又詳孝思有則者乎？迄今詹誦。謹未審靖體康衛？仰賀無射。錫，自與尊分後，身縻譜役，客于京館三載，還家纔旬餘。一幅相問，迄今稽緩，亦坐於是也。倘諒在否？尊先大人松隱堂次韻，盛教勤摯，仰感繼述之美，今茲構呈，照後覆瓿如何？

### 答申鴻淳【忠北報恩郡外俗離面下開里 宣炳翰言，見住光州市】

光館分張後，以校譜入京，挾望而返，華緘墮案，已有日矣。忙手披讀，辭意丁寧，可適百朋，感不可量。仍謹審僑體美慎彌留，貢慮之餘，旋又思之，以兄剛直之氣，周到之智，榮衛自定，外肆之退聽，當在不日矣。繼切妄五之祝。名山靈境，固多文豪之遊，闢茸如錫，

早負書劍之遊，晚坐瑣微，奈奮飛無翼何？兄則瀛海燕薊，吸爽氣彈長風，所得既富。近以文藏清瀑，法住白雲，爲頤養之至，寒流曲曲，巉岩峯峯，終日搜數千詩而不厭，尙不負清寒子之興耶？健羨健羨。弟，方作京行，似經歲月來往間，當依戒造拜矣。願豫囑地靈，俾無截輕低回杜俗子之車如何？別紙所喻，早晚逢晤相說，未爲不可，而能念存於遠外者，以兄知仲之明，恒切引西江水之意耶？可感可感。恩恩，不備謹謝狀。

辛丑四月

### 南康書院儒會所僉座下【康津郡康津邑鄉校里】

伏惟秋令，僉尊體珍安？仰頌區區。錫憲，身縻校譜，滯京半歲而還。尊院儒會所薦定道儒望帖，來到已久，未卽修書仰謝，悚仄罔喻。顯蒙此生，素未嫻於樽俎之節，不足齒於髦父之末，而僉君子愛而不知惡，欲引而置之駿奔濟蹕之列。固當渴蹶躬趨執役，而旋即入京，未遂齋誠，以書替呈 衷鳴，伏願垂矜恢恕焉。餘恭祝秋丁享禮利成。

辛丑九月。

### 與洪千植【光山郡本良面山陰里】

頓首再拜言。先大母奄棄色養，歲忽再改，而尙未克匍匐於廬下。情禮兩闕，猥荷不較之弘，屢屈左臨，尤所悚蹙者也。祥期隔旬，仰想哀體慟摧彌增，遠外詹溯無任。錫憲，禮當奔慰於祥期，而適值曾祖妣忌辰，齋誠未遂，謹奉疏，伏惟哀諒。不備謹疏。香燭代忘略呈上，領納仰望耳。

### 與奇莊軒老章【癸卯三月】

吟病淡月，虛負澹軒雪山兩會清約，鬼關果亦在於陽界，猜弄人之

至此乎？只自悶迫。忽荷華旆賁枉，半日承誨，不覺宿疴之去身，感戢次骨。旋即分張，忡黯之極，北瞻馬首，馳情而已。恪惟春暮，靜几穩索，日入真映？詹賀無斃。錫憲，所崇漸差，八九日間似可快復，來六七日間，當依戒一晉，以是尊亮如何？所教文字，病枕艱草，都不達意。如不揮棄，尊加鑿括，是冀耳。

詠歸書院儒會所僉座下【谷城郡兼面玄亭里。癸卯三月十八日復設禮成，享河西·許雪庵·許道峯·柳月坡】

賢院更作，未必非斯文泰回消息。鼎鑑有耳，與聞於經始之日，私喜之至。茲伏承縉儀之成，在來十八日，兼以來汝之教，感幸良極。固當蹶趨，躬覲樽俎之盛，駿奔之濟濟，庸申平昔景仰之私，背偶發疽，浹月吟牀，未由遂忱，只增於悒。敢此鳴謝，伏願垂憐回恕焉。恭祝享禮利成。不備謹狀上。

答洪潤植【和順郡春陽面牛峯里。癸卯三月十四日寒食，豎碑】

墓未傳，則壇而薦之，非禮之禮，而合乎情義者也。郡守公眞兆，久失所在，而數百載，未遑壇儀。在傍裔，恒爲之茹恨，況親承血氣之雲仍乎？乃者有尊派諸宗之叶議，能舉曠世之儀，英靈應洋洋如在悅於冥冥之中矣。壇碑銘，重違勤教撰呈。字雖多，不可一字加減，刻時留意董飭，無有後悔，切仰耳。錫憲，晉參於豎碑時，情禮當然，而以背疽叫楚彌月，未副來汝之命，悚甚。惟希亮在。

答金昌仁【慶南宜寧。癸卯四月】

遠地一書，可敵百朋，感佩眷注。制體支勝，棣節湛翁？良副向溯。錫憲，昨秋譜役纔畢，自京還鄉，病日恒多，無奈調節不慎之致歟！春間背偶發疽，二朔叫牀，尙今未快，苦哉奈何？先大人風誼表範，

仰艷於疇昔拜軒之日，自謂覲降之晚，安得源源，理我蒙蔕。岱遊不遲，祥琴既聲，感切幽明，興唱不淺。望墓臺韻，謹次走草而呈。非曰能之，先大人死之忱，吾兄繼述之勤，有以感發衷情故也。覽餘覆瓿，是仰。

### 與呂文強昌鉉【谷城梧山面龍溪里】

仲春旬頃，抵光府，聞尊駕將以伊日入府，私謂庶幾班荆。于雲菴莊，巧有緊急事，出外強午而返，則駕已啓行于褒忠祠云。浮生一會，抑亦有數存焉者耶？尚今茹悒。夔已秀矣，靖頤啓居，清裕溫燭，到佳有發憤忘食之樂乎否？詹誦之至，旋增離索之苦。弟，病疽三朔，今纔稍可，未赴澹軒詠院二文會，亦坐於是也。奈化兒之猜弄我，何呵何呵。三九亭韻，夙有尊教，而自顧鹵蔑，尤生澁於韻語，故未敢以無塩之醜唐突西施，稽緩時日。抑不無負教之慙，謹茲草呈，推敲切企耳。居既稍遠，面之不能數數，勢固然也。而面未盡言，言未盡意，則替面而可伸意者，惟尺簡是賴，亦不能焉者，惟弟懶與成習之咎也。何歎如之？病餘神索，姑留不備，謹拜狀上。

癸卯四月。

### 與許慎菴基洪【谷城兼面玄亭】

摻裾幾何？幾乎忘域，若其不可忘者，則固不以面之稀闊有間，所謂朝暮遇者，非茲耶？弟之於兄，相期也在茲，倘兄亦不遺棄此漢耶否？恒切忡黯。節屆清和，道味日腴，遠誦勤摯。弟，以校譜，僑京數載，昨秋還棲後，恒爲二豎所隣。春亦以疽，數朔吟牀，今始少可，悶不可言。詠歸書院復建，仰認先賢德教之有終不可諉者，亦可見尊門繼述之勤，能使斯文一脈不墜於蒼黃之日，爲之欽誦。自院儒有來汝之教，而病軀莫振，未獲參觀縛儀之盛，菀悒之至。禮當陳

謝會所，而伏枕難草，未遂素意。今纔擡頭迫呈，伏惟尊亮。

### 答鄭泓采【高敞郡高敞邑月山里】

錫憲頓首再拜言。自承哀兄居憂，謂早晚匍匐，情禮俱爾，而尋墨之役，因人續粉，兼以間多病攻，奮飛無翼，恨結徒積。所以先執禮書修唁，庶露墮螭之哀。卽承惠覆，謹伏審，啓居讀禮之暇，以理制情，不有大愆，平日看書得力之驗，此不可誣也。仰慰之至。令伯氏象筵，未遂一哭，奄臨將掇，尤其是私情之缺然者也。追憶昔年，以蘆沙先生淵源錄刊役，館光時，令伯氏以霞谷先生介川精舍重建事，累累枉駕，詢謀于不佞等，雖枵腹無智可貢，而令伯氏繼述之懿，執兩之洪，迥出常格，中心欽艷。達宵承誨，不止一二度，誰謂此會遽作千古之永訣耶？刊役纔訖，弟以校譜，客京數載，他不暇及介川飲落之盛。況哀兄荐罹之凶音，皆承於事後，未卽遂忱，辜負尊體昆季氏眷厚之意。思之赧汗，不容云喻。哀些二闋，送呈于令伯氏几筵，倩喪側執事哭告，伏望耳。環顧一世，吾黨先進，零謝殆盡，講質難疑，惟兄及數友是恃，而兄年近稀，弟亦樗櫟周甲。中夜思之，不無蕭索之嘆，所以哀念區區馳祝期頤之瑞。伏惟加愛將攝，無負遠外之望。餘留後不戢。謹拜疏上。

### 答鄭燦益【高敞月山】

間因莊軒便，得詳先府君祥期隔邇，卽欲奮征，一次慟哭，象筵泄哀，庶無負先府君眷愛之厚。身既不健，遠道登程，未可易辦。構哀辭二章，倩莊軒，哭告于几筵。且擬修疏，仰慰孝執之際，先奉惠疏，凭審哀體禮以支安，何等仰慰？疏後日數禫，而終祥漸迫，哀體節宣，一如將勝否？竊想孝思，罔極如新之痛，益復難抑，況是先王夫人承重之地乎？不勝爲之悲怛。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上無負

先靈慈愛之厚，下以副朋知溯念之忱。錫憲，現狀如古，末由奔慰，謹奉疏，仰惟鑒念。不備謹疏上。

### 答尹滋永尹奇赫

一葦可航，而阻闕頗久，忡黯之懸，徒吟室邇人遐之詩而已。垂辱華存，禮速鄭重，良感下眷之腆膚。砥江水石，自結老清杵，繼之休翁挺松，可有辭於全寰，不愧與溟渤齊眉，而寥寥無聞，抑非水石之尤更無有若百白美躅之致耶？不有芝菴公考槃，永矢來雲堂構，不棄後居人之免，不得負水石嶠如矣。然則湖光山淥水玉，居人之自取之，非湖山之惠也。取之在我，而取之無禁，優哉游哉！卒歲逍遙，凡在聞風，孰以世之久近間芝翁於二老耶？況以同壤後生，欽艷景慕，非杜陵不唾青城之比也。固當翼如，挹醉先生長者遺薰，而期日之哺，自客還巢，已無及矣。只恨不得早傾鼎鑪豫圖此會，抑亦浮生一清遊，亦有數存焉之致耶？不但辜負盛眷，自不禁怒如斯飢。第念秩秩悠悠，式好登歌，坎坎填填，沽醕豐樽，其樂如何？爲之追賀不已。錫憲，自春，身縻正齋集刊役，殆難暇及於逐逐。吟哦之地，景仰之地，不敢言苦，悶何悶何？方自昌平節山祠遺墟碑役所，見速，故禮不得不往臨行。葫草不備，謹謝狀。

### 與李連鎬【羅州細枝面桂陽里】

錫憲頓首。先府君桂隱公，奄棄色養，承訃驚惶，不能已已。仰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卒哭，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竊念，又顧翁，北學沙上，啓佑後學，脚下有若先府君心悅誠服。方倭敵鴟張之日，隱忍自靖，不爲匡異而市人耳目，外若和光同塵，凡庸之匹夫而中有壁立，萬仞之氣。養親必有酒肉，對客得其歡。適

建先師祠于禁止俎豆之日，累被牽制，而動之以義，縟禮利成，而于今安享。居母喪於蔑棄禮教之時，葬用踰月之制，祭致牲殺之典，使習俗丕變，民德歸厚，此正平日好學之致也。今版圖已復，僅脫敵治，而箠籬典禮，復襲敵治。哀以妙壯之年，能繼先人志，養之以敬，葬之以禮，無有憾於付身付棺之節。賢於何子平八年袒括，石曼卿藉人麥舟，凡在瞻聆，罔不悅服從，可以知好是懿德之極天罔墜也。錫熹，禮當匍匐於聞訃即日，哭訣於冥冥之中，以答宿昔眷愛之厚，繼以慰哀兄之樂樂，紼遣春夏于正齋集刊役，今望爲哭正齋終祥，作草坊行，念而返棲，見啓期始知已經克讓，未逮爲恨，悶何悶何？楚些一闋構呈，倩在傍執事，哭告于靈筵，是企耳。晉慰早晏，未可預卜，而方自昌平節山祠遺墟碑役所，有禮速，故臨紙忙草。謹疏上。

### 與李昌休【和順郡綾州面萬仁里】

頓首言。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何已？第惟先進諸老，次第凋謝，絃誦之聲，漸臻寥寥，所以於長我諸公之謝逝也。益不禁踴涼如失之嘆，非直怛化而致爾，實爲世道禁不得者也。仰惟終祥隔邇，哀體禮以支勝，溯祝切切。錫熹，身絆京館，未遂卽遠之訣。夙擬造哭祥期，洩盡弼中之哀思，近自長城筆巖書院享禮，歸棲，方圍圍數日，難於振刷，素忱未果，其於禮數缺如者多矣。倘加哀恕如何？惟祈祥事利成。不備謹疏。

### 與金顧堂奎泰【求禮郡土旨面金內里】

同雲沙·莊軒，趁晴秋穩敝仙齋，斯世不易底勝事，而爲勢所驅，閃忽決裾，忡黯難狀。未月而贖成，團圓於鰲岫龍江之間，筆院樽俎，月亭詩酒，澆界趁勝，孰右於茲？非直是也，憂道之深，慮世之切，發

於言笑，盃酌之際者，有足以砭耳根醒肚底如頂門之針。非兄蘊藉之富眷注之至，何以得此？俄頃之悵，幻成欣抃餘，慰尙存吾無定情者耶？抑非兄能使人爲歡戚者耶？仍念交道，孔難醜齊，恒因同異之殊，地有幸不幸之不侔，講十世通家之誼，談沿流求源之學，弟同於兄者也。年高於弟，道肥而體胖，心泰而髮腴，詩落泣鬼，墨行驚風，志堅鐵壁，望崇鼎呂，兄異於弟者也。不以大異，自牧亢高，俯循小同，辱與之友，不挾之正，汎愛之弘，令人感鑄。但恐兄乖於無友不如之訓，損隨而重，非不幸之甚耶？蓬之賴直，鸚之資翔，弟餉其幸，奈物之於物各順其情損上益下之免不得何？倘兄不尤焉否？節晏鬻發，道況嘉迪？陽旣復矣，君子道長，其肇于斯，翹頌益茂。弟，菊秋念間，參正齋集刊所儒會，追聞尊駕臨于海望祠，恨未及期奉握於不遐之間矣。去月晦，訪松儂兄於草洞，轉致兄龍湖相須之意，則適以宅舍修治，未暇赴會，大爲歉然云。其時吾輩，忖度以有拘未參，果不謬矣。寒暄先生司馬同年榜目，依尊教，追後鈔呈爲料，亮在如何？東風中韻，走草而呈。枯澁無味，不及木果之淡酸遠矣。敢望瓊琚之不遐，謹拜狀上。

### 與李弘信【和順郡春陽面澗里，號又竹】

星言夙駕，神遊夢國，而未遂拚錢於一榻促膝之地，慙慙可愧。金陵佳麗，飽得奚囊而歸，能喫得把盃酒吞清風之味耶？顧此肉眼足茲鄉者二三，而只是這樣人。始知山水之得，非子長之雄偉，則亦無有乎爾。若又竹清韻，則安有是也？不止於竭來竭去也審矣。早晚握攄，願得其緒餘焉，未知何日。返稅之後，震艮裕亮，篁林清宵，蕪桐長歌，幾嘆無人相知耶？想皓月爲之來窺也。錫熹，晡而抵家，日惟滾汨於泓潁之間，尙文債山積，巴鼻莫尋，前日所得者，只知其無進而有退而已。奈何？然於伎倆所使，亦不欲浪看過好品題，故楣文構呈，以朝菌蟪蛄之不能於時，忝與歲寒之盟，唐突可知。歷

在而與之鬱攸，可也。惟冀清泰，不蔽。

### 與朴炳容【和順郡道谷面大谷里，號後山】

鬢發屆央，騰六其白，兼以皓月盈空，相思之至那禁？山陰一訪之願，惴惴於寒威，未卽奮飛，不及子猷遠矣，安道之僮，應笑我劣之矣。呵呵。怡愉清旺，青燈靜夜，溫燭有造？詹翹勞止。錫憲，去晦間，與莊軒，訪錦棉箕諸友，浹旬返鄉，觚墨是友耳。正齋集刊役，斯文勝事，吾輩之切憇，亦將因是而益密矣。以弟之愚，多受鷓歷之資，慰感可斗？兄能左袒鐵肩，何等強勇，見義直前，善不可量，獻賀之至。舍記，孤負盛教，似非相副眷注之厚，故率爾構上，還恐點污好江山真面目。愧拙無比，照後投丙，勿掛他眼焉。何當一晤耶？把筆增黯，姑留，謹狀上。

### 與安秉柝【求禮郡文尺面土金里，號兼山】

萬山中靜坐一室，讀聖賢書，作生涯濁世清福，孰過於此？實庸健羨。曩於塵笻之入洞也，談覈經史，醉飽德誼，鎖散鄙吝之萌，屠雞之釀，蓼蕘之拓，退蔬田之翠。及其告歸也，與之聯鑣，袖鳳巒之清風，吸鴨汀之碧瀾，迂透半舍，而贈鞭驛路，款洽風情，何日可忘？歸擬尺簡謝厚，尙此稽緩，慵與成習之致也。自顧瞿瞿。陽復已久，近日經況，庸時增禧？不求聞達，苟全性命，此時之義諦也，而惟兄能之，讀書窮理之力，可見於斯矣。安得無從子徜徉之願？錫憲，歸嫁旬餘，奉握顧堂·月川兩兄於筆巖書院，禮訖後，相隨於龍江鳳山之間，四五日風致，太不寂寂，若加以兼山風流，則逸興百倍，何快如之？遠莫致之，還起少一之嘆而止矣。別路口號，東風中韻，溲淳草呈，以助一粲，尊在之餘，付丙是冀耳。弼中，都閣。謹狀上。

東湖祠儒會所僉座下【光山郡本良面南洞，享沈氏諸賢。儒林李教采·李禹圭·沈翰求等十餘人連名】

敬諦鬻發，尊體啓居，隆謚仰止。勞言祠宇之興，士氣以振俗，尙以勵吾道，泰來消息，未始非在，此則縫掖之聞風者也。而東湖縉儀之舉，與聞差晚，未能趁時，可尤者郵人，而茹恨則切耳。茲以追謝，伏惟尊在。

與沈翰求【號桂峯。光州市雞林洞】

每於奉晤旋則電分，未罄底蘊，此恨曷既？東湖祠經始有年，而以今陽復之節，克舉縉儀，可見士議能張於禮教蔑如之日。亦從以仰認，執事獨苦之賢，必底有成也。既頌且賀。自祠中儒會所，有來汝之教，而郵人不勤，以期日傳信。二舍岐路，車無穩便，未得就濟蹠之列，悵何如之？茲修簡書，追謝于儒會所，繼以仰慰執事綢繆之勞。伏惟亮在。

與李源台【號圓臺，己亥生，眞寶人。慶北安東市東門洞四六番六一館。子東俊，聞慶石灰工場】

豐山洪錫憲，勤修尺書于圓臺執事足下。士之生於世也，不見而有早暮遇以靈犀之相照也。何以知其相照也？誠於中而形於外者，有不謀而相合，靡約而交孚，同進於爲仁之地之謂也。相合交孚之地，不面而面者存焉，復奚書爲然？形容中心之相應，而宣著于外，非書亦不能者也。執事倘默會，而不厚誅率爾越俎否？聞執事氣宇軒昂，胸次磊砢，樂存乎育英，志切于儲書，開館名府，而左右圖書，處乎其中。以來當世之士士，孰不欲翼如，而挹高風接清韻，看盡難得之書籍，究極無窮之物理，充吾府庫而負淹博哉？大抵，爛紙敗墨，固寂然一物耳。若不足爲有無於人世，而秦以焚滅，漢以儲興，

公擇藏之而名著，永叔積之而文就，麗王萬卷堂，育成一代名士，鳴國家之盛，何其偉歟！僕，嘗讀退高兩先生往復書，至如王雱果菴之間，高峯對輒渙釋，竊自謂高峯雖有天稟之高，非見書之博，亦不能有此也。今執事，才可以凌駕古人，而其儲書好讀之工，則過之輪困。經綸滿於腹中，如有爲於治者出焉，則山中宰相，未必不訪於六一館主翁矣。天或假樗櫟之年，而及見焉，則當以款段下澤，賀執事於東門外，未知前此而或可得蓼裾耶？僕，錦城南，一寒士也。幼而少讀，長何望有述焉？讀之也少，故常懷要讀之心，而因循未果者，六十年于茲矣。竊嘗有志於鈔輯青邱文學，不可不自家而始，故少也，編吾洪文獻錄，次編海東詩林，次編海東文苑，定規輪告，而適以蘆門淵源錄刊役，心不可兩用，故全委於邊君時淵，而若其先賢遺集外，可採入之資料，則自家藏古書搜出而提供者，亦數十種，若廣開土王碑等，是也。雖然靡邊君之敏且謹，亦難與共此，幸何幸何？邊君之自陶山書院還也，詫探名勝，見長者之樂，因詳執事風誼，有與僕暗符者，故署而讚之，又此書呈，幸賜亮在焉。

### 與李仁圭【長城郡北二面釜洞】

頃枉，巧值我不家，遂失數宵對討，奈不及五經之先見何？慙不容言。後而幸獲萍晤於高山書院，餘悵些慰，而有以得詳述先惓惓之義，以此蔑棄舊章之時，要做好事業。孝思之懇，求仁之誠，風誼可掬。錫憲，襜褕一物耳，不足相役於人家文字。況尊先祖四留堂公，褒先之衷誠，道交之彌廣，求之前脩，亦鮮其儔，豈余膚淺容可揣摩於其遺文乎？執事以錫憲，辱知有素愛，不知惡謾，辱舉以重任而申託之，其誠意則可感激，而有難終孤者也。雖然方有事於五世祖石崖先生文集刊役，不暇及他，待明春闌，一賜惠枉如何？惟祈啓居蔓祉。謹候禮上。

### 與李春田焯【潭陽郡昌平面長田里。現住，光州市雞林洞一區二七坊】

不謂鹵莽蔑劣 不足與論道，遺以尊先三世書六冊，以其爲累世通家子也。其爲感戢，不是尋常。故舊之遺也，尊閣塵案，盥焚讀過，其於學術文章節義，三不朽之軒，耀百世者，尤不禁景仰之私也。以尊兄之明且仁，克續遺緒，不負乃家風範，賢祖賢父之有孝子慈孫，非惟高門無疆之休。抑可以敦俗尙補風化，繼而切欽賀之至。錄印之間，有訛舛以時日之遄，未暇於詳討細察之攸致也。拱璧之一瑕，兄應不無悶迫矣。然顧何傷乎？表而識之，以待他日再錄，釐整可也。竊念司成，有年作育俊英，陽城之生徒，早解歸覲，悖子以懼安定之門人澡潔，雅飭淳風，可回南州之福星，大冬之春和輿衛，吾黨有光，尊先不惟頌之之切期望如山，勿以世淆沮益壯之志，如何如何？弟，季秋及冬，初以正齋集刊役，與雲沙·莊軒·朴兄永鳳，會于綾城，歷訪錦棉箕諸友家，入光市亦一二，而恒因忽劇，未遂造拜，怒如之恨，言之曷既？自臘令營印三世先集，方以石印出版，未暇及他，奄見歲暮，昂昂風儀，尤切覲降之忱。一幅替問，兼呈花甲次吟，恭祝君子萬年獻發覃休。謹候狀上。

### 與金涵山天洙【長城郡黃龍面玉井里】

昔我往矣，兩宵穩討，評詩論文，宮商迭奏，飽德襲薰，受賜之夥。及其言旋，送之閭外，贖以千緡，款洽風誼，實無遜於渭城之盃。乘黃之贈，感嘆盛勤，無以爲謝。歲聿其暮，雨雪霏霏，山居涵養，本原愈佳。令從氏及令季氏二難之賢，相宜之樂，春來消息，應從沖澹融翁，而始如干寒威，不得不退聽矣，仰賀無斃。弟，有與令季氏討議事，以望抵教育廳，巧值戾洛，未果。令允想有口道矣。類託狀及墓表，拙劣何敢？唐突泚筆，重違勤教，僅僅成草，而未及詳潤，待來春當送呈矣。令季氏許所託事，期致于月中兩處，切企耳。餘

祈獻發川祺，謹候狀上。

令從氏令季氏案下，未修各幅，致此耿耿望望耳。

### 與朴永鳳【潭陽郡昌平面節山里】

緬襄順成，應荷天佑矣。未卽造慰於前和出地之日，且闕一書相問，雖曰勢故所致，揆以朋情，實爲禮數之缺，追而思之，不覺慙然。此歲將盡，卽春新消息，怡愉湛翁，將時覃珍，溫理古經，有致究研。且鬻栗之來，竹軍長鳴，六花飛騰，玉龍脫鱗，與夫霜月，叫雁松風，唳鶴無非助瘦寒之逸興也。倘不負時景唾成幾科珠玉耶？勿以自珍隨而相示，如何如何？弟，陽月屆晦，與莊軒，訪錦箕棉三城諸友，今以先集刊役，他無暇及矣。念前後四五歲同研，薰沐於前脩贖馥之中，誠好事也，勝會也。安得年年能有此會，使吾輩得永切偲相資之義乎？兄有麻直，我變曲蓬，我爲頑石，兄研美玉。鵝雁之情，雖假髡衍，言之難盡餘意。相分數月，忽見歲暮，離索之苦，倍蓰平昔。寄此紙上數語，要以替面，兼呈澹對軒中次李穽齋參判韻，以資一粲，推敲見示，則何幸如之？

### 與邊時淵【長城郡長城邑梅花洞】

向有家姪婚禮，竭來竭去，未究巽積底懷，已非浹洽于中，況歸未卽書，難脫食言之誚，倘并加恢怨否？春候將臻，侍彩茂膺？朴南二友，并爲迪吉否？金友許所託事，應有高明之轉示，而尙未聞動靜，故於涵山書，亦兼致此意耳。高明，如或與聞此事，期致于月中兩處之意，申囑如何？鰲南先生家狀及墓表，豈如我淺薄者，所可劣筆衆議？不敢終孤，僅成荒草，當更加修潤，而明春送呈爲計耳。文苑刊役，湊成全璧，豈不是好事？但費過，高明之壯強，好光陰於採藥山中，亦爲可惜者也。以余寡謏筭之，究經之士，錯落如晨星，丈於我

者，舉崦嵫景色，少於我者，難得如高明，以若美質，尤加定靜之力，涵養之功，優游於六經之中，浹洽於四子之間，積以年月，則前頭之功，有不可量，而使未能專精着力，無奈造物猜之少春斯文之意耶？相期也重，相愛也深，故愚叩至此。請以如錫憲之因循度了，老而無成，爲前車之鑑而加勉焉。所託挽詩，忽擾中未副盛教，而向逢吳友，聞已訖印，懶者本色，類多有失，悶何悶何？餘祈獻發綏吉。謹上狀。

### 奇孫兒七錫【京龍珠洞一九一〇七 三統五班，吳培根方】

自汝入京，寒威益酷。日常馳戀，得見手滋，以諳汝身安在，所營任意，喜不可量。祖父，畏寒處奧，幸而免病，眷亦皆吉，幸幸。多少，詳於爾父書，不能一一。率身平安，是望耳。

### 與金源益【號春園。長城郡黃龍面黃龍里】

經仙鄉非一二，而足跡未遑及於月亭龍湖之間，非直於先賢遺躅，蔑景慕之義，若尊兄軒昂風誼，迄未遂覲降之願，方訟湍劣，幸有去秋，邂逅於筆院，不謂鄙夷，引到春園晴庄，款洽一宵話，攬登邀月名亭，屠雞奠醑。華宗僉彥，作半日清遊。顧此散品，何以得此快遂夙昔嚮往之忱乎？一則兄賜也，二則兄賜也。仰感眷愛，歸擬卽書謝厚意，因循拖今，何敢望恢恕耶？近得華宗書，無他及尊兄語，無大小大虞，推可八九矣，靖體震良，連享佳綏否？歲新已屬，尤庸誦止。錫憲，去月十九日，爲六一晬辰，風樹餘生，無以爲心，而忝荷知舊之賁枉，度了其情則可感，而寒廚如洗，未洽款接，還增慙然。頻託壽韻，初不簿記押字，故忘未和呈，悶愧悶愧。并加恕諒，企企耳。

## 答金源得【長城郡黃龍面黃龍里】

距不甚遠，而尙未攀登。邀月名亭，探先生長者遺蹟，虛過半生，恆是耿耿于中者矣。始於昨秋，天借好風，得遂夙願，小伸景仰之私。又得與華宗僉彥，遂一日亭中之遊，愚生此世，幸莫過焉。矧荷兄不我江湖，先垂華訊，兼示以尊先堂韻，何等眷注之厚，感感僕僕。但措辭之間，稱道過實，恐傷直諒之風，何無亦效嘖乎？君子之過失之厚者歟！愧悶實多。錫憲，自歲內抵今，以先祖三世遺集入刊事，他未遑及，而滾汨度了，此後似費歲箇月可告功耳。愚也生平，倥侗蔑學，尤疎於詩工，人所共知。兄惟愛不知惡，託以先楣次韻，實有不堪當者，而托名爲榮，露拙而呈。與春園兄，商確推敲，勿負朋友間切磋之意，則愚生之幸也。切企耳。

## 與金天洙

歲內賤書，想入尊領矣。曩奉崔春江兄，見過轉審，靖養綏相，令從氏暨令季氏，湛翕式好，新春好消息，孰右于斯？弟，風樹餘命，奄過六一晷辰，難爲情思，而猥荷知舊之遠來度日，實不堪，愧感并切。狀及墓表，適值莊軒信便，故俄已付呈，而莊軒忙發，未得書伸中情，故茲以仰告，伏惟恕其辭拙未達。一番經校于東谷先生，且與汕岩邊友，商確切企耳。令季氏爲余貽勞，可感益友之厚眷，卽爲造謝，情禮當爾，而以先集刊事，苦無暇日未遂，齎意致此，耿結如何？

## 答老栢書舍儒林僉座下【柳遠洙·鄭鉉宇·沈鎮宅·鄭鉉植·鄭長圭·田溶求。陝川雙栢勿溪】

伏承通諭，仰感厚眷之至。伏惟老栢軒先生蘆門嫡傳，而後學之所共景慕者也。錫憲，猥忝將事于高山書院，粗伸私忱者，再三。昔年又得踵勿溪入舍，而參菜禮上阡，而拜幽宅，退與淵源私淑，作數

日講討，尤切羹墻之私。今承祠宇新成，縉禮卜吉，誠斯文勝事，吾黨有光，曷敢不欲渴，蹶赴趨覲樽俎之辰，兼與僉君子，贖舊日清遊也？因於居僻，始以八日暮獲拜尊函，難借好風，鞭鞭勝錢何？只自浩歎而已。第待明春，瞻拜爲夙計。伏惟恕此遲慢。謹謝狀。

甲辰三月九日。

### 與宋基璿【高興占岩面大春里】

仙鄉多茂學之士，以錫之陋，猶幸忝交其二三君子，而於尊執風範，則迄未遂覲降之願，只訟孤寡而已。今者憑莊軒口道，得承尊執奉先裕後，愷悌茲詳，迥出人右，可欽可仰。錫憲，學書無成，不足齒於髦乂，而間有愛而不知惡者，欲引而置之於文墨之列，愧甚悚甚。尊門諸石役，甚盛事也。敢不貢賀，顧此筆弱，少發揮力，覽後揮棄，更求良手如何？那得識荆，以償夙願耶？謹候狀上。

甲辰三月二十九日。

### 與邊敬仲時淵

累跟清庄大閘，雙楫子快拂，滿袖清風，酷吏莫敢，誰何俾免夏畦之病？故人之賜夥矣，荷縷戢骨。況此一霽吉筮有秋耶？無介介於茹時耶？向教華陽洞巖棲齋重修志感韻，歸擬卽呈，以姊氏老患彌篤，未遑抖擻，今始付郵。契金貳百圓，亦惟惠貸之如何耳。留待佳俳前一敘。侍彩加愛，副此詹翹。

甲辰七月二十六日。

### 與金顧堂奎泰【甲辰九月十八日，顧堂與安兼山乘柝·李松農東範，訪余一宿，明日同向澹對軒】

尊駕左顧，數三日團穩之餘，萍鄉遽分，既未乘黃之贈，只切摻裾之遵，

而勢莫致焉，尤難爲懷。追念頃宵澹軒之會，誠叔季盛事，衿佩爭集於東南數百里之外，宮商秩奏於鍾鳴，四五點之後進而駿奔，將事俎豆莘莘，而禮既順焉，退而講磨切偲，威儀棣棣，而道不悖焉。況有尊兄可夯執耳之力量乎？若使種種續開此席，使吾道免涸寂之歸矣。是吾輩之同爲區區祈願者也，則幸可賡成於歲聿其暮之前耶？華旆穩旋後，倘無勞攘之餘憊耶？竊想籬菊爲待主人之還，霜蕾晚綻，可以泛樽而怡顏也。遠切翹頌。請文必以幣，古禮也。雖於素親，不可廢者，而曩緣促發，未卽遂誠，今纔以略千金郵呈，不恭甚矣。恢諒領略如何？覩縷恐涉煩越。不備謹狀。

六世祖酒隱公遺蹟，茲兼畏呈。備考序文成後，兼送仰望耳。

來月初五日頃，似作慶北安東行，此行，爲始祖以下四世墓祀也，則似費旬望之日力，故先集期於其前結冊，以此尊諒，從速下送，區區所願者也。

### 上崔汝坡浚【慶州人，甲申生。慶北慶州市校里】

錫憲再拜上書于汝坡尊執。霜冷比緊，伏惟服體連護萬安，賢閣夫人祥期在邇，竊伏想伉儷義重，尤有悲酸之難已也。遠外嚮溯之至。錫憲，向日拜軒，得遂覲降之願，於平昔慕往之餘，而承誨諄申，受賜多矣。何等感幸？所以區區馳惊，尤倍於前此未拜時也。禮當趁時造慰，而涯角落落，且身縻先集刊役，未遂素忱，其於下情，難以爲懷。謹替奉狀，伏祈體候震良，以時庸重。伏惟尊照。

胎來，仄聞尊執曾刊東京誌，公於域內誠勝事也，而錫也固陋，姑未奉玩。頃日造拜時，亦因離鄉日久，歸思悠然，故不得少留，而一番讀過，歸而思之，茫然如有所失，倘惠以一帙，則擬與南中士友共讀，而爲頌尊執均洽之惠。伏惟尊亮。

甲辰十月二十七日。

### 與崔植【號小坡，汶坡子。慶北慶州市校里】

錫憲白。日月流邁，先夫人祥事隔在數內，仰惟孝心純至，痛貫哀廓益復如新。況此寒令，哀體堪支，不知成病否？竊念戚而傷生，已有賢人之戒，況又哀執，上有隆老春府，惟疾爲憂於止慈之地？仰冀哀體式遵古人之垂訓，萬加支將，而強進疏食，以仰慰親年，如何如何？錫憲，禮當匍匐於堊廬，而嶺湖千里，末由遂意，其於憂戀，無任遠誠。謹奉疏替慰，仰冀鑑察。

甲辰十月二十七日。

### 答鄭尚珪喆煥【號東樵。鐵川】

二枉一書於浹旬之間，仰感眷注之川至。先集刊役方劇，兼以永嘉墳塋，祀行有日，未卽修謝，而發敢望恢亮？舍伯，自貴庄返，槩探安節，而月已改弦，節近陽復，鞞床湛翕，慥索燭溫，令從氏後睡兒，近得清旺，翹祈願言。世弟，客月初以祀事，行安東獻成，後於聞慶慶州間，得一二知己，穩討若舊交。并作探勝行，目東京十六勝地而還。周甲之年，始覩傳千名都統三天府，非無田地之拓豁，其比二十江淮之書劔，則班乎，不啻鷄之於鵬。雖然竊自以爲大聖人小魯小天下之志，已在登泰東之前者也，則學孔是後生之至願也。固不可以順年謂之晚，亦不可以震域謂之小者，顧不在茲歟！憮然想及強首之辭命，太平之錦頌，白石之拱邪，火鳶之升天，心未嘗不欽于羅之君臣者，抑以南北異政，有激于目前而然耶？反而思之，白首寒儒，只此一念，已非浴沂底意。愧甚愧甚。盛什格非不佳，而其於稱道，果當何？洩勃具和，以助一哂。顧堂松農二兄佳貺，并此書呈，尊在如何？惠示號與壽韻，多感多感，而向後和呈爲計。并賜尊亮。不備謹謝狀。

今十五日，莊軒壽筵，可有拜晤之喜耶？翹企切切耳。

### 與金源益【長城郡黃龍面黃龍里】

秋冬之間，萍逢者二三，而每緣恩劇，未暇傾倒心肚而旋分。歸而思之，亦復悵缺，依舊安得？結元白之隣，同作遨遊，嘯咏於明月之下綠楊之間耶？雖不可易得者，而期願則切矣。陽復漸邇，服體綏迪？名園松竹，長帶春光於霽粟之令，不負主人翁襟期否？誦言勞止。弟，先集印役僅了，而粧黃亦似費多少多日力，益覺刊役之重非容易可辦也。亭壽兩韻，遠惠開示，揆以情禮，不可無和，露拙謹呈，倘無見嗔於泉石叢疊耶？望加點化焉。留埃續後，不備謹狀上。

甲辰十一月四日。

### 與李相睦【靈巖郡靈巖面望湖里】

省式。春間，承賢閣奄忽違世，自不勝驚愕之至。道途相左，雖未及趁時造慰，禮當修書即問，而迄冬此晚，孰謂故舊而有如此自遠於邇者乎？忸怩之至。仰惟伉儷義重，悲慟沈痛，何可堪勝？鬻發方啓，服履何似？仲秋逢春江崔兄，去月晦又逢華宗璟雨公兩氏，得聞常自寬抑理遣，甚副賤祝。錫熹，以三世先集刊役，周年縻絆，實未暇於聞問。今始印畢，而粧黃亦似費旬望，末由奉慰，其於憂想，無任遠誠。謹奉狀，仰惟照亮。不備謹狀。

### 答李東範【號松儂。多侍面草洞】

錦水東西，一葦可航，而阻以年歲，實深人遐於地之歎，以兄枉賜賁趾，得敘褻積底懷，況致遠方故舊而聯鑣？非眷注之厚，孰能如此？爲感鐫膺。茲又獲拜寵牘，副以瓊什，腆厚之味，清楚之響，令人讀之，牙頰生香。可謂一節深一節，何以報之？頤養有道，琴書成趣，此世何登好事？詹誦允摯。弟，與兄分袂，暮宿光府，翌以抵棲，再

明蒙莊軒東樵韓的悟三兄見過，得遂一日之樂。今秋葺屋契活，可謂有年矣。客月初作安東先塋祀行，返路偶逢知己一二，轉作東京，探古旬餘而返。以先集刊事，往返長城，亦再三矣。吾輩一會，此時不易底事，何以則莊軒壽筵，賡作前日之團耶？翹企則切耳。拙構和呈，望加點化，毋負輔責之誼焉。書不盡言。謹謝狀上。

### 答金顧堂奎泰【求禮土旨金內】

恭承惠覆，而方以安東先墓祀行，將發，即未謝下眷之至，意稽緩，尙今慵碌之致，尙可休咎否？節近陽生，道況以時益佳？未挹清風已間月，不無鄙吝之復萌心，未嘗不往來於方壺之下 綠鴨之上。身絆刑役，又復冗務錯雜，奮飛無翼，只自鬱悒。惟尊兄愛我無斃，弁文而發揮先集，鴈額而光輝伯舍。且副以華什二絕，一幅琪瑤，七字珠玉，其爲寶也，不翅拱璧之比。數百歲通家之親，將自此益篤，受賜之夥，僕僕拜拜。世弟，嶺行祀畢後，訪金清溪公璉宗宅於川前里，多感十世古家承襲風儀。訪六一圖書館於安東市東門洞，與主翁李圓臺源台兄，款洽一宵話，若舊交然，是乃退陶胄孫源愨氏之季也。濡染之深，有不可誣者，且爲一二友所牽，因行東京，瞻拜崇德崇惠崇信三殿，及西岳書院，訪崔浚氏於校里，是乃貞武公震立之九代孫也。富而樂施好禮，傳十世基業，家風之雍睦淳儉，使人可欽。其外陵寢梵宇，亦皆周觀，費三日力，深有感慕於統三之偉勳。反而傷心於南北之分，於悒不已。有若干吟咏，無乃秉彝之存乎中者，有不能自己而然耶？不知我者，謂我歌且謠，則又安得不爲吾兄說道我衷情哉？就考成廟庚子司馬榜目，則寒暄先生，以生員三等第三十二人入格，而錄云，‘幼學金宏弼大猷，居陝川，父籛侮將軍行忠佐衛司直紐’，弟之十五代祖，則以生員二等第二十八人入格，而錄云，‘幼學洪貴枝字缺，居羅州，父修義副尉樹’。其日則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主試則徐四佳居正也。伏惟尊在，而

如或留意於全榜，二百生進諸公奉覽，則當依戒，而一遵榜目鈔呈矣。惟俟尊教之如何矣。拙構荒草而酬呈，斤正以示，豈非汎愛之厚耶？徒恃厚眷，翮縷至此，并賜恢照。不備謹謝狀上。聞莊軒甲朝今月十五日云，伊時或可拜晤，賡敘向日未罄底蘊否？翹企則切耳。

### 答呂雲沙昌鉉【玉果龍溪】

樗櫟之齒，又是桑蓬之日，蓼莪倍切，荷尊兄及莊軒朴兄永鳳，携諸友不遐光臨，使葦戶生春，慰余孤露，感不容云，而兄既誦以瓊什，繼垂華牘珍重，副以壽軸弁文，愛我無射之至，意轉致浮，實過當之辭。弟雖至愚，其何敢居？所以罔知修謝。尚此稽緩，非直爲刊務所縻，愆積難逃。第念奔競趨驅，舉世滔滔，難進易退，吾儒之本義，雖大賢君子，遭戾世常多寡合，寧守季女之飢，不屑枉尺而直尋。況今疆域，雖脫敵治，政教非古，不好推移之。吾輩雖欲有爲，無可進之路，寧愚而窮固其時也。所以弟於壽兄序行藏，歸於有司之責，兄於弟有降才弭亂，不由人之句要之，皆自鳴其不平，有同病相憐之語也。雖然才難之才字，於弟豈妥當語也？而序辭又敷而演之，弟之所以不敢晏然自居，墮惇難已也。望須換垂以勸戒之訓，使此不才，爲作座右銘，賴以置身於寡過之地，則何幸如之？陽復在邇，君子道長。道況佳吉？庸時詹誦。弟，去月作安東慶州行，費旬餘日字。先集印役已畢，粧黃且晚，姑未頒帙耳。換城爲石，非惟不堪，與先人雅號，恐有相逼，不敢依戒，尊諒如何？既荷賁趾于賤啐，賡有咏歸之會，不虛送春秋。蒙顧堂兄與朋，共過成落帽之會，窮家是年，可謂大有前後故人之賜，仰感僕僕。今望莊軒壽筵，必有拜晤，翹企。謹候狀上。

## 與朴聖韶永鳳

頃晉巧值駕言，計違敍穩，薪悵之至。直欲題鳳，而不忍爲也。倘可惠我而有報乎？呵呵。穩脫連祺？遠祈之至。莊軒壽筵趨賀，必有盛筭矣。弟亦以十三四日入光，與兄聯鑣爲料，亮在是企耳。不備謹狀上。

## 與金顧堂

自鰲山印社，暮到雲菴莊，則尊駕啓發在晡，遂闕拚錢，向隅飲嘆，只自忉忉。道況近迪？詹誦勞止。世弟，念間搬來先集，而其間與印工，有可清筭者，不無滾汨，而今始快了，自以爲幸耳。卽擬書候，坐於榜目之謄鈔，未暇，晚今書呈，倘無後時之悞耶？伏惟尊在。先集三世書，有一二正誤處，竣後當呈上。并冀諒燭。

## 與鄭東樵

頃者賤覆，想獲入照矣。莊軒壽筵，庶機奉晤，竟失所圖，只飲少一之歎，尙今忉悒。栗烈茲啓，尊體清茂？頂祝願言。世弟，去念間搬來先集，而一二處正誤後，頒帙爲計矣。兩韻，今始堇堇次呈，而拙澁未滿一莞之資，慙悒上顏耳。舍伯次韻二首，及雲沙兄韻，并此齎上，伏惟亮在。

## 與高達林【號鶴圃，乙未生。慶北聞慶郡山陽面平地里】

金泉驛頭，巧遂識荊，連轄三舍，談笑款洽，剪剪曉風，不知爲寒。凌霜踏水，而分張於漸村，白首浩氣，亦云快哉！有不可忘者，臨岐未分，柳舍一盃酒，尙今怒如。竊想執事亦同此懷也。凍路利稅，經體頤養以道？寔深遠頌。錫憲，蒙厚眷，長塗順涉，午飲洪井於豐

山，是我藝祖直學公以下四世世飲之泉，閱千歲不涸。行路尚今指點，稱謂誠爲奇幸，躑躅數餉不忍去。暮渡九潭，船抵申城浦，以翌祀始祖以下三世墓，再明往川前村上鷹岩山，祀大提學公墓。午後入川前村，訪金氏清溪公宗宅，與金氏秉大衡八衡，謹僉執穩紱數餉。翌展拜傳疑碑於水谷，訪六一館主翁圓臺兄，於安東市東門洞，傾膽一宵話，翌抵慶州，覽十六勝地。費三四日力，歸路訪崔汶坡浚氏，一宿而還矣。竊以嶺南吾先四世生藏之地，雖於流峙，其爲敬嚮，非他名勝可埒。況於人得清高雅德如執事心乎？敬愛何日可忘？雖勢不可得，源源承誨，紙上語替面，抑亦其亞也。不揆煩越，齟齬鳴衷。惟祈清亮。

### 與全炳琮【慶北安東郡豐山面下里洞】

豐山，吾先祖舊鄉，山不夷而可仰，水不廢而可飲，溯懷千古，正是躑躅不忍回首處也。況得與執事覲降？詳先祖井閭舊居，共飲清泉，而徬徨數頃，私喜之至，愛不欲相釋，而兩皆有事於祀墓，遽爾分袂，歎歎曷既？業欲將字謝眷愛之厚，歸卽以先集刊役，延拖未果，而月已再弦矣。尊體茨福蔓祺？心乎馳溯，搖搖如懸旌。錫憲，暮筏九潭江，翌以祀墓，越三日抵臨河縣，祀于川前水谷兩山，事畢後一宿安東市，三宿慶州市而還棲矣。回路擬叩仙扃，穩紱向日未盡之蘊，汽笛指東，遂違素劃，歎如之何？會晤難以指期，姑此申紙替面，倘可會亮。

### 答小松遺稿刊所僉君子【寶城郡福內面眞鳳里，安鍾宣】

伏惟僉尊體連旺。恭惟小松先生鄭公，題名諫院，見時多舛，急流勇退。及聞無國，引刀自盡於不聞不覩之地。見危授命，殺身成仁，公其能之，可有辭於天下萬世。蓋其平日頤養，有忠厚不迫，故一

朝遇事，從容取義，如彼其卓也。其遺文宜亟刊，行公于世者，而尚多未遑，今茲士議之詢同，實爲斯世之盛事。伏承僕名，亦參於任員，然但此疎劣，豈敢曰有寸分之能哉？景仰之地，不敢言勞，而尸餐可愧。義當趁參席末，而其早晏，未可的指何日，以書替呈。伏惟僉尊，加愛以完大事。不備謹狀。

### 答安鐘宣【寶城郡福內面眞鳳里】

錫憲謹覆。春承小松遺稿刊所簡通，始知賤名亦參於任員。以疎愚之才智，卽當書辭不堪之由，繼以躬趁，仰慰僉彥獨苦之賢，而以鄙先三世遺集，方在付印，故迢迢湖洛，忽煩未果。轉眄之間，此歲將暮，役已訖，而遠荷頒帙之盛念，愧先於感。錫憲，憶昔四十年前，爲拜先丈晦峯翁，一跟竹谷，適值先丈駕啓湖西，未遂賤忱。惟與執事，及獐項居沈生，數人共分一夜話，而旋別依依，如夢中事。其後經過雲雷山水，而兩皆衰暮，何恨如之？松稿盪薇讀去，字字正氣，令人感泣。恨此書之未亟行世，以愧檜倫。二三其德之徒，今此書幸公諸世，則錢謙益輩，綺繡之外飾，不待乾隆之焚，而其將藏尾矣。豈不是大快哉？而喚醒吾人，固有之義氣於百世之下哉！實域內羣生所共胥賀者也。若其小小疵類，則棗梨家免不得者。埃後重刊，釐正亦何妨乎？錙銖之力，敢此伸衷，倘燭不以貨爲禮之意，則幸莫甚焉。津送于掌財任泳鎰處，伏望耳。不戢謹狀上。恭俟回照。

### 與金正會【號普亭。全北高敞郡高敞邑道山里】

頓首再拜言。先夫人奄棄色養，驚怛不能已已。茲憑族大父承春便，遠審哀體將攝有道，允副慰擣之至。以哀兄清脆之質，年近七耄，猝當巨創，攀號擗踊，易致傷孝，強加疏食，俯從禮制，更是區區

祈願者也。上年盤桓先生遺墟碑，及今龍菴公墓碣寫者，皆弟之爲言於宗中，仰懇于尊兄者也，而荷兄厚眷，前後副望，俾光先阡，弟之感幸，亦與其雲仍無異。豈敢忘諸心胸者？菊秋，荷顧堂·松農·東樵·兼山諸兄之訪，成落帽之會，可謂不虛過是秋耳。禮當造慰，而身絆先集刊役，其早晏罔以指日，只增悚悚。茲以紙面替呈，仰惟鑑察。不備謹疏上。

### 與金載容【慶南陝川郡龍州面黃溪里】

頓首拜言。先府君奄違誠養，承訃驚怛，非尋常故舊之比也。疇昔覲降于柏舍，榮辰進而裸，將退而講誦，其儀孔碩，款洽無斲。繼有魚雁往來，吐示肺肝，庶冀蓬麻之悠久有資，今焉已矣。溪堂失色，明月誰主？仰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襄奉。不審體度支勝？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熹，路夙務冗，未遂臨壙一訣，紙面替慰，亦後於人，而眼昏未能細書具式，其於憂戀，繼以悲悵。謹奉疏，仰惟鑑察。

### 與邊敬仲時淵【長城】

轉聞洛轄利稅，甚庸翹慰。蓼隱墓碣銘，重違勤教，綴次付郵，望須修潤入用如何？歲既暮矣，惟祈獻發景祺。謹狀。

### 與金衡謹【慶北安東郡臨河面川前里】

分裾三朔，忽此歲暮，瞻望嶺雲，忡悵難禁。寒冷斗酷，春府丈氣力旺休，侍餘敦體迪吉？瞻言勞止。錫熹，參拜水谷傳疑碑，車行安東市，別諸宗，訪六一館圓臺兄，穩紱竟宵，翌宿佛國寺，訪慶州市校里崔汝坡浚氏，周覽古蹟，四五日後還棲。不無囿圍難振，而所得不些，亦不覺惱苦之留身也。荷執事眷厚，將事于我大提學公墓祀，

且導入清庄，得與周覽華宗宗舍，非愷悌風儀，何以得此？歸誇鄉友，尙娓娓不已也。從後加以相愛，不負歲寒之期如何？台憲從近安云，而未面亦月餘矣。惟冀餞迓泰亨。不戢謹狀。

### 答崔敬堂允煥【光山郡大村面良菘里】

兩度惠書，尙闕修謝，而歲聿云暮，悚切悚切。齋居興味，應有優游自適，不待外求人不及知，而已獨知之妙？拱賀無斃。小弟，去月晦間，以私門婚行，入泥場里，與光維在碩兩高兄，及羅兄平集諸益，作半日清遊，卽旋，未得歷訪攄穩，遙瞻仙齋，飲悵而歸矣。所託文字，非欲歇後，而冗故蝟集，展思無日，今茲構呈，未知合於尊意否。幸加修潤如何？

### 與許基洪【谷城兼面玄亭】

高山賀筵，兩宵款討，棣棣風儀，令人醉飽，仰感惠我之至。相分跨月，鄙吝復萌。雪月晴宵，山陰一訪，靡不懂憬，而爲寒威所劫，卒歲未致，自笑跬螿之奮飛無翼而已。獻發在邇，經候旺休，華宗僉尊執事均迪？翹祈之至。弟，涔寂度了，只切固寡之歎。何以則更得與兄成團，若詠歸高山之會耶？存翁追享，詢議胥協，終焉允藏，豫切衷悵。抑以枵腹淺見，則曩時欠儀，迨此并舉，以義則可，第埃公論之如何耳。率爾至此，尙勿厚咎否？春享後拈韻，今始草上，與雲沙莊軒諸兄，更加斤正而付尾，顒望之至。惟祝餞迓增祉。謹狀。

### 與文崑巖泰植

錫也，數年前，以編校譜冊，滯洛日多，雖值尊執之枉鄙里，承誨靡暇自致，稽濶未副眷愛之厚意，內訟歉然者多矣。何幸客歲以來，拜候萍鄉四五度，賜誨諄申，庶消積歲鄙吝之萌于胸中者，鐫感次

骨，仰慕倍品。伏惟歲尾，經候珍旺？詹誦罔涯。錫憲，先集三世書五冊，印畢搬來，私家之幸事也。華堂賡吟，自顧草蛩之候鳴，安敢列於洪鐘大音之伍，貽有無補無無關之誚哉？盛教有年，向又申之，若終不露拙，則雖以高明之洞燭，詎不曰慳吝管蒯，而不肯肆於錦繡之市乎？茲以次呈，垂憐推叩，卽又平日眷愛之惠也。敢望敢望。

### 答安秉柝【求禮文尺土金】

歲暮荒村，叵耐涔寂，心未嘗不往來於故舊之間，安得逐日相隨資？切憇，祛蒙蔽者，兄居一焉。除拜寵牘，凭諦經候迪綏，慰何可斗？矧意勤辭摯，眷愛溢于幅外，副以四絕壽吟，轉致濫實之頌。樗櫟之年，自顧無有忸怩之至，豈敢云感？竊念四益之地，三樂之一，於平時猶是索性好事。況全寰風雨，孰能開遼東之木榻，提醒後輩，俾吾儒種子不絕於地，有若兄者乎？如錫之鹵劣，實健羨不已者，而兄反以瘦神爲嫌，固知其憤悻之餘，精研覃思，自不覺有啓發之實得也。尤賀尤賀。弟，先集五冊印到有日，私家之幸也。與兄分後三日，莊軒東樵韓的悟兄，一會于幣廬。又於莊軒壽筵，得拜顧堂兄，問兄安候，則有碍未枉云。同庚斯筵，尤切虛左之望。瓊什和呈，庸祝君子萬年，仰惟加愛，不備謹謝狀。

### 花潭書院儒會所僉座下【光山郡極樂面花亭里。梁仲默·羅平集·朴燦奎·崔炳德】

春寒尚峭，伏惟僉尊體膺休？詹祝之至。錫憲，猥承享員之望，至感不遐之厚眷，而功服嬰身，不敢赴尊俎之列，伏惟尊照。恭祈享禮利成，謹狀。

與李圓臺源台【安東市東門洞四六六一館。云亡於此書未發之前，可爲忉怛。】

客冬一晉，出於景仰之餘，獲遂觀降之願，弟之幸事，而爲遠來人，強攝慎候達宵賜誨，爲執事不安則多矣。歸當卽書，而第埃六一同志之備數俱呈，致此稽緩，自不堪悶悚。伏惟新春，調候起居若時享蘇？遠外頂祝。小弟，猥荷乘黃之贈，因而利涉東京，周覽古蹟。於人則又得見崔汶坡翁父子，數日遊賞，莫非資于執事者，何敢忘諸？歸棲以來，從事先集出版，閱歲而訖功於客年之暮。但財絀神耗，未克善美，間多疵類，仰悚俯忤。仍念執事有志儲書，迥出風格，非尋常士類之比，故三世文集五冊，仰呈，恕其訛誤，隨調候向可，幸賜尊覽如何？宮商之音，遠莫能和。書不盡言，恭埃金玉之音。【李進士世述七代胄孫李源裕，居安東郡陶山面宜村洞。陶山面土溪里，李東恩，己酉生，字鶴來。】

答梁燦承【和順郡梨陽面草坊里】

蒙惠書，以知省餘敦體佳迪。汲汲於先大人文集刊行，食息不措于念頭。堂構勤忱，令人欽誦。以錫憲之愚魯，荷僉儒之不揮棄，必欲置之董刊，因是而獲貢寸分菲忱於羹墻之地，則一幸也。但恐招乘負之譏，曷不慙悚？既有辭不得者，卽當依教翼如，而陰二十三日，陪從舍伯于姪兒婚行，明日納幣，再明還家，事勢如右，六日直行筏橋，七日開版爲計。仰惟恕諒。

答高達林

恭承寵覆書，盈幅縷縷，正是出肺肝相眎之語也。萍逢雲晤，循例一札，而猥蒙厚眷臻此，儘覺泰嶽不能障礙，大江不能橫斷者，人情也。雖獲百朋，榮莫此若。感戢次骨。尊書，非直愛人繾綣之溢於辭表，

洋洋若長江順流。富贍若大肆列貝。涵泳優游之工，造昭曠塞淵之域，豈有不可誣也者。

如僕之愚，敢望餘涎之波及庶滌膏肓之累，倘不孤此懸衷否耶？籬菊庭松，左圖右書，鉤輿研新，道腴日真，佳林衆叢，鷓峙鸞停，而恪執所事？仰賀無斃。僕亦六七兒孫舉不家食，奈時之所役何？圓臺翁，遽作千古人，人事風燈，固如是耶？爲之忉怛。揆以情禮，比化者，不可無雞絮之侑，而蘭報喬忱，未知不淑之久，近虞卒之經末，故不敢率爾。望須明示克襄之在於何日，如何如何？俯詢族系，族大父肯周，慕堂公第二子，監司公靈之後，藍浦縣監泳謨之子也。有三男三女，男祐翼副護軍·祐鼎長水縣監·祐駿，女適密陽朴耆萬·星山呂尙奎·開城高彥明父衆謙云。聖與明殊或有初後之異耶？洪大妃，族祖領相永豐府院君翼靖公鳳漢女，誕生正祖，族系則慕堂公四子秋巒公囊之後也。按肯周仲子祐鼎，出系報恩郡守吉周後，吉周卽大妃之再從領相孝安公樂性孫，左相文簡公爽周弟，永明尉孝簡公顯周仲兄也。揆以年代及親誼，則其曰敍內禮云者，無或與永明尉夫人淑善翁主敍叔姪之親耶？其曾孫正植宗植應植等，居尙州金泉等地云，而井里則未得詳焉。以是亮燭如何？坐見山花，而渺難對酌，臨紙增悒。不備謹謝狀上。

## 與朴炳容

草坊之會，未遂一席商確，雖緣兄之慎攝難於振刷，而不無缺然之思，尙今悵黯。竊想承聞議況有日矣，春化漸暢，定省增嘏，鞞牀湛翕？恒勤攢祝。弟，頃與莊軒朴兄永鳳，往返高興禪四五朝晡，方在圍圍呻吟矣。家兒新築藥室于板村，以念三開基，翌有姪兒婚禮，當拜舍伯聯行，故姑未赴刊所。念六直入筏橋，參七日開版爲算，懵愚之質，叨擔重役，只切不堪之愧而已。弁文，只爲盛教之難負，強擾荒草，固知其未合賢意。如不揮棄，更加修潤如何？

## 與梁燦承

刊役，與賢逐日商確，方可快釋疑紛，而勢莫能焉，有時菟甚。正草中商量處，有不可以一人之見擅斷，故僕亦伴莊軒還鄉，五日入筏之約，無人可與同留者，望後與莊軒并行為約，倘勿咎言如何？詩及往復，殫朝暮之力，僅僅整頓。且紙品，以十日後搬到為算，則入印時，庶無葛藤之弊矣。跋文，姑無撰述，而臨頭之事，有不可緩愒者，於賢意則謂誰可穩當耶？僕與莊軒，曾所商確，則以為顧堂最合云，此算如合賢意，待來月望間，顧堂莊軒合席于玉果之時，俾有申囑，如何如何？事係重大，固當躬造，一一對討者，而拘於冗私未爾，以書替伸，亮加恕會否？惟祈侍彩綏佳。

## 與安龍伯【全南教育廳】

承執事出監湖學內，心慰悅者，豈其徒然哉？以嘗於光州校瑞石館，忝一日一夜之承誨，覲執事棣棣之儀而醉薰，聞執事諄諄之言議，有足以淬礪頹敗之士習。星霜雖換十數，而猶不忘于中故也。不謂獲拜於筏橋檐帷之住所，以有復申前日所承誨之說。為執事勉焉，使湖南弟子，願有不問可知為安定門人之譽也。執事倘不咎率爾否？先集歷年數百，而今始付印，故仰呈。如有公暇，幸賜尊覽如何？大溪書院書，則在石崖卷三，尊覽可會矣。

## 與朴鍾鴻【서울大學院】

因李春田·奇莊軒老章，獲聞執事光賜賁趾於光州長城之間，有事於採輯地方文化古典，恨未拜迎於路左遂識荆之願，而聽其清誨之緒餘者久矣。其後又得見執事所編全南思想，嘆執事宏博之學，富瞻之文，而欽賞，業欲將一幅荒書，以達區區私慕之忱，浚巡未遑，已歲累換矣。今因仰呈先集，略陳，伏惟垂覽焉。吾六代祖酒隱

公，一跟棘園見屈，不復應舉，隱居養志，結交遍當時賢者。五代祖石崖先生，中生員文科，奉教釐刊璿源譜，其歲以病遞歸。累承敦諭駟召，未赴，疏陳科弊及時宜，累下優批，官至承旨。訃聞，上命全羅監司徐鼎修，庇喪護葬。高祖考南崖先生，十九歲，侍親疾，千里還鄉，極刀圭之誠，宿崇漸可，二十五歲，應賓興試，正祖御考三上，賞賜硯墨書冊三十四，登才行薦除英陵參奉，上疏陳農政，正廟批曰‘達於時務’，未措施其策，而正祖昇遐，先生又沒於明年，識者恨之。先君石川公，受業于蘆沙先生及松沙先生，丙申從松沙舉義，玉山李光秀撰碣銘，有丙申義檄，此其累世文集也。伏惟第覽，而俾無遺珠之歎於文化蒐輯，則何幸如之？僕亦辛丑年間，因校譜冊，在京數年，累入서울大學圖書館，考覽先蹟之餘，傍考他人先蹟。不能免或略於當詳 或詳於當略者，多矣，是則豈筆者之過？地有遠近，歲積今古，勢不得不然也。然以其後孫，則亦安得已不明不仁之浩歎乎？靦縷至此，還涉煩越。不備謹狀。

龜巖祠儒會所僉座下【谷城立面霽月。鄭雲彰·許日煥·金鎮浩·鄭遠秉·辛有善·金炳基·高光稷·金錫麟·劉洙鍾·許基洪·申彥龍·呂昌鉉。沈氏，忘世亭·霽湖·杜庵·龜巖】

恭承簡通，復建龜巖祠，安享沈氏四賢，可頌諸賢後孫不棄基之孝矣。當日駿奔，擬睹縉儀之盛，伏惟尊照。

詠歸書院儒會所【兼面玄亭】

伏拜僉尊垂簡，獲聞辛青坡二剛·魏存齋伯珪兩先生，配享縉儀，將以今月十七日奉行，仰欽。僉尊緇衣之誠，迺出等夷風動斯世也。僕素不嫻於尊俎之節，而叨承前期儀節議定之教，悚惶之至。然慕仰之地，敢不赴駿奔之列，以聽籩豆之事乎？伏惟尊照。

## 與邊時淵

令愛結縵穀朝在邇，凡百關念，想消不得紛擾矣。然上有潘楊之親，下齊梁孟之美，其舊不忒，其新孔嘉，終焉允臧。不賀之賀，預切于中，而浮生一會，亦有數存焉。處在遐外，未赴速筵而醉飽酒食，何恨如之？所教正齋集中記與書，鈔呈，諒在如何？錫，十四日到雪山，參觀龜岩復享及詠歸迫配儀，與南北羣儒，作四五日暢敘，未是非此世好事，而傍無高明，曷既少一之恨？非久惠枉，預庸翹切耳。

## 與曹秉燦【高興大西面溫洞】

曾無雅分，垂惠以尊先諸集，於此益信執事風稜迥越尋常也。顧以蔑劣，獲此情眷，感愧交臻。恭惟啓居崇護？遠瞻南雲，嚮注之勤。錫，縻身於正齋集刊役，旅寓筏橋已逾月矣。尊先累世淑德，奉讀遺文，可爲興敬，而惟清簡公，爲吾鄉先輩夙所景慕，故讀其書攷其蹟，尤不禁曠世之感。尊閣枯梧，待月明清宵，不禁盥焚之讀，而爲之繼以歔歔流涕也。眷注雖厚，而識荊無階，只增於悒。謹狀上。

## 與金顧堂

風詠契會，今世之古遊，吾輩論心，庶因是可得，而若錫之愚，桎於固陋，身在遠外所役，不得參席末薰蘭臭聽緒餘，負負多少。勝友姑舍，于若尊兄，平生仰慕地，遂失承誨，尙今叵耐茹怒。反稅後，道況連護珍齋？錫熹，同莊軒相役于正齋集刊所，滯旅筏橋，已跨二朔。從後亦似費二朔，可訖，而爲着新衣，數日前還棲，舍伯寧寧，爲幸耳。先集，蒙兄嘉惠弁文，使潛德宣揚，感切幽明，未知將何語貢謝？百世通家，將因是尤篤其舊已良其新，孔嘉孰非兄賜耶？三世書五冊，禮當躬晉奉呈，而抽身靡隙，率爾郵呈，恕此不恭，而討暇尊覽如何？拜晤難期，臨楮增悒。不備謹狀上。

## 與崔小坡植

歲前慰狀，倘免喬沉而入照否？無路憑音，尤恨涯角之落落而已。天時清和，大府耄候，享用難老，棣體溫繹，詩禮於趨庭之餘，臨風挹芬？未敢舍旃。錫憲，曩涉仙府，非直爲探名勝古蹟，於人願見之願有尊府在以及於執事也，而得遂識荆于尊門喬梓，幸莫大焉，而未得源源承誨，勢也奈何？先集三世書，近始印畢，頒于京鄉各大學圖書館，及文獻古家，未得躬造奉呈，郵便付去，倘恕不恭，而討暇尊覽如何？仍念五十七代祖縣令公諱伊，配位卽和淑公之後孫 漢城府尹邇之女，則吾氏之爲尊門外裔，宜講百世通家之誼者也。豈尋常向慕之比哉？石崖集中，拜武城書院詩，及問南對策，皆寓羹墻之慕於文昌公之辭，覽應領會矣。恭埃回音，不戢。

## 與李東恩【字鶴來。安東郡陶山面土溪里。退陶宗孫源懿氏子】

省式。先阮府堂中，得遂荆願，旋即分張，悵缺還切於慰瀉。清和比辰，侍服棣候支旺？令從氏昆季，并皆侍几將勝否？遠滯不任勤摯。錫憲，居僻人稀，茫未承阮府凶音，因聞慶高鶴圃達林書來，始知先阮府已非斯世人，驚愕何已？以先阮府清通之資，蓄涵泳優游之學，接物之恢，絕去畦畛，愷悌君子！令人可敬。宜享耄耉，而遽至於斯耶？誠天不可諶，神不可度者也。如僕之陋，艷仰有年，晚以一書通相期之意，昨冬始獲拜軒，一見如舊，握手吐肝，達宵疊疊。及其相分，囑以六一館同志推薦，僕亦以推十名諾之。贈我以理念書及乘黃之資，忍分於不欲分之地，孰知此日之分，遽作千古之分耶？念之悲悵，自不覺涕泗交頤也。伊時歸家，擬與十名者面確心誓，而一時推報，故延拖時日，未卽致書，有此渺茫，追恨何及？禮當匍匐於聞報之日，道途相左，未遂賤忱。楚些一闕構呈，此意轉致于僉哀，哭告于象筵，如何如何？先集三世書，近始印出，頒于京鄉各大學圖書館及文獻古家，事當

躬造奉呈，而抽身靡暇，率爾郵呈。倘加恕諒，而討隙賜覽，仰企耳。令宗大父諱世述，與我五代祖石崖先生，爲司馬同年，而且有酬唱詩韻，故亦送于其冢孫源裕氏宅耳。餘在續後，不備狀上。

### 與李源裕【安東郡陶山面宜村洞】

嶺南，我姓發祥之肇基，而中世朋交，亦多在焉。於吾百世通家執事其一也，而茫在千里外，音耗莫憑，挹儀無階，吾兩家先靈，如有知，其肯曰余有後不棄基哉？中心愧悚。昨冬展掃先墳于安東之申城浦，及川前村上，歸路訪華宗六一館主翁圓臺兄，款討一宵，面雖始而書以傾心則久矣。因話及執事，始知執事爲英祖己卯司馬諱世述公七世主鬯，心未嘗不馳注，爲義御所促，未暇覲德而歸。負之先契，安得不悵然于中？僕卽己卯司馬諱鳳周之五代孫也。考丁亥所頒榜目，則可詳矣。先集近始付印，而憮念世好，郵便仰呈，卷二六頁有‘憶李同年承伯世述’一絕，覽可領會矣。今春擬拜陶山院兼與執事，講世好，以先集頒帙，抽身無隙，只切遠外之黯悒。不備謹狀上。恭埃回音。

### 與權昌鉉

頃年獲惠覆書，辭意疊疊，欲引而致之朋友之末，不遐之厚，敢不拜感，而未卽書謝，又復日而積月，月而成歲者三矣。弟，乏憤悱之勇，兄安有啓發之示，自分闔茸忝縮之至。人事變嬗，自經靈庄而還，溪軒·秋峯·溪堂諸公，相繼云亡。柏舍禮席，蕭寺鍾樓，講論吟哦，依依若夢中事。耆艾星稀，吾林蕭條，安得培養年芳才雋好男兒，使斯文苗脈不墜於地乎？其在培養，吾兄亦辭，不得其責，門下得幾個起余之儔，可與適道乎？期望之至，預切翹賀。今夏初，湖南士友作風詠契，爲春秋澹軒會講之期，得七旬以下，氣同臭合者半

百，而強仕之齡，不過一二少，而好古者絕無，而僅有抽可知也。兄與李昌鎬兄，若同此案，則可謂嶺湖之風詠會，而遠莫致之，奈何奈何？弟，以三世先集刊役，費得二箇星霜，今春以梁正齋先生文集刊役，久客于筏橋印館，還家才三日矣。仍念年過蘆化，德蔑榆收，俯仰乾坤，此何人斯？何以則能置餘光於寡過之地，不爽爲善一邊人耶？以體得於己者教示，勿負惠好同歸之意。顛祝之摯。先集三帙五冊，郵呈，而間多疵類，恕爛暇覽焉。餘非面莫可穩據，姑留。謹狀上。

### 與李春田焮

逢未罄蘊，別更相恩，何日可忘？曩於諷詠契初筵，未赴席末聽其緒餘，雖以絆縻正齋集刊役所致，自分固陋，不得與於聞道之地，嗶咄何若？天降之才，非有特差，而元凱五治十亂之輩出，都俞吁咈，佐成至治，爲千古盛事。降及後世東京之八俊八及，雖以名節矜持，而無補於保世長民。南朝之八達七賢，資稟雖高，而玩弄放惰，名穢青史者，時爲之驅逐也。然苟能早就正於有道，豈有不能檢身守己，如阮嵇之倡狂哉？今韓國之艱虞，非南朝之比，故不遇之士，詭譎百出，以爲度世之術，自以爲得計，安於放狂者多。何幸吾輩生於大賢講道之方，雖聞道有早暮之殊，矢不差。善一邊人，則同一斷斷焉。是果先進諸公之流澤也。況有酌古洞，今有兄之博雅弘毅，惠好同歸，豈有載胥及溺之憂哉？謾以所欲獻於會席者，翮縷還涉傷支，恕諒如何？前年所呈書與韻，喬沈，而曩有示及之教，故更此畫葫以上。恭祝爲道珍齋。謹狀上。

### 答崔基南【號蘭谷。潭陽郡大田面中玉里】

萍逢武珍城中，飲兄柳舍一盃，情眷已是三朔，而尙此馳魂黯消。

數紮前還自洛州正齋集刊所，惠書墜案，已盈念暉，而謝覆稽緩，爲負不少。長霖如流，鬱滯叵狀。悅話齋中，惠連滿座，清談轉玉，應有自不覺遼炎之惱人也。仰賀無斃。大峯實記，荷此遠存眷注之厚，罔知攸辭。地不忍荒而亭焉，文欲壽傳而鐫焉。尊師之盛，令人可敬。願兄益加切磋淬礪，若抑之戒，使尊師之道，益著膚淺。若錫者，亦與有榮，勿孤此意，若何若何？方又行洛州而刊役，則似可訖印於來望間矣。臨楮增悒。不蔽，謹謝狀。

### 答邊敬仲時淵

旅牕霖關，叵耐涔寂，故人一書，喚醒沈鬱，豈遽讓於摻裾對討？慰瀉可斗。錫，自分褫襪，況精隨年耗，其於棗梨之役，斷無可合，而猥荷士友之推，素餐于正齋集刊所者，歲跨半矣。恐致乘負之失，常自兢兢于中者。賢執應將吾祖石崖南崖諸集之印，多疵類，可領會矣，今盛喻，無一辭垂憐箴戒，而溢情稱道，豈其素望於相悉之地者乎？切愧切愧。鰲南集刊役，有東谷莊軒二公在，豫頌善美之盡，而若其縝密周詳，則惟恃賢執之年強力富，雖甚忙，不可不左右二公而盡瘁也。恃願之至。頗託謹悉，而書卷登印已久，答賢一書，在五卷四一頁，卷畢于四六板，則五板改印，實非易事，其何能連印于前書之下也？恨不早示而致漏，幸勿咎焉。來月旬內，印可告功，尙可賁然於竣役之內耶？有緊議事，而不可齟齬於遠書，故胡草，謹覆。

### 與奇莊軒

未挹高風，月盈而晦，安得無鄙吝之復萌于中乎？直茹索居之恨而已。尊駕之尙未啓言，認是體候在調養中未果也。溽霖支離，或者不堪沈鬱而成祟耶？貢慮不渺。念間作鄉行，緣霖魔，未歷候而歸。靠負平昔眷愛，尤庸憫迫者也。來月旬內，印役可了，而凡事

紛選，必待商確爛熟，庶可元吉無咎。美慎如有小可，或可惠顧耶？訝苑之至，以書替申，亮在如何？肯齋梅峯二兄，亦在貢勞矣。

### 答朴聖韶永鳳

兩城月盈，客舍日富，獨飽火山之味，苦無向人說道。昨得鰲山邊友書，今繼承兄書，若一陣清風颯颯吹到，滌我鬱結之胸懷。非故人愛我之至，胡以得此？喜若討面，感可次骨。瑞石入門，几案晶瑩，席上有珍，麗澤多資，健羨。弟，身在遠外，而刊役促急，高祖諱辰，在於再明，未奔將事，何敢偃蹇赴飲觥觥之筵乎？兄如參飲，傳致斯意于後山兄，如何？

### 與楊德岡柱赫【寶城郡筏橋邑筏橋里】

綠楊之隣，未歲而便成涯角，儘覺浮生爲無根蒂也。久旅之餘，歸心如矢，且鐵馬嘶程，未能拚別徑發。歸而思之，實多負負。清江之濱，波光映寒，棊几晶案，常多爽氣，雖以老炎之酷，畏不能肆虐，化翁之惠德岡翁也厚矣。既望昨夜，倘誦蘇仙之賦而泛艇，門外客來，而從者果誰歟？簫歌相答，有以樂夫無盡藏之清景否？望不可及，願聞則擊。錫憲，山村闐寂，或巡疇看苗，或尋澗濯汗，是課矣。類託二文，非膚淺之所敢，而靠命近吝，胡草以呈。覽後即付昨紙，是仰耳。

### 與安建五極淳【和順郡梨陽面梅花亭】

俱旅數朔，晝而檢字，夜或談經，時而索暇，連袂步虹橋，會龍寺浴洛川，訪故人家。至今思之，奇緣之又奇也。雖日久月積，溯懷難置。況吾兄風彩言議，能使人動悅？到處慰瀉，客味之太不草草，皆兄賜也。多感多感。老炎肆虐，涼生漸迫，韡牀湛翁，賢哥京耗，種

種入聆否？詹言勤止。弟，爲塞人請，尋墨是事。然意思索然，無有漸進，只覺苦惱。令伯公事親之節，出於天賦之厚，家學之美，非末俗好名矯揉者所可彷彿也。當求賢太史之椽筆，揭之羨門，揄揚美德，而只爲早歲結交，可以知德託非其人。筆力脆弱，少所發揮，覽而斥棄，更求良手，切仰切仰耳。

### 與梁弦承【和順郡梨陽面青今里】

草坊之會，頒帙議畢，卽當分張，好雨留緣，三朝殺盡主人鷄，可謂爲客失不廉。惟尊兄爲秋丁在邇，冒淋漓浥行露夙駕云。啓籩豆之事，有司存焉，孰可摻裾而留之乎？雨中送客，悵黯則想一般倍蓰矣。弟，明晨當哭姊氏常事于朗城，而六舍長亭，車失便道，不敢輕發，輾轉經宵，翌始登程，追哭于靈座，再明返棲，一味憤劣耳。鄙先六世以下三文集五冊，曾頒于京鄉各圖書館矣。自青瓦臺，及國會議事堂，各大學總長處，謝狀連到，盛稱吾祖登朝事業。吾祖學問德業，從此可以不朽於百世，感可浹髓。所教仙鄉，多鴻匠巨擘，必欲致拙手乃已，無亦出於愛而不知惡之厚耶？僅僅副呈，未知其合用與否也。

### 與鄭東樵喆煥

頃造把晤，快慰濶悰。古云壽在德不在年，向者拙構奉和，尊兄壽什，寔以德足以範世，而言不違意。苟不鄙夷，有弁文之託，茲撥餘意草呈，尙堪一讀否？大抵吾人操觚，弄墨送盡好光陰，非直竿瑟不相能之致也。無亦自修之未盡耶？蘇氏云，‘公侯之貴，千金之子，求一言之幾乎道，終身有不能焉’，吾輩師聖希賢，矻矻終歲，幸有一言半辭之幾乎道，則或者反有勝於公侯之貴千金之子乎！以是自慰，亦欲舉而慰兄耳。歲薄寒慙，賴有遠近士友書問之勤，消遣澗寂，可感可赧耳。恭祝獻發百嘏。謹狀上。

### 答崔基烈【潭陽郡大田面中玉里】

雙鯉浮來，竟藏尺素，剖而讀之，相憶慙慙，形於紙墨，情何摯焉？矧茲優助歲饌，非散劣者所敢當，而故人之賜，其何可辭？感與愧并。蘭谷兄之服勤師事，其學術又能牖啓後生，可爲欽嘆。門下有如兄諸彥，篤信慥索峯翁之傳，久而無差，此可信也。栢悅可已。錫，學不益造，而又將添齒，百感蝟集。只以遠近士友書問不絕，免太寂寂耳。惟冀餞迓增祺。謹狀上。

### 答楊德岡柱赫【寶城郡筏橋邑善根橋】

秋間兩度書，娓娓千百言，情何摯也？眷何厚也？因循稽謝，有乖故舊報施之禮數。方訟不敏之除，荐拜寵贖，副以厚貲助蜡，以執事年德之長於我，而有此倒施，施者雖出於不較之洪量，受者豈安於心乎？愧增如山，罔容云喻。僕，每見讀書士子有脂韋不立，未能荃蕙而化茅，心切鄙之，欲唾其面。及見執事，出沒燕薊風雪，而慷慨之氣，發於吟哦，憂時憫俗之衷，令人可動。竊欲附歲寒之盟，惠好於涼霽之辰，而一自分張，源源靡階，奈何奈何？無金玉其音使，俛俛免顛倒之虞，惟是至願也。不備謹謝上。

### 答孫正汶【麗水市中莊洞一三〇七의十，三拱酒造場】

姪兒便探聞安節，則數三，而歡觀德儀，則已經十朔，而歲云改矣。瞻仰政勤。恭承先施惠章，祈以新祺，多感多感。姪兒以年頭，得男善苗，吾家泰回，從此有漸。舍伯外內分，福綏多吉，豈不喜幸？栢悅之情，兄與我在所不能已者也。郵人不勤，得書此晚，卽謝，景祈清嘏。謹狀。

### 與邊在德【南原郡松洞面嶺洞里】

因士友便，聞承風儀，而覲降無階，恒切耿結。近荷執事，不以僕聲聞過情，而其中無實，託以尊先阡道之文，益感恢弘之度能於容物也。尊先懿節，既蒙聖主之褒，綽楔有煌，旌表宅里，固不待膚淺之筆，而可有辭於百世也。託名為榮，茲謹相役，伏惟亮在。

### 與邊鍾柝【長興郡蓉山面鸛池里】

執事不謂，僕迂愚空疎，不足有無於世謁，以尊先狀德之文，且惠以尊先集十帙，顧余何修獲此於執事哉？無亦執事之過失之厚者歟！既感且悚。尊先處事之敏，取友之端，可知其學粹行篤，而沒後歲久，未能詳其一一，是為不能無憾焉者也。然據其大者，小節可推，奈余筆弱少撥揮力何？執事，不以文下而棄之，容物之弘，可為感人。

### 與金元錫【靈巖郡西湖面青龍里蘆洞】

頓首拜言。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而人事因循，歲月不留，一未哭筵，而祥期此迫。顧此懶成性，冗為務置，問聞之禮於度外，何可望僉哀之厚恕也？伏惟栗烈哀體支安？遠滌憧憧。竊惟毀戚傷生，昔人有戒，惟願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自夏秋間，心擬晉慰，回路兼訪鳩林諸故舊，勢不從心，稽緩至此。奈何奈何？茲以書替慰，仰冀鑑察。不備。

### 與邊文鎬【在德子。南原郡松洞面嶺洞里】

頓首拜言。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何已？歲月荏苒，遽爾序改，歲其暮矣。伏惟哀體節宣，以禮支將，得無樂樂過度耶？遠外溯念，不任搖搖，懸旌之私。錫憲，未遂哭筵，而見此歲暮，禮數之曠缺，

自顧忸泥。尊先祖蓼隱公碣文，非余謾末所可尙當，而先府君既不揮棄，多感恢諒，而哀執又惠以尊門世德錄，兩世厚誼，幽明交切。明春擬一晉慰，而來頭事，又何可必也？姑以書替慰，惟祝強加疏食，俯從禮制。不備謹疏上。

### 與金昌憲在權【光州市良洞一區十五班二五九。本籍，靈巖蘆洞갈잇골】

西湖勝景，南州靈境，湖光山滌，使居人冰玉。尊門十世奠居，箕裘儒業，可知地靈而人從以賢也。何等健羨？頃日與尊門長，少得遂一夜話，償夙昔之願，幸莫甚焉。尊先祖妣，行治讀去，令人興感。阡表，依教書呈，但筆力弱少發揮何？覽後如有更商處，書示切仰。津送禮幣，謝之無名，受之不安。

### 與朴東龍【長城郡珍原面山亭里】

家兒還，凭審，獻發景祺允副。顯祈之忱。弟，再昨歲，印出六代祖酒隱公以下，三世文集五冊，頒帙于湖洛諸友家，而近地，則尚有未頒，故十四日行靈巖，頒帙于場巖鳩林世交諸家，費得四五日力而還，寒程遠役，餘儻尚存矣。尊先考行狀，實非膚末所堪敘述，而言念與我先考同師松翁，兄又不鄙夷余而辱與之交，兩世厚誼，固不可恕。茲依兄所錄，略加刪潤而敘去，尊覽而更加點討，以示如何？

### 答鄭東樵

歲啓陽明，可見天地之真性無往不復，君子道長，未必不自此始也。疇期惠好之厚眷，策駕邁征矣。除拜尊兄元朝寵書，疊疊數千言，莫非欲引我於切偲之末，仰感眷注之至。若其辭意，或多過情之譽者，兄豈不知汗阿之可恥而有是哉？愛我無斁，自不覺浸浸然

失之厚也。雖不敢當，而厚意則敢不拜掬？惠示華什，不徒韻格之艷濃清邵，其於清晨占易願豐一念，斯可知也。先憂後樂，老而彌壯，如兄者果幾人乎？欽賀之至。溲勃構草有日，而先集頌帙，及賀壽慶祥，無日無事，鰲山錦城 朗州，卽往來處也。今始胡草而呈，詩云乎哉？推商是仰耳。

### 與崔日錫【靈巖郡西面鳩林】

朗州多吾家世契，孰非愛我眷我之厚？不能源源相敘於三舍之地者，豈非爲縻於掣肘矛盾相尋因環耶？惟兄則邂逅萍鄉，歲每六七，其爲密，勿可不亞於綠楊之隣。況又向入仙庄，不憚賢勞，左右導引，俾得免於冒沒禮儀，贈以乘黃出餞郵亭，一固可感，施以數三，豈鄙劣之安於心者乎？車遽發矣，未暇謝辭一言。歸而思之，尤不勝歉然。以兄汪汪千頃之春波，倘加恢怨否？良田廣宅，環竹園果，兒孫讀字，聞琅琅聲。客至有酒，客去看書，兄豈不是今世之仲氏乎？栢悅之地，恒庸頌言。瓊律，非淺劣敢可入議，而相悉之地，不宜泯默，故妄意書呈，非曰能之，因以求教者也。伏惟尊照。

### 與羅東均【光山郡本良面松林里】

頓首再拜言。匪謂先府君裕齋公奄棄色養，承訃驚怛何已？日月不爲孝子留，燧火再改。伏惟哀體動止，以禮支將，得無入於傷生之戒否？遠外嚮滄，不任賤悚。錫憲，肇拜先丈於石峴委禽之席，以余爲華宗之館甥，眷愛殊深，感鑄不可言。意謂得時月軒屏之侍，浸浹於長者風韻，則驚劣之質，庶可少移，而闕茸未遂。中間三四獲拜於長城之高山，大海間承誨申申，已是十年前事，前後厚眷，何日可忘？惟祈靈宿自南耀軒康躋萬壽，使後生小子有所依仰。天不愍遺耆英宿德，胡至於斯？錫憲，禮當匍匐於承訃卽日，而數年間有事

於刊出先集，尚今未遂哭筵之忱，不任悚蹙。謹奉疏替慰，伏惟哀體支齋，強加疏食，以副遠外之望。

### 與朴燦宗【靈巖郡西面平里】

講累世姻好於積歲之後，剪燭終宵，既飽以德，又醉以酒，契合之密，實不亞於從昆季。兩家先靈，如知是夜之會，豈不胥悅曰，余有後不棄基哉？惟是戚兄伯仲氏之風誼愷悌，德愛深洽有以致之也。撫古視今，感切幽明，況復乘黃之贈，驛頭之餞？猥受尊者之施，欲辭無路，只有不安之積中而已。伯仲氏皓首湛樂，壘篋相和，椿津家法，復覩於今日，栢悅之地，詹誦無斃。暮春之約，信如金石，勿孤延佇之懷，伏望耳。惟祝伯仲庸時湛翁。不備謹狀上。

### 與李慶範【全北扶安郡白山面梧谷里】

頓首言。先府君寤齋公奄棄色養，承訃驚愕何已？居諸迅駟，歲云再換，仰惟哀體何可堪勝？不任遠溯之至。錫憲，與先府君，交契雖晚，每於奉場，酷被眷愛，擬托歲寒之契，共白首而徜徉，孰謂其端嶷之氣骨未濟頤期，浩然大歸耶？念昔鰲鄉累宵文酒團樂，已是千古事，曷不懷舊而悒悒？擬卽晉哭象筵，說道疇昔矣，自數三年來，身縻於先集刊事，未由遂誠。其於憂戀，馳悼靡懈。謹奉疏替慰，仰惟鑑察。

### 褒忠祠儒會所僉座下【光山郡大村面】

伏惟辰下尊體保重？頌祝之至。錫憲，固昧不嫻於尊俎之儀，昔年猥奉祝，今承獻官望帖，只感僉尊垂眷，無似欲引而置之於髦士之末也。敢不翼如將事乎？伏惟尊照。

### 答洪承洙【慶北安東郡豐川面申城浦】

華函郵到，承聞齋舍火燬，驚愕千萬。數百年遺來傑構，一朝灰燼，吾門不幸，孰大於此？見書即時諸宗齊會，差定有司而送，上慰先靈，且以慰族大父之驚慮，因入京師，與在京諸宗，商議善後之策爲料，仰惟諒在。

【正月十七日二時，安東申城浦祭室全燒，十九日發書，二十二日書到。】

### 答宋孝燮【高興郡東江面馬輪里】

粗劣迂疏，不足齒於髦父之末，而叨忝齋洞駿奔之列，得爲小相，榮莫儔焉。到今燧匝，尙記餘幸，黯魂時馳。遙想當日，禮容秩秩，俎豆莘莘，羹牆之忱，自不能已於西翁以下諸賢矣。蒙惠書，示以院韻押字，要使巴俚，進於清商之列，仰感愛我無斃。不敢辭謝，謹步以呈，庸寓景仰之私，詩云乎哉？生澁可愧。怡愉多嘏，湛翁增休，佔畢溫繹？燕賀曷既？弟，自歲初，有事於先集頒帙，及賀壽慰祥，鞭走東西，鳴陽鰲山錦城朗州數郡，卽足跡攸到也。滾汨因循，苦哉庸碌也！望後有光州褒忠祠獻酌之速禮，不可不赴，故孤負來汝之教，尤其是悚悶。伏惟亮恕。謹謝狀。

占岩大春居，華宗基璿氏，近得安旺耶？忙未修候，逢場轉致此意，如何如何？

### 與權昌鉉

尹后之陟，生於舊國日月者，普痛曷既？甚矣！道阻且躋也，令從氏云亡，在往夏而晚，因惠覆以知之。伏惟友愛之篤，氣力何以將攝？種種嚮溯靡懈。弟，山居寡儔，叵耐涔寂，則時從光府，逢八九知舊，款討度得，三四日而歸，猶足爲破閑計矣。而若於執事，則遵路摻裾，渺難指日，臨風馳神，只增於悒。茲有緊議事，仰叩錄在別紙，卽日詳覆，以解

訝鬱，伏望耳。

與金燦洙【號醒儂，生庚寅。忠南論山郡連山面林里，遯岩書院別有司】

瞻拜遯院，粗伸高山仰止之忱。且與尊執識荊，講十餘世通家之誼，獲被下眷深至，誠庸感戢。伏惟辭退日富，經體候道腴日肥，令允穩旋安侍耶？并是溯祝之摯。世生，歸鄉家無大何，亦私分之一幸也。久客之餘，歸心如矢，靚降纔遂，未半日而言旋，悵悵致魂，還切於前此未拜時也。秋享晉參，既有尊諭之鄭重，敢不副從耶？伏惟尊在。

與洪權植【서울特別市鐘路三街九五，廣生堂漢藥房】

間者竊聞，族叔與族大父承範氏，致心于郎將公墓閣建立，懶未一書仰慰誠勤。愧悶中，昨暮勉齋族叔永天氏，自京枉臨于光州旅舍，促以靖獻堂上樑文。素是手拙，不敢當者，然揆以慕仰先祖之心，難負長者申託，卒卒寫呈。如或已經上樑，以此文安置于上樑上，使不移動亦可也。其曰靖獻堂，即自靖獻于先王之義也。此爲郎將公齋室，故舉公實德，而表出之也。此爲我東諸大家已行之例，以此意，俾諗于宗中，如何？

答洪官植【서울特別市城東區下往十里堂峴洞三四五八】

向奉下書，未即修謝，悚不可言。尊體一如盡時康旺否？翹祝千萬。族姪，方校東菴玄潭兩稿于印社，其在宗丈身後之事，有免不得其責者，不敢言苦，而神惱則甚矣。上樑文，尊既書託之後，勉齋族大父，自京枉臨，託辭丁寧，故忘拙構呈于廟洞族叔權植氏，倘無後期難逮之歎耶？以是尊諒如何？

### 與柳維石謙重【一名栢重。潭陽郡昌平面維谷里】

龜巖享禮後，萍鄉相分。驛柳青青，嚶嚶者喚轉，成惜別之曲，而浮生無蒂，聚散有數。叵耐離索，而判以東西，轉眄之頃，焦羔矣食鬱矣。浙瀝風濤，忽驚孤客之耳。日月曾何，子襟青青，頻入我思，只誦甫田之詩而已。營室已落，斐几通牕，爽籟風生，皓光月來，爲助讀書之趣。進得竿頭百尺，伯康吉祥，韡牀之樂，不須詹尹可卜。賀之曷既？弟，消夏三之二于光城，間作龍城行，遊于廣寒錦水之上。所與者莊軒石泉，且有二客從焉，尹龍南承鎬·許柏軒俊康契兒也。簫鼓在座，歌舞有人，同志至五，亦足以暢紱幽情，似不負各州之勝槩。今年逸興，從此可占有秋，預庸慰瀉。記文雖欲深索妙語，奈見窄智渴，若撥死灰而覓火何？只出他粗疎而已。若夫席累世之好，同門之源，得友吾兄，靡是非寡昧之一幸也。因此至感，垂與後人之知審，有若盛教云云者，故謹茲寫呈。兄試一讀，摘其疵類而相示之，勿吝直諒之德，如何？恭俟玉音之不遐矣。

### 與洪千植【光山郡本良面山陰里】

嚮枉，猝猝奉別，縱緣享事在卽，勢不可淹留，而悵結益切。雪花盈山，瞻掃忱惕，應倍平常時，而享禮利成，仰感先靈之有隲。翌日松村先壟，亦利享後，行李利稅于返程否？仰溯區區。族姪，室憂累日焦灼，而僅免大何，幸幸。契序，倉卒構呈，倘合僉意否？尊先稿草校事，非時月間猝乍可辦也。

### 與鄭鳳休【昇州郡樂安面內雲里】

再度紆顧，可感盛眷。伊時雪濤遠塗利稅，啓居雅裕否？懸頌之極。錫，室憂彌月，今才稍可，幸也。松隱堂韻，重違勤教構呈，領略如何？歲內或可奉晤於光城耶？雖不可必，而翹企則切耳。

### 與申乙浩【順川市五林洞五林亭】

萍館一宵，快遂荊願，疊疊燈下，飽聞奉先敦宗之盛事，欽賞曷既？錫，火山景色，非不寥慄，而時逢愷悌風範，團欒一席，庶醫鄙吝之萌，實是淺劣之幸，而於高明則尤得前所未得者，受賜顯矣。感何如之？莊軒石泉洛行，利旋對討。視昨矣敬慕齋記，參考五林亭記，而僅僅構草而呈，倘無害於命名之本義耶？如有未愜，更為書示，而商確如何？臘初一顧，預為翹企。

### 與洪承春【光山郡本良面山陰里】

頃月念間，先山墓薦時，犯暮還棲，家人告以‘尊座枉駕，以我歸尚晚，故未攄穩而發，駐行旆于明天家’云。揆以情禮，即當晉拜於夜間，而終日山行之餘，憊甚不能振作，翌又早發光行，遂闕晤歡，悚且悵焉。伏惟至沍，尊體嘉綏？日夕詹誦。族孫，室憂累經危劇，今雖起居飲食，而姑未完蘇，且身多在光，其於整頓家事，悶菀難釋。尊先祖僉樞公阡銘，累有盛教，固當銘念，況攷輓我六代祖酒隱公詩，則雖百世，謹守好誼可也。惟吾兩家，豈曰尋常宗誼而已哉？謹茲草呈，領納如何？今明間又作光行，凡事惓惓，不備謹狀上。

### 與鄭海哲【潭陽郡古西面院江里】

春過仙庄，優蒙款接，一宵勝事，其感可掬。未即書謝，疎慵宜密，而向於邂逅光市，惠好厚眷，尤加於前千頃之波，奚獨歸美於叔度之胸量乎？尊先亭舍，山水既佳，又多騷人之題詠，可作南州勝地。登臨之日，盛教珍重，故拙構草呈，領略如何？

## 上族大父慕菴承俊

仲秋，南沙亭契會時，恩恩拜別，尚今伏悵耳。伏惟陽復之令，尊體候以時益康？伏頌之至。族孫，家率恒多未健，煩惱難狀耳。就悚，下教遊賞錄，慚擾中遺失本草，其於下情，悶不可言。倘賜下恕，如有信便，更爲謄抄而下示，伏望伏望耳。伏祝起居護重。不備謹狀上。

## 答許俊康【號柏軒。任實郡三溪面木洞】

兩度書，出於眷勤，而謝覆稽緩，愆然難已。雪月清宵，好景不徒再三，而興致未及子猷，難遂山陰一訪，見此歲暮，懸懸如矢。雖然追想，廣寒錦水，一觴一詠，數日傲遊，亦可曰不虛度是年，而莫非盛賜也。況又存以鵲橋團影，可永其傳？感無可喻。東人詩話，四佳徐文忠公居正所撰，而歷年四百有餘，無有重刊，故板本極鮮焉。吾家幸傳初印舊本，而年久似欠。序一及跋語，且紙墨畫頑，易致誤書，故再三對照，整誤而付送，于中華民國台北市合江街三十一巷六號，許世旭名下，以是諒之如何？但此謄抄，非吾輩眼霧手顫之所可能，而一諾不可食吞故。適值兒輩休學歸家，命以謄書，而余又出外，旬望而歸，則兒輩以畫頑未詳，故只書十餘枚而已。際又有兄書，雖欲速應，手不從心，何幸勿咎慢焉。印紙見送，兄欲學微生高之直耶？一可捧腹。

## 與許世旭【中華民國台北市合江街三十一巷六號】

陳良北學，子長南遊，繼眼其壯蹤者，千古其誰？吾邦，則羅有崔文昌，麗有李益齋·李牧隱，惟可當此名而已。況今爲教多門易眩於去就者乎？故吾雖不見賢者，而聞賢者北學，自不禁眷戀之私，而亟須錦還之日。錫憲，錦城南一散品，而辱與尊大人友二十有餘年矣。故得詳賢者，慥慥不知不措，不禁柏悅之私。家藏東人詩話，古本

抄送，平心虛慮，而求之，則可得一字師之義耳。

### 答安寧勳【光山郡河南面診療所】

每念風儀，有不可忘，而奉晤未易，勢也奈何？一書之惠，亦足亞面，慰割不淺。故山之樂，雖富貴之極，有不能忘者，幸遂志願而歸，則人比錦還。今功名，非其時，瀟灑輕裝，快賦田園，填箎佚和，得如前時，實是一樂也。爲賢賀頌。歲除在邇，餞迓增祉，是冀。

### 與文炳斗炳錫炳蘭【和順道谷面元花里】

頓首拜言。先府君崑巖公奄棄色養，承訃驚愕何已？歲將改矣，僉哀以平日恭職之誠，何以經紀於送終之節？而哀體以禮支將，以傷性之戒否？遠溯之至。錫憲，念昔眷愛之厚，匍匐於聞訃即日，情禮之當爾，事多掣肘，未果，奄見是年迫除，其於憂戀，無任遠悵。惟冀，僉哀強加疏食，俯從禮制。奉疏替慰，伏惟哀照。

### 與金永煥永燮永閏【羅州公山面白沙里】

頓首拜言。先府君，風儀愷悌，莅事周詳，學宮重奠，儒風敦興於州里。阡碣賁轟，孝思無射於祖先，可以表臬斯世。謂宜天眷神佑，克享期頤，愈有裨化，詎意一疾跨歲，遽爾不起耶？雖半世忝契，如錫憲者，愕然如有所失，況以僉哀兄，恭職之誠，周於志體？其爲哀慕，當復如何？種種馳溯靡懈。錫憲，冗劣因循，未參攀紼之訣，一哭象筵，尚此稽緩，靠負疇昔眷愛之厚，實所忸泥。日月不爲孝家留，燧火將改。仰惟哀體支安，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上答先府君平昔慈愛之深，遠副知舊溯念之勤。謹奉疏，仰惟鑑察，疏上。

## 與朴

再昨歲秋，三世文集，躬呈于青瓦臺，自秘書室長李厚洛氏，有循例感謝狀而已。未拜閣下尊儀而退，枯古劣生，嘆竿瑟之不相能者有日矣。近於長城高山書院，奉讀閣下抵奇老章書，繼又讀年頭教書，始知閣下有詢蕘之勤饋起之勞，而上意不能下達，使人或有不能釋然于中也。某草萊爲生，無有官守言責之職，而敢以尺書上聞者，實出於延頸望治之腔血也。閣下倘恕其妄而垂納焉。古語云，立春歲之始也。是日天晴日暖，風定波平，預占三百六旬之太平，實國家之福，生民之幸也。敢將此日獻于閣下，惟閣下體是日之明而無遠不燭，用是日之和而無物不蘇，與生民同其福祉於久遠焉。無任祈懇之至。

## 與金時雨【慶北安東郡臨河面川前里】

往昔蒼龍小春，荷華宗衡謹氏之參我先祖大提學公墓享，禮訖引我，入貴庄禮其大人，又訪尊居正喜，識荊之有梯矣。巧值駕言，雖未遂覲降之願，因與周覽內外庭室，不徒構造之宏壯，排布之井井有度，可知其聿胥之賢，而十世傳守之謹嚴，令人興誦。伊時聞屢經政查，方擬採入文化古材矣，近果入選云。是不徒華宗，一門之幸，可以宣著嶺表之美觀，不徒宣著嶺表之美觀，其保東邦古典亦一盛事。柏悅之地，敢不燕賀？抑又聞之，中州文物，如彼粲然，而一經紅衛，電燼颺騰，無有餘類。文宣王祀孫 孔德成氏之子，以編入大學事，愆患物議，畢竟自願而入軍隊云。遠外事，雖不可詳，而若果爾，則豈不是彈指一笑事？而尚古之義與我韓，不啻天壤哉！吾先四世，生藏於安東，水有洪井，亭有蒼巖，遺風餘韻，載在輿誌，誦在人口，而尚晚查採，靡是非雲仍居遠不能世守如華宗之致也。吁嘆曷既？第念尊門不忘先世同井之誼，歲必參鄙先墓祀爲例，其風誼之

敦厚，孰有如尊門者乎？故吾聞尊門之盛事，便若一家之盛事，喜不自勝。一書替賀，未面之地，太爲翾縷，還涉煩越。

### 答鄭東樵詰煥

磁能引針，琥能引芥，以氣相應也。而不無細大之殊，兄爲磁琥引我針芥，灌潤枯澁，誘發衷曲。又此肇自歲，新一幅瓊琚，五首珠玉，百朋奚埒？惟貢經況亨吉耳，賢哥曠省，戀發吟咏，聞亦可悶。然嘗聞君也，有班定遠之雄圖，封侯萬里，安知不在斯人耶？反欲以所悶者，預爲兄賀。卽擬謝覆賁偃蹇逋慢之罪，而方有二宗丈墓碣之促，故稽緩至此，恭祈恕燭。旬光之會，姑不可必，故謹此修謝。

### 答洪承秋【和順郡春陽面牛峯里】

際茲新元，郵奉惠函，乃經歲音也。先仲氏常事奄經，竊想友好之篤，其爲悲懷，當復如何？溯迕區區。錫喜，鐸兒自京藥大，畢課而還，其於倚閭之懷，慰釋良多。先仲氏碣銘，揆以宗誼，有不可辭，參考狀文而草呈，伏惟照亮。

### 與邊時淵

歲新卽福信，愈爲賢賀，筆院賢勞，平昔仰頌，尊好之誠，益不禁祈託之忱。近聞玉山書院三太師廟，川前金氏宗宅等，五品皆選文化材，而惟湖南寂寥無聞，無亦人謀未臧之致耶？念昔河翁從祀聖廟時，吾先子石崖先生，以有書無答問責于太學諸生，以至終焉允臧。以是推之，湖南士氣萎靡，在古或有，而卽有振發之也。玉山筆巖，余曾瞻拜，以其構造排置，則筆優於玉，其取舍後先，果在何耶？且以蘆沙先生正道淳學，其見於政事，則丙寅兩疏，可有辭於天下萬世。門弟子得其道，而見於節義，則石田李最善，省齋奇參衍，

鳳谷金翼中，是菴李直鉉諸公，及其孫松翁也，而追揚之典，或及或不及，若高山書院，則曾無政府一念之典，可爲於邑。今先玉山院於筆巖，先省齋碑於高山，縫掖之粗，知義理者，孰不曰事失先後？而曾無一人問責于議堂，如吾先子者，湖南士氣，其止於斯而已耶？念賢孰有任筆院，不可含嘿者也。言于執政，使致念于二院，千萬。

### 答高在一【大統領祕書室】

光範門前，三書無答，唐相功業，無聞可知。不能躬吐握之勤致天下之士之致也。曩於立春，有感呈衷于閣下，閣下身居全國之元首，萬事叢肚，不啻唐百撰之比。況值方事多于歲初，諸道巡視，未暇親書，而必使祕書執事，亟覆修謝，孰不欽服？閣下之勤，過唐相遠乎哉！雖赤箭青芝，牛溲馬渤之智，咸思效，其能苟審乎，隨症投劑，邦不殄瘁，民將其蘇矣。是庸欣抃。鄙先三世文集五冊，再昨年秋，已呈于青瓦臺，其時祕書室長李厚洛氏，書有閣下奉覽敬誦之語，故知爲尊覽，仰感之至。再拜候上。

### 答高在一

曾無識荊，猥承寵贖，上承下宣謹勤深感。鄙先三世集，有詳示之教，故敢此仰煩。伏惟尊照，酒隱世稿一帙一冊，六世祖酒隱諱源所著。公力學績文，以啓家學，嘗一赴舉不中，不復應舉。領相文忠公晚圃沈煥之撰狀，吏判文簡公華棲金學淳撰墓誌，副提學蓮史洪赫周撰墓碣。石崖集一帙三冊，五世祖石崖諱鳳周所著。先生師金溪湖金元行·宋櫟泉明欽兩先生，英祖己卯生員，正祖辛丑登才行，薦除徽陵參奉，不就，癸卯增廣文科，甲辰以宗簿寺主簿，奉教釐刊濬源譜，上宣醞賜裘，以病遞歸，承駟召十餘次，而未赴。每上疏辭職，陳時弊民瘼，上咸批嘉賞稱以爲政之要法，拔擢累拜，至承

旨。及歿，命全羅監司徐鼎修，庇喪護葬。其門下多出賢士，洪左相爽周，鄭判書大容，李判書義升，尤其著者也。南崖集一帙一冊，高祖考南崖諱翼鎮所著，先生初諱仁基，師金三山履安，正祖甲辰陪石崖先生瘞還鄉，庚戌應御前賓興試，御考親批選三上，內賜書冊硯墨，而褒賞之。己未登才行，薦除英陵參奉，上疏陳農政十二條，正祖嘉納優批，將施用其策矣，明年正祖賓天，未果。丙申義檄，先考石川公從奇松沙字萬舉義時所著。右臚備在青瓦臺圖書館漢學部，尋暇賜覽如何？

## 與朴

向在立春，見天晴日暖，風定波平，預占是年之有慶，而爲百世之禎祥矣。區區丹衷，信念無二，謹呈祈願之辭，而伏蒙使秘書官高在一賜答，仰感之至。厥後數三朔，天祚國家，人戴長德，閣下果再膺公選，而身負大任期殫詢蕘饋起之勤，吾國家億萬年無疆之休，將自此益鞏固矣。慶孰於此？爲國賀爲民賀爲閣下賀，猶屬第三也。耳順之年，而及見是日，抑又此微軀之一幸也。耿耿之極，敢陳賀章，願閣下，無忘滿招損謙受益之訓，執兩端而取中，於人一心憂國，以致人安物阜，然後可答天人畀與之重也。所欲陳者多，而不可翮縷於賀狀，故率略止此。伏惟閣下明鑑而裁宜焉。

## 答金月潭載石【全州市南老松洞，南中學校正門前】

德不及古，信息不甚大。頃晉清庄，適值駕言，未分一宵鼎話滌邊塵愁。浮生一會，果有數存焉，怒茹尙今黯然矣。恭拜寵牘，滿紙珍語，披瀝先誼之鄭重，非尋常尺牘之比。二公靈英在上，其庶曰‘予有後，不替通家’，感鐫次骨。家姪判全州法院，有年矣。舍伯懷戀季子之愛，自長城澹對軒講會，翌發完行，陪軒以從，一宿而班荆，

呂許二兄之自江景來，聯訪清庄，與李勉窩·姜菊史·奇戚姪玉潭寬，三日而旋棲耳。窮山涔寂，苦無講討之地，何以則得遂源源薰沐波及之惠耶？惟祈道況珍齋，愛我無斁。【東樵兄近節，亦爲泰安，諒下焉。】

### 答武陽書院儒會書【光山郡飛鴉面月溪里】

錫喜，鹿鹵未爛尊俎之節，伏蒙僉尊愛不知惡，責以齋任。揆以散劣，固不敢當，而羹墻之地，辭亦不恭，謹依來帖，今月晦日趁參爲計。伏惟尊照。

### 與金容駿【光山郡飛鴉面，風詠亭】

客春蒙不遐之惠，作先亭清遊，償風詠夙願。非兄眷注，安能得此？漆溪公風韻永長，有肖孫而不棄基，景仰之餘，欽艷併至。板韻，非不欲追次，庸仲羹墻之私，而歷代儒賢文章軸末，不敢逞露，無鹽之醜者久矣。兄累有命，若終不副，則恐歸偃蹇之列，敢此草呈，以供一粲，統希照亮。

### 上金惺堂熙駿【光州市忠孝洞】

緇衣之宜兮 敝予又改爲兮 適子之館兮 還予授子之粲兮  
丈丈之下，緇衣誠薄，不得源源造門屏候起居，宜受不悌之責，而丈丈還施以德愛，授以尊先丈蘭翁刊集。又以今秋申命來汝，會于醉歌亭上。奠醑授粲于少輩，若詩人之於賢者，施雖出於夥德，受何安於冒廉乎？又況絜駒之曲，入於鄭李二友及世生之耳，陪話達宵，胸中鄙吝，不覺洒然，款落魄生清分，非感伊悚耳。仍念煌煌宸章之表里，亭亭太史之銘碑，仗劔悲歌，如聞忠臣之憂國，栽蘭滿室，若見處士之潔己。瑞石壯觀，萃于忠孝一里，而乃者躡雲仍之後塵，

遂竟日繼晷之會於名勝之地，宜有寫情志感，而未即呈案，迫構付郵，伏惟尊在。忠壯公請謚啓狀，頭則奇公錫周，而文則吾先子石崖先生所撰也。吾先子之不署啣，以身在朝班堂上故也。或有遺事重刊之役，則書以某撰，無有爽實，如何如何？【先子諱鳳周，字子敏，號石崖，又稱南坡。生員文科，承旨，正祖丙辰卒。】

### 上金東谷文丈駿植【長城黃龍面水山里】

昨夏造拜，摳衣一日，胸中十圍荊棘，脫然刊落。先生長者德愛之下，陶冶做人之化，有如是受賜至矣。勞碌爲生，縱未能源源薰襲溫和，庸祛十寒之侵剝。紙墨替探震艮，兼以質疑見正事，先生長者之道，有不容已。緇衣誠薄，跨歲未有焉，宜見厚誅，而文丈反類垂寵書，託以舊要先事，眷下之厚，益服胸波之汪洋千頃。累雪連沍，道候亨吉？伏祝之至。下託朴雪峯碑文，竊稽狀德，辭意有未了了，難遽下筆，始知文丈方在調候中，宜其辭謝，而守鄭重之義也。然在錫憲，則攸命有不敢不從，故考正祖時所編節義錄，得其與金忠壯公同倡及錄勳，贈秩事實，與狀德相符然後，相互考據構草以送。然人微筆弱，其何能發揮見危授命之大節乎？後人之不知有文昌，預切愧慙耳。獻發在邇，伏祝起居衛道珍蓄。謹狀上。

### 答許世旭【中國台北市龍江街二二九巷十二號】

有書之地，書而復之，揆以往來之禮則然矣。然身縻公務，而恒多瑣尾，則其何能暇及於區區曲折乎？賢者，今莅教于中國首善之地，乘塵垂拂，應難討暇，猶不忘錫也。數字之寄垂書，問歲於萬里風濤之外，勤厚可感。況曾荷春間尊大人致賢者寄來之意，錫我以真玄毛穎者乎？詩曰‘匪汝之爲美，美人之貽’，物雖細，猶珍其情貺。矧於朝夕所友品，又良善者，出於故友之賜？其爲珍貴也，不翅百

朋。月前訪木洞仙庄，與尊大人，作一日清遊，賢者所譯春香傳，亦一讀過，賢者之重國典故用工之苦，使人可敬。今春賢應錦還矣，如有相聞，當服款段下澤而從賀矣。

### 與文鴻柱【서울, 文敎部】

伏惟閣下，居周官大司徒之職，教萬民而賓興，卽閣下之責也。國家之責于閣下者，是也，萬民之望于閣下者，是也。上勿負國家之望待，下勿孤萬民之仰望，伏祝之至。伏聞，國家搜文化古典，究永久保存之策，此誠率由舊章之心法也。凡在國民，孰不贊襄其戾念乎？其搜訪之責，在於文敎部，然藏書之家，若不自鳴而告，則文敎部，亦安能一一探詳於百家汗充之積乎？家有數百年古本，茲以仰告，伏惟閣下諒察焉。三綱行實圖頭註諺解，世宗壬子初刊本也。東人詩話，成宗乙未初刊本也。歷代總目，仁祖辛酉刊本也。松都志，仁祖戊子初刊本也。震英粹語·飲食譜·東賦·東表·東策·東疏等數十卷，吾先祖蒼崖先生諱時挺，宣祖年間手鈔者也。凡此古書，無恙於宣仁兩朝壬丁甲丙四亂，又能保全於六二五兵燹，莫非先靈默佑之致也。伏惟閣下，亟爲審查，而立閣珍藏于吾家，俾免漸滅之患於千萬年，使吾民族古典，永久保存，千萬仰望耳。【戊申陽三月十八日】

### 答任泰洪【龜軒。寶城郡烏城面龜山里】

拚別於柳青雨細之日，征鞭東西，珍原春光，恰是渭城景色。杯酒相送，固難爲懷，而花滿驛路，香淋濕衣，亦未是非一勝事也。尙可慰豁否？亭成先祖之遺墟，誕敷詩醴，堂構之勤，念修之賢，欽尙曷既？盛速，可感不遐之眷，非不欲渴蹙登程，而好事多魔，方以高山書院誌刊役，齋志未遂，蕪句謹替賀呈。伏祈僉尊候珍齋。謹狀。

與洪升憲【前財務部長官，今外換銀行長，雲植子，生父霖植。京新堂洞】

去辛丑年間，修大譜時，與尊大人叔主霖植，同任編校之役，一次拜謁於京館譜廳矣。不幾日，尊大人以患候謝退，故不佞以空疎鹵蔑，獨當數墨。恨未承壽命於尊大人叔主高明之下者，久矣。至於賢從，則非無奉晤之願，而譜事鞅掌，未暇抽身，齋志莫遂，遽爾還鄉。北望馳情，只切憧憧于夢寐者，于茲八年矣。轉聞賢從頃遭大艱，曾欲以一書仰慰，而傳轉也，故未詳其祥期在於那間，又未詳賢住，迄今稽緩。孰曰花樹之誼而若此涔寂度了耶？揆以情禮，恒切愧慙。未知常祥在於何年？抑或終祥已經而尊體吉祺耶？區區念到未已。茲因族弟于憲便，替呈紙上數語，庸謝逋慢。伏惟尊體倘或俯鑑而解此耿耿否耶？多少說話，錄在別紙，謹狀上。

別紙

吾宗敦睦，名於邦內，在昔晟世，吾氏全盛之時，在廷諸公，雖酸醜或殊，各保性命，無或蹉跌人，到于今輿誦不已。比之他族氏，有兄弟叔姪或不相能者，則果非虛語也。不啻止此，凡有南麾方伯守令者，必訪宗族萃居之里，設筵置酒，款敘花樹之誼。其遺蹟之尙今可據者，則牧使玄塘公柱一，宰靈光時，贈領議政貞翼公晚退堂萬朝，大提學文憲公耳溪良浩，贈領議政昌漢，吏曹參判安窩樂仁，左議政文簡公淵泉爽周，按節完營時，禮判靖簡公重孝，牧使抱膝菴公允輔之宰綾州時，禮判靖翼公秀輔，禮判靖憲公義浩，在靈光時，或有宗會帖，或有敘倫軸。吾六代祖妣淑夫人吳氏之歿也，或輓或枉或狀而弔慰，其錄尙今在吾家。尊先祖知敦寧長洲公龍漢仲叔季，安窩公四昆季，領議政恒齋孝安公樂性昆季，其外數十公也。吾五代祖承旨石崖公鳳周，居泮而在京邸也，正言公致榮·進士公俊謨·淵泉公昆季，皆從我先祖而受業。以此推之，人之稱道，豈其徒然哉？頃年族弟于憲，電燈架設推進時，賢從不辭苦勞，多方協助，

非徒吾宗之口頌不已，人稱洪氏之敦睦，尚今不沫云，余亦與有榮焉矣。錫憲，材本鹵蔑，而謹守先親石川公家訓，得免敵治鷹犬，於三十六年，及見光復，幸莫甚焉。而所學既不能與世圓融，則不肯進列於社會，其勢固然也。自謂既不能進列於社會，則寧可謂一家之事，無或虛送此生猶勝於已乎。去壬辰年間，編輯豐山洪氏文獻錄，而創刊之辛丑譜時，以尊大人謝退，故獨擔編輯校正而竣工。方營以國文翻譯洪崖先生文集，而是役也，要多歲月大力量，未知何間能有畢役耶？以賢從高明之見，指示方針，俾收有終之美，後生小子，賴而能知先世之美德，而勵其矜持，則何幸如之？

### 與柳在萬【光山郡本良面德林里】

頃枉，感罔攸謝。由藍石利涉，而哀體支將否？寔區區之祈也。錫憲，生平固寡，而邂逅先大人於大明洞，深被款洽，以向後源源承誨，中心藏之。此焉未遂，遽成千古，驚怛可已？哀些二章，寫情而去，使喪側執事者，讀過象筮，是企耳。惟冀哀體支齋。謹疏。

### 與李可石浩信【靈光岫良堂壯里】

頓首再拜言。不意凶變，先夫人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哀兄以平日孝思之至，猝當巨創，思慕號絕，何可堪居？光陰不留，奄經期常，哀痛奈何，罔極奈何？竊念哀兄亦近耄之年，毋敢輕易於攝養，禮亦有文，伏乞強加疏食，俯從禮制，勿犯毀傷之戒，如何如何？錫憲，自昨冬，身絆於高山書院誌編校，春暮而訖工，夏間哭長姪喪，門哀之歎，攪亂于中矣。禮當奔慰聖廬，而尚今未遂，其於憂戀，無任遠誠。細書修唁，妨眵未能，謹奉荒草替慰。伏惟哀諒，不備謹疏。

### 與丁炳直【靈光畝良影堂里】

頃年夏，爲哭李敬堂故友象筵，路出仙鄉，瞻望襄度公祠宇，數弓地未強而日曛，不得審謁，宿於可石書莊而歸。是行也，雖非探勝，揆以古人於山於人之願，則常自不無愆如于中矣。茲承來簡，執事親首院事，丹牘既新，卽謀刊誌，求訟詞於衡泌之散人，先誦慕賢至忱，繼以感未面先施之弘量。錫也學蔑，尤不閑於詩，而難孤盛教，拙構并舍伯所詠而呈。或可伸前者未遂賤悰之萬一耶？仰祈刊役亟就。謹狀。

### 答張泳信【順川市長泉洞二三斗一一】

再度枉顧，喜出於圖存萱闈之至行，而辭拙不能揄揚之極，常以未副孝子顯親之望，爲愧。曩於菊秋，承惠翰，知碑役已成，而周速遠近士友歛落，曷不欽誦而樂赴哉？以風詠契講信于長城澹對軒，故未遂賤悰，勢也奈何？際方敦倫之日，做得好事爲人子者，孰不內顧而念企及哉？不徒顯親，抑可樹風，仰賀仰賀。願以此心將去，勿負歲寒之期，如何如何？相愛之至，故敢此奉謁，而追謝逋慢，仰冀諒在。

### 答徐羅伐詩壇僉座【慶北慶州市城東洞一〇九斗三】

錫也褊褊，而素胞鮒橘之恨，不數於韻社者久矣。未知拙陋三字，何以入聆於高壇，俯垂簡通於千里之地耶？其誘掖於共與適道之地，眷注可掬。易東先生建祠妥享，斯文盛事也。非貴省章甫之素重儒術，詎能有此於營營銅臭之日乎？仰訟仰頌。錫，徒抱義經，未啓關鍵，生平寤寐於聚中之談矣。今聞先生妥靈，吾易之東與燭如昨日，而恨不得於列樽俎，而駿奔於如聞如見之地，誘啓愚衷之冥佑也。敢鳴羹墻之私，綴近體一頁而呈。其與楚大方家爭銛，非鈍鐸之所能也。倘燭鳧鶴之爲生而休咎否？

### 答李潤奎【潭陽郡鳳山面齊月里】

澹軒識荊，未暇穩討，而忽分南北，居常忡黯矣。先施惠存，副以金口印票，眷厚可掬。生，寂臥山窓，而近得畝長書院丁炳直氏書，聞院誌開刊，而求誦辭，謹構近體一首而呈。蓋出於慕前修之功業，嘉雲仍之繼述也。尊體爲襄度公後裔，想有前事詢謀，故茲敢仰煩。諒燭如何？

### 答崔蘭谷基南【潭陽郡大田面中玉里】

西河曾所經過，而山居寂寞靡聞，故不能以玄衣仰慰。晚始轉聞，同雲沙兄訪書室，擬一壺酒滌蕩千古之愁，說道古今奇事，大噓而分矣。信息不大駕言，未果一分一會，靡是非天耶？歸未即書，反荷先施之惠，勤慢之懸，豈曰一舍？擁峙帶流，膺原曠平，秔稔充羨，養真衡泌，誰爭子所是，爲大丈夫閑居者之一樂，自外而至者，詎能有銷削而萎蕤哉？於兄已是昭陵，而覩縷至此，相愛之至也，兄其默會矣。弟亦夏間哭長姪喪命矣，奈何？

### 與羅平集【光山郡大村面泥場里】

錫憲白。賢閣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伏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練期隔邇，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抑以副遠誠。錫憲，地非夔遠，而冗故多端，末由趨慰，其於憂想，無任馳溯。謹奉狀。伏惟鑑察，不宣謹狀。

### 答柳漢相【潭陽郡昌平面海谷里】

陽旣復矣。春府患候，應獲神相而筮吉妄五矣。仰頌俯禱。弟，畏寒蟄伏，多負雪月清景，甚矣拙劣也！堂上春萱，永錫難老，回鶯爲

慶，仰認君子福藹，而孝子善養，以享大年之俱慶，亦不可誣也。孤露餘生，健羨之至。遠莫入聞，縱不能速賀，追頌一篇，揆以景仰之私，所不容緩者也。謹構衷鳴，而辭拙奈何？若其屏障云云，方今遒勁之腕，不止八人而已。其何露拙而甘具眼者一晒之資耶？切勿具數，亦相愛之道也。仰祈諒在。

### 與禹鍾萬【慶北達城郡月背面上仁洞，洛東書院】

永嘉之豐山，僕之先世梓鄉也。直學公洪崖先生·密直使公·大提學公，體魄攸托，故爲省掃路嶺北，累度猥蒙，貴省士友，不鄙夷之，樂與爲交者，不止一二。若安東之李圓臺源台·源裕·東恩金時雨·全炳琮，慶州之崔汶坡浚·小坡植，聞慶之高鶴圃達林諸公也。若座下尊祖尚德之風儀，則尙未遂覲降，固陋自愧。座下以繼述之賢，收士林之清議，祀享易東先生，而配侑之以同德諸賢，風範不以動人不見，而朝暮遇者存。欽艷之至。院有題詠古也，而非渙忍如僕者可堪也。猥有徐羅伐詩壇之簡通，故拈韻而呈，奈俚近不足列於徵羽之間何？不面而書，涉於率爾，尙可恢諒而不厚誅耶？

### 與辛有善【谷城郡梧山面鳳洞里。現住，光州市良洞二區六〇，新興洋醬店】

錫憲白。賢閣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伏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浹旬沍寒，而歲將暮矣。練期在邇，不審尊體動止何似？伏願深自寬抑，以副遠誠。錫憲，夏間哭長姪喪，舍伯老年爲悲，在傍焦悶矣。冗故紛遯，末由趨慰，其於憂想，無任遠溯之忱。謹奉狀，伏惟鑑察。【戊申十二月念日】

### 答金永福【高興郡占岩面大龍里梧里】

比年歉荒，振古罕覩，而南土攸同。耿耿慮念，馳往於平昔。知舊

之間，非尋常時可比也。恭拜垂訊，凭審尊體佳迪，險世喜信，極爲慰瀉。錫憲，春間編校高山書院誌，數月而還山，夏哭長姪喪，私門之祚薄，奈何奈何？亢燠之餘，禪而連霏，遽爾歲暮，頓覺生味之蕭索，而無大何，爲些幸也。尊先大人孝友懿德，叔世之表臬，而不有善述之哲嗣，亦安能賁阡而令人矜式耶？既欽且誦。但文非其人，揚扆之未極，旋切愧愧。惠助歲饌，眷厚可感耳。會晤未易，臨楮忡悵。謹謝狀上。

### 與金月潭載石【全州市南老松洞，南中學校正門前】

春間舍伯之歸，概探安候，厥後阻闕，幾將歲矣。忡黯之切，瞻望北雲，何日可已？獻發在邇，道況綏迪？頂祝靡弛。葦服世弟，夏間哭長姪喪，渠之膝何，育三男二女，長男方在大學，逝者庶無落莫有秋，而舍伯老年，抱逆理之痛，悲怛不已，在傍實多焦悶。但季姪月前，自全州移判光州法院，晨昏無曠，而寬譬親心，是爲些幸也。頃因文公部及博物館官僚，爲文化材審查，而耑訪弊居，考閱十餘世先蹟，見有肅宗甲戌年間同泮錄【百八十餘員】，卽我五代祖石崖先生，英祖己卯庚辰間居泮時，手抄而世傳者也。尊先祖自然堂先生諱時瑞，我族祖杏亭先生諱大猷·生員公諱最，同載錄中，而末後二張，字蝕不可曉其居鄉，誠所慨恨者也。尊兄宅想有家臧是錄，或可瞻示，而使之補缺，則是亦篤吾兩家世好之一事也。勿靳惠施，如何如何？恭埃玉書。謹狀上。

### 與李仁奎【長城郡北二面釜洞】

每於逢晤款討，輒見追遠述先之誠，弼中而溢外。兄可謂無忝於文靖先生，而爲四留堂之肖孫也。安得不使人欽而敬之乎？霏雪連冷，先事靡盬之忱，應不以沍澗安暇也。邇來震艱，不瑕有損否？溯

禱之至。弟，寒山索居，見此歲暮，百感蝟集。以率無警，爲幸耳。頽敎四留堂遺稿跋文，略有所綴，而未知無背於遺稿中精華耶？竊以爲一番讀過後，可敍其丁寧也。且魚魯之訂，兄之枉託於非人，已勤再三，第擬一造高軒，庸副眷愛之誠，而兄或有事於外，則似作虛行，故書以替申，以來正望後，指期提示如何？

### 與洪承澤【羅州文平面龍光里】

京驛旅舍，把酒相別，依依若夢境，而歲聿暮矣。侍體祉吉，僉宗氏均迪否？區區願聞。葦服族孫，夏哭長姪喪，徒切門戶蕭索之歎，而歲且不熟，來頭活計，惱我方寸矣。所託齋名，思得光明二字，蓋取普光山下齊明之義也。自謂十分妥當，於尊意以爲如何？說義爲記，藏在塵案，而不得信便，故姑未付去。先大父墓文，更俟詳聞生平事實，而爲之未晚也。以是尊諒，而如有暇捧晤，則指期相示，如何如何？

### 與洪承勉【서울特別市鐘路區世宗路一三九，東亞日報社】

花樹之親，雖百世可講，況吾先祖南平公諱伊·司正公諱倣昆季，於大父十五世，於族孫十七世，則派系實非遙遠，而相距落落，尙未拜候，勢也奈何？去辛丑大同譜時，與族叔霖植氏，任編輯校正矣。未幾叔主以病謝退，族孫獨任編校，事多鞅掌，故在京幾年，未暇一一拜候於諸族丈。歸而思之，益復悵缺。未知忖諒此情狀否？謹未審尊體幹務餘吉休？溯往區區。族孫生平一書案，而既爲稟魯，且因書籍之難得，未能博洽而充智力。年近七旬，窮廬之歎，已無及矣。近讀女性東亞，有一二疑惑處，故茲以仰稟，勿靳昭示如何？四四五頁，朝鮮日報調查部長李圭泰氏所記，肅宗大王時實學者洪萬選所著‘山林經濟’中，絲麪法云云，按山林經濟，倭政時已多刊行，故世人皆知爲丁茶山若鏞所著者，已久矣。族孫，於四五年

前，讀一雜誌，見高麗大學教授洪以燮氏所記云，‘山林經濟，本洪萬遇氏所著，刊行人未及詳考，誤認爲丁氏著云。’讀畢瞠然。及復思之。以吾族祖之著，尙不能詳一家事，而有以燮氏之博雅而辨之，誠幸事也。每逢士友，說道以燮氏之言，而使之解惑矣。今見李氏所記，又不能無疑。竊稽豐山洪氏文獻錄及族譜，則萬遇號楸軒，進士文科，舍人賜暇湖堂，文科·觀察使月灘柱三子也。萬選號流岩，掌隸院正，文科·禮曹參議泛翁柱國子也。丁若鏞，牧使載元子，族祖節度使梧窓和輔女婿也。楸軒爲梧窓之再從祖，則或者茶山借書於聘家者，而誤傳耶？慶州駐在記者咸鍾赫氏所記，法酒由來，慶州校洞九代進士十二代萬石崔浚氏家云云，余於甲辰冬，參祭安東先塋，翌以作慶州探勝，訪崔汶坡浚氏與其允小坡植氏，作數日遊，詳聞其世代，則九代萬石，八代進士云。又曰，‘吾家之事，世人多有過情之譽，新聞所記，因風聞而有誤’云。小華詩評，族祖蒙軒萬宗之所著也。族孫，曾訪其宗孫昌植及其弟澈植，於燕岐驛前里，而問有原本否，則曰‘曾不知有是書，其後得於故友家而置案矣’。去年春，培北大學教授許世旭，以書請借是書，蓋其廣爲世人之愛讀可知，而爲其後孫者，有不能知，嗣守之難有如是矣。族孫，家有十二世傳古蹟，及東人詩話·三綱行實圖·松都誌原本矣。月前，全南博物館長魯錫徑氏與數三人，來訪審查，而極贊攝影而去，或可編入於文化材耶？貴社記者，如有南派之日，不惜一枉如何？徒恃同根之誼，有此煩提，伏惟恕諒。

### 答楊德岡柱赫【寶城郡筏橋邑善根橋】

風儀寬惠，固已欽服于中矣。頃也，捐助高興宋雅士之肄業，又頃鼎鑪矣。心謂德岡翁之內外交養，儘無愧於不伎不求之君子也。使斯世有幾箇南兒，如翁者在，貪吝鄙俗，庶可變爲淳厚也。業擬以一書仰頌，而懶與成習，未能焉。謂外存以情翰，眷我之厚，不翅

百朋。況又助蜡之腆，非尋常禮數之比？此則尊可謂失之於厚也。欲辭無名受豈安心？體隨德胖，碎盎錚秦？寔副遠祈。葦服生，夏哭長姪喪，而膝下則得二箇孫男，些慰家門落莫之恨矣。頃年，逢曹南里兄於光州，話及尊所著五倫歌，胥冀廣布中外，有所裨益於風化矣。近得筏橋養老堂書，知其印頒，實獲賤心，慰賀慰賀。拜晤未期，實欲講討以紙面者多，而遠書也，不可支離，故不蔽。惟祝餞迓茨祺川休。謹謝狀上。

### 答李圭錫【忠南天原郡修身面百子里。爲其親誠菴裕興，寓慕亭請韻】

不面而書古也，執事何以聞拙陋三字，垂簡於寒寂林泉，俾暎光紫耶？德古意勤，感嘆之極。況爲親求言，其事甚正者乎？錫也，雖闢茸，曷不欲卽副盛懇？春爲高山書院誌編校，四朔絆身於長城，入夏以來，家累多故，兼以歲饑，人事紛遯，巴鼻莫尋。見此年暮，珍重遠書，不可宿而度了，故卒地次韻而呈。倘休咎偃蹇否？錫，曾以私門事，訪仙鄉鄙宗，留旬于前道議員昶植宅。因拜族祖晚退堂貞翼公墓於排芳，耳溪文獻公墓於日峯山，登廣德山，飽食唐棗胡桃而歸。曾不知修身百子之里美而俗厚，未罄於山於人之願，不無惄如之恨。明春討暇，當一造敘矣。伏惟照諒。

### 與柳漢相【潭陽郡昌平面海谷里】

百里親朋，與新正霏霏而至，使部屋增潤豪。雨兼好友，天時人事，嘉惠并洽，莫非兄之攸賜也。慰釋良深。矧又佳貺，溢於情表者乎？辭之無名，只增愧忝耳。行李利稅穩侍？春府調候，與日漸泰否？溯祝靡弛。頰託文字，實非膚淺可堪。然若不副命，則似近於靳，故卒卒寫去，如不揮斥，更加櫜括爲企耳。留埃源源，不備謹狀。

## 答洪承玖【老安面金安里】

履茲新正，獲拜惠翰，慰喜之至。碑文體制，與墓碣行狀，自異，不可張皇。細瑣之說，使讀者厭繁也。爲淵翁之徒，而門路正，協贊松沙集刊役而慕賢切，不玷辱於倭政而氣節壯，則舉其大者，可知其小。如不揮棄而入用，不可加減一字也。尊諒如何？不備謹謝狀。

## 答金月潭載石【全州市南老松洞 一八〇의八】

陽明肇啓，頰簡適到，感洽天人，喜溢窮鄙。盛教天定宿緣云云，道之所同，聲氣相應，不以世遠而有斷，不以地間而有隔也。昔我十一代祖蒼崖先生諱時挺，以松江門人，早聞河翁之真詮，則雲仍之業箕裘，景仰先正，非他人比也。竊惟河翁之從祀文廟也，五代祖石崖先生，寄書太學諸儒而倡之。喚菴公義瑞之沒也，上書完營而請贈褒者，以道在河翁而世世克家故也。況尊先祖挽詩二首，稱述我先德，尤爲銘肺者乎？辛未司馬試，我族祖校理天一齋公重鉉，爲參試官，而其弟重遠·重相聯壁，族祖最一亦中榜，而并爲自然堂先生同年，則道同而相應，此亦不可誣者也。同泮錄之付辛未榜目末，而鈔出，可想先祖爲吾家門獻參考而備藏者也。尊既有教，敢不副從而敦世好耶？筆澁可愧。付囊之語，倘加斤正而示之，則可感眷愛之厚矣。切企切企。謹謝狀上。

## 答柳漢相

歲新月纔半，而一枉二書，寔溢眷厚，益信雲裡泰山不能障礙者，人情也。教意謹悉，而起頭先言有其德，次言有其報，則下故字然後，辭意明白，愚不見與來字相竝，更爲商量如何？竊詳胎記，其大意，則一是前錄，而尤致詳細。所異者，謀猷未果而撐支備不虞等說也。以淺料，則詳或近支，繁或傷亂，無亦簡而有序，略而無遺之，

爲近於鄭重耶？此爲重修而記實，可書其已成，不可書其未成也。交涉上府未果撐支之說，略之似可也。若他人敘述，則當稱春府扶植之功，然自爲記實，則所重在於望後人之愈賢於我也。更與良手討商，至望至望耳。日前月潭兄書來，請其先祖自然堂公同泮錄鈔送，故日伴泓款。神眩不備，謹謝狀。

### 與邊起燮【長城郡珍原面珍原里】

向往旋分，尙今茹悵。邇來，怡愉增休，寶覃均迪，莊軒慎節，稍稍向蘇否？溯往區區。尊先祖鶴菴公，立懂大節，可爲百世景仰，而礪文託非其人，筆弱未能發揮潛光，覽後拋棄，更求良手如何？不備謹狀。

### 茅山祠儒會所僉座下【靈巖新北面茅山里】

伏惟春殷尊體床祺？仰頌仰頌。錫憲，猥承尊祠享員之望，禮當渴蹶，赴參尊俎之列，而曾與高山書院諸儒約會澹對軒，而商議高山誌頒帙嶺南，故未副盛教。以書替呈，伏惟恕鑑。

### 與金正會【高敞郡高敞邑道山里】

今月二日，獲朗城崔友日錫書，兼付兄所作城南書室記，披以讀之，一愧一懼，猶先於感。錫憲，學不篤而志未立，因循荏苒，年近七旬，無知無聞，上天付畀之重，先人詩禮之訓，一未奉承，自顧穹壤間一蠹而已。其曰濡染庭訓，文學聲望重士林，吾道其南者，不啻過情之譽，雖狙猿之冠冕，未足喻其不似。以兄之直諒，其何發愛不知惡之說於文辭之間若是乎？是汗赧而沾背者也。其曰志於道德，則富貴不能易其所守，功名不能奪其所操，因說到浴沂而云，未知君所居之川與沂上之流，奚若而志苟同也。千載亦朝暮遇也，況地名

之不謀相符，夫豈偶然哉？兄又擬以一筇一屐，充冠者五六之數，其勸勉期待之重，出於輔仁責善之至，意者何如？顧此內剝外傷而喪其所賦，蕭索蒼白跽伏窮廬者，何以則能益堅益壯而置身於寡過之地，不負故舊之愛我耶？是則可懼可懼者也。念昔弱冠前後，樞衣趨隅於先生長德，固非一二，而學之不勇，不敢請書紳一辭，而諸丈皆已千古矣。席世好，而幸友吾兄，啓發輔益，祛我蒙蔽，導我俚俚，惟兄是恃，故記室之請，偶發於一席，唯諾之。聞者而不遐，金玉類副賤忱，其措辭之間，失之於厚，無亦君子之過也。而意摯情勤，則敢不僕僕感戢乎？固當爲座右銘，以未死前黽竭魯鈍，勿違德愛爲計。倘嗣後愈加提警於共與適道之地否？錫憲，昨夏哭長姪喪，私門祚薄，喟知奈何？恭祈道況加奮，庸幸斯文。

### 答姜周鎮【國會圖書館長】

嘗於邊君時淵敬仲，盛聞執事學高而識博，恒切覲降之願矣。幸承頰施簡通，得知輯錄，吾邦古今名人若古之列傳者然。何等大事也？好事也，亦欽尙古遵者之賢，不能已已。僕，曾閱百科大辭典，歉其收錄名人不能周到，曰各大學先生博士共與於是役，而使堂堂名人未免遺漏，正是自道管蠡之見測也。千載在後，彼等安有得辭其責乎？今執事之必欲周諮博採，抑亦有歉於大辭典之不能爲全書可知也。敢不拱愚，一一錄呈，但以諸院春享事，久客於外，今始得見簡通，則期日迫頭，故僅錄直系之上及近族而呈。或可參考貴館所藏，酒隱世稿·石崖先生文集·南崖集而潤色登載耶？期限如可延待，則宗中諸公事蹟，亦當錄呈矣。卽賜下照，如何？恭祝令候珍奮。謹狀。

### 與鄭逸齋泓采【高敞郡高敞邑月山里】

靜明之工，不及五經，高朋左屈，致失承誨款洽，追喟奈何？苦菜未秀，落果不逮，盤餐草草，緇衣授粢，未遂厥誠。妻孥咸知其過，而豚犬之兒，陶家之雍端也。詎解尊敬渠翁之賢友，而尊兄稱道過情，無奈愛及屋烏不見其惡者歟？感愧感愧。弟，曩獲國會圖書館長姜周鎮書爲編纂國朝名人錄，而請記送先祖諸公事行也。始祖以下通仕籍，諸公行錄，奉而入京，與湖洛諸宗，商確而納館。又因館長之託，不可不訪省內古族，姑未入單者說諭，俾無遺漏之弊，則似費幾日力也。來汝之命，過晦登程爲計，尊諒如何？惟祈道況珍蓄。謹狀上。

### 與金永燮【榮山浦邑新榮洞，金永燮醫院】

故友一訣，九原難作，悵然，而憶前日之肩隨，依依典型，若睹於遺允者，卽高明之季方也。居既稍間，勢不得源源奉握，而忡黯馳想，則不以歲久而有間矣。茲被遠存，副以尊先大人遺稿，其不遺父友之盛，可敬也已。先大人興學之懇，可謂無忝於尊先祖文安公之崇奉夫子，故余每稱美之。及其大歸，未得執紼臨壙而訣，則構追挽一首，而說道此意，哭告于象筵矣。不列於附錄，其見逸可想也。茲鈔呈，或可入覽，而諒先大人舊交之末耶？

### 與姜周鎮

向造館上，得遂識荊之願，感何如之？況執事方編纂國朝名人錄，要廣搜博採，而無遺漏之弊，實出於莅職以誠樂善不厭之盛意也。不勝欣誦。溽霖支離，體候起居將攝以道否？遙詹頌祝。生，歸擬卽書，濃務方劇，有事西疇而未爾，自訟逋慢而已。所託依賴書，送于坡尹豐任全義李晉鄭利徐等宗中，卽當次第納單矣。以是尊諒，勿以過期爲咎，依到領納，俾無書成後遺漏之嘆，如何如何？酒隱世

稿·石崖先生文集·南崖集五冊，案無餘帙，故博謀於已領諸家，期於今晦內，仰貢尊賢爲計。誓不食言，并賜恢諒焉。李鍾奎氏所託東菴事實，送文集時亦當付送，以此意轉示仰望。

### 與鄭逸齋泓采【高敞月山里】

浮生不能掃却兆字，受知於尊兄數十年，苦無穩討，竟日之力，浪吟蟋蟀，在戶在堂而已。荷尊兄垂憐，來汝有命，浹旬仙庄，挹拂座上清風，頓忘世間熱鬧。豈但日消遣伏炎而已？胸中塵穢，十分滌却，惠我無競。歸臥山窓，餘慰尙存。道況益佳？亭誌編校，近果竣役耶？才非斲鼻，未助良工，獨苦之心，只切欽誦。所教文字，不敢不攸命是從，故董董寫呈，而槩括惟大匠是恃，勿謂摛謙例語，正欲補漏，俾免汰哉之誚，朋友講磨之道也。區區伏企耳。

### 與楊德岡柱赫

去月念間，逢鄭東樵兄，聞執事爲哭南里令兄喪，而駕稅光州，恨未同日執紼告訣于故人之大歸也。馳神倍蓰於平日。頃賜辱札，副以尊先祖巖谷先生實記，非眷我之厚出於尋常，豈能有是？感荷沒量。竊惟先生功烈，炳烺千秋，而實記晚出，自非明於史學者，鮮能知之。何以此實記廣頒于京鄉各圖書館，俾講先賢遺蹟，可也。想以執事高見，業有所頒，而覩縷至此，相悉之地，不敢不仰告以粗見也。應亦默會矣。錫憲，去月初，往國會圖書館，納先祖諸公名單，自館長有書相告以編纂名人錄故也。未赴南里之喪，以久滯于京也。餘祈經體加愛。謹狀。

### 與安重泰

溽暑支離，侍彩佳迪否？溯仰之至。損人，率無警，爲幸耳。今春自

曹欽齋刊所，累有校閱之請，揆以先君同門之誼，一參席末，聞其緒餘，情禮不可缺者，故月初，抵高敞邑月山里刊所，旬餘還樓，良覺神疲耳。臚肉遠致記存，非賢者精詳周到之至，詎能有此？儘感眷注之厚。會晤未易，只增忡悒。謹狀。

### 與崔春江日錫【鳩林】

霖霏未開，夏之日長，山村寂寞，故舊音耗不得入耳者，數月矣。西湖江上，素多清風，竹裡棋聲，能使炎雲落于天外。世皆熱鬧，獨餉清涼，兄非其人耶？黯入魂夢，奮飛無翼，未能與同。故人之所樂，何悵如之？弟，去四月行京，蓋自國會圖書館編纂國朝名人錄，先祖諸公事實，不可不錄以拱輯料也。旬餘而返，故未得赴哭曹南里令兄之葬，失同門一友，慟矣奈何？今月初爲校曹欽齋集，住高敞月山旬餘，因慰普亭兄美慎而還，更覺神疲耳。國會圖書館長所發名人錄，依賴書兼呈，依其準例，貴門先烈諸公事實，錄送于圖書館，俾無遺漏之弊，因告于貴洞諸姓氏，如何如何？

與洪起奭【서울城北區東仙洞二街三一，電話940四0八。子錫禹，鐘路區慶雲洞一0一의一，電話二00四二00五】

初夏逢別，遽若夢境，追思茹悵。涼意漸生，靜養體候佳亨，令允業務日益邁進否？遠外誦禱之至。族拙，曩因離家日富，歸思鞭心，未罄底蘊而發。卽擬再入京師，拜候說盡褻積，姑未遂意，喟之奈何？拙著文獻錄重刊事，曾有與宗中商量，而購覽者有幾人乎否？如可順成，綾州派漏單，卽爲整入，而嶺南宗中亦當一巡，可也。詳示仰望耳。長城邊君時淵，余故人之子也。才學方有前頭展望，而積年粹精編輯文苑，余甚壯其志，從多周協。吾宗中諸文，則余實提供，而慕堂公所著文，則曾以通鑑跋文，編之京宗中文字商確處，則余

指舉以承業氏·椿植氏·範憲及令允矣。邊君入京，訪令允商論，而慕堂神道碑銘刊入，金令允擔當入錄云。方今弁髦陳跡之日，非追遠之誠迥出等夷，豈能有此？聞甚耳醒而心欽不已。芝溪玄塘芝泉城山諸公之文，亦當次第入錄，邊君來到時，尊須提命令允，而無使先美遺漏，大望耳。玄塘公，宰靈光時，宗會于道川，詩謄呈，尊覽而亦以示于令允及起薰，大望耳。餘非面莫可穩敘。不備謹狀。

## 與邊時淵

逢未盡言，言未盡意，吾人之謂也。況以寸楮欲既褻積得乎哉？夏暑日人胥怨之矣。涼意新生，可見疲癯殘疾之蘇快，孰謂天道而不好生乎？怡愉湛翁，於是益佳？不見是睹，誦切誦切。所教，拙從叔祖諸公事行，略爲錄呈，亦以此意書示于錫禹大人。起爽氏，早晚間，與賢相晤，想有言及矣。先集尚未送付于姜館長，而於心不忘則有之。或有相晤，轉示此意，如何？

## 與宋雲江宰秀【雨津】

錦原飲落，慢不能赴，孤負主翁遠速之勤，亦失與尊兄及東樵兄穩敘，追唱奈何？送盡三伏，涼其生矣。經體湛翁綏吉？詹誦翹止。弟，四月初，以國會圖書館編纂名人錄事，入抵本館，旬餘而返。不可不舉其事，相告于親友，而適以曹欽齋文集校正事，當行高敞，故僅告于近處數三友，於兄則欲以書仰告。卽聞與東樵兄相晤，想已入聞，故未果焉。倘爲諒燭，而尊先諸公事行錄送耶？此在政府編輯，可爲慎嚴者也。如姑未也，卽依樣式錄送，仰望耳。

## 與宋述菴在晟【忠南論山郡連山驛前青銅里】

湖西南相距十舍，地非夔絕，而曾不能造拜，談論古今之書，若朱呂

寒泉故事。間因先賢俎豆之禮，萍逢四五度，夫奚暇於披瀝肝膽？自今春，集成祠分張，尤不勝介介。夢中相尋，若張敏之於高惠者，累矣。豈非執事德愛之洽使人有不可忘者歟？感誦交摯。節屆流火，伏惟道候亨吉？藏書之腹，無恙於秦火之熾，講詩之榻，有聲於漢鼎之沸，未是非斯文之幸也。遙瞻頂祝。錫熹，生平愚拙，蓬葦藜藿，非曰當入珍之味。藻稅之樂，三百赤芾，非蕭育王陽之交，結綬彈冠，豈望有其日乎？抑自顧業不能精行不能成之致也。何以則寡過度年，而不負相知之愛耶？是所瞿瞿。文忠祠移安後，尙晚瞻謁，後學羹牆之忱，安在景仰？詩并契金郵呈，尙不誅遷延，容許付驥否？大老祠重修韻，亦依教構次錄呈，并賜清鑑，如何？

### 與趙貞熙【全北長水郡山西面桐花里】

曩爲校閱曹欽齋集，方赴高敞月山刊所，故不得與兄合簪於錦原飲落之筵。追思，迄今茹悵。秋雨成霖，令人愁惱，兄體裕相？仰頌仰頌。詩報，遠致惠送，可見不遺故舊要與適道之盛，良感不已。敢不拙構趁期庸副故人之厚眷也耶？但僕素抱鮭橘之恨，故或各社詩報至，皆不赴期。惟於昨冬洛東書院韻，則不禁高景，謹步而送致。然不欲與時俗所稱大方家爭甲乙也，故後期日，略陳此意於書簡矣。其喬沈與否，尙無可知也。抑又思之，彼結社賭詩者，位非詞垣之長，才乏安定之明，而假借旗鼓，若葵丘之執牛者，未滿一笑。爲斯文之地，安得不發喟長吁？竊想吾兄亦同此意也。天地之生久矣，人行于月，身及見之，亦一奇事。一篇記吟，不可無者，故步韻而呈，以助一粲。兄之佳什，投瓊報瓜，仰冀仰冀。古觀兄奄棄斯世，人事風燈，果如是耶？兄應赴臨壙之訣，而弟則尙晚一哭象筵，其於故舊之誼，謂之如何？

答李讚熙【全北南原郡山內面立石里。送信處，南原阿英面引月里崔圭淵方】

昔韓文公作董生行，使邵南之懿德有辭千秋，尊慈於朴士人捧來友也，則爲其母，詠嘆之發於詞章，應有淮水桐柏之倫矣。此可以不朽，金氏其何屑屑於印簡求文，若是之勤耶？不恤其人而只求艷詞，則吾恐犯鬻相之戒者。亦妄爲詩篇而忝朴母之行，尊慈以爲如何？若然則埋明珠一顆者也。尊慈以爲如何？樂聞尺善，略構贊辭而呈。仰惟照亮。

答金容肅【忠北中原郡東良面早洞】

未面而書，古道也，詎意闕茸如僕親見于座下乎？座下好善之至，可謂先自隗始賢於隗者。其將輕千里而爭列納交乎？共與適道之地矣。好善優於天下，非此之謂歟！欽感不已。尊體味道芻豢，非于勒之琴，金生之書可埒，將使藥城山水，崢嶸宇內顧不在茲乎？僕，稟質愚儻，不能與世低昂，幾死於僞政之島醜。今雖金甌反元，而三百赤芾，非蕭育王陽之交。結緩彈冠，夢寐之所不到。惟守先人之遺宅於錦城之南，永矢無渝而已。其於學問上，曾不能覘窺前修闔域，而座下昂以挽回世道，其愛我則可感，而實類乎責狙語以冠冕也。竊爲座下，惧駟不及舌也。劔筇之偶，千古所難，倘謂僕朝暮過，或可以魚雁源源乎？

與金栗山太錫【羅州郡細枝面碧山里】

數日成團，近來稀事。講舊益摯，而無何征馬促發，忡黯底懷，尙今靡弛。俯託亭記，環顧一世，非乏能言之士，而申申于拙訥者，抑亦古人器取陶匏不尙文飾之義歟！牢辭則近於不恭，敢以數語，紱賀意，覽後卽付休紙堆。是企。

## 與朴成韶永鳳

令胤旭朝迨吉，于小春令節，宜家之御，豈遽讓於夭桃之時耶？況爲兄地上奉老親，而吉祥川臻？是爲可賀於不賀之地，頌切頌切耳。弟，以乳部不仁，再入光城，疹問諸外科醫院，而調養于兒子處，旬餘矣。坐於起居失便，未得晉紱，清庄只馳魂夢而已。頃以小可，方將歸鄉，而忽逢金毅齋兄於路上，云自速筵來，始知晝禮已成，而以前未赴席未爲恨矣。歸見速牒在案，尤不勝二豎爲魔之嘆。追喟何及？自念渙忍，幼不勤學，壯不勵行，不病之病，已爲痼於內矣。榮衛失度，肢體成病，外也。內修不怠，戰戰翼翼，豈非將身之要訣耶？固當從事於斯，庶幾夙夜，而亦復因循苟且，悶何悶何？倚枕艱草，略此，謹狀上。東樵兄遭其族親喪，去廿七 作唁行于鄙里而旋歸，以我病故，亦失晤紱耳。

## 與金禎奎

頃因乳部不仁，往治於光州吳外科醫院，故令愛結禱未參速筵。追喟何及？近纔歸家治療，而尙未快完，悶何悶何？相距不遠，而難得源源，嚮往底懷，紙面曷既？倚枕艱草。謹狀。

## 與楊德岡柱赫【寶城】

千金之子，求一言之，幾乎道有，不可得言之，近乎道者，豈千金之可比哉？座下既富有其言，又能印而廣布，擬與世人共與適道，而及於迂愚空踈，如錫憲者，推此心也。其於求仁而得仁也，何有？惟祝壽躋崇高，使鄉曲後少聞古有地，其爲幸于世，果何如哉？錫憲，左乳不仁，黏膏服藥，浹月叫楚，尙未快完。悶何悶何？一造清軒，謝累度眷厚之惠，兼承德誨，情禮當爾，而浚巡至此，慄慄慄慄。不備謹謝狀上。

### 答李圭錫【忠南天原郡修身面百子里】

生也晚，先王大人誠菴公縱不能拜軒。頃年因賢執辱垂華訊，知其爲敦行雅勅之君子，故賡次亭韻，粗敘慕仰矣。筆院秋享，偶奉清儀，棣棣循蹈，可知爲古家法度濡染，心謂誠翁有孫矣。萍鄉人事，未能穩討而別，區區懸想搖搖然，如懸旋無所泊。際承寵贖，副以寓慕亭實紀，繼述之勤，何處得來，益信前料之不謬矣。慰瀉可斗？第詩篇或有重出，其所未頒之帙，則釐整而頒，如何如何？續後或可源源耶？謹狀。

### 與邊時淵【長城邑梅花洞】

月積歲疊，不期而至者有三，衰也病也老也。不餞而去者，其欲幾何？明欲去而眼眇，聰欲去而耳聵，便欲去而舌訥，睿智欲去而思癡。從茲以往吾友，最親而欲去者有四，楮先生石鄉侯毛穎陳玄輩也。若青州從事蔚黑機白，則雖在傍而曰不去，其去其來，吾何與焉？吾謂朋儕中，若有親於四友者，見四友之欲去，則必厲聲而告之曰，‘公等盍觀夫衛武公九十而作抑戒，梁灝八十而折丹桂耶？’。夫豐城之鑄，磨久而生銛，零陵之叢老去而尤辣。今主翁雖衰病且老，磨越砥而將斂豐城之鑄，待高秋而將播零陵之香矣。剗犀革屠蛟龍，去穢惡通神明，卽有其日矣。以是時天君定位而策功，則公等雖不得爲元，勳可與於二三等，庶酬白首風塵百戰荊場之勤矣。顧不爲公等之幸耶云，則四友者必唯唯不去矣。吾未知其人爲誰，而果在於吾友之列否耶？其亦可保其必有而已。病乳浹月，起居不仁，拂龍井秋夜之尺塵，磨垓北超貢之斗汁，揮紅豆之寸毫，一任心竇。所出繪於會稽，生之白面，蓋發悶也。或可高覽而發一晒否？忠州金斯文庸肅，近有書信往來耶？如聞近日動止，則書示若何？病如小可，則晉敘爲料，而凍路長程，亦何可必也？

### 與閔泳輅【同福沙坪。現住，光州市鶴洞九二의四 電話(2)七七六〇】

生并一世，道同而師同，亦一奇幸，而白首萍逢，晚在今秋，抑化翁留有餘不盡之情，俾成卒歲源源者耶？頃以微恙，再入光府，問疹於醫院，調治于兒子處而歸，未遂清庄之穩攄，只自茹怒耳。尊體頤養，以道與日泰亨？翹頌之深。沙厓先生·咬菜窩公書簡各一，并伯曾祖書簡鈔呈，尊覽如何？追念先誼，吾人之親，非今斯今，其來已久。俯仰感慨，敢不無射。微疾小可，擬一晉拜，而歲寒人事，亦何可必也？

### 與李仁奎【長城釜洞】

秋間竹林書院享禮，以冗故多端，未副折簡之盛眷，只自慙然耳。一陽將生，經體起居休康？弟，身有微恙，畏寒蟄伏，豈非衰耗之漸耶？四留堂遺稿跋文，昨歲暮成而今纔郵呈，尊覽，而如有不合，更爲書示，若何？

### 答金毅齋黃中【長城郡長城邑三街洞】

料褫班荊於光之驛路，霎頃之紱，亦可償久阻之懷。況被資行厚眷，此實古人贈乘黃之遺義也。顧何敢當於吾兄耶？悚甚之際，頰施寵函，教以素問祕方，可知出於愛之欲其生之至情也。感與愧摯。陽生在邇，尊體裕康，賢閣美慎筮吉妄五耶？詹言顛禱。弟，學力未逮，昧於修養，爲二豎來侵，悶憐奈何？盛教謹當依劑服用矣。倚枕艱草，未修候禮，於奉春史兄，轉示此意如何？

### 與魯錫徑【光州市公園博物館事務所，全南博物館長】

累晉清庄，遂失拜晤，德不及古，信息不甚大之致歟！愧矣奈何？今番國典文化施賞，執事得入焉，榮光耀于湖山千里，仰賀千萬。錫

憲，家有數百年遺業，而尚遲發揮，執事所知也。幸望隨時提示以方案，俾免失期之嘆，如何如何？秋間歷書先祖行錄，擬仰達于案下，而巧值燕鴻之分，未果，使給事傳達，想獲入覽矣。何當拜晤討敘緒餘耶？

### 與洪承澤【文平面普光里】

曩於勉齋族大父襄禮，庶幾拜晤，而竟失所圖，或有所拘而未參歟？懷菀轉甚。族孫，伊時方以乳部不仁，畏寒調治，而門老之喪，不可不赴哭而告訣，故振刷登程，即日旋歸，尚今餘憊圍圉耳。普光山墓閣，命名以光明齋，說義爲記者隔歲，而晉敘無暇，郵便送呈。刻板之時，依所草而勿爲加減，切仰切仰耳。

### 與姜性孝大澗【務安郡海際面山吉里新登】

載道雪濤，間關數百里，委訪於闕寂山房，溯講淵源世好，其意甚摯，感戢何極？伊後日積，靖體休祉否？溍仰遠切。錫，以乳部不仁，數月呌枕，尚今刀圭不輟朝夕，庶有漸可之望耳。頰託先大人兩度文字，非愚陋所敢下手，況病餘神耗，思路泥索者乎？第更思之，一向牢辭，非同門溯沿友好之義，故草成有日，而藏在塵案。以今月十日惠臨，相與論訂如何？

### 與姜振奎【務安郡海際面山吉里】

遠程耑訪，禮恭而意勤，何等眷厚？感不容云。但此空疎迂拙，無以仰副相愛之懇。是愧是愧。損弟，微恙尚未快痊，課日服藥，苦矣奈何？栢溪公兩度文字，既有所諾，似聞其碑役將迫，故草而成文，兄與性孝君惠臨于今月十日，相與一經論訂，如何？遠書不可翮縷，略此。謹狀。

### 與宋在檜【光州市東雲洞栗谷】

頃作高山行，問莊軒慎節，繼又赴哭金東谷丈喪於水山，再過清庄咫尺，而車便也，故未遂相晤，瞻仰山廬而歸，尚餘悵然而已。連日寒沍，兄體夷裕？祈誦無射。弟，乳部不仁，殆滿數朔，連服湯液，今纔微效矣。先大人堂韻，類託既宿，而今始構呈，庸陋手法，安能有發揮令德哉？兩家後承源源之誼，則或可因而不替矣。倘恕其拙而付驥否？會晤未易，只增忡悒。謹狀。

### 與奇世殷【光山郡西倉面金湖里金府村】

別多會小，異聞之免不得，而雁足魚腹，猶可替面，月一至焉，猶勝於已。此亦懶散未爾何。此歲將暮，尤不勝介介矣。靖體茂祉，園菜馱得幾車，倘洽潤喉之資耶？弟，病乳數月，蟄伏燠奧，時有遠友委訪，稍慰澀寂。今則小可，俟幾日則可行近處矣。栗隱次韻，兄有申託，故別紙寫呈，惠覽而付于宋友，如何？白兄亨龍昆季，及晚湖李友昌宇，并爲安勝否？病枕神眩，未修各候，逢場轉致此意，企企耳。

### 與柳時重【潭陽郡昌平面維谷里】

錫熹頓首再拜言。不意凶變，先夫人奄違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小祥，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如？竊聞，先夫人，以貞淑之德，毓宜家之慶，膝前元凱，鸞鴿停峙，鳧藻競食，豈但尊門之長孫氏？實爲人世之瑞。宜享期頤之大年。兄有止孝止慈之善，而哭西河未幾，猝當巨創，是則神護之家，或有妖闕以致。天不可謫。雖大聖大賢，亦無何於氣化之斡運，於兄爲已見之昭陵。況兄年過不素已久，伏乞強加疏食，俯從禮制，勿犯傷生之戒，如何如何？錫

憲，昨夏哭長姪喪，兄老在堂，悶迫度了，入今秋末，偶嬰乳部不仁，洽滿三朔，奄歲垂暮，而尚晚尊邊一唁之行，孰謂弟之於兄有此禮數之遷延乎？其於憂戀，無任下誠。謹奉疏替慰，先夫人挽章二首，別紙兼呈，伏惟鑑察。不備謹疏。

### 與柳漢相漢塚【昌平維谷】

錫憲頓首再拜言。謂外承以先府君奄違色養之報，驚怛不能已已。以若先府君仁德之膺，宜享無疆之遐壽矣。孰謂禍福無常，天不憖遺，而使哀兄猝當巨創耶？恭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遽經卒哭，而又此歲暮，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兄踰不素之年，筋骨非強壯時可比。伏願強加疏食，俯從禮制，上副先府君平日止慈之恩，傍無負故舊相愛之誼。錫憲，緬昔被愛於先府君及受知於兄，當匍匐於聞訃即日，而掣肘多魔，入秋以來，病乳數朔，出入不便，故奔哭几筵尚此稽緩，只增愧惶。早晚一晉，未可豫定，茲謹奉疏。追挽一章，別紙寫呈，使喪側執事，讀過於靈筵，如何如何？不備謹疏。

### 與柳維石謙重【昌平維谷】

皓月盈天，雪花滿地，時發山陰之興，而奈二豎肯來相守數朔何？歲聿暮矣，令伯氏起居享康，兄體填篋湛滄，研覃益造於三餘之力耶？溯迓之至，欽頌恒切。弟，曩爲診崇劑藥，而行光府，宿於朴兄牛山莊，適聞金東谷丈喪事，強振赴哭，歸臥窮山，益覺蕭索之嘆。斯世長德，凋謝幾盡，使吾道庶不落莫，惟在於平日精熟之如兄者，所以慕迓切切於他時。願兄益奮作勇往，勿負士友之期待焉。近日鳩林崔日錫兄，聞余薪崇，委訪信宿，因語及冰說，曰‘聞令允年及有室，頗有東床採擇之意’云云，故以書申呈，如有合於兄意，一次往探閨節，而言託于牛山朴兄，如何？華宗時重漢相二哀兄慰狀，今纔付

送，而并呈挽詩，倘無洪喬之嘆耶？所欲言者多，而留埃後便，不備謹狀。

### 與許康悅 峻疇昀【任實郡三溪面德溪里】

錫憲頓首。千萬意外，忽承先府君奄違色養之報，驚怛不能已已。以先府君剛明之質豪宕之風，兼之以涵養寧靜之工，宜致胡考無疆，孰知其天不可諶而未踰稀年遽至於斯耶？緬惟平日孝養之誠，猝當巨創，初終凡百，何以經紀？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奄經卒哭，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勿犯傷生之戒。錫，冗擾度日，且以薪憂叫楚三朔，未由奉慰，悲係加深。此歲將盡，亦不可無紙面替申，故謹奉狀，而先大人追挽，別紙寫呈，使喪側執事，讀過於靈筵，若何？

### 與李鉉午 鉉職鉉晉鉉旭【靈光郡畝良面嶺陽里】

錫憲頓首。千萬意外，忽承先大人奄違色養之報，驚怛不能已已。況先王夫人終祥只隔數朔，而大歸斯亟，使先大人平日孝敬之心，不能憾然於九原，夫何奪之速鬼何猜之至耶？緬惟僉哀體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卒哭，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毋犯傷生之戒。錫憲，赴哭几筵仰慰僉哀，以情以禮不可闕者，而冗故蝟集，且身有薪憂，出入不便，素意未遂，悲係加深。謹奉狀，而先大人追挽一章寫呈，使喪側執事，讀過於靈筵若何？

### 與李相鶴相默【任實郡三溪面斗月里】

錫憲頓首。夢寐之外，先大人奄違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況先大人余之同庚也，交契雖晚，相為期待，實非尋常，詎知今日棄我

先逝使此踽涼無所適從耶？仰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踰旬朔，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無犯傷生之戒。錫熹，身有薪憂，洽滿三朔，末由奉慰，悲系增深。謹奉狀，而先大人追挽寫呈，使喪側執事，讀過於靈筵，若何？

### 與許栢軒俊康【任實郡三溪面德溪里】

何日不相思，而歲暮尤切者，無亦百感交集，庶望故人之責善而補其闕漏耶？兄與莊軒，俱是弟之庚友，而莊軒病臥數年，則溯洄願從於三溪之濱，豈惟蒼葭白露之節，雪月此辰，一訪山陰，心則如密，而數朔薪憂，難於振刷何？經候亨吉，令從季氏輝堂兄亦裕祉否？至禱至禱。弟，由夫本來窳白而身之未健，抑學問無方之致歟！古觀兄之不淑，千萬夢外，以兄敦睦之風，應不無缺然如失之恨矣。近致慰狀於其允哀，兼付追挽一章耳。聞莊軒爲就調養於伯允羅州業務處，賣却田庄云，自後士友之過高山，得無蕭條之恨否？願兄必參於春秋享辰，使俎豆揖讓之席生紫，若何？

### 與奇達舒【長城高山莊軒二子】

向枉巧值，我不家犯暮而發云，未安實多。萍逢於光城，意外之幸，而又是積阻之餘，慰豁之極。厥後日多，春府堂上慎候漸臻復和，侍湯餘棣體度湛翕？溯往未嘗暫弛于中。戚從，與邊友敬仲，宿筆巖書院，再明入光，參從外孫尹郎東漢婚筵，昨始還家，則務安二姜友，以請文事來，亦不遇而去，約以念後更來云，離家幾日。爲負於來訪者多矣。追悶奈何？所託文字，今始付送，領納是企耳。餘冀餞迓增祉，略此。謹狀。

## 與任月坡永宰

歲暮邂逅，亦是奇緣，而兩皆爲奔忙所使，未成穩討而促別，其爲缺然如失，愈甚於前此未晤時也。矧又夜二禪，而歲一別，回顧三六過境，亦似多情，故人欲別不忍別，送君兼送年，想兄亦同此情景也。元朝清通，歲吉可筮，獻發嘏相？仰賀無射。弟，學日益退，而謾添一齒，愧悶愧悶，而惟以率無警，爲幸耳。向日歸家，有數三故友，須我不遇而去，翌以再來，夜山李洪洙，光州柳圓石鐘龍，務安姜友也。皆爲請墓碣而來，逢迎之際，於焉歲盡，未償是年文債何？金友答書付送，而二詩既是正寫於模用紙者，故不敢下手。拙構洩勃草呈，恢諒如何？餘因歲禮紛擾，略此謹狀。

## 與柳圓石鐘龍【谷城木寺洞面平湖里。現住，光州鄉校】

再屈華旆於蓬葦，而一未迎接承誨，恨無五經先見之明，而驛路班荊，又何奇緣也？亦可小慰前日缺如之恨耶？歲換而寒又闖發，尊體動止與時泰康？金樵綠泉二兄，并迓新吉禱否？慕往如水。弟，伊日歸家，則夜山李友須我不遇而去，翌以再來，長城邊友時淵書并外二三書至，皆請墓文也。歲禮紛擾中，僅安頓心神，方成得四五篇矣。尊宗丈美質姘德，令人欽賞。碣文，非如弟者所堪下筆，而盛教鄭重，不敢違越，茲敢草呈，覽後投棄，更求良手，如何？

## 與邊敬仲時淵

添得一年，溯懷更疊一層。恪詢，歲端，萱闈永錫難老，韡牀邁征尤佳，竿步前進，篋功有成？頌禱頌禱。錫喜，去臘旬八九，得二孫男於在京兩兒，聞即馳去睹其母兒皆充健，衰境一幸也。臨歲慮行路紛擾，三宿而還，未暇訪問于宗戚，尙今歉然矣。雖喜歲新，可憎人老無知無聞，只自瞿瞿。墓碣與二通文構呈，倘無違於實德耶？猥

以蔑淺，擔人文字，歲禮紛擾中，連綴四五篇，文云乎哉？只增悶憐耳。留不備謹狀。

### 與鄭逸齋泓采

今年，故國不祀之周甲也。蠹讐撤歸二十六年，政出我人，其亦幸矣。而衣冠文物，未有新代之制作，又復強隣用詐，蟻渡爲慮。吾人上下，倘無忘會稽之恥，振勵頹靡之風，則可免岌岌殆哉之憂。若錫憲之布衣書生，只見白髮添幾箇莖，固窮獨善爲畢生計，而既不健，所崇添減，非一志摧業退，此將奈何？竊念老兄，向之美慎快復已久，神彩渥和動止無苟，未是非學問之力乾乾不息所致也。其所得于中，應與新春益深矣。敢不仰賀？昨秋枉屈時，拈韻盛什，意重期深，感愧交摯。不可無和，故洩勃演成二頁而呈。勿咎逋慢，如何？臨紙欲寫千萬，而不可覩縷於遠書，故略此。惟祈道況尤佳。謹狀上。

### 與金誠齋榮瓘【全北南原郡山東面木洞】

錫憲白。德門不幸。賢閣孺人奄忽違世，承聞驚愕，不能已已。伏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孟春猶寒，不審尊體動止何似？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錫憲，山居涸寂，置郵不速，蘭報差池。洪喬浮沈，何代無之？昨冬始因朴兄永鳳入聞，而身有微恙，尙今難登遠程，未由趨慰。其於憂想，無任遠誠。謹奉狀，伏惟鑑察。不備謹狀。

### 與奉春史萬沂【長城郡長城邑三月洞】

錫憲白。德門不幸，賢閣孺人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竊惟賢閣，有宜家貞淑之德，椒實盈斗，螽羽振繩，君子好述，福履葛

藹。以老兄伉儷義重，悲悼沈痛，應有難爲堪勝，而況又見其積歲沈痼，冀效刀圭，無何於氣化之幹運者乎？孟春猶寒，不審尊體動止何如？兄以七耄高齡，德積仁熟，內外交養，其工有素，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錫憲，一疾兩年，添減無常，未見快效，未由趨慰於道塗不遠之地，其於憂想，無任淺誠。謹奉狀，伏惟鑑察。不備謹狀。

### 答鄭祖憲【忠北陰城郡金旺面道晴里】

學不外於孔朱，道不離乎孝弟，便是臭味之同。乃如之人生并一世，日月而見，禹晡而聞，同是無斃之地。地不相遠，而未接芝宇，於近稀之年，若非高明恢量不較先施以尺書，則孤如錫憲，安能免失一同志乎？感不可言。況副以靈丹，助迎新歲？壽民濟世之術，蘊藉胸中，此可知也。言念冰鯉雪筍，難於守己，不能盡孝之終，則土生革世之日，嗣守先業，不玷其孝，果非易事。竊聞，尊先丈一玉公，瞻望爲軒，道莊爲齋，可見庶幾。夙夜之意，必有桐山柏水之行，方不朽於千秋，未知果有其人乎否？若或取其艷妍，使猩猩鸚鵡雜於其間，則反累公德也，雖多，亦奚爲哉？拙辭爲贊，只出好德之秉筆弱小，安能有發揮力？悶愧悶愧。

### 與朴熙泰【光山郡西倉面梅湖里】

錫憲頓首拜言。承先府君訃音，隔歲而春已啓仲，尙晚一哭於象生之筵，是可曰早年葱竹之交乎？自顧負負於靈英，多矣，爲慙之至。日月不爲孝子留，常期在邇，仰惟哀體孝思之極，如新之痛，想益復罔涯矣。遠外馳溯不弛。錫憲，身有微揚，畏寒蟄伏，未能奔慰，替以書申，或可哀諒否？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不備謹疏。

## 與朴

伏以天眷大韓我大統領閣下，再膺推戴，光臨億兆，治化之鞏固，而隆洽國人，望其庶幾。愚拙如錫憲，亦億兆中一人也。欣抃之至。曾以一書，獻賀於膺選即後矣。閣下以一九六七年五月十二日，親賜下答，有常助好言之託，此正詢及芻蕘之盛意也。愚生不勝感激之至。繼欲以錙銖之見，貢千慮之一得矣。旋又思之，不在其位，不謀其政，不有言責，不敢言爭，士子之道也。國民之分也。何可離道越分犯唐突之誅乎？只以耕食鑿飲，爲吾分內事而已。伏聞，近者有專用國文之令，不勝驚愕憂之至。恐其機事或失，後悔無窮，敢舉得失，冒昧上聞。閣下倘加留神澄省，不以猥越指斥，則庶或爲開言路達民意之一助乎？錫憲，不勝惶悚，謹奉書以聞。竊惟，文者，載道之器，記音之具也。風氣所局，國各異音，以其聲音，發揮意思道義，故文隨而異勢不得不然也。中國與歐美諸國，疆域夔絕，初不相通，無有來往，故漢字與英文，固無害於不同，而亦不可苟同也。惟我國，則地接隣壤，且無大江巨海，峻嶺爲之間隔，故有史以來，浹洽中國文化，地名人姓人名物名，日用萬事，皆以漢字成語，若我國固有文化，久矣。但國之語音，異乎中國，故固常病其聲牙梗澁，則有之矣。至朝鮮世宗大王，以天縱之聖，勅作國文，以解事物之難解者，其遣成三問等于遼東，質議於明翰林學士黃躄，凡十二次，其勞至矣，其功大矣。于今五百餘年，與漢文并用，而有相資之益，無相悖之害。若於此時，國人之習狃漢字，不至於若我國固有之文化，又無抵牾於國交上諸項，則雖廢之，可也。以世宗之聖，豈不欲專用國文？但國之見勢有不能焉者，故只爲併用，而譯解漢文經傳，自此始焉。今在國漢文併用，五百年之後，欲猝然專用國文，無亦非世宗重吏習民安之本意而有近於欲愚黔首者乎？惟吾邦之人，尙於今日，非漢文，鮮能通古今達事變，人不能通古今達事變，則雖有出天之才智，不能充而梏囿於愚狹而已。國無智士，誰

與爲國？此我國之文化，與專用英文諸國，異而不可廢者，一也。日用最切者名詞，而光州廣州地名難辨，慎氏申氏人姓混同，其餘梨舟橋脚雪眼魚肉等，不可勝數。將模形於字傍而別之，做出無事中生事耶？此不可廢者，二也。漢文一字，譯以國文，則少不下三四字，多至於五六字，不用不費得時間與紙面，此不可廢者，三也。上下貴賤，舉皆習狃於漢字，不意之中，變幻場面，則官簿處理上，礙滯不小矣。此不可廢者，四也。愚生蟄伏，僦屋政府之事，雖不得詳，竊自謂此令之將行，深謀遠慮之士，應有以此說爲閣下陳者。以閣下聰明好問好察，邇言之德，一念轉移，亦非難事，而尙晚浸止之諭，此愚生之不能無惑者也。轉聞此令之行，舉國老成人數百萬，莫不嗚呼嘆息曰，‘半萬年民族文化，從此其將漸藏影子矣’。思欲矯救，若漢學會及嘆願書等，非一非再。嗚呼此等事，若汎思之，則彼草野韋布，拘儒曲士之論，固若無與於世教然。亦民權所在，嗚其不平之衷，非蚊雷蛙鼓之比也。衆口或可銷金，殘溜久能穿石，安可曰不爲累於閣下神武不殺再建之盛德大業乎？亦安知其不爲沮於邦運永垂之大計乎？愚生，自幼讀習漢字，而亦愛讀國文者也。是故吾家十世遺蹟中，尤敬愛六代祖妣淑夫人吳氏手筆 飲食譜五服解等書，珍藏不啻，若隋珠卞玉矣。此爲二百年前古典，故一九六八年十一月頃，爲全南博物館長魯錫徑，及文化財審查委員具哲祐外數三人來臨，審查攝影而去。又以原本遺墨，出品于忠南女流文化殿示會。愚生亦粗知，後來年少，必愛讀國文，故自光復卽後，譯三國以來有功於國家民族之偉人事實，爲一冊，名曰檀民精神，未及印布，而爲六二五所沮，尙今藏在巾衍。今累累之言，豈與忘國粹而重外來也？實出於爲國家爲民族之愚誠也。愚生，竊以爲自今勿拘學閥及老成新進，廣學多聞，正見厚重，謹慎忠亮之士，翻譯國家行政教育經濟必需之書，使人講習，而稍稍成熟然後，用其漢字之不得不用者而已，則彼恠僻之字，深鉤之文，日去月積，漸鮮使用，僞文之

弊，雕飾之病，自此可祛矣。其於欲猝速幻面，其功效之相去，不啻霄壤矣。愚生，素以菲才蔑學，既無博古之工，又有滯今之病，而累經世劫，于今六十七年矣。幸及見國家再建而閣下膺命，當此國家重事，而若無一言陳達，則是負閣下涵育之澤，故敢此仰瀆瞥見，而語無倫脊。伏惟閣下，恕其妄而諒其誠，無任祈懇之至。

### 與權重海【成均館長】

生於誦讀孔朱之家，懦慵不勇，縱不能極致於至善之地，樗櫟之年近稀，方以類聚之義，則聞之久矣。每見誦讀孔朱之士，則馳寸心之區區致敬重之義。今執事，望重於一國首善之地，翹楚乎吾黨者也。慕往之至。不揆率爾，以蚯蚓數字，仰通聲氣於未面之地，伏惟執事垂察焉。執事躬致力於修齊之工，講治平之道而淵淵，玄默於敵徒猾據之時，不如萬德輩行呼唱於聖靈陟降之咫尺，而爲識者之非當此山河光復之日繼金蒼崖而爲司業，靡是非斯文之榮而執事之幸也。執事身居首善，晉鄙之化，不止一偏隅，汎在邦內德善，可作也。駭恠之背於吾道者，可討也。如此然後，千秋可免佞食之譏。竊惟執事，聞善而作起之，聞詖淫之說而懲討之者，應不止一二矣。抑或不無不討於可討之地者乎？僕，近見成宗鎬所發行儒道九月號，有申赫均者論易書，而侮及大聖人。蓋斯人也，以蒙莊之腸，飽餽倭食之糞，邢怨之罰不可逭者也。執事，居於苑南咫尺之地而不能聞知耶？抑知之而駭恠罔測不欲掛論於澹舌之間耶？以愚思之，是不容含嘿不付而止者也。嗚呼！今年，舊國不祀之周甲也。蠢彼強隣，不止爲一代之讐，卽百世之讐也。不止爲一國之讐，卽我父祖世世之讐，而見此并吞周甲，爲吾民者，腔血沸丹怨淚成碧，而又見彼輩詐譎萬端暗肆齒牙之毒。言之至此，卽欲臆塞息窒矣。彼何人斯敢肆三十六年變夷之惡習，信其詭舌，勝於信其父祖之訓？究厥凶悖，萬萬痛駭。惟願執事，飛文域內三百州郡，而鳴

鼓其罪，無使索隱行恠，忘國附讐之輩，息食於先王遺澤之地，斯文之幸，國家之幸也。惟執事，其亟圖之。

### 答權重海【서울特別市鐘路區寬勳洞一九八】

前具尺素，仰攄寸丹，禮既失於輕佻，辭未能于暢達。執事不咎責之甚，珍覆垂繾綣之厚，或者近於古所謂朝暮遇者耶？承摯愛之殷拳，矢中藏而蘊結。仰念尊體，道肥而心惕，尊聖衛道，一念不舍。倘使走下風者，不敢違越於塵拂之外，使政府，能無疑於吾夫子爲萬世開太平之義，則巋然靈光千古一色。執事又豈有感彼鳥之詠哉？惜乎上下俱不能知執事之心也。如令館中諸人持心不苟，使執事期上添期，則得遂斷斷之誠，必邇其日，而未是非斯文之幸也，是爲區區之願。大抵吾輩歷見千古之所無前楛於異族之虐，既久三六，今則政自我出，未是非幸事也，而夫何損益？弛張殆無其倫，其尤甚者，卽專用國文等事也。到此地頭，腹書之儒存者幾稀，彼蔑聖棄學之輩，紛然雜出，必欲亡吾道乃已。豈但曰痛哭流涕長太息而已？所以觸見發憤，有向日之書申也。雖然天未欲喪斯文，萬世可徵，安可曰無脫流反眞之日乎？凡此翮縷，非不知空言無益。然不向執事道，於何說道？惟執事垂察焉。盛付詞婉情摯，可爲欽誦。洩勃和呈，且感集賢殿樹卵育故事，不無望於菁莪之化，故露寫愚悃，仰助一粲。

### 與朴泰三【號鳳岩。高興郡東江面馬輪里】

詩曰‘其舊如何，其新孔嘉’，苟使爲人後者，能知祖先之善，推而知祖先友好之舊，不替世交，是亦可謂孔嘉之新，而文獻或溼而無徵，地或遠隔而難通，生老於一世間，而頓然難記。誰何者，不知其幾人也。向非尊先祖陽洞公居館日錄，孰能知吾兩人俱是同師同泮之後耶？自茲以往固當逐追無射，無負先人友好之義，而弟慵未果，荷兄頻賜，警覺中心藏之，何日忘之？先大人南竹公遺稿，拜手謹領，盥

讀累回，更覺呂氏文獻復在吾東。欽誦何若？曩爲校書於長城釜洞，累日而還，以致稽緩之謝。尊諒而頻惠玉音，以副愚悃。德泉和韻，亦書送于朴孟鎮兄耳。

### 與朴孟鎮【號德泉。高興郡東江面馬輪里德村】

光城春晤，可償數年之阻，旋分悵復何如？因鳳岩兄便，槩探安候則一二，以是慰釋耳。萋秀山角，經體裕相，濯清自潔，不爲汶汶所浸耶？仰賀之至。楣韻，宿有賡和，而拙不敢呈矣。曷復有教，故草而付郵，倘不爲清流之浮沈耶？

### 與朴基炯【高興郡東江面馬輪里】

向也覲降，已欽風誼，今承辱函，尤感眷注。尊先大人懿行，金東江公一碑，可徵百世，而歌詠又多出於鄉黨知德，至若拙構，不足爲輕重，并刊於詞章之間，旋增忝然耳。餘希經體加愛。謹狀。

### 答李仁奎【長城釜洞】

每承尊書，繼述之誠，藹然於辭旨，可欽無忝，爲四留公之肖孫也。先集之編刊，實是人家莫大之事，非一朝一夕容易可就也。躁忙之心，轉成憊惱，至於食不甘味，遑遑無定着，則兄可云過矣。請陳弟之所嘗經歷矣。弟之祖先，近自六代祖酒隱公，五代祖石崖公，高王考南崖公，三世文集俱在巾。先考石川公之生平營刊者，而及先考末年，適丁東亞戰爭，爲彼輩牽制而未果，飲恨而卒。不肖自當室以來，寤寐于斯二十年而僅成。其用盡心力，實有非外人所可知也。所以弟於編校，非曰能之，其規模方向，則領略一二矣。尊先祖四留堂公，生於文靖公深隱先生古家，繼述之誠，可感神明，而遺集之尚未刊行，不惟爲後孫之齋咨，爲世道亦可慨然者也。曩造華

軒也，第見亂藁尚未淨寫，京簡亦多未入正草，而世態漸迫於蔑文，兄年踰稀，兄之躁忙，蓋以此也。弟雖昧劣，豈不欲仰副尊誠？而樗櫟年積，精敗神耗，已七八矣。且兒孫非光則京家，無應門之僮。時或自外而還，則多見故人之題鳳而過者不止一二。南山之豆，西疇之耘，亦皆關念，而閭無傭丁。奈何奈何？所以故人之書堆案，而亦多未暇於修答也。願兄與鶴奎鐘燮諸兄，平心舒氣，而淨寫原集然後，閱枝于高文達識，則事過半矣。若其京簡，則待秋而正草，尙未晚也。茲陳淺見，兄以爲如何如何？曷者厚贐，固知其出於情貺，而還切不安耳。南奎兄所慎，近果筮得无妄耶？切祝切祝耳。判奎鶴奎鐘燮僉兄，賢勞泓穎，其意誠佳，忙未修候，轉致此意，如何？

#### 答鄭乾永【서울特別市永登浦區禿山洞一四六의三】

錫憲謹覆。蒙先施寵翰於不面之地，已感勤禮，又況副以尊先祖忠貞公雲溪先生文集，不啻禮先兼以意厚，中心藏之，何日忘之？僕，年迫七衰，而跼伏林泉，只恨固寡之深，亂慮滯志，無以疎宕理遣。奉讀忠貞公實記，聞其忠憤之氣剛直之節，光爭日月，高并山斗，寒奪松竹，儘覺忠刷然，振作毅然，勵先烈之惠我無窮有如此哉！頃於奇友世殷書庄，一夜讀過，歎賞而歸，或者奇友舉其實況，相聞於座下，座下聞之即施之以古人之道耶？僕之五代祖石崖先生，諱鳳周，字子敏，生員文科，官承旨，爲正廟名臣，而與肅獻公果齋鄭相公晚錫，同榜而同朝。其友好之善，可想於百世之下，而兩家後承漠然不知，誰何可爲嗟嘆？竊想座下以同根之親，必詳其居家世矣。或可錄而示及否？

#### 與洪起爽【서울城北區東仙洞二街三一一 電話040八。探求堂，鐘路區慶雲洞一0一의一】

族姪起學，歸自仙庄，獲聞尊體美慎彌留，貢慮之至。清和令節，調

候起居，飲食復如平昔，筮得妄五耶？仰祝無斃。族下拙，昨歲之暮，得二孫男於在京，兩兒二年之間，連得四孫，私分之幸也。聞卽馳去，見其兒俱健，三宿而歸，以其歲迫，故未及拜軒，而悵結則尙今滯在衿帶耳。聞起學所傳，則尊座留意於重刊拙著文獻錄云，可頌述先之謨良且勤矣。一次詳示其劃度規模，如何如何？恭俟德音之不遐。

與洪錫禹【探求堂，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一〇一의一，電話(2)二〇〇四二〇〇五。自宅，鐘路區明倫洞一街五의二二，電話(3)一四一一】

尊先累世誌狀著人氏名，拙曾提示於邊君時淵，而託以與高明商確矣。果不負吾言，兩皆善爲妥協云，聞甚爲幸耳。傳聞，堂上氣候，以美慎譽和，旋即差效，孝養之誠，可欽可敬。近當天氣清和，想得快復矣。既誦且禱。拙著文獻錄，堂上曾有重刊之意，而言及于拙有年矣。或者從近可刊，則以其度劃規模，詳示于拙，如何如何？

與洪起薰【서울鐘路區慶雲洞一〇一의一】

每戀芝宇，盈盈之儀，濯濯之姿，愷悌安詳，吾門寶樹，孰如吾君，更有幾人？向往之私，靡日不切。體度清裕，執務一穩？慰賀慰賀。族拙，老臥窮山，有何好樣？昨歲歲暮，得二孫男，爲私家之幸耳。拙著文獻錄，自探求堂，有重刊之意云。若然，則郡守公一派，漏單，不可不填入而編次也。錄示其度劃之如何，企望耳。不宣，謹狀。

答姜大演李暉行【務安郡海際面廣山里，元鉢山里】

跽滯一隅，未遂周爰靚降於淵源世好諸賢者，久矣。荷執事不較先施耑書，孰謂不直陋劣獲此眷注之極？風味之高古，造詣之精深，何

處得來？栢溪門下之多賢，信不誣矣，爲之欽艷。錫憲，初蔑勤學之工，晚無溫燴之力，愚庸莫比，而猥荷友朋之交引不棄，敢妄揮毫於人家文字，極知愧汗，而方亦爲校金提柳惺齋遺稿，日事泓穎，苦哉奈何？尊師講道碑，託非其人，累辭不獲，僅僅綴構，文云乎哉？第念此與表阡有殊，則太詳恐或傷繁，故撮其大要，而簡嚴爲主。中間別業之見佚，實非大關事也。然門下之羹墻，猶恐一善之或湮，必欲歸於善美事一之忱，可云極矣。謹依所示，略加填修，而錄在別紙，幸加商量，入用如何？涯角落落，會晤未易，臨紙忡悒。不備謝狀。

### 答金昌憲在權【光州市農城洞 一九六(三班)】

前月念後，自曹南里國鉉兄追悼會有告書，故進參而哭。逢晤遠近知舊於一席，而未挹清儀，且農務方劇，盈尺之地，未暇造紱而還，悵結轉深。舍伯還自光府，得聞兄候安重，繼又承華函，慰若對討。弟，山門邃闕，消炎無計，而方較金堤柳惺齋遺稿，與泓穎朝暮相從。其於送暑，或賢於已耶？俯詢諸條，既有表碣之詳，則無刻床之例，古道也。然必欲書乃已，則刻以‘蘆隱公墓在某所’，方與墓表相應。孫錄欲書曾玄，則追記于文後，古例多有之。蓋床刻，出於未具表石者不得已之例也。諒之如何？土神位具石，古無明文，而中古以來賁治阡道者，多具石床。然具石床而無表石，故無刻之，亦正例也。歷謁吾家忠勳各公國舅駙馬之墓，在京與湖西者，未見山神位之床刻，其外他大姓之山，則吾未及見。亦慕考諸大姓，已例可也。沈友翰求朴友永鳳，皆當世之眞卿，而優劣非吾肉眼可卞。然以年則朴少於沈，或者腕力尙壯耶？兩友之住，皆載契案，可詳耳。

### 與金碧農相晉【長城郡長城邑泰昌洞】

政不周召，學不孔朱，孝不會閔，士之至恨而願學者也。然少也癡而不知，中也懶而不勉，老也衰而難行，所以人鮮能之久矣。在天地靜定，宇宙無故時猶爾，況生長老於歷代文物家國大變革者乎？不見周召之政久矣。只聞百家爭鳴，守恬靜則恐跡歸乎空門，好玩弄則若循軌乎竹林，如之何可以免千古罪案於孔子之門乎？彼醉生夢死浮沈塵海者，固不足論，寧不若荷簣執耰食吾力之爲愈也歟？兄之早年，托跡於農，可知其義意之深且切也。曩也核丸焦廣島，而咆吼鯨波催晏，臨政自上海而凱旋，三垣將明。夫何北肆虎耽東復狐譎一竿老而不揚？渭川之鸞，三顧遲而難起，隆中之龍，大業尚遲，弱國之耻，蔑材之恨，何處可訴？若使賈誼見之，痛哭流涕長太息，不知至幾千百也。兄乎其復作鰲山之農夫也歟？吾謂迨此之時應多遺安於阡陌之中矣。記成有日，將欲草付，日聞時耗，大異杞憂，動中非不知不能素位之病也，而激而吐之，言出如右，與記文意相反也。然寧學孔而不及不欲追簣耰，兄與弟所矢也。復奚疑焉？惟祝經候裕康。

### 與金春園源益【長城郡黃龍面黃龍里】

龍江之清，可以泳思，呼吸爽氣，庚炎雖虐，不得不退聽矣，可望不可及，健羨之至。弟，夏間校金堤柳惺齋遺稿，泓穎爲友，有裨遣暑，山家幸事。竊念亭之高大，太上以人，其次以文，報春爲心，孰不賢？其人不須文，而亭固高大矣。又必欲文之，則當世大家，有曉顧二翁，而於兄皆友也。何不及時請記二翁，千古而晚向錫憲道之耶？錫也，汗走之倫文於亭胡有？只爲副懇而草呈，加以郢斤，深所冀望者也。

### 與金駟洙【號忍堂。全南長城郡長城邑梅花洞，長城教育長】

自聞掌校于光市，寤寐一晤，頃晉良校巧值，故園之行，未能穩據，徊徨而歸，心如有失，尙今黯悒。庚炎如蒸，數體裕吉？令伯氏安候，種種承聆否？并是馳溯，不任願言。弟，近校金堤柳惺齋遺稿，日友泓穎，些爲消暑一助也。令從氏翠軒兄，豪宕風流，令人欽服，而遽作千古，有時追憶，不以歲久而有懈也。曾託翠軒記，諾而未就，孤負逝者，種種興悵。始知古人解劍懸墓，心有所不得已也。今纔追構，疇昔相從之誼，或可因是而不湮耶？傳致于令堂咸相逸君，至望。莊軒慎節，近果得聞差劇如何耶？斯人而有斯疾，爲斯文痛嘆耶。不宣謹狀。

### 與金重千【長城郡森溪面白山里】

有事于先賢俎豆之地，足跡累及仙鄉，盖出於仙鄉之士愛不知惡之厚眷也。因而猥有抽筆於院祠狀碣遺集等，將至數十。然辭意激饜，既不自慊，孰不曰刻畫無塩唐突西施乎？年來尤覺其妄，更無欲添悔矣。曩於汕巖庄，兄索亭記以來，碧春二兄，俱有索記。更思之，皆切磋琢磨之地，因是而論訂求教，未是非一幸，故荒草而呈。并示于李洪兩兄，而倘不惜郢斤否？

### 與邊敬仲時淵【長城郡長城邑梅花洞】

執熱願涼，思故人之清風，此是情境，而遙望馳情，道阻且躋，喟之何哉？客月，社會想就盛況，而未參爲恨耳。吊屈原詩，有搆草呈，以助一粲。且頃於仙庄，逢晤碧春二兄時，并有託記，故草付森友亭，翠軒西記，亦皆草付，或可有入覽之道耶？

### 與李相儀【南原郡南原邑, 南原鄉校】

楚人謠三戶, 竟能一炬燒秦, 使千古慷慨之士, 爲之快心矣。廣島之核, 未及燼, 裕仁窟宅, 桃山之塚, 光復, 爲吾民十分之快, 則未也, 而奄又國絕周甲, 復見東隣伺隙之萌, 暗動於侮慢不遜之中, 其於成仁之烈, 獻靖之義, 追慕之衷, 益覺如新, 而楚謠動中央。際承僉尊, 以石松鄭公殉國故事相聞, 爲之斂衽起敬也。嘗聞之, 明錢謙益, 以文章鳴世, 及至百餘年, 而清主乾隆, 惡而燒其文集, 爲其背明而降清也, 則今爲殉義, 而求筆只取婉妍, 恐鸚猩之淆中。伏惟僉尊亦應有宿諒者矣。謹以一律, 題瞻仰之私。伏惟照亮。

### 與鄭吉朝【南原郡金池面梅村里】

頃承李相儀金種嘉晉庸諸公等簡通, 聞尊大父石松公殉國故事, 欽慕之至, 亦切觀降之願於其賢抱也。恭問酷炎尊體綏旺? 向溯勞止。錫憲, 衰朽湔劣, 無足奉聞, 而聞善則悅以秉彝之猶存也。不揆辭拙, 一律謹寫, 瞻慕之意, 付南原校, 想獲入照矣。古人謂爲賢人子孫難, 願執事矯矯斷斷, 無負乃祖風範, 如何如何? 會晤罔期, 忡悵愈悠。謹狀。

### 與朴炳容【和順郡道谷面大道里】

錫憲頓首拜言。先夫人奄棄色養, 驚怛不能已已。承訃數朔, 一造拜慰, 雖未易辦, 而尺書修唁, 則猶可及也。此亦尙今稽緩, 安可望哀怨而不之咎耶? 愧切愧切。日月不留, 遽經卒哭, 又此秋氣入郊, 氣力何以扶持? 兄以近稀之年, 猝當巨創, 脆弱之質, 衰耗之氣, 傷生爲戒, 深自寬抑, 強加疏食, 俯從禮制, 如何如何? 錫憲, 承訃未幾, 約鄭朴二兄晉慰者, 二三次, 而每以掣肘, 未果, 一書之晚, 亦以是也。未知二兄或者先我理裝歟? 早晏一行, 不可豫必, 故姑以數

字，替申仰慰，哀體恕諒，千萬切企耳。不備謹疏。

### 與文永來【靈巖郡靈巖面場岩里】

自承春軒翁訃書，常擬一晉哭慰，而未果。於焉夏盡而初秋，遠外不任忡悵。向於鳩林崔日錫兄之來，概聞其初終經紀，則螟嗣尚幼，功總之親，齊力周章而以至，一鄉人士，亦皆匍匐會葬云。盛門睦淵之風，仙鄉敦厚之俗，欽艷千萬，而若其左右，斡旋高明，應多獨苦之賢矣。慰何如之？錫憲，不惟葭莩之親，憶昔數十年，相從於鰲山武珍翰墨之場，丁寧之意，感佩宿矣，今焉而已，俛俛焉如有失，豈不忡悵哉？晚秋當晉哭靈筵，繼以慰功總諸兄弟，以此諒之如何？不備謹狀。

### 與李昌宇【光山郡西倉面金湖里】

白兄亨龍書，聞以碑役訖，故赴而慰賀之，繼欲晉慰，即雨未果而發，此心耿耿，尚今黯結。秋意將生，哀棣體度支勝，令從叔會元氏近連康裕耶？向溯勞止。弟，自初夏，校金堤柳惺齋遺稿，尚未畢工耳。曾因令先大人之託，次心谷齋韻者，見於草紙中，故書呈，哀諒如何？不備謹疏。

### 與鄭燉信【鐵川】

錫憲白。不意凶變，賢閣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恭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轉眄之頃，於焉祥碁已過，又此秋氣漸緊，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錫憲，地不甚遠，而身常不健，未由晉慰，而奄此歲周，情缺禮闕，悲係加深。一幅書問，晚而後期，敢望恕諒而不厚誅耶？謹奉狀，伏惟照鑑。不備謹狀。

### 與羅承烈【羅州郡金川面古洞里飛鶴】

錫憲白。不意凶變，賢閣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恭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秋氣爽涼，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錫憲，地不甚遠，而冗故相尋，未由晉慰，情缺禮闕，悲係增深。謹奉狀，伏惟照諒。不備謹狀。

### 與宋孝燮【高興郡東江面馬輪里】

錫憲白。不意凶變，賢閣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恭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況兄在篤老侍下，溫清之省寒暖之在，遽失賢相，其爲缺悵，尤當如何？到此地頭，深自寬抑，仰慰親念，爲正當底道理，仰惟照諒。錫憲，地既不邇，身且侵冗，未由晉慰，情缺禮闕，悲係增深。謹奉狀，不備謹狀。

### 與金熙珪【金安洞。今潭陽郡教育廳管理課長】

先大人捐世在昨冬，而慢慵成病，尙未象筵一哭，禮數之缺，恒用慙愧。荷賢哀不較遠賜，曳衰委訪，感悚沒量。碑役，可見賢哀昆季有意於不泯親善之盛，極爲欽賞。但銘辭之託於不佞，豈非謬計乎？平昔仰慕之地，託名爲榮，用盡愚誠而構呈。然素以拙手，安能有發揮潛光耶？仰惟哀照。

### 與崔金樵善鎮【光山郡大村面良菰里】

送盡長夏，於窮山寂寞之濱，遽聞秋聲入樹，清風拂面，豈慘淡之可悲？庶希故人之迨此惠矣。噦噦一鑿，警搖荒村，果見高駕言枉喜盛眷之有忖度，而慰余病暑之殘喘也。欲道其感蒼，史不足其文儀，奏不足其辯也。坐席未暖，望望言歸，盃勺未浹於無巡，雞黍奚暇於殺烹？瞻望車塵，黯然消魂而已。大抵人事之聚散悲歡，若浮雲

之無定着，非安排可能者然耶？述窩碑文，兄有申申之託，故忘拙搆付于潭陽教育廳，竊想早晚入覽于高眼矣。其疵類處，相聞以切磋如何？非久源源，預用慰欣。

### 答金元錫【靈巖郡西湖面青龍里，元蘆洞】

未奉芝字，五載于茲矣。丰婉風姿，種種依稀阿睹，其奈遠莫致之何？謂外惠函忽墜，慰豁之極，可爲見面之亞也。令先大母吳夫人貞淑之節，曾聞而欽賞者也。今又揭德幽宅，使過者矜式，非嗣承繼述之善，孰能有此？盛門後祿之未艾，因可推也。書晚，未遂晉賀，以是諒之，休咎如何如何？

### 答韓哲洙【長城郡北一面泊山里】

入耳時耗，日尤惱神，安排耐遣不得。今年爲舊國不祀之周甲，故觸感之異有不能自己者歟！自憐涵養，力淺未致，優遊不迫，若之何其？善人之逢，既非輩門之所易，思得好說，而快話一場，庶可忘機，而滌愁煩悶，自遠者久矣。惟老兄垂憐愚踈，頻投珍賤，滿紙繾綣，傷聚散之無常，惜魚鳥之不如眷注之深，溢於言表，燴溫之力，蘊於意中，爲之頌感。蒼然五情便覺爽豁，非好說之浹聆，孰能有此？可想白首窮經，道既浹髓，餘涎之波及於外，爲惠不淺也。秋多吉辰，或可拜晤於俎豆之席，更討未罄底蘊耶？雖不可必，而翹企則深矣。不備謹謝狀。

### 答朴璣鉉【和順郡南面節山里永思齋】

曉兄之沒，晚後一哭象筵，蕪詞致悼惜之意而歸，尚今心焉如愆久矣。余之懵昏也，難得塚中之談，于何叩疑而聞冰釋耶？每逢其門徒，謂曰‘爲賢師弟子其責不輕’，蓋期待之深，故言之至此也。乃者

平昔從遊之契，不欲荒廢，賢友講學之地，詢謀及於不佞。錫也迂拙，雖不足協贊是役，而聞不勝喜如己出，豈不欲翼然？只爲帶任集成祠，秋享在於是月上丁，故有事駿奔，未遂素意。伏惟照亮。

### 與羅承乾【羅州郡文平面五龍里】

錫憲頓首言。先府君奄棄色養後，燧火二改，祥期在邇。仰惟平日孝養之極，猝當巨創，而又此日月不留，將見象筵之掇，其爲痛質，切想有益復如新，遠溘之至，不任忉忉。錫憲，兒孫輩不家食，而身數多奇，昨秋以來病日恒多，難於振刷，喟若之何？擬必奔哭於祥期，仰慰哀體，而帶任武陽集成諸祠有事俎豆，故未遂素意。其於憂戀，悲係增深。謹奉疏替慰，仰惟哀照。謹疏。

### 與柳浩錫【全北高敞郡高敞邑蛛谷里。現住，瑞石洞二四의七】

夏間邂逅於南里追悼會，而因有忽劇，未罄底蘊而別，尙今茹悵。秋氣清爽，兄體綏履，印業日漸繁進否？頌祝之至。弟，守碌爲業，兄亦所知，有何足煩？尊先丈玄谷公碑役，至於竣工，兄可謂能盡力於紹述，此世之所罕覩也。敢不敬頌？承以告期，卽當翼如，而二十日卽吾洪湖南大宗會也。略有幹務，未遂副忱，以書替謝，伏惟尊諒。

### 與金相馨【海南郡溪谷面芳春里】

今秋風詠契會，在於高山之澹對軒，庶幾晤叙，而竟吝尊駕，未挹清範，恨何如之？不見叔度，鄙吝復萌，卽爲我準備語也。秋涼井井，尊體迪吉？嚮溯之至。弟，一味勞碌，無足仰浼者耳。芳春書院享員之望，可感愛眷之厚，敢不駿奔？適以宗事，不得抽身於其間，只切悚仄。茲以仰謝，伏惟尊諒。

與文秉徽【光州市東明洞二區二〇九斗一 三三班。元住，寶城會泉面會寧里】

萍聚而合，蓬飛而分，游轍無常，動增別緒，日積歲薄。卽辰，兄體起居綏迪？瓊詞縷續，錦軸斗大，雪窓松燈，披讀撫思，想有不禁蓼莪之淚矣。仰慰之餘，爲之起欽。弟，才乏繡虎，詞愧附驥，而聞善終嘿，爲惡秉彝，故捕虎歌一闕，系送于北飛鴈足，未知那時翩翩入高軒耶？

與楊德岡柱赫【寶城郡筏橋邑善根橋通】

錫熹白。訃報到門，驚知令郎奄忽違世，深爲惋悼。人生風味，老覺泐寂乾沒，惟以膝下斑衣供歡，爲慰尊慈以八耄之年奄遭此逆理之痛。天之福善，果誰諶斯？其在知薦之末，無辭仰慰，一書遲問，良以此也。日積而漸盈，歲去而益薄，仰想尊慈平日涵養之深，達理知命，不以已然之事作無益之悲，有西河之戒矣。且賢抱四秀，蘭茁玉潤，頭角蘄蘄，餘祿津津，不須詹尹可卜。以是理遣多少愁亂，如何如何？錫熹，曩作京行，留於兒子家，還棲未幾，歲聿其暮，事多紛遯，巴鼻莫尋。奈何奈何？‘何時靜對龍山坐，日誦朱書五六編’，我五代祖石崖先生，入直烏坭時詩，而不肖每誦之，未嘗不念及於此，庸碌未果，嘆如之何？獻發其邇，遠祈循序康旺。不備謹狀。

答宋在檜【光州市東雲洞栗谷】

令堂咸之惠顧，華函隨至，辭意珍重，感戢罔涯。此歲又將盡矣，定省增歡，雪窓松燈，燭溫之工，益造蘊奧，固守歲寒盟，有如亭亭之松柏否？既誦且祝。弟，入京挾望而返，多使故舊之過我者，題鳳而歸。追思款誼，負負實多。先阮丈牲石之銘，託非其人，實難堪當，而淵源世好，抑有難辭，故依狀略加潤色綴去。然意淺文弱。未能

發揮潛光。還切悚仄。如不揮斥，兄須槩括，如何如何？令堂咸，秀朗溫諒，古家法拂，何處得來？愛不欲捨，而未罄底蘊，即日言旋，尙今耿耿耳。仰祈獻發迪吉。謹謝狀。

### 與宋旻鎮【光州市忠孝洞】

頃柱卽旋，未罄底蘊，遙望北雲，種種馳溯。未審，僑體佳相，所業日益，邁進以時，究經不斷，古人三餘之用力否？實所顛望。淺拙，歲暮寒山，百事鞅掌，以率無警爲幸耳。顯刻先阡，欲圖不朽，何等盛事必也。得韓愈之文真卿之筆以後，中情可洽，叨以淵源世好，敢泚弱筆，使孝子之心，得無欲然乎否？艸付于令堂阮兄案下，賢試一讀而付丙，更擇良手，如何如何？不備謹狀。

### 與金丙洙【高敞郡高敞邑道山里】

錫憲頓首言。先大人普亭居士世兄，遽行帝鄉，頃接訃報，不勝驚怛。溯淵源之世好，憶金蘭之舊誼，益抱巨卿之慟。人生泡幻，誰不其然？以若先大人，朗度冲襟，領湖山之逸趣，尋松菊之閒盟，可卜期頤，詎料昨秋分手晚睡堂前，卽爲未稀前永訣耶？仰惟性篤天親，聿修孝行，猝膺大故，撫手澤而傷懷，思音容而雪涕，中心所發，必有萬難自己者矣。竊謂先大人，高標鸞停，清姿玉立。襲晦庭詩禮，爲蘆門私淑。德超通藝，文章書畫，與韓顏吳異代并驅。域內之士，咸推服焉，而莫不以不得，晷時大用，展其蘊抱，嚙咄而惜之。不食有報，宜後祿之未艾矣。與其徑情毀戚，曷若遵禮節抑仰答平日止慈之念爲得乎？錫憲，叨荷至愛書啓愚衷記墳陋楣瞻餘痕，而興慙不敢慰以浮辭。惟冀體先大人未了之志，盡人子繼善之道，如何如何？哀兄必有處之矣。執紼從壙，已往難追，漬綿哭筵，期不踰歲，以孫兒委禽于海南閔門，在念四日，凡事鞅掌，有志未就，悲悵卽深。推以明春一赴，以紙面替慰，仰惟哀照。不備謹疏。

### 與梁甲洙【長城郡黃龍面筆巖里】

錫憲頓首言。承訃周歲，一味奔慰，而山中尚有舊曆，知先大人常期在邇。日月迅駟，不爲孝子家少留，奈何奈何？仰惟孝思根天，而又見改火，思音容而若存若亡，如聞如在。如新之痛，想應罔涯，種種馳溯不任。錫憲，揆以朋情，當攀紼從山，而道遠訃晚，既未能焉。常期一哭，平日之所夙筭矣。孫兒婚日在近，末由遂意。其於憂戀，只增悲悵。惟冀常事順成，哀體支安。以書替慰，不備謹疏。

### 與徐相坤【鳳凰面鉄川內洞】

錫憲頓首拜言。先大人奄違色養，驚怛不能已已。昨歲承訃時，爲見二挽抱入京，滯旬，故未遂攀紼，厥後冗務緒亂，尙晚奔哭象筵。於焉歲匝，練期只隔數宵，烏兔丸轉，不爲孝子少留，果如是不乎？伏惟孝心純至，而見此燧改，其爲痛靄，尤當如新矣。然而徑情傷生，聖人所戒，節抑哀痛，禮制有文，伏願強加疏食，無至繭梅藥藥，如何如何？錫憲，揆以情禮，不可不趁常期而哭象筵，庶贖前日逋慢之過，故夙所銘心者，適以孫兒委禽在念四日，凡百關念，末由遂忱。其於憂戀，無任遠誠。茲謹奉疏替慰，惟祈常事順行，起居支勝。伏惟鑑察。

### 與安重泰【鳳凰面鳳洞】

錫憲頓首。先夫人奄違色養，承訃驚愕，不能已已。疇昔雖聞愆報，意謂以若先夫人積慶之報，暨哀兄左右服勤之誠，亟筮妄五，克享期頤之壽，孰知禍福無常，使哀兄遽膺大故耶？日月不留，遽爾踰月，歲又將暮，哀體何以支過？若徑情滅性，節哀循禮，平日讀書，曾有商量者矣。勿犯聖人之戒，如何如何？錫憲，往月念間，承安杯山

龍伯儒會之報，念一日入光，翌日參會，再明還柩，訃自郵到，而已經權葬矣。擬以歲內必一奔慰，兒孫輩婚說，連月支離，孫兒婚事，定于海南閔氏門，雁朝在念四日。凡百關心，末由遂意，其於憂戀，悲係增深。謹封疏替慰，仰惟哀諒。不備疏上。

### 答李潤憲【慶北安東郡陶山面土溪洞，承旨李響山晚燾曾孫】

豐山洪錫憲拜覆。嗚呼！前韓庚戌九月八日，響山先生李承宣公，殉義於再從孫綱斂草舍。松沙奇先生銘其牲石，曰退翁有孫響山克肖，曰非堯不陳幾於王道，曰一死扶倫窮天亘萬，曰求仁得仁而又何怨，發揮無蘊。司馬氏所謂‘得知德而名愈彰者’非歟？銘成之日，我先君子石川公，適侍函席，得詳終始，故膽而歸之，使少子輩誦之。蓋激勵愚駭之庭訓也。少子輩，愛而不忘，殆六十稔矣。今歲何歲？言念封豕食國，而諸賢殉義，追慕景仰，未嘗不百倍，於先生及我族叔錦山公範植者，得非二公從容就義，有合於道及夫狃聞庭趨之致歟？竊想尊座，以血禪肖裔，此時興感奮激，尤非他日餘人之可埒，而載具豐碑，顯刻大文，使之忠節百世不朽，實爲斯世斯道之幸，可慰先生忠魂毅魄於九原也。凡有血氣者聞知，孰不欲駿奔於芻奠之列？顧如錫憲，居僻道遠，通告差晚，末由遂忱。一書鳴謝，亦以病卧稽緩，悚仄悚仄。讎歲幾盡矣，伏願尊體動止萬加珍齋，樂道蓄德，尤光家法，以幸斯道。曾無御李，而翮縷至此。聲氣之孚，有不能自已也。伏惟尊諒。宜村洞華宗源裕氏，卽英祖己卯司馬諱世述之七代孫，而僕五代祖文科承旨石崖先生諱鳳周，與世述公，爲司馬同年之親。世代雖遠，後孫不可不重講舊誼，而忙未修候，此意轉致，如何如何？圓臺兄，曾有一書一面之雅，而已作千古，痛矣痛矣！其僉允皆無雅分，故聞報卽後構挽而付于東恩氏矣。未見惠覆，可知其喬沈也。

### 答南廷讚【晉州鄉校】

謹覆。東鄰嘗瞻伺隙，明如目睹，而舊社邱墟，曾在此歲，悵舊警新。志士之敵愾，何嘗暫弛于中？思作忠壯諸公，外而禦侮，內而敷策，凡在吾人，孰無是心？況僉尊生長老於兵甲血川之地，忠憤義激，觸處奮發，有非他地人可比。其於內修外攘，講之有素矣。今爲農圃鄭忠毅公建祠，而詢謀遠近，其非修攘中一端事耶？其爲興起人人之義膽，惟在於入室如聞，拂鐵衣鳴義鼓，思一朝有事，勇進直前，不負先烈也。僕雖在殊方，寤寐于中久矣。今聞此舉喜若己出，惟願僉尊亟圖縉儀，與彰烈忠愍諸祠，并爲崢嶸，以幸斯世。千萬千萬。

### 與鄭九錫【慶南晉陽郡二班城面龍巖里】

僕嘗一到晉州，酌南江之水，吊先烈諸公。歸而思之，曰晉陽卽吾民臥薪嘗膽之念百世不泯之地也。今聞僉尊又營農圃鄭忠毅公祠宇，適在茲土，一是同時忠烈靈英陟降洋洋如在之地，一是後孫氣脈百世相通之鄉。其於奮發後人之義膽，更添一宜亟圖縉儀，豈非斯世之大幸耶？

### 與朴熙泰【光山郡西倉面梅月里】

歲新而猶寒，哀體起居支勝否？區區念之靡懈。錫憲，又添一齒，去稀不遠，而無成無聞。益切窮廬之嘆，自憐奈何？懷齋先生遺墟碑役，斯文大事，後學均是有責，而惟賢哀勑議始事，亟見告功，羹墻亦衷，令人起敬。其於振起頹靡儒風，與有力焉，爲世道幸甚。豎碑告由，文 依教構呈，與碑役所僉尊君子，商論入用，如何？

## 與金春園源益

頃枉弊庄，既未穩叙，向於光館，又是電分。其責居誰？一則弟也，二則弟也。會席纔畢，閱兄泳輅，命車而待，要以同行信宿，故忽忽而發。與多少朋故遂闕拚錢，想兄亦不無致異於弟矣。弟，孫婦于歸，既在歲內，牖下尸奠，得齊季女。歲換而四曙，又得一孫男，私家之幸也。所託文券，非但草畫之亂，略間用吏胥之文，非吾儒家之狃於日用者，故往往有難解，此亦學未博之致也。言之何若？然盛教難孤，力解正寫而呈。更提于博雅君子，正謬補闕可也。高韻追次，仰助一晒，不惜郢斤，豈非垂憐之仁耶？

## 與金碧農相晉

賢人之枉，何時非蓬圭之光？而況適際於方治孫兒婚行，其爲私門禎祥，不須詹尹可卜。德惠曷既？但令忽忽而發，未暇鷄黍之餉，其於待賓之道，此何人斯？那當更爲惠然而一夜讀十年書，使弟庶贖湔劣之過耶？是所翹企難已者也。光館記演席，奉晤仙鄉諸賢，獲承尊體以執耳詞壇，故未遂聯鞭，歸路逢族姪起澤君，得詳歲內枉時紆路歷訪族姪起膺於東歷。風稜之清楚，心誼之款洽慈詳，令人興艷。上元佳節，望月踏橋，誰誰共歡良宵逸與否？勝友如雲，濟濟在傍，應不虛送此夜矣。遙馳健羨。弟，初迎孫婦，又得孫男，在歲內外，而以日則浹旬也。獻發習吉，私門爲幸耳。惠賜瓊韻，追和此緩，而味同木瓜，厚施薄報，其於禮何？一粲之餘，勿斲斲，何幸如之？

## 與邊敬仲時淵

孟子曰，‘余豈好辯哉？不得已也。’不得已而言，言無不當於理。不知者猶稱好辯，況言不當理而紛失倫脊？雖蔑知童稚，猶不肯俛

首聽從。況言平日讀書窮理之士乎？今番記演，已是或疑選采，而演士之自京二人者，又皆具名而已略不講，究演題頭緒，雜老莊佛蘇而傴胝，使聽衆至於發愠而艷說，名爲儒道而劈頭一會，未免自侮，其何以聳衆聽而動之一變道乎？向非李乙浩之略略綴去，幾不免中途散會矣。所謂‘言不中理，不如無言’，不幸而近之。喟若之何？嘗聞之，人不忠信，事皆無實。爲惡則易爲，善則難使。此無實人輩司業，其何不胥溺於無父無君之域乎？苟能揆之，以刎頸決腹，非勇也；膝行匍匐，非恭也；重然復諾，非信也，則所謂忠信，其非自中發而無違乎外者耶？耳之所激而形於辭者，自不覺煩支。奉呵奉呵。倘諒燭否？同病相憐，應有同感矣。錫憲，會席逢閔泳輅世兄，要信宿談叙，纔出門命車而待，故未遂。多少知舊之拚別而行，竟宵穩討，翌而還棲耳。吉人之臨爲瑞陋室禮順成，而孫婦賢又得一孫男於第三兒，在歲內外而計日以旬，感荷之極，而萍合蓬分，向缺謝辭。今追書鳴兼和韻而呈，投瓊報瓜，人雖怨之，豈不忸然乎？

### 答高省窩在益【長城郡黃龍面月坪里】

冷落窮山，故人之馳書祈歲，不止一二，而豈有如兄之憂道憂世深且遠矣，愛人愛物欵且洽者乎？僕，闖茸也，其濫道則固有不當當者，而聞言推心，其情之戚，則可知也。同舟遇風，可訴者非舟中之人耶？天不盡剝，必有登岸之日，而弛張柁綽。順乎逆而候乎平，亦惟曰吾心而已。知此而去，則作者七人，人雖不詳，誰某亦何傷乎？吾等若干人，其才地則雖不及漢晉文士，東京之八俊，南朝之八達，則有羞與稱焉。況批風擺月抽青媿白者乎？然則其所以悼莊普者，非以有趙孟之貴也，非以有陶猗之富也，非以有髡衍之辯也，非以有馬潘之文也，非以有李杜之詞也。只爲其心不負所學，雖不大聲色，而隱然有衛補斯文之力也。其所以悼之者無亦自悼者乎？頃於光館記演席上，一二人自謂發揮，先哲之道學雜老莊佛蘇之說，如

汨董飯。使座中宗孔氏之輩，掩耳而不欲聞。彼俱在司業之地，而以此教人能免得罪於孔氏之門乎？若李乙浩則稍勝，而以問禮老子詭辯眩惑，痛矣痛矣！想兄亦同此恨也。不尊不信，吾等設欲辯之，彼必支援雜書而證之矣。世道至此，奈何奈何？欲寡過而未能，伯玉可柯則也。惟冀交勉，共守寒盟。

### 答鄭祖憲【忠北陰城郡全旺面道晴里】

昨歲荷執事寄丹祝年，蒼白夫妻，無恙而添一齒。七子十孫，懋學善茁，又迎賢孫婦於臘念五，尸奠牖下。是歲也，封豕食國之周甲，可謂饑年，而私門多慶，執事善頌之惠也。既多感鏤，又此丹祝，揆分伊濫，獻發四朝，且得一孫，慶自春肇，敢忘盛貺。仍以揣度仁術之及於遠近，卜天子宰相，不能卜天下良醫者，執事又其人也。抑是爲餘事，而詩禮家風，孝弟心法，推爲溫恭慈愛，惠人濟物之量，可知先王考一玉公遺謨之厚有不可誣矣。誦其詩讀其書，尙欲友千古之人，況生并一世而未接賢人之芝宇？雖朝暮遇者存，曷不冲黯？如不遐棄，紙墨替申源源如何？盛什洩渤和呈，一粲而擲之塵堆，望望耳。

### 與金樊溪潤東【서울特別市彌阿洞八】

客歲復令，出外經旬而還，見金君昌憲歸自高軒，傳致尊先祖澤齋【名昌立，文谷文忠公壽恒六子】·華棲【吏曹判書，文簡公】，兩世文集四冊于塵案而去。薇盥圭復，并是文章家之遺集，而先世誌挽之攸載。非執事汎愛之仁，安有復講數百年世好於千里之外，若朝暮而咫尺欲引而置之故舊之末哉？雖錫百朋，莫比爲珍。卽擬趨拜謝賜講舊臺臺，身罹採薪，繼而有孫兒婚事，齋誠未就，一書問候，亦因致稽緩。中心惶蹙，已多難追，安敢望執事不厚誅耶？竊念先王化遯，華山漢水，亦非復昔日光景久矣。喬木世家，不替箕裘，足爲

後生之法者幾稀。惟執事負薪之念，罔敢少懈於倦勤之年，守己渥潔，爲世表臬，述先明信，備史氏之採攷，若使早晏甌宇廓清有意制作者出，則必來取法，此不徒一家之幸也。其於東人之福，果何如哉？柏悅之地，攢手貢賀。如錫憲之闡茸，非不嚮慕於安仁家風，而病於慵習，坐於瑣務，往年僅刊行，酒隱石崖南崖三世先集，而先考石川公遺稿，尙未免巾衍之藏。每見繼述之善如執事者，輒起敬式繼之以汗流而沾背而發吁也。期於春晚，趨拜爲計，未間道候珍齋，以副遠祝。

### 與鄭逸齋泓采【高敞郡高敞邑月山里】

頃於光城朴兄便轉聞，令尹曠省之餘，事有多端於料外，倚閭之望，轉致惟疾之憂業，擬以數字仰慰矣。身既不健，且有孫婚未果，而奄見歲新春殷，遙望沖黯，與日俱深。惠風漸融，無物不伸，道候益泰？令尹學力攸孚素履無跲？想筮困亨謙益而有動忍增益之得矣。貢慰之餘，繼切顛禱。介川誌欽齋集兩書，俱是兄用盡精力而湊成全璧，可傳於百千者也。并荷頰惠尊閣枯梧以時擊讀，夙昔昏墊，庶可賴而醫三分。先賢長者嘉惠之澤，非吾兄不遺故舊之洪度，從孰而獲聞乎？欣豁之深，感鏤隨切。昨歲何凶，多奪仁智，莊軒普亭相繼遠別。吾林蕭條，善與適從，幸有兄與雲沙兄，道亨樂泰，巋然於頽靡之中，吾黨之榮也，斯文之福也。道候珍齋，遐躋頤期，副此懇禱。

### 與金在植

仲春尙寒，旬宣氣體候康寧？伏頌區區。愚生，率育無警，私分之幸也。再昨秋及昨歲春秋，筆巖書院與高山書院享辰，獲拜檐帷，暫住溫溫和洽之風，醇醇切懇之諭，薰沐之深，令人感銘于心。非閣下宣化之洪作士之盛，何以得此？固當一趨棠軒，拜謝眷厚，而踪地微渺，非有公事而出入官府，有損於禮，故尙今不敢焉者也。倘鑑

微衷而下怨否？仍念樗櫟之質，甘作寒山之蟄，而耿耿一念，猶留於保存先祖數百年文化遺蹟，故敢此下記仰稟。今該下執事考查，而上申于文公部，使此地方文化財，不至湮沒于千百世，千萬千萬。

### 與南岡族大父祐相【羅州鄉校】

朴兄便，謹承啓居寧吉，實叶顯禱。族孫，自春以來，寧日常少，蔑學之致，喟若之何？谿礪祠復建，曾所傾耳，而縛禮之成，又在不遠云，述古尚德，亦振作衰世之一助也。仰賀仰賀。錦隱公奉安告文，五代祖考石崖先生所製，而載在石崖集，故鈔呈，今番奉安文作成時，參據俾無且吾如何？自筆巖書院，有參禮之請，方謨登程。餘萬不備，謹上狀。

### 與朴晚醒仁圭【羅州細枝面豐洞】

別後夜二紫，而清明在邇，折鶻花插岩隙，酌碧澗而祭子推，溯千古之廉。炎和東風而飛于宇內，使貪夫俊惕焉。一年佳節，非是之謂耶？忙中求閑，兄我一般，而谿礪祠禮成告文，託非其人，固不敢下筆者只爲兄，忙又忙忙小叙。客擾中，燈火艱草而呈，與栗山兄商確，文義櫟括，入用如何？

### 與朴弘軒南圭【光山郡河南面安清里】

詩書盈案，桑梓繞宅，衣冠秩秩，談笑軒軒，便是能世古家之模楷。堂構播獲，不棄不菑。尊家風誼，誠不可當者也。每於造門承誨，講禮評史亶亶，至於傾膽吐肚，飽薰之極，實切不欲遽去之心。然別多會少，古今友情之所共咄嘆者也。此生緣薄，亦安得長爲鷓鴣於仁德之隣乎？退覺胸茅，復長寤寐，前日之團欒，望雲悠然而已。所託文字，以紹述先美之仁致鄭重，於樗櫟不材，在兄固是失託，而

不敢不露拙仰副盛眷於世好之地，亦弟之情私也。尊領如何？今發玉川武陽院，爲參蘆松兩翁妥享之禮也。六日歸嫁，明朝以宗事抵京，似費時月之力。浮生奔走，何日妥帖溫燭聖賢書於未死前耶？爲祝道況佳崇。

### 與金昌憲在權【光州市農成洞一九六三班】

莊軒遺稿刊行，在後沙石，不得不任其責者，故歷三春初夏于刊所矣。功未訖，而以宗事，連促京行電話絡繹，不得已五月初八入京，經旬歸以農劇，今明又將京發，久留計矣。頃訪樊溪蒼崖元季兄，半日叙舊之際，蒼崖云，‘盛教亭記，姑未送去，於心未安，如梗在喉。但未詳其原委，又不可遽構者也。以此意傳，奇望奇望’云。望須照亮，而明記亭主亭景亭名之意亭成之年，書送于蒼崖兄，如何？數日前，自全南日報社，有招請，故與李春田·李玄菴·乙浩·邊汕巖時淵，同參會議，因欲訪仙庄穩叙矣。桃實已黃，使漁子舟迷失武陵路，未果。好笑好笑。

### 與奇玉潭寬【全州市高士洞二街三一四】

武陽禮席，南北多士濟濟駿奔。先生之道，不與世衰，而隨替亦一兆也。從茲以往，吾儕益胥勉于道，常欲置身於寡過之地，則即見周于德者邪世不能亂也。豈不是綽如者乎？莊軒云亡，終鮮對討，叵耐泔寂，及赴此席，幸得與高明相隨，數日折旋于樽俎之間。感念之至，不無瞿瞿之戒，故敢此書，及於期愛之地。竊想賢亦有同感矣。戚下，與賢相分之再明日，以宗事，爲客于京，農劇歸家，今明又將入京，其間旅屑有不可狀耳。莊軒遺稿，諸家禮扶方續至，待秋入刊，似勝於早，故日前與永鳳兄相約，以此并爲諒燭，如何？

### 與金月潭載石【全州市南老松洞一八〇의八】

昨冬，舍伯歷候而歸，獲審體候久愆向蘇，固知其攝養有道榮衛正確，二豎子不敢不退聽於遠外矣。頃於玉州武陽祠禮成日，聞全州士友所告，則道體復有愆和，不便於動止。詎意蠢豎敢乘隆邳之年再舉來侵耶？驚駭之至。厥後日多，應筮妄五之吉矣。貢慮之餘，繼以頌禱。少弟，居既稍間，而冗逕相尋，既未躬造含蓼之間，一書探候且晚。于今孰曰故舊之道而有此乎？赧汗赧汗。惟祝道候連爲享康。

### 答姜菊史璘【全州市多佳洞一街六〇의二】

武院享儀之初，凡百綢繆，用盡心力，羹墻之誠，堂構之勤，令人感歎。惟於始事之日，廣詢博考，使廟宇制度，不違於古禮然後，體貌儼奕而尊於瞻聆，先賢英靈當右而享之。竊想，以此寤寐於昕夕，與院任諸賢，圖其允臧矣。區區祈願之至。承惠書，竹君楮生，鎮清風而隨至，俾醫飲暑之喘，故人之惠我至矣。良感難釋。弟，自玉川還，以家事，再明發京行，農劇而歸。秧事既畢，方又營入京久住計，而昨自全南日報社有招請，故往參於湖南人物推薦之席，費數日力，姑未上程，而霖雨連延，使人愁亂。不備謹謝。

### 答崔春江日錫

留京月強，歸拂塵案，魚雁成隊，而爲先拭青者，兄之華翰也。仰想，懸弧匝於食奠，萊衣舞于萱堂，紫馳峯前沆瀣若海，妻舉齊眉之案，兒祝如山之觴，缺陷世界，別成一區福地。而此生緣薄，未能隨衆賓歌南飛鶴笛，既往難追，只自目聘南，而吞乾涎而已。然不可以後期而無一言之祝，故胡草數行而呈，俯賜照亮，如何？

## 答尹藍亭奇赫

省式白。賢閣違世 遽爾序改，尙晚趨慰，其於憂想，無任下誠。而竹樹之會，萍合電分，又是謂外，言念欠禮，愧悶罔措。崑書出於不較之弘，而巧值辰洛，月強稽謝，尤悚。清界元無酷吏之侵，紅爐熱火，想亦無何於砥江之干矣。推認消夏之善而對秋增吉，慰誦慰誦。庠宮之會，濯亭之遊，吾鄉盛事，塵世仙緣，而前以湖南人物監修員，見速於全南日報社，後以吾洪誌狀錄編校，爲客于京探求堂，并皆未赴。不待網花，而使漁子舟，迷失武陵洞口，亦化翁慳仙緣于俗客，客一方也，見墮術中，自憐愚駭而已。海揚洶波，屏息鯨鯢，復夢蜿蜒踴躍，可謂東土危急存亡之秋，而申吳行行不恤，人言釀成平地風波，孰不爲之？戚然一嘆。且毀栗翁廟，移潘溪墓，而官視尙恕，士窮無策，垂乎發唱，胡爲乎觀斯世未見斯道之泰耶？吾輩逢場，不容無此等說話，故翹縷紙尾，以替晤叙。伏惟尊照。

## 與金蒼崖舜東【서울特別市彌阿洞八의二】

秋氣爽涼，伏惟調候庸時快蘇，填箎唱和，鞞牀湛翁，尤篤邁征否？椿津高風，孰不欽艷？若算於千載之下，則指不再屈於執事伯仲氏之風範矣。向者拜候，觀感而悅，健羨之至，故區區不已慰賀之忱。世下弟，近擬趨拜，以室憂未果，瞻言北斗，忡黯則深矣。先人墓文，鄭重之諾，出於講先而憐賤悰也。何等感戢？文如乃成，電話通奇于里門洞家兒處，則兒當趨候奉頷矣。伏惟照亮。

## 與族姪起薰【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10의1, 探求堂】

乍會旋別，復始落落涯角，曷不馳懷乎？秋色漸高，定省增休，湛翁聯吉？錫禹從哀體支將？并爲攢誦。族拙，無撓還鄉，率平爲幸耳。向爲參列於成均館釋奠大祭，故期必晦內入京，達山記未暇下

手，歸卽草呈，而中間引用李參判事實，夏間，閱慕堂年譜時，鈔出而引用也。爲其有合於達山也。餘冀諒在。

### 與高省菴濟杰【長城郡森溪面綾城里】

投轄無井，高駕促發，遙望車土亭，從自悵憫而已。窃想利稅而靖中起居謚勝矣。遠外慰誦。尊先令節，非闖茸堪可泚筆，而難孤盛教，率爾草呈。如不揮棄而入用，更與良手潤刪，若何？方發京行，恩恩不備，謹狀上。

### 與邊白下東烈【長城郡北一面聖德里】

空踈迂愚，不售於時者久矣。高明俊傑，孰肯與我？幸有二三良朋，不較之眷，切磋琢磨，開我添腸，而兄其一也。不得源源，勢也無奈，而筆院晤叙，鄙吝之萌庶幾刊落，感鑄次肺。分後卽又佳節，稻黍香矣，果蓏熟矣。蒸畀受釐，率兒孫上塚，不無怵悽之感，而石逕歸路，間間紅葉，飄商颺而棲巾裾，可知一年好天氣最於仲秋，邇來清興想欲遄飛矣。忖頌曷既？尊先墓文，方今司業，大學負地，與辭者如麻，而謬謀於蓬圭微蔑，兄可云愛而不知惡也。重違勤教，僅僅構呈，筆弱少發揮，覽後揮棄，更求良手如何？

### 與金鍾燮【全州市南老松洞一八〇의八】

錫憲頓首拜言。先大人月潭居士世兄，奄棄色養在去六月，而久滯京館，秋令歸家，晚始見訃，尤不勝驚怛之至。在後沙石踽涼，孰從？以若先大人豪宕之風，忠厚之德，雄偉之文，貞以立志，和以養氣，頤壽可期，豈謂數年前玉振堂一別爲千古之永訣耶？厥後以書替面，自然堂公同泮錄，及司馬榜目，鄙兄挽詞，依教鈔呈，亟賜覆書，瀉盡感僕。早晚一枉弊庄爲約矣，噦噦之聲，不入衡泌，終焉欺

我，萬事已矣。仰惟孝思罔極，而猝膺巨創，若聞無聞，傷聲音之永闕，如在靡在涕，儀容之依依，積哀之發於中情，必有萬難自己者矣。然與其徑情滅性，孰若節哀含痛，俯循聖人之制，仰副先大人止慈之念爲得乎？錫憲，一是孤味，晚得與先大人交，溯講七世先誼，眷愛如旧，悵今撫古，不敢以例語仰慰。鬮縷至此，惟冀盡繼善之道，如何如何？哀兄必有處之矣。漬綿哭筵，情然禮爾，而身絆豐山世蹟之役，早晏難必，姑以疏日替慰。仰惟哀照，不備謹疏。

辛亥八月二十二日。

### 答鄭乾永【서울市永登浦區禿山洞一四六의三】

芹宮邂逅，荊願得遂，誠出奇幸，而未罄底蘊，旋別卽悵矣。華函郵到，副以先集，儘覺君子愛人以誠，一諾之重於千金，若季布之於梁楚間也。敢不拜仁厚信義之迥出等夷乎？謾被煩冗，謝覆稽緩，方頌不敏之際，荐垂盛訊，感頌之極，愧亦難逃。方今強隣，伺隙詐巧，百出狡黠，如命壽而必欲相時射利者，不知爲幾許人。安得講明先生大義於今日，使之慙然而悔惕然而悛乎？來月晦間，京行擬晉叙，而來頭事亦何可必也？不備謹謝上。

### 與朴奉洙【務安郡玄慶面牟村里】

栗烈之令，虛濘其日，遠辱委訪於衡泌闕寂之中。不遐可鑄，爲車便促，未罄底蘊，言旋征鞭，恍然如有失，尙今遙望西天雲端，禺晷靡懈。獻發益暇，究經入奧，是頌是祈。錫憲，枵然湔浼，而漫添一齒，可歎者，年有進而業愈退也。尊先墓文，連以客擾，無暇於討穩思索，逐晨夜，董董綴去。其於發揮潛德，不足爲有無，覽後揮斥，更求良手如何？不備謹狀。

### 與奇字亨【光州市山水二洞三十一班四〇斗六七，柳禧錫方】

昔年奉晤於長城高山，愷悌風儀，令人可欽。匪意委顧，更對討穩，何感如之？謹詢，嚮者征鞭利稅，大都枚迪？馳溯憧憧。弟，日事客擾，儘覺煩惱耳。尊先阡銘，以擇居爲主書，其處仁之德，倘無爽實，則僅可入用耶？崇仁齋記，別有所感中叙，不信東來諸說而辨明之，於盛意以爲如何？二書付送，尊照後，如有未穩處，更爲相通，切企耳。不備謹狀。

### 答宋肯齋孝燮【高興郡東江面馬輪里】

昨秋枉顧，仰感眷愛之厚，坐席未暖，而因先事，俱行錦校，無乃蔀屋薄清緣致令仙館慳住耶？錦館一宵話，未足以償其薪悵，別歸獨坐，惘然如有失。未幾獲拜，華宗海觀老兄於瑞岡祠講會，槩探安節，稍慰餘懷。齋洞院事，承審通本，安仁家風，令人欽頌。【忠剛公實記，尊閣塵案時時奉覽，有以振作義氣于千載之下，忠節之爲後人補誠不些矣。】新歲一書，正是亞面，況審省餘服體綏嘉？允副詹祝。弟，客歲小春之令，齋先世誌狀錄，自京還巢，日事觚墨，稍勝於旅窓羈蹤，而憊茶則甚。宗事有責，不敢言勞，奈何奈何？且客臘月，移居里東，正月之晦，營行先妣緬葬，地吉與否，雖不可判，而其於考妣合窆，稍爲慰安冥靈矣。吾儕垂白，相對先進丈德，已見次第徂謝，講劑切磋，惟朋儔是資，而疇昔兄事肩隨之益，皆棄我先逝，在數年之內者，莊軒月潭雲江述菴也。其少於我而先逝，則朴石泉是已，此皆膠漆之契，蓬麻之資，而遽然千古，山水之音，何處可聞？竊想吾兄應同此歎也。願兄，以相愛相憐之意，無舍音其音，以爲相資相慰之計，如何？駱山詩稿跋，兄既有教，誼有不敢辭者，故率爾綴去，合用與否，惟在明諒耳。

### 與柳承烈【全北金堤郡孔德面黃山里一〇六〇】

奉先王考遺稿，遠道委訪，責以閱校，意真誠勤，可欽善述之風誼。雖不敢苦辭爲副盛教，然東里行人之責，非淺陋可堪。更爲款請於高眼再閱後入印，如何如何？光城之行，未可必其早晏，故碣銘郵送，領納仰望耳。惟祈靖體湛翁加綏。謹狀。

### 與李青岡浩呈【光州市弓洞三六】

迂愚空疎，不足有無於世，而兼以懶習成性，繁冗爲生。昨秋武陽之會，見滯京館，未遂聯榻承誨，兄不遠我，而我自遠矣。愧何如之？郵人入門，恭受先集之貺，顧此何修，而獲盛惠於尊兄不較之洪愛之仁，感感僕僕。窃念尊兄八耄邵齡，耿耿一念，惟是述先裕後，就文清先生行錄，而逐節摭要，立條分目，解以國文，雖童稚愚駘，一過目俾能丁丁易曉。內爲尊門之寶鑑，外作社會之要訓，孰謂，數十年宦海昇沈之餘，精力尙強，而做出好事業，嘉惠後來，如是之盛耶？文清在天之靈，必曰予有後不棄基矣。王子安所云，‘君子安貧，達人知命，窮益堅，老益壯’，其尊兄之謂歟！頌賀千萬。昔讀尤翁所爲狀，‘先生經綸，德業文章，嚴毅清白，聞而羹墻有日矣’，茲者珍閱，又有感幸之私。吾先祖壺隱公諱民彥，生于嘉靖丁酉，少先生七十歲，而宣廟朝，以邃學至孝，登薦，歷寢郎奉事，至司僕寺主簿。除授年月，雖不可詳揆，以時代，似在先生銓長時，其受知於先生可推也。吾族乃延安氏之宅相也。二十代祖大提學公諱侑，卽詹事公諱襲洪之孫，版圖判書諱景茂之女壻，大提學公之女壻，是文忠公李益齋齊賢之伯允，宗簿副令瑞種也，而尊先祖延陽府院君文昌公諱係孫，爲益齊之女壻，則當時戚姻之誼，鵷班之親，又非他人比也，審矣。雖百世通家，孰曰不可尊兄之愛我無斃，或者出於先靈之冥徵者非歟？少弟，枵腹柳質，而猥擔全宗誌狀譯解之責，年已周矣。不數日營作京行，故未遂晉謝，姑以書替呈。多少，當於造拜穩討，不備，謹狀上。

## 與鄭九錫【慶南晉陽郡二班城面龍巖里】

晉陽士林，營建忠毅公鄭農圃先生祠宇，僕曾已承書。悅其爲振起衰世之義膽忠肝，仰覆以贊襄之意。名鄉士風，誠勤獎忠，不日亟成。縛儀肇行於昨秋九月令辰，而僕方以宗事，羈旅京館，未參駿奔之列，晚始到家而見通告，故亦闕書謝。方頌不敏之際，忽承先生遺集之惠貺，盥薇奉閱，益聞所不聞有以盡。先生之忠節文章，後生蔑學榮莫榮焉。方今島蠹狡黠，二三其德，必使駐筭之，使擢黃公允吉之明，秉橐政府者，早能燭卓然元均夢鶴之構捏，養成材器然後，忠毅忠武忠壯不世之智勇，可以輩出，而使凶賊縮首戢翎而不敢肆猾也。讀是集，而尤不勝區區之望於是日也。附錄中，海東名將傳及臨溟大捷碑，僕從七代祖太史文獻公耳溪諱良浩所攢也。燭龍書堂贈諸生詩，僕從十一代祖進文禮議泛翁諱柱國所著，而泛翁之孫，卽文科禮參號歸谷諱重一，其考曰進文持平臨湖諱萬迪也。其次，泛翁詩題書以敬次先生考者，生是王字之誤也。以是詳告于尊先集分帙諸家，釐訂如何？其下聖輔，僕從八代祖諱而號三省窩官進文大司諫也。今於尊先集中，奉讀先宗丈四世文與詩，尤不勝感幸之至。錫憲，方以吾洪誌狀錄編纂，在京多於在鄉，凡百煩冗，未能討暇晉拜仰挹高儀，生并一世，只切嚮慕。姑以書替謝，不備謹狀。

## 答河炳列【晉州鄉校】

客歲秋令，辱賜惠函，教以農圃鄭忠毅公祠成妥享之儀，僕以宗事，時適在京，未能赴列獲觀縛儀，孤負盛眷之勤，姑未一字受謝，又是悚切。匪意農圃令仍九錫氏，頰貺以其先集一帙，感愧并摯。況於附錄中奉讀吾從先祖禮曹參議泛翁諱柱國·禮曹參判歸谷諱重一·大司諫三省窩諱聖輔·太史文獻公耳溪諱良浩，四世詩與文，蔑學菲生，亦興有榮焉。但歸谷爲泛翁之孫，而詩題書以先生考，則生字

明是王字之誤也。伏願尊諒，而自祠中通告于分帙諸家，俾爲釐訂如何？今纔追謝，而覩縷至此，伏惟恕諒。

### 答李亨雨【光州市斗巖洞】

仲春猶寒，尊體萬休？仰頌仰頌。尊先祖忠章公文集再刊一帙三冊，遠存惠送，薇盃圭復，有以盡其文章之贍，王事靡盬之誠，四方尊對之能，百世之下，不禁景慕之私。從而仰欽，安仁家風，世久益篤也。禮當晉謝，而方以宗中有誌狀錄編纂及翻譯之責，在京多於鄉，凡百煩遑，齋意未遂。仰惟恕諒。

### 答崔敬堂允煥【光山郡大村面泥場里】

相距非遐，源源講討，中心如蜜，而懶與爲隣，煩與爲生，未暇抖擻。每念孤陋，只增愧慙。春事方殷，道況益佳？誦切誦切。蘭谷兄遽作千古，墓草已宿，而姑未漬綿之行。揆以昔日相從之誼，辜負實多。惟兄篤於睦婣，獨賢乎編校其遺文，而其門徒等又能亟刊，此非衰世易覲之事，爲之艷誦。遠存惠寄，一番讀過，依稀故人典型，幽明之感，更覺叵耐。弟，以宗中誌狀錄編纂翻譯，久旅京館，而在家日少，煩憫奈何？不備，謹狀上。

### 答文忠祠儒會【大田市龍雲洞三五六，社團法人文忠祠】

伏惟春殷尊體增祉？遠外頌祝。錫熹，往年參於普文山文忠祠朔建奉安禮席，猥參樽俎之列。移建後尚未奉審，緇衣誠薄，此可推也，而以其納名于宗淵契，故遠垂惠告，感與悚摯。維持方針，惟在在傍諸賢曾有經歷者，苦心措劃之，如何？而荷此遠間僉尊之臨事謹慎周詳，敢不拜頌？不備謹狀。

### 與崔炳德【光山郡林谷面芳惠里】

錫憲頓首再拜言。先夫人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不爲孝子留，常期奄迫，其爲痛苦摧廓，想益罔涯矣。窃念，兄以七耄之年，筋力已衰，腸胃弱虛，草土之居，疏水之餐，大非保康補充之方。居處飲食，不可一遵禮制之常，抑情強加以燠室厚味，勿犯聖人傷生之戒，以仰副先夫人平日止慈之心，如何如何？錫憲，禮當匍匐於聞訃之後，而居既相左，紛冗相尋，昨春以來，宗事有責於誌狀錄編纂，久旅京館，雖或下鄉，而每急於目前酬應，末由奔慰。其於憂戀，無任遠誠。姑以疏替慰，而眼昏字不能細，伏惟鑑察。不備謹疏。

### 與宋忠鎬【大田市宣化三洞一六三】

錫憲頓首言。斯文不幸，先大人述菴公奄棄後學，遠外承訃，驚怛千萬。昔在客臘之念，於金友太錫便，轉聞愆和之報，意謂天佑善人，陽泰在邇，當占妄五之吉，孰知其禍福無常遽然云亡耶？恭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居諸迅催，遽經襄奉，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緬昔相從於祠院俎豆之列，講論之席，殆將九年，宮商秩奏，胥恨晚交，共期長來源源，今焉而已。聞訃即日，赴哭靈筵，以洩滿腔之悲鬱，以情以禮不可稽緩者，而二三兩月，薄有樽俎之責於各院宇，齋意未就，徒增悲悵。姑以疏替慰，不宣。謹疏。挽章四章構送，使喪側執事，讀過靈筵，如何如何？

### 答鄭祖憲【忠北陰城郡全旺面道晴里】

祝年寄丹，連作年例，而僕未能以伊川先生壽世之丹，爲愛我者說。揆以禮數，報施有義，施而却之不恭也，施而不報無廉也。僕

又七十生平，不屑微生高之沽惠，故不假於隣，而家亦鵠立無物，可酬於遠地寒士之本能也。僕不忍爲不恭之人，自後亦憐我，勿使復犯無廉之科，企企耳。鶴脰鳧項，斷續無方，不能醫南風之病。盛什，僅僅字會和呈，仰助一哂耳。

### 答宋孝燮

荐拜寵贖於兩月之間，可知朋情所到，疊嶂重流不能爲之隔也。定省之餘，服軀佳悰？仰賀無斁。弟，二三月令薄有樽俎之責於七八院宇，連以例會，黏席無暇。來月之旬，又以大宗有會，不得不掃萬入京，歲去事愈忙，是亦稟命上幹運攸關耶？只自憫迫而已。駱山詩稿跋，依教改結語而呈，更加精諒，如不黏實，雖付丙而更求良手，兄我之地，亦何嫌也？切望切望。莊軒遺稿誠金，達於二十萬，靡是非幸事也。然未伸誠者尤多，而達叙數三次來顧，示以促刊爲好春意。但財詘學贏，懼不克終，不得已以既入者爲限選出，三月內着刊成算，此意轉知于華宗中，未單家速付于光州刊所，俾無遺珠之歎，如何如何？

### 與李勉窩瑛憲【咸平鄉校】

三十年前，以宗事，訪族居于碧柳甘山等地，眼跟經仙鄉者宿矣。伊時懵不別於山於水有箕穎，矧復知於人有勉窩翁在，可謂搗來搗去于好山水也。頃自識荊，方訟前日之陋寡，擬源源講討而未得。白蓮邂逅，半日承誨，玉屑霏霏，警砭俗耳，塵世仙緣，亦一奇幸也。好事多魔，薄有樽俎之責於河西先生永歸書院，明當入齊，與諸任對討，故拂袂遄發，行者悵結，送者忡黯，兩情可知。飲之以龍團，意深於三盃，柳舍之勸，乘之以金軸，情浮於四牡，黃鬣之贈，只吟感嘆情何極之句而已。箕山玉立，穎水鏡平，爲須好主翁，不渝太古之色，洗耳飲瓢。震艮加嗇，以副朋壽，區區遠望。

### 與辛暲烈【咸平郡羅山面松岩】

浮生無根葉，暮春動息，于鄉于洛，不一其定，故故舊書信，院祠簡通，未即隨披，多致逋慢缺禮，晚今追思，實多未安。尊先丈追配松山，縉禮在於十一日，而懵莫知者亦其一也。蓋弟於十二日發自漢館，而即抵高山書院，以方帶院任，而仲丁在明，樽俎有責也。厥後連以詠歸龍山諸祠之任，有事享儀，消六七日力，晚始黏席於几案間披見松山精舍儒會書，知松山壇享禮之已爲經過也。向者與兄，半日聯席於白蓮潁水之間，而尚亦未披儒通時，故頓未一辭，自鳴訟愆。兄倘不以含糊致訝否？晚今追謝，伏惟諒在，經體衛重，以副遠忱。不備謹狀。

### 與鄭翠松基永【咸平郡月也面外峙】

好山水逢好朋友，奇緣也勝事也。況兼之以玉椀琥珀，不知是他鄉，樂而忘歸。向日洗心潁水中，弟之心事也，而樽俎有責，事情鞭心，征車輕發。歸而思之，茫然如有失。抑清境不容俗客之久住，造物者有所猜嫉而致爾耶？捧腹一笑而已。契會諷詠，在來月初，不久合簪，以叙前日未罄底蘊耶？豫庸欣翹。不備謹狀。

### 與閔敬軒弘基【和順郡清風面船下里】

昔遊草坊筏橋之間，雖蓬合萍分，承誨則數矣。厥後凡於貴鄉文會，每多掣肘，未赴席末，聽說娓娓，一會一分，亦有數存焉者非耶？七松祠祭望，固當竭蹶將事，而方旅京館，未遂素意。追而思之，實爲悶悚。暎碧亭揭板，前修有述，無容更贅，而貴鄉士議，及於續揭，亦以拙構附驥云。是雖出於貴鄉士風之厚美，在弟，實不堪慙愧者也。巴俚短響，安得不爲名山佳水之所嘲笑耶？莊石二兄，遽然千古，古人詩所謂‘摠爲浮雲能蔽日’，儘不誣矣。興喟奈何？契會風詠，

在來月初，伊時拜晤，豫庸翹企。惟祝經體衛重。謹拜追謝狀上。

答李載哲【咸平郡咸平邑長年里白蓮洞。現住，光州市柳洞二의九，電話(2)三七六三】

萱闈康寧于八耄邵齡，五昆季湛翁填唱箎和，芝蘭競茁清香滿庭，先大人竹翠公，行義之敦，垂蔭之厚，可驗於斯矣。宅里樹碑，孰不欽誦？錫與先大人，雖無平昔之雅分，爲感賢允之孝思義不可不隨衆賓而頌之也。又承惠書，仍審體度休吉，慰賀曷既？歸路爲辛鄭兩兄所挽，登臨于洗心潁水之亭。兩兄爲沽美酒，酬酌醉醺，日將曛，又被華宗瑛憲兄之特爲車送，此三友皆舊交也。必欲挽留於鄉校，歡談一宵，其意頗勤可感，而以余明日當行玉果詠歸書院，故未副眷愛之厚，尚今悵結矣。會晤未易，徒增忡悒。謹狀。

答蔡奎泰【全北扶安郡舟山面松亭里】

阻于茲四五載，幾同江湖之魚，一幅耑書，副以先集，何等感戢？繼以逢晤於長城之書林精舍，座稠人衆，雖未得亶亶穩據，究底其爲慰喜，則想無兄我之殊矣。先集跋文，自顧拙劣，固不敢下手者。然揆以同門後生之道，欽仰之心，與他自別，故妄此筆，而辭不達意，未能仰副尊座楊兄之盛意，還切愧汗。惠付金幣，雖曰禮也，非窮偶所易辨，欲辭無名，受之不安。撓甚，不備。謹謝狀。

答禹源鍾【潭陽水北面大舫里】

甘霖快霽，豫占是年之大有。天心好生，不以古今殊異可知也。尊體際茲懋德愈迪？詹誦勞止。弟，以莊軒遺稿粹刊，久旅光館，近日歸家，荐見朶雲，墜在塵案。故人一書，可適百朋，何等慰豁？惟其促詩之教，託非其人何？自顧素乏積究之力，致無富贍之蘊，故間或

副請之作，率不達意，未滿一笑。況以具眼別人觀謂之何哉？實欲斷意泓穎者，非今斯今，而不能勇往猛着，因循度了。然中懷忸怩則久。世無憐我南豐之病魏收之拙，如兄者，往往又責以嗇吝，多見其自諒而不能諒人也。強副勤教，爲頌敦學述先之贊意，而亦足爲一餐之資而已。笑領焉。

### 答姜菊史璘【全州市多佳洞一街六〇의二】

火燭六月，匏繫一館，其適孔闕叵耐，自憐。然而迂拙微軀，非懷刺附炎之行也，非患失中熱之日也。只爲故人剩馥，不可久於巾衍，故妄擬編刊，而忘晝夜矻矻於掃塵之亟成也。茲與維石，良朋同研，切磋琢磨，凌雲流水，宮商迭宕，亦斯世不易得底勝事。以是遣慰所慰，倍蕪於所憐，幸何幸何？荐以習吉魚腹忽啓，披一幅之朶雲，鳳尾隨至，披半輪之明月，玉屑霏霏，固非食煙火語。清風悠悠，却忘在熱鬧界。靜言思之，挹千古之餘芬亦友也，襲一座之蘭馨亦友也，吸三伏之清風亦友也。今年之數，不須詹尹已卜，麗澤之吉，衆受益之，良繇大有之秋，卽其次第事也。是誰之賜，賜必有謝，禮也，而逝者已矣。無可謝之處，傍者昵矣，無可謝之日，獨不可謝於六舍沛城之吾兄乎？蓋兄之眷愛，恐洩元規之西風使之障而避之也。其消飲暑之喘汗，則猶屬第二，感戢鐫骨。無物件呈，爲誦清風北窓之句，仰助栽菊之幽趣。謹謝上狀。

### 與河晚松應雲

自四月初留光，光多故友，兄其一也。各有所事，既不得謁來謁去，而向巧討暇趨晤，則忽念及於昨歲弧節赴飲之事。清歌妙舞，雖云樂且依若夢境，其備德門故事者，惟壽帖，而未能卽席追和者，懶拙之致也。歸考私草而書呈。所嘗構草者，語雖拙而意則長，尙可附驥耶？不備謹狀。

## 答權心齋昌鉉【慶南山清郡丹城面校洞】

錫憲拜覆。吾輩生長於缺陷世界，而幸免仆蹶於瘴風恠雨之中。遽見霜雪滿顛，罔非有得於先生長者鞭道之下者也。方其少也，聞有道君子在，則不計程路之艱，遠期遂於人之願縱，不能大肆力於學問，而發揮事功於邦家其無大何，而垂老七旬，則亦庶可曰私幸之些幸也耶？蓋從師擇友，厥得雖有大小之殊，而不可闕一者也。而今丈德徂謝矣，欲求直諒多聞於吾黨諸子，舍兄伊誰？所以一自拜晤，嚮注之切，恒在胸膈之間，而不能已也。然而識荊十數年之間，書問止於再三，面講晚在昨日，而亦僅一宵而旋分。道義之說，未洽於鐘耳，忠良之論，未充於枵腹，安得不介介之倍徒於前也？歸卧蓬廬，東望馳情之際，莊碣來矣，垂之華牘，兼以瓊什，何嘗見一字一畫之非道得故舊心地者耶？次骨之感，久令不置也。美慎彌留所崇，在外非二豎子頑據內膈之比也。針液之下，外邪之退聽當在不日矣。仰慰千萬。弟，伊日抵南阿，訪景武公興安君李公字家，則主人方縻公職勤務於晉州市廳，而其族丈數人處外廊延接來賓，其一卽云炳穆氏者也。忠信慈詳以禮，下人誠彥秀明勤，半日談論，聞知是鄉也，爲河相公演，姜通亭淮伯父子，及郭參贊俛宇鍾錫，諸先德嶽降之地。忽起杜陵不唾青城之念而矜式之。午飯纔已，隨炳穆氏之引，獲拜興安君不祧祠版，觀其丹牘之煥盤卓之潔，李氏全族之爲心於尊祖保宗於以知古家遺風之自來久遠也。再過蠹石，忽驚三壯士碑石之突弁，一種好事者，捏匱亂真，而公案則有消不得者。究厥腸肚，不可惡也，伊可笑也。始見晉湖麻姑桑海宛在伊間，而却疑方丈真是海中也。但心縻莊軒稿役，故未得窮睇眄於中天，乘夜到車，翌曉抵光城，不知東方之既白矣。因念晤勝友遊名區，生世之奇事也，而於人未得任情穩據，於山水未得求興極數者，留有餘不盡之好事，以待明春也。春服既成，當隨吾兄之後，復遊乎茲山茲水也。兄其不慳仙緣而倘許漁子之再到否？奉呵奉呵。莊軒碣銘，辭達義明，丁寧描寫

出伊人真面目，從此可保不朽於千百世矣。同是朋情幽明之感，難禁欲霑之淚也。瓊韻和呈，適足爲一粲之資而已。拙劣還愧。碣銘中有一二仰告者夾錄而呈，下照後，卽惠德音，如何如何？

### 與金蒼厓舜東【京彌阿洞八의二】

暮春造軒，喧牕斐几，講論清陰集及新齋集，拔蒙釋紛，枵腹如實，樂而忘飯，不覺日之將曛。依依如夢境，而經夏跨秋，祈熱怪雨，相禪支離。遠外嚮注，未嘗造次舍旃，道體庸序泰亨，填唱箴和，鞞牀堪翁？頌禱之至。世下弟，跼蹙度日，冗爲業懶爲友，良覺蕭索而已。只自憐憫。朗州，曾文谷先生賦鵬之鄉，餘薰攸襲多。淑善勤學之士，到今尙彬彬可觀，而此去崔友日錫，謂其翹楚者也。爲焉其先祖敏休公，國巖祠楣題，晉拜軒下，伏願尊執，念先好矜摯意，勿靳鐵肩椽筆，則不惟崔門生色，其於士林瞻聳均爲頌美。至祝至祝。先人阡表，曾蒙盛諾，近果就成否？來初趨拜爲料。伏惟尊照。不備謹狀。

### 與許中菴基洛【谷城郡玉果面玉田里，玉春堂藥房】

頃自龍溪歸路，下車玉邑，委訪晴庄，適值兄駕言，未得申摠前日未罄底蘊，直抵光市，不禁悵結。長霖跨望，乍晴旋多雨，鞞牀湛翁，不瑕有損？瞻言勞止。弟，爲酬應累處所託文字，歸于鄉山，度得二旬。時有朋儕見過，得免太寂寂，山家幸事。先王大人新安公墓銘，今始構呈，而詠歸書院重建韻，及魏存齋追配奉安文，亦探私草，依教鈔呈。院誌編成時，或可互參爲據耶？仰惟清鑑。

### 答呂雲沙昌鉉【谷城梧山龍溪】

自先庄拚別，伊日直抵鐵川，共分一宵話于東樵兄。還刊所二日後，旋作鄉行，半月而強復到刊所，則尊書墜案，已有日矣。卽未修謝，

職由是也。倘加恢怨否？鵲山白雲，龍溪清風，固爲靈山之眉目。然不有樂善好義之君子，如雲沙先生而管領之，亦不過等閑一流峙而已。自兄家十世菟裘堂構播獲，有兄在以大賢爲師，結交當世之豪儁，峨洋盈溢乎長松脩竹之間，輪蹄不絕于龍吟虎嘯之濱，孰不日三九亭上陽德恒久，能使玉果爲不食之果耶？如吾二客行，雖似乎溯紅流而上武陵，心切乎欲躡蔣詡之逕也。然兄如宰扶風滁州，則爲客于喜雨醉翁，有所不辭。抑治自邇始政本孝弟，今兄養德林泉，藜藿爲八珍之味，蓬蓽作藻稅之樂，躬行而孚人，家和而洞淳，舉而措之，非百里才而止也。今日之三九，又豈彼喜醉之可倫哉？吾二人者，曩躡主翁後塵而遂，亭中一遊亦可云此世之奇事也。倘及見人惟求舊之政，則山中宰相，應訪於鵲山之中矣。是所仰慰者也。莊軒二牘，一既登梓粧黃，其一勢不得不編入于補遺，尊諒如何？餘祝起居珍齋，以幸斯道。謹謝上狀。

與許世旭【全北任實郡三溪面木洞里。現勤務，서울市里門洞，外國語大學中國語科】

某頓首言。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以若先府君修德行仁之有報僉哀兄聿修無忝之孝，宜享無疆之遐壽矣。孰知其禍福無常遽然云亡耶？仰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水流邁，遽經襄奉，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某於先府君庚友也，舊友也，況兼以蘆松二先生戚姻家？後承道同於沿流而溯源，學求乎白直而忠信，奉晤切磋之頻頻於尋常之交，勢固然也。每會旋分，握手相期，以求晚源源無負先好矣。奄忽棄我先逝，逝者固浩然反真矣，奈在後沙石之踴涼悵悵何？以禮以情，當匍匐於聞訃即日，而身絆于奇莊軒遺稿刊役，于今三朔，末由遂意，辜負幽明實多，慙然難狀。一哭象筵，其早晏不可指期，故謹奉疏替慰，而哀些三章，亦爲追呈，使在傍執

事，讀過于靈筵若何？不宣謹疏。

壬子七月二十八日。

### 答柳維石謙重

頃日松湖鄭兄及竹軒李仁奎兄，後先來自印所，轉聞吾兄尚未到光，大非初料，甚爲訝菴。茲拜惠函，凭審，美慎以感冒損和，近得快復，驚慮旋慰。弟，以先世行錄編輯事，苦無晷刻之餘閑，而時爲親知委訪，或過了四五日，談經說史，不止燭溫之工，極是好事。然但因循度了，未暇及於所司之宗事，是庸悶憐悶憐。記與序，依教書呈，猛加潤刪，爲魏掩拙，如何如何？未得竝力，相役於錦原漫錄，直以紛逕之致也。恕諒企企。

### 與姜璘

楓菊一遊，於焉三朔，雨雪霏霏，復陽在邇。懷仰政緊，尊體崇茂？頌祝頌祝。弟，以先世行錄編輯事，入京旬餘而歸，墓享畢於二十二日，翌日行靈巖，爲參國巖祠禮成宴也。歸卧山牕，時有故舊之過，其情可愛可感，而未得專力於編輯行錄，只自悶迫而已。梁頌業有所草，而今纔郵呈，領略如何？會晤未易，臨紙忡黯。謹狀。

### 與族孫錫禹【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101의1, 探求堂】

相別月改，懷仰彌勤。謹未審陽復靖體連爲佳休？懸溱搖搖靡懈。族末，歸家以來，連爲時候不調，雨雪過酷，農作物藏置近纔了役，因以未遑於先世遺蹟蒐輯，今始着工於鈔錄。陰十一月末頃，相會之約，未能實踐，雖緣勢也，於心悶愧。且念節屆大小寒，而日如酷冷，逐日出入于圖書館，似不任意，故以明年陰正月，入京爲料，以是恢諒如何？

答族姪起薰【서울特別市鐘路區桂洞一四七의二五, 大提閣 舊豐文閣】

地距千里，未得源源晤叙，何日不耿耿？況自分後凍雨虐雪兩月支離？尤不勝湊往之至。除承賀狀，以審體度連旺，慰賀之至。族末，以時候不調，如干穡事，近始僅僅藏置，顧此以食爲天之農家，念不及他，故先世行錄蒐輯，晚今入手，以致今月晦內會合之相違，悶迫奈何？仍念酷寒之節，連日出入圖書館，亦是難事，故以陰正月入京爲料，倘加惠諒否？

答鄭祖憲【忠北陰城郡全旺面道晴里】

每承先施昨臘念六，又奉耑書，靈犀之相照，尤恨識荊之晚也。矧又情貺周到，於醫心醫神并是珍品，其家傳箕裘之可樹風聲，則一玉遺稿也。推仁愛術，廣救顛連，則辟瘟神丹也。自顧窮峽老朽一廢物，何修而得此於座下乎？悶悚之至。欲辭無名，受之不安，只庸感戢，次骨鐫肺。拙構蕪詞，并列于羣彥佳篇，尤使人內忤不已。仲春尙寒，尊體佳綏懋德愈進？賀不容已。某，年踰七耄，而羣兒亦髮或星星，宜謝內外大小事，而只爲京鄉衆宗之凡於宗事，期於使之與聞，自再昨年編吾豐洪寶鑑，于今三載，上下京洛數十度，而尙未訖工，悶憐奈何？自念神瘦事綿，而犯乘負之戒，其何能久於斯世乎？凡事雜遝，巴鼻莫尋，今始追謝，其於赫脚往復之道，猶賢於已乎？呵呵。

答洪正憲【金安洞】

茲承俯書，聞尊駕頃枉弊廬，而適弟入京，未克據情悅話，又千里傳信于攸寓處，非敦睦之風超衆繼述之心乎中，其孰能之？悚悶之餘，仰頌俯感。族弟，一味鹵劣，無足奉聞耳。豐洪寶鑑編修事，與起薰錫禹起萬鳳植元植桂植起世，及其外中央宗會諸宗氏，打叶，而

以求得嫻熟於翻譯善手一人，與弟同研春夏爲料。求得一館于桂洞近地，又薦睦姓人【前高校教師】，陰二月二日開務爲約矣。睦氏關聯他事未來，故事不如意。弟則歷訪全南各大學圖書館，抄吾宗先系諸公諡狀及神道碑，爲急務，故昨始還鄉，而四五日後入光爲料。以是尊諒，而如有緊議事，陰十四日午前，枉駕如何？

### 與金樊溪潤東【서울城北區彌阿洞】

錫熹白。士林不幸，令季氏蒼崖公奄忽違世，道塗阻隴，雖未承訃，頃因宋誠齋兄便轉聞，驚怛千萬。伏惟友愛加隆，七耄湛樂，可與伯康君實相尙風儀，而遽爾終鮮，哀慟沈痛，何可堪勝？春寒尙峭，不審尊體何似？伏乞深自寬抑，以慰遠誠。錫熹，御李有年益篤通家之好，逢輒傾倒困廩，說盡千古，惟尊座伯仲是已，以情以禮，聞報卽當趨慰，而冗累所魔，未能遂意。其於憂想，無任下誠。謹奉狀，伏惟鑑察。

### 與金康顯【彌阿洞八의二】

錫熹頓首言。不意凶變，士林不幸，先府君蒼厓公奄棄色養，道隴而薨，雖未承訃於卽時，頃因宋誠齋兄便轉聞，驚怛不能已已。以若先府君德孚中外，望全始終，況兼僉哀孝奉誠恭，宜享期頤之遐壽矣。詎意禍福無常，纔踰稀年而止耶？緬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不留，遽爾經歲，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某，以世好後生，登龍有日，尤篤六世通家之誼。依仰之地，爲託先君阡表，于今三載，夙蒙盛諾，厥後二三進拜，文姑未就，而每申未安之誨。昨春拜時，秋初崔兄日錫便，諄申賜誨云，必爲速成副余私情矣。其成與否，茫不可知，而忽篤凶報，身亦多病，末由奉慰，其悲係增深。謹奉疏，不備謹疏。

## 與鄭逸齋泓采

錫憲白。不意凶變，賢閣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伏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加堪勝？仲春猶寒，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錫憲，冗累蝟集，末由趨慰，其於憂想，無任下誠。謹奉狀，伏惟鑑察。不備謹狀。

## 與奉鎮華【羅州郡老安面琴谷里】

錫憲白。伏承令子奄忽違世，不勝驚怛。伏惟慈愛隆深，悲慟沈痛，何可堪勝？仲春猶寒，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譬，以理制遣，以慰遠誠。錫憲，冗故蝟集，見此燧周，尙未趨慰，其於憂想，無任下誠。謹奉狀，伏惟鑑察。不備謹狀。

## 與朴隱齋道燮【靈巖郡西湖面陽洞】

錫憲白。不意凶變，賢閣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伏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仲春尙寒，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錫憲，有事于先世誌狀編輯，于今三載，在京日多，末由趨慰。其於憂想，無任下誠。謹奉狀替慰，伏惟鑑察。不備謹狀。

## 與李淳泰【寶城郡烏城面龍田里】

錫憲頓首言。不意凶變，先夫人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緬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踰旬朔，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宗門有事，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疏，不備謹疏。

### 與朴恂鎬朴烈鎬【潭陽郡水北面大舫里解舫村】

錫憲頓首言。不意凶變，先府君松巖公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恭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爾歲改，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伏願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有事宗門編輯誌狀，抽身靡暇，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疏替慰，伏惟鑑察。不備謹疏。

### 答奉奇鍾【沁石鎮華孫。老安面琴谷】

頓首。山中尚有舊曆，知先府君常期在客臘之晦，而身爲繼曾之宗，正朝茶禮在明，故末由晉慰。一幅替唁，亦以女婚，卽後忽擾，未果。奄見歲改居常，只增怛怛矣。匪謂令弟委顧，惠疏隨之，滿紙辭意，皆一舉足不敢忘親之意也。奉讀而歎曰，若齋有子矣。更願將此心事，尤用力於敬身之地，而不已則何事不濟？至祈至祈。疏後日積，王夫人氣力，以理制遣而康旺，哀棣體支安？遠溱不任。錫憲，有事於吾全宗誌狀編校，于今三載，在京日多，旅屑瑣尾姑舍，而事體浩汗汪洋，以若神耗氣疲，倘可免勝負之譏否？先大人狀德，託非其人，不敢泚筆，又此申屬，難孤盛懇，僅僅綴去，安能形容平昔之姘節云乎哉？只資覆瓿而已。更求良手如何？不備謝狀。

### 與李鍾善【求禮郡馬山面沙圖里】

頓首言。不意凶變，先府君小源公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恭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日月不留，歲改而春殷，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以吾氏誌狀編輯，在京日多，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疏替慰，仰惟鑑察。不備謹疏。

### 答金承顯【忠北陰城鄉校】

恭承尊函，可知其祀典至重，而政府之不講五禮儀久矣。官制不復有大宗伯，無處可控，則寧欲廣收清議，爲免後世專擅之刺也。謀及於侷侷冗夫，蓋出於愛而不知惡之厚意也。其決左右則固不敢當，而僉尊謹慎之意，敢不拜敬？但胎封贊反箋紙，黏以郵票，必欲聞收取人之說乃已。欲學近世以多爲上之術，無亦勤失於遽詳傷于刻耶？曾以沙慎尤春，攸芋之省，而惹出瑣尾之智，靦然欲質于域內公論席上，多見其不知量也。到此地頭，寧欲無言。反而思之，知其過而不直告，似違愛我無斃之惠，故敢此覩縷仰覆，而措辭之間，鋒鏑太露，還涉不恭，何敢恢怨而不厚誅也？不備謹謝禮。

### 與金駙洙【麗水市教育廳】

自華旆赴麗，阻闕經歲，瞻望東天，只增忡黯。敦體佳休？常切勞祈。世拙，率無警，自分之幸也。去三月仲丁，高山書院享禮時，逢令伯氏涵山兄，始知鰲南先生文集將以今春入刊。先生手筆碑文一度仰呈，對照後還付于鄙處，俾作傳家長物，切企切企耳。餘恭候惠音，謹狀。

### 與族孫錫禹

節屆清和，膩綠敷芳，叙樂悅話，亦宜厥時，而未奉清儀，我心愆如。靖體休祺，僉宗氏均安否？實所祈願者也。族拙，以先世文獻蒐輯事，訪全大朝大其外數處，得數十度文字。若永安慰神道碑，貞明公主墓誌，御製永豐府院君奏藁序，及安窩遺稿序等文字，皆吾宗先蹟中大文字也，而得爲手抄何幸。此外所重文字，必訪서울大然後，可以備取也。潤文之人，今果有其人否？吾意則以爲不必謀於他姓氏，以潤文等事，託責于起薰姪，則似可速成。與僉宗氏相議，而速爲回示如何？宗親會日亦爲明示，切仰耳。

## 與柳維石謙重

去年此時逐日促膝，今不能復爾。一合一分，亦豈非有數存焉者耶？以此推之，今日之分，未始不爲明日之合，而其分其合，又是外面而已。其不可分者，則常在合前，以是仰慰，亦以自慰。何處一聲，告以京來有朋，不遐式日沓至，其情可感，而擾不可言。感冒餘症，咳嗽不息，夜不能眠，便覺悶憐耳。仍以耿耿起懷，千古賈誼吊屈原，以逢時不祥何其責人忠厚之意也。誼則遇文帝而不能，畢竟怏怏不快落馬而殞絕，何其自責之薄耶？淺意妄自以爲吾輩保縷於喪怙恃，百歲後聞不聞見不見者多，而若衰麻去身尤其大者也。耳得聞不欲聞，而身則免焉者無亦一幸耶？若有君在上而滿朝不能匡其過，使堂堂文帝未免萬世之一耻，則滿朝亦與有責焉。未知使誼早能見用文帝無其耻耶？始知尤齋所稱圃隱之賢，尤有大於殺身成仁者，能用夏變夷，使鞮屨卉裳衣錦食稻供佛飯僧之俗，漸變其舊也。然則吾輩身雖免焉，坐見圃隱五百年之後復變於夷，誠萬古所無之災也。謂之奈何？盛身草茅絲穀爲生者，金口爲義耶？願聞其說。金氏孝烈緣序，僅草而呈，潤色入用如何？

## 與金春園源益

因尙州金氏二兄之過，獲承滄炎討案，溫繹啖味入眞，胸次洞豁，如喫冰梨雪藕之爽。其於消鑠，杲杲光景，不須落子丁丁，而已裕如。爲之欣慰，如山如河。弟，夔節抵京，搜先世狀碣，百餘通于各圖書館所藏諸賢文集及御製，複寫而歸。方在釀解，不覺日之薰，而夏之流也。悶憐奈何？靈通，兄既與二金兄，夙有商論而快諾云。蓋爲尊奉松翁之地，不得不一次辯論，兄我同感，敢不從兄之諾而諾之乎？事當對討，而抽身無暇，以書替呈，恕涼如何？聞二兄之言，則通文，兄申託于弟云，故不敢負教草呈，彙括入用，企企。

## 與金鳳鉉金洪基【長城郡森溪面水閣】

盛炎灼如流汗成漿，七耄老翁，四舍委顧，何等厚眷？義在爲先辨誣，何等思孝之永也？朔酒炮羔，未遑暇及，恩恩言歸，有事之地，挽亦非義，故臨岐折柳，尙今茹悵。尊先觀瀾公事蹟，雜出於王朝實錄者，如彼其詳，後人之曲筆舞文，何足掛念哉？但非情之責，雖身親見之，必欲辨之乃已，況於吾身所自出之祖先乎？然如非尊門奉先思孝之遺謨，其何能斷斷如是之勤乎？爲之起欽。義當趁期對討，而方以宗事，抽身靡暇。略綴通文，付于春園兄，以是尊諒如何？

## 答曹永鉉【靈巖郡西面鳩林】

猥荷盛存，頌惠以存先遺文兌湖集一帙二冊，燁燁光彩，有使塵案生色。洞傳敦約，社虔血祠遺風餘韻，百世不沫，而又此遺集廣頌，使人景慕益深，而兼頌安仁家法。錫憲，奉讀從十一代祖文懿公無何堂永安對挽辭，先好攸在，尤切感戢。嗣後源源，是所仰蘄者也。姑此謹狀。

## 答鄭東樵喆煥

白露湛湛，朗誦蒹葭，溯迴道川之湄涘，所懷宛在水中央，而旋嘆道阻且躋者，豈不是龍山之東雲裡樵翁乎？際荷亞面忽墜塵案，信息甚大，果賢者之德也。欽誦之極。天均雨露，地遍生育，萬林蔥蔥，而惟龍山多桂瓊枝瑤幹，到秋愈辣不辭。吾兄之採採，採得陳叢奏調五味，而烹飪于大鼎，使天下之口，忘鮮食之樸，而知大葷崇俎之美旨，靡是非吾兄能事。願益堅而壯，勿負初志焉。弟之此言，豈惟愛兄而發？觸目之激有不容無語者。九夷之俗，自圃隱先生，始行三年之喪，立廟禮祀，漸變其舊，衣錦食稻，供佛飯僧人，皆耻之

大。老先生以其能用夏變夷，爲賢於殺身成仁者，良有以也。安知五百年後今日而復見反乎夷狄乎？兄與弟俱失怙恃日多，非不爲窮天極地之痛，而得免於以夷狄治父母之喪，則亦一奇事，其於子孫何哉？草尚之風，上下靡然，顧此不尊不信不重不感，謂之何哉？雖然豈不肯向知己討一場說話，以叙胸中之壹鬱乎？所以祝長年度歲愚公之移山庶可及見也。弟，昨以莊稿之刊，宗事遷延，而其奈諸宗必須拙劣何？不得已以芟節戾洛，參吾大宗會，數日後抵彌阿洞，哭金蒼崖舜東氏象筵，慰其二孤哀康顯豐顯，因抵其伯兄樊溪潤東氏，慰話竟日而歸。歷訪各圖書館，得先世遺蹟百餘紙。其書，勘亂錄，弘齋全書，人瑞錄，日省錄，珠淵選集，清陰集，宋子大全，白軒·杞園·陶菴·溪湖·梅山·耳溪·淵泉諸集也。其文，列聖御製教諭批旨，及各家所撰碑碣誌狀也。其事，則文敬公履祥，景憲公霽，文懿公柱元，貞簡公萬容，靖惠公象漢，翼靖公鳳漢，孝安公樂性，文獻公良浩，文清公樂命，孝敏公重孝，貞翼公秀輔，正憲公義浩，文穆公義俊，文貞公敬謨，文簡公爽周，文憲公說謨，及靈壽閣夫人達城徐氏實蹟也。自館複印而歸，擬以夏間畢解，間間遠友來訪，費日許多，故未由遂意，而京行亦遲。但覺憫憐，奈何？事勢如是，未赴來汝之教。好事多魔，正爲弟今日準備語也。恕諒仰企耳。不備謹謝上狀。

### 與李亨雨【光州市斗巖洞】

八耄老翁，冒酷炎涉長程，再度委顧，述先之勤，矍鑠之儀，令人驚嘆。眷注爲感，猶屬第二。神佑善人，返旆想應利稅，而震良休旺矣。慰賀詹祝。小弟，宗事爲昕夕關念，而時因遠友之訪，講討度日，實是寂寞窮山之幸事，而未得專力於世蹟集解，是所悶迫者也。承裕齋記，難孤盛教，拙草郵呈，尊照而揮棄，更請于良手，是所仰望耳。

### 與康仁煥【光州市柳洞七의二五(五三班)】

數年光館，靡日不相叙莊軒與朴成韶暨兄也。莊先朴後，奄隔千歲，逝者已矣，惟當與兄源源，不渝舊好，講磨相資，而非但懶不能爾，身擔宗中文獻輯解，不滯于京，則不離于家，事勢如此，徒增忡悒。遠辱委顧，寔出料外，眷注益感。玉山亭記，被有力者先占地頭，無處容喙，掇拾陳腐數行，只爲仰副盛教也。諒在是仰。

### 與金重千【長城郡森溪面面上道里】

錫憲白。不意凶變，尊本生大夫人奄忽違世，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至愛根天，攀號摧痛，何可勝任？秋涼漸緊，不審氣力何似？伏乞抑哀從禮，以慰遠誠。錫憲，身縻世蹟輯解，在京日多於在家，末由趨慰，其於憂想，無任下誠。謹奉狀，伏惟鑑察。不備謹狀。癸丑八月日。

### 與閔丙機【海南郡黃山面燕湖里】

錫憲頓首再拜言。不意凶變，先夫人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禮隨時變，衰麻哭泣之節，不得任意，循蹈舊貫孝子爲心，想益痛責罔知攸措矣。雖然兄以八耄之年，猝當巨創，毀瘠繭梅，非其時也。伏願強加疏食，或至氣血衰耗不堪支遣，間餽肉汁，無至生病，如何如何？錫憲，莊稿了役後，以宗中世蹟翻解，京居日多。雖或還鄉，煩冗靡暇，末由奔慰，其於憂戀，無任下誠。謹奉疏，伏惟鑑察。不備謹疏。

### 與權心齋昌鉉【慶南山清郡丹城面江樓里校洞】

錫憲白。不意凶變，賢閔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伏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況衰麻去身百日闋制，復尋羅

麗時東夷之俗，爲允哀處地應有不忍見，實廓之益切矣。秋涼生爽，不審尊體何似？伏乞深自寬抑，以慰遠誠。某，身糜於宗中世蹟輯解，末由趁慰，其於憂想，無任下誠。謹奉狀，伏惟鑑察。不備。

### 與崔春江日錫【鳩林】

逢未罄蘊，別復相思，何日不爾？秋色撼人，益增怵怛。七耄之年，定省休旺？人所難得，而惟兄能之。果蓏珍旨，稻黍香味，蒸昇于廟，供奉萱闈，因以同我婦子一席媿媿，卽兄家嘉俳之嘉貺也。頌頌不已。弟，在光諸兒，以節內外畢至，惟京兒及入營次孫未到，勢之所使，謂之奈何？自別兄後，連有邊友東烈母夫人奇氏喪，及宋友孝變喪報，人事之隨歲月變遷免不得者，其在故舊，那無爲之驚愕乎？竹軒記，其大哉崇俎，想必先爲間竹竹林等所占據，顧以淺拙，復何以語竹？偶閱兌湖集會社亭記，知鳩林之林爲竹林，故因以起思蚯蚓數行郵呈，未知其主翁以爲如何？兄更平心細考，指摘疵類而見示，亦豈非講磨之一端乎？至祈至祈。

### 與洪芳植【金安洞】

再度委顧，良感厚眷，而未罄底蘊，旋則分張，茹悵曷旣？重陽嘉節，黃華吐香，尊體倘能對樽一醉清高之趣，不獨讓美於五柳先生否？遠外頌祝。族姪，翌日行長城孤山書院，三日而還巢。慕山公行狀，採摭序次，而文不能達意，過蒙厚幣禮授之地，雖不得辭，於心不安則有之矣。并礪銘郵呈，尊頌伏望耳。忽擾不備，謹狀。

### 與邊東烈【長城北一面聖德里】

錫憲頓首言。不意凶變，先孺人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窃念東夷之俗，遠自羅麗，因

襲其陋，莅喪而衣錦食稻供佛飯僧，百日除喪，以爲常事。一自圃隱先生勇於用夏變夷，始行三年之喪，襲斂葬祭，咸遵禮儀，所以尤翁盛稱其功，能使吾邦免於夷，其賢尤大於殺身成仁云。圃隱殉義後六百年，至于今日，復見反乎夷，有喪者不哭不衰，百日除喪，而今以後，益仰圃隱之賢，及尤翁能知賢之深也。且古者政出不以禮，自太學發論匡救者多，言雖不見用，可有辭於後世。今成樂緒李家源等，以儒家後裔，居首善之地，弛弛對人，曾無一言之匡救，使今之爲人子者，未免以夷狄治父母之喪，則彼亦內顧而有疚也。後之尙論者，孰不唾罵哉？兄以此時猝當巨創，未能依禮伸情，其爲哀痛罔極，益復如何？伏願強加疏食，毋至以孝傷孝也。錫熹，連以宗事，或京或家，所關煩擾，末由奔慰，其於憂戀，無任遠誠。謹奉疏，伏惟鑑察。不備謹疏。

### 與宋在烈【高興郡東江面馬輪里】

省式。先從氏肯齋兄喪事，寔出千萬意外，承訃驚怛，不能已已。緬惟友愛加隆，哀痛沈痛，何可堪勝？時惟季秋，涼意漸緊，所履何似？惟冀深自寬抑，以慰遠誠。竊念，天地之間，物之不齊，物之情也。牙角異品，翔走難并，以先從氏清高之操，謹慎之行，深邃之學，如值晟世，豁步雲衢，未始非其能事，而既闕於時，又奇於命，哭妻哭子，已有年所。親老而不終養，子幼而未舞象，忽焉長逝，想九原之下，雙目難瞑矣。抑亦牙角翔走之異品難并者非耶？錫熹，猥托心交，自夫正齋集刊役，以至齋洞院通，及三乎齋駱山詩稿刊事，以書以面，商確有年矣。未知駱稿之刊，果已訖工否？如未竣役，高明繼而成之，如何如何？有關宗事，末由趨慰，悲係增深。謹奉狀。不備謹狀。令伯父丈，九耄篤老下，不敢以書字上慰，欠禮悚悚。諒之如何？

## 與金春園源益

秋辰丁良，祀禮刊行，濟濟青襟，一席兩日，此世之佳事也。歸臥山窓，尙不禁餘戀。旋旆利稅，經況連穩？仰誦不能舍旃。弟，暮無車便，宿于光州第六兒處，昨始還棲耳。通文，被兄謙退之德，不敢違教，搆呈。然冒廉則甚。可呵可呵。更加商訂，實所衷仰者也。非久成團，預切欣慰。不備謹狀上。

## 與族孫錫禹【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101의1, 探求堂】

向日爲驟雨所驅，傳燈寺前恩惠相分，何恨如之？謹未審，比天，體度吉旺，寶眷均祉？仰祝之至。族從，歸家後，昨日有不意驟雨，秋穀收穫，渺無頭緒。大抵農家秋雨，喚愁之物也，而今秋頗頻頻，謂之奈何？以是未能參祭于高陽墓祀。吾洪寶鑑編纂事諸件，確爲準備後，指定期日，通知于高陽參祭人來便，如何？事勢如右，故書面更告，恕諒企企耳。

癸丑九月晦日。

## 與康仁煥【光州市西區柳洞七의二三 五三班】

剝琢一聲，忽奉德儀，半日分話，消得胸中多少鄙吝，慰瀉之極矣。車夫促發，恩惠旋分，何恨如之？稅駕利旋，泓穎邁征否？所教碑銘，胡草以付，未知果合於入用也。壇土表石，及碑面書式，參考先生大家已例，或曰神位壇或祭壇或祀壇，不一其例，故妄意參酌，壇表則曰神位壇，碑則曰祭壇碑，倘無損於體貌否？別記樣式，詳考是仰耳。

## 與族孫錫禹【서울】

向書，想入清覽，而惠覆尙遲，訝鬱難狀。秋事僅了，即欲入京，而未知居室與潤文人之如何，擬發而旋止者，屢矣。書到，覽後即爲明示，如何？

### 答金碧農相晉【長城郡長城邑大昌洞】

雪月滿庭，忽起山陰之興，安道其誰？惟吾碧農兄也，而未遂乘興之行，偃臥窓間，自笑尤及子猶不翅一舍。朶雲忽墜午案，是不亦信息甚大者耶？乃知人情所到，山河不能爲之泥也。是日即旬也，而夙與舍伯約，以哭族大父松山承俊氏象筵，故未赴盛教，吾輩一會，其亦有數存焉者耶？棘人族叔甲植，以承兄慰狀有日，未仰覆答疏，爲心不安，而素不嫻於文墨，故未遂素志云。聞來爲之代憫。近來年少輩事，恕諒仰望耳。仍念松山之喪已踰月，而拘於時制，省約個訃，申報所到，間又轉聞，追挽續到云。蓋以此公六霜廬墓，有虎衛泉湧之感，八耄考終，有好德愛人之風也。不須瑣說，兄亦熟知者，則此意轉聞于貴鄉同契員諸賢。追寫哀些一章，而付于靈筵，以表昔年同案之誼，仰望不已。松山靈筵，於光州市東區芝山洞四二班七〇四〇三七，洪甲植住宅。

### 與鄭翰璟【慶南晉陽郡二班城面荷谷里，農圃文孚十一代孫】

夙無雅分，而冒炎千里相訪於蓬華，其意甚勤，感嘆何極？車笛促發，臨曠旋分，未罄底蘊，尙今悵結難釋。近日寒沍，經況何如？溯禱之至。太史耳溪文獻公諱良浩，與我五代祖文科承旨石崖先生諱鳳周，同仕英正晟際，而爲名臣，故兩家世好，不止族誼而已。耳溪集及海東名將傳印行時，曾有頒帙於拙家，頃迭於庚寅之燹，未副遠來參攷之誠，實所未安者也。曩於九月，以吾氏世德錄編輯事，留京中央宗會時，複寫海東名將傳，農圃先生篇序文付郵，與農圃集所載參照如何？讀先生事實，有所感發。祠堂記，數行草呈，覽後揮棄，切仰耳。

### 與魏毅齋錫漢【長城郡冠山面壹洞】

錫憲白。不意凶變，賢閣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窃

念幽閑靜貞，而宣室宣家，斷機而勸遠遊之學，齊眉而舉敬奉之案。窈窕淑德，宣享君子偕老期頤之年，而天不憖遺。伏惟伉儷義重，悲悼沈痛，想有不可堪勝者矣。雖然死生齊彭殤，古人以爲妄作，而無何於運氣之斡旋。伏願深自寬抑，無至老年頤養之欠，如何如何？錫憲，宗事攸關，末由趨慰，其於憂想，無任下誠。謹奉狀替慰，伏惟鑑察。不備謹狀。

### 答金源得【長城郡黃龍面黃龍里】

詩酒風流，頃世高致，恒切歆悅。懶與成習，冗以爲業，摻裾未數，鄙吝之萌，幾乎十丈矣。恭承不遐之金玉，何等勤意之感極？懸弧令節，聽賢允南山之祝，抑風樹倍切之痛，可見通下之廓量御家有道也。第念出關之圖，簇集淨几，南飛之笛，交戛渾室，便是人間仙境，而飄然風骨，處乎其中，拔俗之標，出塵之狀，如日升月恒，竹苞松茂，孰不艷頌？仁人之壽，緣薄如弟，適以旅京，浹月未參席末之飲，謂之奈何？自惟少負江淮之書劍，壯乏中流之擊楫，晚伏窮廬，弧矢之志，今果安在？願兄，鑑戒前車尤緝工於求仁之地，由伯玉之化至武公之抑以副故舊之望，如何如何？短簡追謝，以替賀帖，量在切仰耳。

### 答尹錫縉【光州市鶴洞六一四】

相思，何日不切？未能源源穩攄，勢也無奈，而荷兄不遐之勤，垂以盛訊，榮幸難狀。老萊之舞，能悅兩堂之鶴髮，伯玉之化，洞見一心之貫徹，誠奉之孝存養之仁，可賀可欽。而旅京浹月，未伴鶴笛之客共醉瓊液之春，俗流緣薄，好事多魔，悶何悶何？方以吾氏世德錄，哀粹于湖于洛，日事煩惱，未暇入思，賀帖姑未寫呈，倘加諒燭否？恭祈獻發定省增庥。謹謝狀。

### 答金武鎬【潭陽郡古西面東雲里東山村】

孝烈錄印役告訖，頒帙于遠近知舊，安仁之風，令人欽誦。第惟是錄，有吾族大父左議政文簡公淵泉先生諱爽周，及襄陽府使諱運謨題音，且其前後諸狀，亦多族大父諸公之聯名，故曩於奉覽本狀時，尤不勝感舊，不辭一言于首簡者也。第念，宣揚實行，廣布當世，固是盛事，學其道于家內，尤不可一日忘諸懷者也。以是奉謁，謹謝狀。

### 答柳淙鉉【50221，長城郡珍原面鶴田里】

愷悌風誼，何日可忘？而再枉窮山，巧值戾洛行光，未遂穩據，其爲耿缺，有倍於前耳。卽於案上見有俯託書，其意懇至，可見安仁述家之風，不獨專美於古也。但託非其人，固所不堪，而難孤盛教，胡草付郵，未知倘合於入用否耶？此歲將盡，惟冀錢迓增祉。謹謝狀。

### 答洪起鉉【500，光州市月山洞二洞二班】

念頭卽奉惠狀，以審靖履吉休，慰瀉之至。拙叔，氣日益衰，而事日益煩，悶憐奈何？書中所示，使家人問於數處陰陽家，生月相爲不合云，以是諒之，如何？惟冀錢迓萬祉。謹謝。

### 答鄭祖憲【31211，忠北陰城郡金旺邑道晴里】

并生一世，借赫蹄而通情，殆五六載，似非偶然。無亦勝於千古而朝暮遇耶？大抵人情施之，不見報則掇，常也，而尊座不惟不掇，愈往愈勤，無乃必陷人於冒廉之地後已耶？豈有是也？汎愛之仁至於欲罷不能也。感頌交摯。自念迂拙，不喜着作，凡於文字，自非親懇，鮮有副酬，特於尊先大人一玉公孝行，所感不淺，故敢以洩勃仰，尊不揮斥之，付驥於先集之末，因繼以年例之惠貺，盖出於爲親之勤念也。敢不拜孝？但印札之百千，要不若數三字之揮毫，敢以

得隴望蜀之慾，一得尊座之筆札，是所區區者也。古之大人先生雖老衰，其於書問，不屑倩草者，蓋以此也。於先大人豎碑時，忠州士林協贊書中，有吾族大父承箕·族叔孝植·族弟陽憲等連署，是皆昔余造忠州荷所時，悅話津津，繼於京中央宗會逐年會晤者，是亦所感異凡。以吾氏先蹟哀粹有事於京，拖今四載，才菲力衰，而專責重大，閱迫之切。座擾未究，寢積底懷。謹謝狀。

### 與安兼山秉析【54111, 求禮郡文尺面土金里】

吾黨之傾肺膽者，謝歸青山，多於留宅里。其在宅里者，尤當源源講書談禮，而相資相長，爲朝聞夕可之道，而不惟不能源源，比前尤豁，是亦倦勤之年不得不然者耶？高山秋享相握時，華嚴修契之約，非不稔知，而宗事之關，全責所在，戾京未參，尙今茹恨。先大人遺稿，精校精印，非今日尋常書冊之比。是知醴源芝根孝友傳家，安仁之善述，其有所愛可驗矣。拜孝拜勤，謂於包內，宜有愛我迪我之教，而迺勁之畫繾綣之辭，終未得奉，恍然如有所失，或者忘未之兼包耶？過數日，吾輩俱是稀上添一，留心於抑戒，期至於未死前小過之地，豈非吾人之能事耶？相愛之地，敢此鳴哀。伏惟加愛珍翫，以副淺望。

### 與金樊溪潤東【서울市城北區彌阿洞八】

歲換殊方，懷仰尤切。謹未審，新正，道體候震艮，庸時益康，寶覃均吉否？仰賀俯禱。世下弟，庸碌爲生，所幸者率無警也。弟有族姪起冕，先我十五歲而生，享年七十六而歿于甲辰，自幼以善事父母，名于鄉里。其遭外內艱，執喪以禮，啜粥面墨，吊者大悅咸曰叔世之稀覯也。慕其孝而署名作契，至於數百人。好是懿德，果是謫然於天賦之仁也。時政無旌里表宅之典，只恐後人不識安豐之里，方謀紀實而豎碑道周，欲得尊座一言之重，不朽於千古。其孤豐鍾，

具幣抱狀，晉謁門下，以尊座樂成人美之德，大筆輝揚，寒門生光，不翅萬丈矣。勿孤賤意，千企萬仰耳。

甲寅正月初七日。

### 答柳維石謙重【50013，潭陽郡昌平面維谷里】

頃於谷校印簡中，有兄夾札致意鄭重，爲感不些。但於年來漸覺印簡之託，已非敬謹之義，謂不可率爾副請，自甘汰哉之譏，故一以含嘿矢心，以兄河量想必恢恕矣。繼以歲尾荐辱惠書，兼付淇東淵源錄三冊，相期相愛之厚，非斯焉求？塵案曾有文苑及尊好錄，其三分之二皆所經眼者也。自餘入室升堂，不無早晚之殊，飲河充量，不無小大之分者，亦又不屑於考覽也。此書成於淵翁中年，自謂可入而未入者，亦俟後世之尙論云云。惜乎！書成後二十餘年，而淵翁立節，若使其間更加增刪，則必無埃乎後之尙論也。嗚呼惜哉！程純公生於孔孟千五百年之後，不傳之學得之遺經，則詩書論孟之外，別無尋溯淵源處，若以天下萬世公共之道脈，必欲區區於接線續流，實非吾道之本意也。無亦淵翁之留埃尙論之出亦此意耶？三五金，孔方適窘，未卽付送，姑埃後便，以是尊諒，切仰耳。尊門世稿編輯，果已就緒否？安仁之風，令人欽誦。弟之所粹吾氏書，似非時月之可既幾去，而事愈煩，儘覺憫憐而已。新年之祝，惟是椿津之湛翁伯玉之寡過也。兄必俛焉孳孳矣。

### 高山書院增築補修陳情書

錫憲謹齋沐再拜上書于朴大統領閣下。伏惟我閣下，爲國十餘年，治具畢張，庶政刷新，尤汲汲於培養道義。凡於孝弟忠信，尊賢尙德之方，誘導勸勉，靡所不至。至於先賢祠宇，傾者修之，廢者興之，不一而足，使人觀感而興起。爲裨補風化之本，此正吾東方億兆生靈無疆之福祿也。第念，天日雖明，不照覆盆之下，慈母雖仁，鮮乳

不啼之兒。以閣下之聖明至仁，亦安能無未及俯察而惠澤未能周治者乎？錫憲，居在湖南，謹以長城郡珍原面珍原里高山書院事情，爲閣下誦。本院，卽文簡公蘆沙奇先生安享之所，先生沒後四十年，全國士林詢協謀議，就先生講道易簣之所澹對軒北而廂建者也。與筆巖褒忠諸院，雖異建立之先後，其爲全國士林之景慕，竝稱湖南之大院宇，則雖輿人走卒，皆所共知者也。然自政府保存修治之方，與二院懸殊。二院則屢有巨助致，輪焉奐焉之美，神之陟降洋洋，右享士之駿奔，濟濟有儀。若本院則建立日淺，施設多有未備，其於國家尙賢之典，補助修治在所當先於他院者，而尙此未有。曷由本院士林未請事體一未仰陳現實狀況，徒延頸而冀政府之補助，愚駭可慙。茲敢不揆猥越，略舉先生盛德大業及本院實狀，而仰聞。伏惟閣下，垂憐覆盆之偏暗，幼兒之呱呱，遣該部官員，查實施大公至正之思，使本院安享諸先生之靈，無有飲恨於冥冥之中，使士林無有不平之鳴，國家幸甚，斯文幸甚。先生諱正鎮字大中，生於正祖二十二年戊午，純祖三十一年辛卯中司馬于文簡公淵泉洪相國奭周主試下，純祖三十四年甲午，舉茂才，憲宗三年丁酉忠簡公菊軒李相國憲救按察湖南時，舉遺逸，連除寢郎臺憲銀臺諸職，地部亞卿經筵特進官皆不就，高宗十六年己卯卒，高宗十七年庚辰四月己丑，高宗遣禮曹佐郎白時洽致祭。祭文中略曰，“早求心師，直契正脈。理源洞見，經旨縷析。高竿朱步，陋巷顏樂。蓄德蘊道，文章餘事。濂閩之緒，靜退之志。陰臯鳴鶴，丘園帛賁。既修天爵，三達采光。三朝恩除，屢循輿望。泊予初服，志切招延。禮數頻蕃，卿月招遷。期究底蘊，柰決遯藏。終始高尚，惟樂東岡。衡泌洋洋，莫回遐心。老年進修，益宏而深。遽而不愁，天胡難諶。誰裨世教，孰主士林。生榮死哀，予懷不任。俾官致侑，庶幾來歆。”云云。贈天官卿，諡文簡(道德博文曰文，一德不懈曰簡)。先生之學以明理，斥邪爲主，與退溪栗谷諸先生，爲東方六大哲學。而丙寅洋擾時，

陳六條疏中，鍊兵條曰，“有武藝出等者，官爲試才，而免其身布。且別爲令甲，使名不載兵籍者，不得赴武舉，非柳葉箭二中，不得赴文試，若環海數千里，無一不知操弓之士，則其威足以折衝萬里，狡虜必脅息而不敢動矣。不幸有事，精兵亦庶乎可得矣。”，求言條曰，“天下未嘗無可用之人，亦未嘗無可用之策，患在在上者不能徧聞而盡用耳。今日人與策不必遠求。竊意不出京城，必有懷奇抱才之士，乞許政府及三營受朝士軍民投書，不拘書面格例，雖諺書亦受之，以盡幽隱之才用”云云。於此二條，可以測先生所抱經綸，大非時儒曲學阿世之比也。如使其言早爲見用，則經邦之道其亦小試矣。有文集二十五卷。門下之高明俊傑，升堂入室，難於枚舉，若言其政事節義之爲世共知者，文科承旨奇松臺文鉉，文科正言閔稽樵致亮，文科校理奇柏石陽衍，文科掌令文南寶東瑄，進士縣監奇耕叟亮衍，諸公皆高宗朝名臣。進士李石田最善舉義丙寅，先生之孫進士參奉松沙宇萬舉義丙申，奇省齋參衍·金鹿洞翼中，戊申舉義討賊殉節。吳難窩繼洙·朴石陰魯述·吳後石駿善·李是菴直鉉·高弦窩光善，庚戌却讎金見辱，不屈其節義，并耀青史。士林之俎豆伸誠，本院之外有光山道林祠·羅州五峯祠·潭陽金谷祠·和順高岡祠·淳昌武揚祠·高興巨文祠·珍島青山祠。先生生於叔季，以當一治之運，前有重菴金文懿公平默·勉菴崔參判益鉉·月阜趙監役性家·老柏軒鄭參奉載圭·眉山韓文簡公章錫諸公撰述，後有玄相允·黃義敦諸史家之稱，就攷其文集，可得其詳矣。本院，未備文集，藏板閣，藏書閣，門樓，紅箭門，典祀廳，直舍改築，及建物修理，錫憲猥以士論，忝在院任于今三載，少無裨補於維持恢張之方，悚甚悚甚。謹此仰聞，伏惟鑑念。

甲寅三月日。

### 與李相京【靈巖郡靈巖面望湖里】

向蒙慰顧，敍得數年褻積阻懷，幸不可言。壺酒未乾，而稱以車便忙發，使薄德之主，臨曠送客，若有畫手在傍描出如許光景，以余謂如何人哉。尚今懷緒惘然，如有失而未注泊也。仰請征旆穩稅，得無繭茶之餘證否？遠溯卽切。弟，年進業退，只覺悶憐而已。尊先雲溪公碣銘，託非其人，而難孤盛教，強拙寫呈，尊覽而揮棄，更求良手，切仰耳。擾甚，不備謹狀。

甲寅正月日。

尊門先德狀碣，多奇道南老善所撰，今春道南集入印時，無漏送單切仰耳。

### 筆巖書院執綱金潤東安鍾宣李道衡邊時淵朴均玉僉座【502】

荐拜來汝華翰，感感僕僕。筆院祀事，雖非有司之地，其於高景之私，固當竭蹶，而適值以室忌日，未副盛教，伏惟尊諒。

甲寅二月十一日。

### 黃山祠任員宋興鎮李百休崔炯鎮僉座【50033】

再昨日，爲高山書院春享祭官出標，及松沙先生墓碑役推進事，行長城，信宿而還，見尊函墮在塵案，乃是來汝之教也。仰感眷注之厚，因先君諱辰爲三月初五日，不敢赴教，伏惟尊諒。

甲寅二月二十三日。

### 與李亨雨【500】

向以室人有疾，問藥入光市，訪曹桐雲兄，憑審尊體與春俱旺，朝天碑役，刻字已畢，仰想頤養有術，進於益壯，董工以誠，亟殫赤心

也。仰賀無射。小弟，近自長城而還，爲高山書院春享祭官出標，及松沙先生墓碑推進事，而有儒會故也。歸路擬訪仙庄，敍得褻積底懷，於光見日曛車促，未果而行，尤切耿耿。案上見有留刺，則光州大都호탈館長外五六人，專車來訪於二日之間，約以三四日間又來云。以弟出外，再煩遠來，亦所未安於心者也。茲有緊託，而事勢如右，故未得躬拜，以書替申，詳於夾紙，勿孤賤意，千企萬仰。恭俟回音，不備謹狀。

### 與金祖煥【502，長城郡黃龍面水山里】

錫熹頓首再拜言。不意凶變，先孺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適踰旬望，哀痛奈何？罔極奈何？吾人不幸而生於東陬，又幸而生於圃隱之後者，喪親咸知三年衰絰之爲經禮，衣錦供佛之爲羞辱。賢者不徑情而俯就，不及者亦必欲企而及之，所以禮義聞於天下，詎意未滿六百載，而凜風突起轉華而反乎羅麗之陋，使人子未能伸情禮於終事之地乎？自時制之行，吾每聞有遭大故者輒念到于此，故不能不爲之慨歎而舉言也。雖然孝子爲心，則應不以是而有所變易也。不審衰年猝當巨創氣力何似？伏願強加食粥，無至以孝傷孝。錫熹，有事于吾宗誌狀編輯，或京或鄉，居不能恒，載陽載陰，事無暇隙，未由奔慰，謹奉疏替慰。伏惟鑑察，不備疏上。

### 與宋正燮仕燮七燮【54312，高興郡東江面馬輪里】

錫熹頓首拜言。不意凶變，先府君竹軒公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仰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距經旬朔，哀痛奈何？罔極奈何？況自時制一變禁衰節哭，尤豈人子所堪而洩情伸禮者乎？且先伯氏未能終養，先逝時日未久，而猝當巨創，終鮮之恨，應復益切矣。惟願強加節粥，無至以孝傷孝。錫熹，冗

故日尋，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疏替慰。不備謹疏。

甲寅二月二十四日。

追伸。

先伯氏喪，雖不能匍匐於即日，禮當修書仰慰於先府君洎僉哀兄，而不敢以例套文字仰聞，而尤添如毀之悲，僉哀則又不詳其名字誰某，故并皆闕禮。只以一書慰在烈君而止，或可并哀恕否？

### 與崔興鎮【光州市光山洞二五番地，大都호텔】

奉晤幾何？燧已三改，幾乎江湖矣。忽荷再枉之惠，非眷注之至，豈能有此？坐席未暖，旋即促鞭。固知其事多忽劇之致，送者安得不悵然如失乎？尊先阡表，既與康石樵有約以揮毫云，故付于石樵，以是諒之。與石樵，更爲參照譜冊，拙草中或有諱官之誤書，訂整入刻，望望耳。

### 與康仁煥【500，光州市柳洞七의二五(五三班)】

運肘行墨，風雨颯颯，飛騰毫尾，花雪茫茫，落下紙面，亭額碑題，申託簇集，已難暇隙，況又築室勑役云，可知力量之宏遠周密，無入而不自得也。排此叢劇。再度連訪。若非從事於曾訓之三省，胡能謀忠之及此？風誼之款洽，尤可欽誦。丹窩麗牲之刻，初擬付于崔友，更又思之，必與高明一次參照崔譜，入刻似好，故并莊軒所撰九臯碣原草付呈，此意轉示于崔友如何？德山楓菴二碑，近果寫畢耶？每貽賢勞，拙門光紫。多感多感。

### 秉天祠【任員，金永萬曹圭復奇世殷高云錫座下。50032，光山郡西倉面金湖里】

伏承來汝之教，仰感眷注之至。身帶高山書院掌議任，禮當十三日午前早期入齋齊宿，故未赴盛教，伏惟尊諒。

### 鶴山祠儒會所【50032, 光山郡西倉面寺洞】

伏承來汝之教，仰感眷注之至。身帶詠歸書院首任，而十八日定期享辰也。禮當十七日早期入齋齊宿，故未由赴教，伏惟尊諒。

三月十日。

### 與李亨雨【号晦山。500, 光州市斗岩洞】

拜晤浹旬，渺如隔歲，古人所謂‘一日不見如三秋’者，儘非過語也。清明佳節，尊體茂旺？頌禱者摯。少弟，第五孫兒，間以浮症，未能上學，入院治療，再昨退院。快復似在幾日內，一驚旋慰。高山書院享日，在仲丁，而不佞忝任掌議，當入齊宿，繼以鳳山詠歸龍山諸祠之享，次第間日，而亦皆帶任，念日之內，似無暇隙，故忠章公立碑告由文及請簡，依教荒草而呈，更加討潤入用，如何？其奉行儀節，若無拘於時制，與貴郡典校儒道會長，商確切仰耳。

### 與高近錫【50032, 光山郡大村面石亭里】

省禮言。曩於鳳山祠享禮，既成燕毛纔畢，勢不可留滯，故乘雨稍歇，忙馳車道，而未遂拚別，尚今茹悵。恭訊，春暮，哀體支安，令阮丈氣力康旺？向溯無任遠誠。錫憲，即以車便抵光市，又值雨注滯宿，翌以還栖。再明行玉果玄亭詠歸書院，參文正公河西先生享禮。身帶院任之首，不敢言勞，強振而赴歸，方圍圍難作，悶何悶何？先大人兢軒公碑役，聞來耳根甚爽，里風之美，士習之正，可有辭於後世。非先大人教化之浹愛物之深，詎能致此？願賢哀益勤負薪之念，無替安仁家風，如何如何？碑文，令阮丈及洞里諸賢有託，故艱草而呈。望須商確叩推而入用焉。

甲寅三月。

### 答宋元變【54323, 高興郡豆原面鶴林里】

未遂覲降之願，恒懷迂拙之慙矣。猥彼不較，先施遠存，副以尊先大人三乎齋公文集一帙，咸戢罔喻。謹未審晚春尊體待時裕休？仰頌者摯。錫憲，泆劣一印耳。駱山詩稿跋，曾有令族姪孝變兄之再三申託，故不揆膚淺，猥有草呈，然辭拙識蔑，未能發揮先大人之全德，意謂揮棄於休紙堆矣。今閱全集，具數於當世作家之列，深愧深愧。第念，孝變兄平生精力，在於發揮先世之潛光，而於先大人又是眷眷不忘者也。未見斯集之印行，遽然千古，念昔相隨於文壇詞壇，爲之惻然心怒也。窃想尊座亦同此意也。

### 與朴文鎬【543, 寶城郡筏橋邑池上里】

曾因節山便，屢探聲息，而未得其詳，居常訝鬱。侍彩佳勝否？恒切溯注。錫憲，旬餘似復入京，豫爲煩悶耳。昨春相分時，以仲秋節再枉爲約矣。歲改而春暮，琤音尙遲，未知有何事端而然歟！所託阡表與楣記，草成已夙，而未知貴邊動靜，故不敢付呈。恭俟回音。

### 答松山祠儒會

恭承印簡來汝之命，仰感眷厚之至。錫憲，第五孫兒，忽以浮症，旬餘見苦，未能上學，而加減無常，心甚悶迫。擬將携而入京，治療於渠叔父處，今明似當發程，故未赴盛教。伏惟尊諒。

### 答曉堂記念事業會【金泆三尹丁鏤羅鉀柱。50045, 和順南面節山】

永訣故人，已十有五年矣。昔與莊軒恒言，自曉顧二兄之逝，吾道益孤。及聞故人之孤瀨，開書道展示會于光市，共造歷覽，胥嘆畫勢之遒勁曰，故人有子矣。今莊軒亦又千古矣。有誰可與說到于此？茲承印簡，節山事業告功，獨坐而喜曰，故人有其役矣。以之講

誦不絕，于茲故人之學庶有其傳耶？嗚呼！而今後方信故人之不死，更向諸賢，頌且冀焉。喜怒交至。追到與故人嘆故人之逝，爲故人弟子，道不覺言之傷支也。第五孫兒，偶有所崇，已浹月而未能上學，心緒愁亂，未能副教，仰惟明亮。

### 與宋元燮【見上】

向書，竊想獲入尊照矣。節屆清和，尊體茂膺吉祉？遠切頌禱。錫熹，身負宗中世德輯錄，業已四年，而尙未訖工。間以此入京，浹旬而返，憊茶難振，悶何悶何？先府君三乎齋公，曾與光州東角柳參奉庠根公，始終綢繆於東鶴祠重修，世所善知而稱頌者也。後承固當世講舊好，而先集姑未見頒於柳氏家云，刊務旁午之餘，或者忘未之入諒耶？其孫曾轉聞斯集之行，願得一帙，而尊閣之以敦世好，此亦盛事也。謹此仰告，如有未頒者，郵送于光山郡東谷面柳溪里元東角柳鍾容所，如何？擾甚，不備，謹狀上。

甲寅四月十一日。

### 與鄭海英【光州市雞林洞三洞八五의二〇。本籍，光州梧峙】

自尊先祖都正公，與我五代祖承旨公，同仕於英正晟際，世好于今幾百載矣。吾兩人雖相知之晚，其繾綣之誼，豈他人比哉？而向屈蓬蓽，座席未暖，而車笛警發，遽爾分張，送者豈能安於心者乎？使兄易地，應解此怒如之恨也矣。靖體連重？是爲溯禱。弟，以吾宗世德錄事，日事紛擾，悶何悶何？題名碑文，約之又約，亦滿百五十八字，而一字減不得，依是入刻切仰耳。餘在續後，不備，謹狀。

甲寅四月二十四日。

### 與朴濟根【光州市山水洞二洞二十九班一九三의五】

向因客擾，惓惓言別，恨何如之？靖履連勝否？瞻言勞止。錫，宗會在爾，而世錄繚解未及十之二三，是誰之所使然耶？爲心不安，日常盍盍，賢亦量之矣。窃願，此後憐此老物之無端促年，更勿煩惱，蒸餅兩手而祝之。齋記郵送，領納如何？

### 答奇玉潭寬【520, 全州市高士洞二街三一四】

先生碑役始事後，義當源源造敘期底十分善美，而身縻宗務，奔走京湖，煩擾未隙，詹誦之極，非是例語而已。瑣尾爲恨。忽承金玉之不遐，致意繾綣，感鏘次骨。嚮於百花亭諷詠契會，逢菊史，承以稅駕釜港有日云。嶺表海端，應不禁把酒吞長風拂劍吸雄氣之思矣。吾謂書劍之遊在其人，不必以子長二十而方謂之壯也。盛意以爲如何？先生墓表，頃於高山書院享辰，猥承士林之託。然窃自以爲聞風私淑，不若親炙而薰德者見而知之，則敘述自有其人，故以不敢承當之意，反于席上者也。向也，汕巖以士論確定之意，言之申申，今又盛教如是鄭重，敢不竭魯蔑於未敢之地以副愛我眷我之至情而求彙括之乎？書成卽後當仰告矣。仰惟亮在。

### 答奇鴻度【300, 忠南大田市紫陽洞二七의四 一統一班】

八耄老人，趲半千長程崙枉蓬葦，兄雖出於奉先之孝思，弟實爲心不安。別後相思，恒切忡黯。閏之二日於京中央宗會，逢月波兢植族叔，問兄安候，則近未相晤而其無大何則可槩云，故稍慰之際，華翰遠到。尊體旺休，念修無懈，溢於言表，欽誦交摯。弟，學疎識淺，而誤爲朋儔之相愛至，使老兄遠屈而有鄭重之託，仰感誠勤，固當用盡愚力。然宗事尤急，待二三箇月後，專着爲計，以是亮燭如何？今考蘆沙先生淵源錄，則尊王考睡軒門人，登錄者六十七人，而多

是潭陽居住，此則華宗老惠氏，以睡軒門生，始終周旋之力也。依是而附于遺稿下，亦可也。遯齋集重刊序，曾向綾城雅士朴君濟根，以文字來往者，再三申託矣。今日書來，兼付尊王考所撰序文，是蓋老兄誠到所致，而朴友之爲人謀忠，亦可感也。以今思之，尊誠所至事可順成，勿爲過慮如何？松沙先生墓碑之役，昨秋士林發議，石已具，而方且入刻其文，則前成均館博士玉山李公光秀撰也。士林又胥謂曰，“當此大役之時，墓表亦不可闕，使錫憲撰其文。”錫憲猥越浚巡，不敢下筆矣。再昨日先生長孫寬，又以書寄，鄭重之意而促之，勢不得免，猥且悚焉。

### 與吳基柱【50005, 光州市西區林洞二班七八】

曾讀先子石崖先生文集，明知集中有上舍吳公光源爲羅州人，庶冀與其後鼻重講世好者久矣。嚮接芝宇，先問家世，果是望中人，其爲慰喜，豈尋常靚降之比哉？亦可以見兩家垂蔭之厚，幸莫甚焉。所以於尊先牲石之銘，累致意者也。弟亦以早晚一訪仙庄，摠得多少贅積爲計。向後源源相圖無渝，如何如何？尊先墓文，并本狀付郵，領納是企耳。

### 與吳成根【50281, 光山郡本良面明道里】

既獲拜先大人林下公有年矣。又辱與白眉結交，賢者便是意中人，靚降之早晚，何足較也？今之爲教，太蔑古道秉塵司成者難睹，學半之效於暮朝之間審矣。賢者束閣經子數十餘年之餘，以何大力量，能燭溫聖賢書而細繹，發爲文辭順婉有序其進，有不可量。深庸欣慰。若使永烈根浩二兄尚在，而朝夕講磨，收效必大，而惜乎未也。賢者比於賤拙，年尚富矣，猛討暇隙，而多讀多作，渾然油然，自有其日矣。是所顛祈者也。先府君墓銘草呈，如有未備，更爲指示，如何？

### 與崔炯鎮【50033, 光山郡大村面良菰里光谷】

昔錫憲居母喪於先君膝下也，先大人昆季公來慰先君喪耦之淒寂，以其有同門之交誼也。錫憲因而獲拜溫溫德儀，第期後來承誨之數矣。是歲忽承先大人蘭報，明年錫憲赴哭公之象筵而來，又明年先君奄棄，諸孤兩家失怙遺孤，惟當源源講舊無替先好，而其未能者無奈於勢也。幸蒙光顧，獲奉先大人遺稿，雙擎三復，感舊悲今，仰慕尤深。茲不以辭拙謝之，敢穢卷端，仰副盛教。倘免佛頭布糞之譏乎？松沙先生墓碣，曾有前成均館博士玉山李公之撰，而尚晚顯刻，昨秋士林發議，石具將入刻，而高山書院春享時，多士又謂當此碑役之時，兼具墓表可也。使錫憲撰表，錫憲猥越不敢承當矣。再昨先生長孫寬，書到致鄭重之意，而促促勢不得免，猥悚難堪耳。

### 與曹桐雲圭復【500, 光州市雞林洞三區二五二, 東和堂】

除却，賓朋之遠來，相須一句，再枉於淒寂窮峽，甚非易事。老兄好義謀忠，使人驚嘆，為感猶屬第二。但逢時未罄底蘊，別復相思，吾人之例事，又何嘗一日忘吾兄於懷中耶？車路穩稅，而氣力泰胖？賀祝遠切。弟，識見淺陋，意思蕭索，而猥承松翁墓表之託，尚未完成。只恐為累於盛德，知罪知罪。所託重違尊教，草呈，更加櫟括，而入用如何？非久似當晉敘，不備謹狀。

### 與奇玉潭寬【520, 全州市高士洞二街三一四】

向修謝狀，想獲入照矣。地闊便稀，所欲種種商討者，既未能焉。遞筒之往而反，亦浹旬可能，雖曰朝暮遇者存，實多離索之歎。先生阡表，猥受鄭重之托，若蚊而負山，不覺汗流而沾背。自顧意索辭拙，其何以發揮盛德之萬一乎？然盛教有促，若復稽緩似非平日景仰之私，故謹考先生文集及年譜行狀玉山集，參以東方先儒之碑

表，僅僅綴構，自不滿意。況於他大方眼目乎？未引三閩事而結之，欲緘一種偏諛者之多口也。未知合於盛意否？竊觀退高往復書，退溪託其先大人墓文於高峯，面質書問經年而成，退溪見之，其於感謝書末，更請二三處修潤，高峯或從或不從。夫以爲親丐文不於先生長者，而託于門下以先生之命而從否，居半文字之難果如是也。況乎不足齒於文者，謂之如何？全篇之辭以書商確替面媵媵，切仰切仰。

### 與朴濟根

屢枉穩紱，餘慰尚存，世德收輯，積苦之餘，收效在於不遠云，爲之仰賀。錫憲，宗事尙此汗漫，而遠近賓友，不恤人人事情，間多請文，難於酬應，謂之奈何？盛教攸托，屢枉之誠，不可孤負，故今纔草付，傳于本人，切仰耳。

### 答權寧珩【380，忠北忠州市場二層，忠州鄉校連絡事務所】

伏承簡通，良感眷注之至。荷江書院重建顛末，前既承書，繼於京吾氏中央宗會席上，因族大父承箕氏，獲詳其一一。今承寵書，差吉奉牌在來日曜，尤賀僉尊緇衣之誠迥出等夷亟底允臧也。錫憲，念昔二十年前，與族大父祐謨氏，同參慕堂先生不祧祭於荷江講堂，翌與僉宗登慕賢亭，諷詠而歸，如昨日事。景慕之地，固當竭蹶，而適以孫兒有所崇入院，未由遂誠，悚甚悚甚。伏祈縉儀利行，不備謹狀。書院重建韻及慕賢亭韻，搆呈，仰伸敬慕之私，伏惟尊領焉。

### 答邊時淵【502】

書中不言動靜，穩侍可悉，慰賀不些。錫，自初夏五孫有所崇，引而抵京，治療于吾兒處，似有快效，還家旋發重證，治于光州濟衆院，

退院僅旬餘。荊妻亦間多叫楚，或至甕飧之窘礙，悶何悶何？夢中玉潭書來，得聞賢執以松沙先生碑役，有所討確，獨賢之勞，固不可當，敢不爲山水翁賀有後不棄基也？松翁墓表，固知非淺諛之率爾下筆，故浚巡者屢矣。玉潭書促，其義鄭重，不可終辭，僅僅構草，付于完山，以書更加商討櫟括之義，屢屢申託耳。追記之補略，一番讀來，如見熟考深思之勤，但意有餘而言欲簡，使後人猝然臨之，似未可容易於洞其倫脊，故依其意有構，非曰能之，欲相悉於無間然之地也。勿掛人眼如何？

### 答奇玉潭寬【520】

荐拜垂簡，披瀝高見庶無間然，而相悉商訂，喜不可量。生平惡夫偏諛之輩猜賢忌能而造言興謗，眩惑衆聽，尙今亦不無陷襲瞽論而聘舌者，所以引晦翁說而明之也。更又思之，似是與末流淺冗，啾啾，較得失無或爲累於先生訥默之德乎否？向書奉此一節，而質之高明案下也。今承盛教，淺疑可決，敢不刊？去陰小晦，汕巖書到，并示以追記草本，故亦有論訂，互相參考如何？追後更商，是所顒望。

### 答金相晉【502，長城邑泰昌洞】

錫憲白。私門不幸，今月之旬，哭第二男起鏞喪，悲酸不堪，不忍欲聞於故舊，而蘭書闕，亦非坐於時制而欲自踈蔑也。第以松沙先生碑役，春園汕巖，則近有書信往復，不可不聞知者，故三四日前數字追告，姑未知入照與否也。殃積乎躬而自招逆理。未赴盛教押韻，亦神亂未構。些額會金，難可郵送，亦俟日後措劃，并尊諒如何？

### 答奇鴻度

錫憲白。私門不幸，第二男起鏞，遽爾逝去，悲念酸苦，不自堪忍。

伏蒙尊慈特垂慰問，其爲哀感罔容云喻。涼意漸生，伏惟尊體保重？錫憲，幸免他苦，末由面訴，徒增哽塞。謹奉狀，上謝不備，謹狀。尊王考遺集校讎之役，故舊鄭重之教，不可孤負，故悲酸中一一考閱，略加刪潤，犯手於先進長德之文，極知僭越。然竊念，朋友亦天敍中一倫也。信義之託，不可不以信義酬應，人彛物則之當然也。且攷松沙先生執紼錄，吾先人石川公與尊王考，共治先生之喪，而旬望相守，則其有講論之誼，亦可仰想於百載之下也。重講通家之誼，豈凡他朋友之比哉？所以用盡愚力，正其魚魯之訛，依蘆松文集例，而釐整目次，騰附門人錄于篇末，序跋亦當構草，仲秋之節庶可完役，以是尊諒。陰八月十五六日頃，必枉以爲合席商確之地，切仰。恭俟回音。

高山書院

詠歸書院

長淵書院

武陽書院

鳳山祠

花潭祠

德林祠 儒林 僉座下

錫憲白。私門不幸，去六月之旬，哭次兒起鋪喪，身嬰葦服，不可駿奔於清肅之地，謹此仰告，伏惟尊諒。

答奇玉潭寬

錫憲白。殃積于躬而自招逆理，悲念酸苦，不自堪任。卽蒙俯賜慰問，寬譬以理，其爲哀感罔容云喻。向者汕巖有書，期以七月初二日，與春園玉潭一席團樂，商確諸般後，省拜武夷玄堂，盖未聞賤拙

之遭慘而付簡也。身雖未赴，而馳心則未嘗歇後，未知伊日果能成會而妥協允臧耶？願聞者摯。今旬七八頃，又作京行，宗事攸關出於不得已也。惟祈加愛珍畜。不備，謹謝狀上。

### 答姜璘【520, 全州多佳洞一街六0의二】

錫憲白。私門不幸，去六月之旬，哭次兒奇鏞喪，悲念酸苦，不忍欲聞於知舊，故蘭書亦闕。惟於玉潭春園汕巖數處，以松沙先生碑役，種種有寒暄往復，故不得不數字追告矣。尊慈轉聞即時特賜慰問，寬譬以人與物之脩短，古聖賢所遭之逆境，示喻丁寧愛我爲感。但切下懷。涼意比緊，伏惟尊體珍相？錫憲，幸免他苦，未由面訴，徒增哽塞。謹奉狀上謝。不備謹狀。

### 答金源益

錫憲白。福善禍淫，理之常也，而私門不幸，七旬晚景，遭此慘變，自知殃積于躬而有不可追也。雖然猶是骨肉之親，不無舐犢之戀，其爲悲酸，實難堪抑。尊慈特垂遠存慰問，鄭重寬譬，以命理之無可奈何，愛我情眷無以學喻，但切下懷。松沙先生碑役，承以入刻，那間可訖鑿工耶？宗事叢且遑，又此罹戚，未遂躡塵，綢繆之賤悃，使同事諸彥獨賢於重役，知罪知罪。倘加忖涼而曲恕否？未由面訴，徒增哽塞。謹謝狀上。

### 與李珣鉉【長城郡珍原面珍原里】

錫憲言。令從氏初夏崙訪寒棲，託以先大人直軒公阡刻，臨分以涉望後再顧丁寧爲約矣。經夏而秋，尙此無聞，心甚訝鬱。今晚承訃，孰知其丁寧再顧之約反爲千古永訣之言耶？人之寄世，果是石火風燈，驚愕之至。緬惟友好之篤，悲悵爲情，何可堪勝？涼既生矣，不

審體履何似？深自寬抑，以慰遠友之情。錫憲，六月之旬，哭次兒喪，暮年衰境，悲念如燬，未得趁慰，忉懷增深。先大人墓文，構成有日，仲秋節後廿日內，一枉如何？不宣謹狀。

### 與李均相【長城郡珍原面珍原里】

錫憲頓首。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頃在肇夏初，遠顧弊庄，託以先從祖直軒公墓文，約以經望而再枉矣。孰知其晤之約幻成永訣於經望之即後耶？緬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卒哭，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老而不死，去六月之旬，哭次兒喪，心焉酸苦，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狀。不宣謹狀。

### 答鄭東樵喆煥

錫憲白。樗櫟之年，不死爲辱，次兒起鋪奄忽喪逝于去六月之旬，悲念火燬，不啻不欲言，縱言之孰肯欲聞逆境之報者？所以絕不發蘭書，爲違吉凶相聞之道。惟於事勢緊關，尺牘源源於即日之數處，不得不聞，若松江集翻解·松沙先生碑役，及吾宗誌狀出版所也。伏蒙尊慈轉聞而特賜慰問，曉之以運氣之有素定，喻之以聖賢之所遭遇，丁寧之辭繾綣之意，有非昌黎慰東野玄衣詩友諷以臯食其母之說，刻薄而急遽，非愛我之篤，詎能有是深篤哀感？但切下懷。剝棗之令，伏惟尊體萬重？錫憲，豚犬之兒，具數于七，而無一千里駒，碌碌可愧。但餽錢之索，鹿轡之辨，亦免雍雩之癡爲乃父者，以爲些幸矣。豈意忽地風浪補猜鬼，敢使白首之父哭健兒之阡耶？揆之以上天聰明苟無其故變不虛生之古語，則殃積于躬而自招難追之藥也。究歎情地，不可悲也，伊可憫也，而才不才，亦各焉其子，故舐犢之戀，有禁不得者，悲酸蝕裂，固知西河喪明情或其然也。聊以尊慈所教，銘諸心肚，而寬抑爲計焉。末由面訴，徒增哽塞。謹奉

狀上謝，不備謹狀。

別紙。

昔文谷先生季子澤齋昌立，十八而夭，文谷爲請詩稿序於息菴金相公錫胄，請墓表于尤庵先生，親書而刻立。全齋任先生之子，十五而夭，全齋請蘆沙先生立傳。皆哀其短年，欲托賢者之筆，而不朽於來斯也。豚犬之兒，雖德不及，彼二子然今四十六歲，而有男一女四，男踰冠，女三踰笄，男一女一各掌簿記于公廨，則其年有長於二子數十年矣。才不才亦各焉其子，故願托吾兄之筆而不朽，勿咎溺愛，哀些一章，書送切企耳。其行則無德可稱，亦無惡可惡。物我無間於兄弟，先世諱辰及余內外生朝，歲時佳排，必具饌品及衣類而來。勢不得，則使其妻孥代行，居光市月山洞十數年，故吾呼以月山兒，兄弟亦稱月山兄月山弟，諸孫亦稱月山叔父，月山爲渠雅號矣。

### 與朴鍾璉【細枝面楓洞】

錫憲頓首。不意凶變，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惶，不能已已。緬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卒哭，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以新涼入郊之節，趨哭靈筵，繼以慰哀執爲料矣。去六月之旬，哭次兒喪，心懷悲酸，素意未遂，悲係增深。謹奉狀替慰，不宣謹狀。

### 答柳奇遜柳得鉉【50281，光山郡本良面德林里古岩】

未遂覲降，而獲拜先施亞面，何感如之？茲荷華宗在華兄之委訪，凭審靖體珍相，尤協顛禱。錫憲，殃積于躬，而自罹逆境之慘，見此佳節，其爲悲念，實難抑遣，悶何悶何？節饌之惠，猥承遠存，而却之近於不恭，沒廉冒受，尤增不安。幸庖在邇，禮當駿奔，仰助吉蠲，而身嬰期服未爾，倘勿咎緇衣誠薄否？不備，謹謝狀上。

## 答奇鴻度

新炊午飯盤將出，而稱託車發，坐席未暖而即爲上程，在吾輩相悉之地，如是循例稱廉，未知其合於久敬之道乎？悵結有倍於他日。兄亦退而思之，應不無忘金郎之慙矣。墓碣墓表，其於吾先君子從遊之地，與他自別，故用盡愚魯精力，屢日思索而草呈，不容一字加減也。以是尊諒，切仰切仰耳。惟祝先集印役順成。謹狀上。

## 答宋在檜柏軒【500-5, 光州市東雲洞栗谷】

錫憲白。私門不幸，去六月之旬，次兒起鏞奄忽夭逝，悲念酸苦，不忍欲相聞於故舊，絕止蘭書，惟於七八處。院祠則梁上掛名，而身嬰葺服，齊明盛服，無處可施，則有不可參者，故踰月後追告于諸院中儒林矣。尊慈轉聞而特賜慰問，非愛我之至，豈能有是？感不可量。秋氣爽涼，省體怡愉，無暇？栗里清風，松碧千丈，菊秀萬叢否？賀不容已。錫憲，幸免他故，而客優煩悶耳。來汝之教，眷愛可感。然是日即宰庖，而聶尹祭爲主出標，猶屬其亞也。安有服子服而折旋於尊俎之間耶？更擇膚敏，切仰耳。

## 答鄭雲翰【500, 光州市豐鄉洞三八】

錫憲白。殃積于躬，而自罹難道之槩，猶不能禁得舐犢之戀，悲念酸苦，不自堪任。亦不欲提逆理之遇而向人說道，故絕止蘭報。惟追告于吾兄者，第以前此自青友堂有集會通牒而聯署中，免兄啣故訝而不赴，未幾獲拜兄書，因知愚道之非。妄切擬晉敘多少說話，仰慰獨苦之賢，而遭慘未能略略話及也。刊役忽擾之中，特賜書問，諭之以脩短之有數，戒之以西河之喪明，感荷之至，尤切下懷。秋氣爽涼，仰惟尊體珍相？凡重大之事，率多滯礙者，以其事體軫重，與他自別，欲動忍增益而鞏固之於千百斯也。彼蚍蜉之蠢，其於先

生正大之氣，何哉？惟祝益加勵精，大事亟成。謹狀上。

### 答筆巖書院掌議金潤東安鍾宣邊時淵朴均玉【502】

錫熹白。私門不幸，去六月之旬，次兒起鏞奄忽夭逝，身嬰菴服，不可駿奔於清肅之地，謹此仰告。伏惟尊諒。

### 答金源益【502】

頃拜華翰，松沙先生碑役入刻則承聞，而樹立日字則懵然不知。蓋緣宗事多端中，忽此遭慘，心如亂麻，抑或聞之而不能記臆者耶？知弟之勢不可參而不告者歟？日者，珍原李生珏鉉便，始依稀入聞，今又承書果爾。尤賀兄與汕岩獨賢之勞迺出萬萬。弟之不敏也。告由祭享，以何日卜定耶？伊日必參爲料，更爲書示切仰耳。院祠之祭，清肅莫重，而宰庖出標，便是祭禮之始也。身嬰菴服者，其於齊明盛服之義，有不可參，故往月豫告于諸院儒林凡七八處也。尊諒如何？不備謹謝。

### 與奇鴻度【300】

重陽佳節，兄體衛重？仰賀且祝。潭陽之安養洞曹君基柱，育樂齋先生曹公諱命燁之六代孫也。間者請育樂齋基碣追記，因詳其原文，則尊兄王考丈所撰，而成於崇禎後五丙辰者也。五十九年後，始具美石，而將入刻，不可不追記其事，故謁余記之者也。以其爲尊王考丈手澤，故敬慕不已。且抄一本而呈，入梓于墓碣篇如何？仍念，以弟之愚，凡百迂疎，而每於尊先集刊役前後，有一二摭實補闕者，實非偶然也。或者尊王考與吾先君英靈誘發迷衷俛篤世好耶？明春當一晉，以謝屢枉之勤意矣。歲內速爲珍齋，切仰耳。

### 與曹基柱【50014, 潭陽大德面安養里】

隔年奉晤，半日拚別，別多於會，免不得者，乍欣旋悵。秋日易曛，想應犯暮旋庄矣。遠念靡解。弟，素是蔑裂，而自今夏遭慘以來，精力尤爲衰耗，先忘後失，例若天成，悶憐奈何？尊先祖育樂齋先生墓碣追記中，再乙丑云，亦是此例也。更詳原文抄本，則睡軒奇公撰於崇禎後五柔兆執徐，古甲子，柔兆丙也，執徐辰也，當日再丙辰，則乙丑二字，改以丙辰，切仰耳。入刻似在近間，故卽爲書告，諒在否？

### 與朴誠堂哲洙【52002, 現住, 서울特別市佛光洞二八〇-六五七。本, 海南花山面月湖里】

清和節頭，天冠山腰，摘葉爲杯，酬酌佩壺，要記山中古事，不可逸者也。令兄豪宕風韻，快豁胸次，覬得十分難忘於八年之後，向迕之至，不以靚降之早晏而有間也。但摻裾甚闊，悠悠之思，青青之衿矣。茲被遠存，惠以尊先大人三昆季公聯芳輯稿，不我江湖，爲感僕僕。尊先稿薇盍圭復，儘覺偉壯，吸秦隴之雄氣，吞吳越之清風，白眉公有之，汪汪胸波，泱泱心香，海隱梅湖，仲季公難焉可。但椿津家風，更覲於千載之後，從知棠陰之芟夜不閉門，以藍田之玉必有樹藝而後出也。仰頌仰頌。令伯氏兄，遽作千古，聞不勝驚愕。以兄之友愛隆深，終鮮之痛，何以堪抑？伏願深自寬譬，以慰遠情。弟，去六月之旬，哭次兒起鏞喪，心焉如燬，而賴有朋儔之相尋，談經說史度了時日矣。那當合簪日敘盡髮積底懷耶？不備謹狀。

### 與朴秉日【500, 光州東區錦南路五街二一三。醫學博士全大教授, 東洙子哲洙姪】

素無雅分，而垂以盛訊，惠以先稿，風誼之厚，何處得來？謹奉讀先稿，始知高明爲吾故友仙菴之三允誠堂之賢戚，爲賀故友有能子要

篤世好於先大人之損友也。先王考三昆季，當日負望之重，風誼之賢，不下於椿津家法，得於遺稿，實不勝慕仰之至。更以堂構，播穫之勤，奉勗於諸賢，統希雅亮。

### 答高愚下允柱【50011, 潭陽郡古西面校山里】

頃賜賁趾，餘芬尙留座席，今拜華翰，光彩增耀几案。賢人攸惠蔀屋，忘寒威不可量。小春猝冷，八耄老人，不以筋力爲禮之日，猶能快登遠程，使尸祝尊俎之士，不眩於揖遜升降進退之節，嚴遵繩尺，是所謂各盡其道於所在之地，非道兄讀書窮理之至，孰能有此？矍鑠可賀，素行可頌。服弟，偃息山窓，未安實多，而又拜膳俎之遠致，固知其出於禮雖小不可遺之義，然悚切悚切。遠祝道體珍蓄，以幸士林。謹謝狀上。

### 與李春谷康仲【任實郡屯南面新基里】

錫憲拜言。去月晉慰，因路夤而車笛促刻，未免報拔來去。歸而思之，益覺悵然如失。小春猝寒，伏惟哀體以時支旺？仁庇均吉，讀禮之暇，揮毫入神？遠外溯祝靡弛。叔季俗頹，所可道也，言之長也，而尤所痛嘆者，喪禮之壞敗也。況政教施以服不衰祥不暮，年少之爲人子者，靡然從之，使賈誼復作，未必不添此一條於痛哭流涕長太息者也。竊觀哀兄，不爲時潮所流，面墨樂樂於筋力氣衰之年，使人復覩宿昔之禮儀，平日讀書之力，有不可誣，豈不誠歆悅乎？服弟，去六月之旬，哭次兒起鏞喪，心焉如燬，不可參於尋常衆會，而舍伯擬參契筵，故陪而從之，始知哀兄之草土持制，得遂半餉之慰也。抑又仙庄之勝，早傾鼎鑪，夙擬探勝矣。適見古木圍鬱，瓦縫蒼碧，俗尙禮義，淳風藹藹，如入玄圃閭風。是行也可云不負宿昔之願也。謹考正祖時刊行湖南節義錄，則尊先祖琴軒公父子，與我十二代祖壺隱公諱民彥父子，并從高霽峯倡義，載在義錄十七及十九頁，吾後生豈不是通家子乎？是尤所仰慕而俯感者也。竊想哀兄亦同此意也。地不甚近，未得源源，勢也

無奈，而中心介介，則何日無之？伏惟哀照，謹疏上。

### 與李雲溪甲儀【任實郡屯南面屯基里】

并世而生一幸也，同案而契二喜也。同聲相應，同氣相求，非此之謂耶？但兄磁我針，兄琥我芥，賢愚不醜，可慙可愧。向荷折簡，遠邀勝會名庄，得見瑤環瑜珥。春光滿屋，山果海錯珍味盈盤，御家之和，對人之敬，果是古家法度濡染，頌何如之？服弟，遭第二兒起鋪喪，在去六月之旬，心焉如燬，不可參於衆會群集，而舍伯擬參契會，故陪而從之，與兄得遂三日之歡也。追念是契也，初以蘆沙先生淵源錄刊役發軔於澹對軒，而呂雲沙奇莊軒朴石泉及余發起者也。其意度，則在於講磨切磋，而同志之參案連增，無奈從衆所好轉成佚蕩風流，其滌蕩千古愁留，連百壺飲非不恰好也。究厥歸趣，亦恐世人目以八達之流亞也。私自代悶。第念賢主翁之款意好江山之勝景，曾所不圖也。諒之奈何？感兄之義高，而禮摯爲誦，既醉以酒既飽以德之詩，兼以蕪草鳴衷而謝，倘不以翮縷見責耶？謹拜狀上。

### 答高光秀【50013，潭陽郡昌平面柳川里】

光館萍晤，依依若夢境，悠悠日月，耿耿懷想。敬承麓川遺稿之惠寄，寵翰隨之，非故人愛我之至，何以得此？感戢沒量。陽復在邇，靖體以時泰旺？頂祝靡懈。服弟，私門不幸，去六月之旬，哭次兒起鋪喪，舐犢之戀，實難堪抑，只自憫憐而已。鹿川遺稿之劄劄于昌平印社，曾承盛教，而一未晉慰獨賢之勞者，蓋以此也。敢望忖度而勿責耶？今茲役訖而頒帙，非吾兄重宗之義兼緇衣之誠，詎能辦得大事業於允臧之地乎？竊念，大人君子之嘉惠後生，不可以事之成敗功之淺深軒輊之也。公之義舉，與江南死法，前後一揆，凜凜氣節，能有以愧。夫當日之面韓而肚倭者，能有以厲。夫戀祿而懷二心者，於千秋斯集之行，其於世教，烏可曰小補哉？尊閣枯梧，以

爲警省之符，樗櫟之年，倘聞褒義祠縉儀之成，當勺東海之水，折西山之薇，拜獻于英靈矣。未知化翁其能假以賤齒耶？不備謝狀。

永俊君，曾於褒忠祠一面，而今聞繼述之勤，不可無柏悅之賀，故付去數字，倘可入照于尊覽耶？

### 與高永俊【50013, 潭陽郡昌平面柳川里】

昔也，駿奔於褒忠祠尊俎之列，與賢者得遂覲降於燕毛之席，婉變丰儀，使人可悅，自謂鹿翁其有後矣。每逢士友，爲之稱道者屢矣。業已七八年，而突弁有日，芝宇想益嶄然秀朗，德器愈擴，而衰懶踈蟄，未卽源源，濯濯之姿，棣棣之儀，森森於阿覲而已。謹未審，盡瘁於先集刊役之餘，靜體不瑕有損？仰頌區區。錫憲，夏間遭摻以來，漸覺形壳之難於支吾，憫何憫何？第念，賢者主鬯於毅烈公先廟，而於鹿翁且有遺澤之不斬，其於齊明灌薦之辰，如見陟降之洋洋，優肅之慕，應有倍蓰於他人思，所以聿修無忝于先烈者，惕然不已也。期愛之地，不勝柏悅，既以仰頌，繼以奉勗焉。先集之到，別有所感于中，謾此翫縷，倘休咎否？不備謹狀。

### 與李柏軒震行【50128, 靈光郡大馬面元興里】

陽復已有日矣。經體崇茂，搬移那時理行，抑已住于新居耶？無便可討，菀之甚矣。服弟，寒威所劫，狙卧山牕，萎薶日甚。以柏軒翁之貞固聞之，應發一晒也。軒記，非蒲質之所敢，而辭則近嗇，故頃已諾之，今始艸呈，勿以其辭以其情而掛之，如何？

甲寅十一月。

### 與曹桐雲圭復【500】

向以冰說，訪松湖兄於豐鄉洞，繼有緊急，未歷絃仙庄而卽旋，茹悵

尙切。經體與陽復增泰？恒庸翹祝。書室記，想已多名士之佳作，如拙構，不過畫蛇之足也。何足掛楣，使明窓棐几反爲失色哉？然舊交之久益不渝，則因是而略敘，猶賢於已乎？

### 答李柏軒震行

再度委訪，講舊論今，亶亶達宵，繼以華翰，辭意珍重，益覺淵源世好縉縉情誼，非尋常交遊之比也。遠塗利涉，研經入精，何等好消息？仰頌無斁。服弟，一是冗碌，無足爲愛我者說道。遭慘以來，姑未晉參於松沙先生碑役，而樹立允臧，則承聞已宿，擬將造慰尸事諸彥之賢勞矣。近又承表礪誌狀劄劄之報，實不勝喜幸之至。士林氣脈，或可從此而漸有振刷耶？身旣嬰服，不得駿奔于齋宿之日，十九日祀事畢後，參于旅酬爲計，伊席席可握敘矣。柏軒記，姑未申紙入思，然決不食言，徐俟之如何？

甲寅九月。

### 與曹桐雲圭復

歲聿云暮，亦似多情，故人欲別而不忍別，拿節馳想有倍平品。城市多人事送迎南北，下榻折柳，應無闕辰，倘無欠寧於節宣否？仰慰不淺。服弟，山村幽僻，亦無日無友，是亦濱歲事忙之致耶？尊族祖杏村公墓表，抽筆之際，參攷宋子年譜，則肅宗丁酉祭享文廟疏，自湖南始起，而并同春共請疏事，鄭簫隱敏河主之，而鎮河卽簫隱之伯氏也。兄弟議同，今猶可推，故於疏請添入簫隱於事項添以同春也。景宗壬寅，申慶濟等有誣疏，故於疏辨明記凶疏窩主也。蓋金石之文，必須敘事的確，可無後人之疑，故妄煩至此，爲永穆詳陳此意，如何？

### 與羅甲運【59181, 文平面五龍里】

頃於承乾戚從便傳聞，再運從忽爾不淑，人生果如火風燈耶？衰朽紛冗，末由晉慰，只切切怛。謹未審，寒互服體支勝，仁庇均慶？仰頌不任。戚從，私門不幸，去六月之旬，哭次兒起鏞喪，暮年逆境之慘，實難堪抑。只以渠之遺男，年已勝冠，似可扶持生計，以是些慰耳。先祖遞菴公記念事業之發軔，備悉於承乾所道，中心欣賀，不以內外裔孫而有間矣。今承委員推戴狀，自顧才菲識薄，有何裨補？惟於景仰之地，義不可辭，庶竭魯鈍仰贊大事爲料，明亮如何？李疎軒宗烈，全州李氏襄度公天祐之後，登進士文科，官至掌令，有文集二卷，而託余校正，故攷閱全集，遞菴公配享松齋祠時，告由祝文不載，故余依遞菴公遺蹟所載，而鈔錄登梓耳。且前此十年頃，本道文社局編纂道史時，梁東柱王在一諸友，問余以遞菴公鱸船之制，故攷公遺蹟，無圖式可詳，余更問于公之本孫諸賢，無有能詳者，只以扞造鱸船，略爲入錄，若贊造龜船，則依稀忖度，而未聞確論。今也，以研究忠武全史之專門李殷相博士唱言，公實贊助龜船云云，非無稽之浮說也明矣。無奈天誘當世之考證家欲表明公之忠義經綸若晴天白日者乎？幸莫甚焉。惟望續後源源。謹狀。

### 與李竹軒仁奎【長城郡北二面釜洞】

迂愚空疏，自知不足有無於斯世，而使八耄老人不憚山之峻水之深，於載塗雪濘之辰間年，委訪於寂寞之濱，愧悚愧悚。惟英明嬰鑠無減於數年前拜晤之日，是卽充養浩氣之晬盎於面背者，亦知思孝之誠天祐善人也。敬頌曷既？竹圃齋公墓表，與臥龍齋重建記，盛敦鄭重，不敢孤負，略率入草。然素乏緻縝之才，又無細思熟量之工，故文不達意，未知其果合於金石之刻乎否？更求良手，無欠發揮如何？所惠管城子，新銳初生質兼剛柔，大小曲直能解，乃主之意中書之得適材，文房之福也。非兄夾袋中薦拔，愚駭如弟，亦安能如囊

中之毛生乎？獻發隔旬，惟祝經體加愛珍翬。

答李鍾萬【59026，靈巖郡西面蜈山里】

書後有日，而歲且紗薄，尊體一直清裕？先亭之役，倘已告功否？節過定中業已久矣。連日沍寒，爲之貢慮不已。亭記，近始構草，而先大人重修事，依教入綴，諒存如何？明春上元節後一枉，翹企耳。惟祝錢迓增祉。謹狀。

甲寅十二月日。

答魏毅齋錫漢【59048，長興郡冠山面堂洞】

錫憲白。私門不幸，次兒起鏞遽爾夭折，悲念酸苦，不自堪忍。伏蒙尊慈特賜慰問，其爲愛感，但切下懷。歲律垂暮，伏惟尊體萬祺？錫憲，幸免他苦，末由面訴，徒增哽塞。謹奉狀上謝。不備謹狀。

答吳成根【50281，光山郡本良面明道里】

錫憲白。私門不幸，次兒起鏞遽爾夭折，悲念酸苦，不自堪忍。仰承仁恩特垂慰問，愛感良深。歲聿云暮，恭惟體度亨佳？錫憲，近以右脚不仁，動止不便，悶何？末由面訴，徒增哽塞。謹奉狀謝。不宣謹狀。

答柳謙重維石【潭陽郡昌平面維谷里】

維石書室，故凡鳥則不敢題，而只恨德不及古，信息不甚大，量日力之暮，當歸棲徑發行數里，巧爾班荊於松江亭下相江之濱，曾是古人送迎之名驛，壚姬艷花煖酒而迎，街童寒風駐車而待，此是冬日江村之勝事也。床頭鼎足會，傾蓋一壺酒，侵曛討話，勝於一夜讀十年書，亦不易得之奇緣也。況又乘黃之贈，坐到光館者乎？感何如之？未旬，而華箋忽與雲外天香，續粉而下，良慰企懷。先祖經歷公墓表，幸蒙不惜鉄肩之運，龍騰鳳翥，俾光阡道，私門之幸，孰大於是？當鐫佩心肚，永久難

忘。服弟，偶以右脚不仁，步履不便，而略有集松沙先生碑役扶成金，故念二日發長城，撥冷暮歸，益覺憊茶難振。盖因素乏修養之工，故中無澹寧立致之得，外衰安得不與年俱至也？只自悶迫而已。獻發在邇，惟祝加愛珍翬，以副遠祈。

### 答禹源鍾【潭陽水北面大舫里】

歲新，舊友書莫非論文評史，而兄書忽墜，亦其意也，端木氏所謂朋友如切如磋，儘覺緊切語也。矧審泓穎作友，靖體益泰，尤副詹誦。騰示拙構，看來韻不叶瞿然，更考私草，則果多誤書，盖精力粗薄，故臨時寫出之際，致此疊杖之誤也。未老先衰，已在七年前，可呵可歎。非兄之直諒，烏獲此惠？雖是固之誤，殊是異之誤，可是宣之誤字，故私草鈔呈，考可亮詳矣。但祠字韻叶，而其辭意，亦不可易以他字依存爲可矣。服弟，偶以左脚不仁，行步不便，歲末鰲山之行，已是強刷而連袂諸友，討話半日，暫覺爽然矣。歸路痿氣更發，纔到光州，下車難於跬步，幸賴辛春岡兄之仁愛，携入于驛頭故人家，行針四穴，二時後，又復乘車，僅僅抵棲。今尚不健，日接賓友，又多強振，故夜則痛甚，悶何悶何？

別紙。

二友軒實記中，拙構景慕齋重建次韻，第四句‘穀朝又值定星中’云者，定是北方宿名，而一名營室星也。十月正中于天，而農工已訖，宜營建宮室，故名之也。今按實記印本，星字變爲宿字，似是兄監印時未及精察也。塗改以星字，可不失作字本意，諒之如何？

### 與黃秉俊【59020，靈巖郡靈巖邑龍興里烏谷里】

曩荷貢顧，得遂覲降，幸何如之？旋旆利稅，倘無勞攘之餘憊耶？頌

切頌切。錫憲，以左脚不仁，便覺起居之難於任意，悶何悶何？松齋梁公遺墟碑，強拙寫呈，奈筆力萎衰未能發揮懿德何？覽後揮棄，更求良手，是所切仰耳。

答崔圭太【59026，靈巖郡西面鳩林，國巖祠掌議】

錫憲白。齒積而數奇，去歲六月之旬，哭次兒起鋪喪，期服嬰身，不可駿奔於清肅之地，謹此仰告，伏惟尊諒。

答金鍾燮【520，全州市南老松洞一八〇-八】

錫憲滾汨塵冗，昔在先府君大歸也，未遂象筵一哭，祥琴之聲亦又有年矣。數閱哀些一幅唁狀，置郵送呈而止，安在平日講論世交之親乎？心則悚悶，不以日久而弛之也。高明不以蔑禮無似，置之江湖，惠投簡通，示以先集刊出之意，指日招會士林，謂其為先人之未交也。重父友之孝，容人之洪，何等法家風誼？拜歆拜感。錫憲，齒積而數奇，去歲六月之旬，哭次兒起鋪喪，如燬難抑，而身且未健，以右脚不仁，難於步履，已浹數月，刀圭罔效，悶何悶何？第當即書覆未赴之意，病枕難於操觚而未焉。茲又承刊所通文，得聞諸君子并力齋誠，先府君德愛入人之深，斯可槩也。但以襤襪微名，具數於有司之列，不堪可忤。然揆以情地，故人身後之事，故人與有責焉。又何敢辭？俟行步稍可，即當趨參席末為料，而二豎之退聽早晏，又何可必也？姑胡草，謹狀。

先府君遺文之尊閣塵案有四札三詩，皆極道世交之篤厚，寔吾兩家後承悠久講親之資也。倘不為遺珠於本稿否？略草其頭辭而呈，考閱而書示存否如何？

答月潭遺稿刊所書【520，全州市東棲鶴洞이三番地，三省印刷社。總務吳炳根，都有司安鍾宣】

去正月中旬，獲金斯文鍾燮書，知其以月潭遺稿刊事有儒會，而錫憲，以右脚不仁，艱於行步，未赴席末，病枕艱草。且未即幅書修謝，繼以承刊所通文，仍知刊役規劃綢繆井井有序，將見不久允臧，斯文盛事，誦甚誦甚。惟以淺昧具數於有司之列，其何以仰副僉尊眷注之厚乎？內顧增慙而已。俟行步稍利，即當晉拜矣。伏惟僉照。

### 答申元植【520, 全州市金巖洞二街五四五의五】

不謂菲劣謬入盛聞，降辱雲箋，辭婉意摯，奉讀再三，仰想風誼愷悌，迥出等夷，觀降之願，寔切于中，而悅若雲梯渺然千層，可望不可及，云何悒矣？德與年高，樂而忘憂，應有人不及知而已。所獨知者矣。艷頌不以面不面而有聞也。錫憲，生平迂拙，有若所畫，寸進尺退，已是下山景色，而自昨夏，哭第二兒起鋪喪，內燬而如促外衰，方以右脚不仁，艱作步履，悶何悶何？南豐之恨，魏收之拙，素所自安，而盛教之勤，不可以無雅分而拒之，故野隱次韻構呈，只足爲覆瓿之資而已。呵呵。從後倘賜德音之不遐，是亦朝暮遇之流也。惟尊座其圖之。

### 與高在昇【在溱在烈在辰在楸，泥村光維子。光山郡大村面泥場里】

錫憲頓首言。不意凶變，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恭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爾經歲，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滾淚塵冗，身亦以左脚不仁，艱於步履，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疏，不宣謹疏。

### 與金相會【達浩子。59025, 靈巖郡西湖面華松里】

錫憲頓首言。不意凶變，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恭

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爾經歲，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熹，塵冗紛遯，而身且未健，以左脚不仁，艱於步履，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疏，不宣謹疏。

與閔鍾淵鍾文鍾大鍾杰【敬軒弘基子。50076，和順郡清豐面細清里】

錫熹頓首言。不意凶變，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恭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爾經歲，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熹，塵冗紛遯，而身且未健，以左脚不仁，艱於步履，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疏，不宣謹疏。

與朴鍾垠【後山炳容子。50072，和順郡道谷面大谷里大道里】

錫熹頓首言。不意凶變，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恭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爾經歲，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熹，滾汨塵白，身亦以左股不仁，步履亦艱，末由奉慰，悲係增深。茲以紙上數字替唁，仰惟哀照。不宣謹狀。

與尹菊軒堯重【50114，光山郡三道面大山里】

錫熹白。不意凶變，賢閭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恭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節屆寒食，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錫熹，自昨夏遭第二兒慘喪後，內燬而外衰，左脚不仁，而艱於行步，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狀替慰，仰惟鑑照。不備謹狀。

### 答蔡奎泰【55051, 全北扶安郡舟山面松亭】

錫憲齒積而數奇，去歲六月之旬，哭第二兒起鋪喪，舐憤之戀，自有難抑，內焉如燬，外亦促衰，方以左脚不仁，行步亦艱，悶何悶何？故人寵翰，遠經雲樹，南北之涯，墜於短蓬荒蕪之中，如慰孤吟涔寂之懷，感何如之？況又將聖賢書溫燭之餘，思孝追遠，祠宇亟營，將見報賽有日。此事便是居家本領，以此心向外做去，何事不濟？矍鑠堅韌，敢不歆頌？賴托六偉之頌，弟於文辭縝工未精，且所錄諸公事實，未十分明白，故未能發揮實德，撮其大意而搆呈，更求良手，切仰耳。

### 答荷江書院儒會書【38014, 忠北中原郡金加面荷潭里】

錫憲白。私門不幸，去六月之旬，哭第二兒起鋪喪，身嬰期服，不可駿奔於清肅之地，伏惟尊諒。仍念，錫憲之於先生景仰之私，則自謂不後於人，而昨歲稷建禮成之時，以兒故未參。茲又承祭官望帖，而未遂齋誠，其爲悚悶，實難言喻。伏祝享禮利行。謹狀上。

### 答長淵書院儒會書【500, 羅州郡南平面楓林里】

錫憲白。渙忍菲薄，猥居有司之列，當竭魯鈍於樽俎之間，而偶卧窮山，未赴濟躋之末，實爲悚悶，而且聞補修指期着工，此則異於享禮，豈不欲翼如？左右僉尊而綢繆顛末，身有薪憂，以右脚不仁，艱於行步，今已三月，而刀圭罔效，叫憐奈何？不備，謹謝狀。

### 答山仰齋儒會書【吳寅泳柳相烈趙光萬柳謙重徐鍾植金浙圭安恒善。54182, 谷城郡梧谷面德山里安泰會草堂】

伏惟暮春僉尊體清穆？仰禱之至。錫憲，索居窮峽，顛蒙莫甚，而寵之以聯函，垂之以山仰齋有司望帖，感頌交摯。固當竭蹶，而去歲

六月之旬，哭次兒喪，期服在身，末由遂誠，伏惟尊諒。

乙卯三月初八日。

### 答奇鴻度【300，大田市紫陽洞】

自聞尊王考遺集刊役開版，事之順就，兄候康休，并所頂祝者，而歲換春殷，音耗尚邈，又爲之忡悵焉而已。黃包二冊，經置郵而墜案，忙手披閱，乃睡軒集一帙，兄所寄贈者也。如非世交之敦誼，從何而得此珍集乎？感佩罔喻。古語云有志者事竟成，正爲吾兄準備語也。又爲之頌賀。世弟，以右脚不仁，拖今四朔，刀圭罔效，艱於行步。以今思之，春間一訪仙庄之宿算，似是歸虛，勝地一會，其亦非容易可得者歟！道林吳臨履齋，石亭羅德巖，皆及蘆翁之門而有重望。臨履之孫曰，難窩享道林祠，德巖之門人曰，高弦窩建鳳山祠而享之。使蘆翁之學，尤爲宣著者也。臨履德巖二集，方今謀刊，而序跋之請，不鄙在余，故得覽二集，是亦蘆沙師門所賜也。兄我同感，并爲語及。

### 與邊敬仲時淵【502】

醱醱風暖，秔稌雨香，花信旁午，年可占有際，茲定省彌嘏，燭溫入佳，賀不容止。服友，亡姪之逝，奄爲七年，而壙云不利，將以今月廿日遷窆，未副前日相約之意。望須與本院執綱，商確如何？餘在續緒，謹狀。

### 答高山書院掌議【50221。朴南圭柳謙重羅鉀柱朴南淳柳淙鉉】

錫熹白。亡姪之入地，奄已七年，而舊壙不利，將以今月廿日遷窆，未參燕毛之末席，心實欲然。伏惟尊諒。

### 答吳成根【50281, 光山本良明道】

雨中客離而不能挽，自是薄主人，而客又不較先書，辭意腆摯，到此地頭，厚薄有不可誣，自笑湍劣，若之何？其暮春之念戾洛，而參吾氏大宗會，小晦還栖而檢案，賢函之到已數日經矣。卽以第六兒婚說，三入光市，近始確定于芝谷鄭門之娘，以今二十一日，行合巹于光州國際禮式場爲期矣。心未安頓，實無暇於申紙入思，故臨履齋公碣銘，今始構呈于華宗海烈。仙楣道圃記，留俟少閑，草呈爲料，倘加惠諒否？

### 與吳海烈【500, 光州市西區農城洞九二의一二(二七班)】

與白眉已有雅契，季房自是聯萼之棣，有無面奚足論？尊先祖臨履齋碣銘，今始構呈，與令伯氏及華宗成根兄，共覽，如何如何？

### 答蔡奎泰【55051, 扶安郡舟山面土山里松亭部落】

殷春肇夏，再辱惠書，儘覺情之所到涯角失其遠也。祠營之中闕，認是盛算未能前定之堅確，致有良貝也。令人代悶。然而窮則變，變而通，君子之能事。土山之有恤，新祠不遠其日，更覺良良心獨苦者，兄及綢繆諸賢之謂歟！梁頌，不求妙斷，更必于鹵蔑者，僻於親愛，而未覺辭意之拙劣也。可呵可悶。四五處，依兄所示之意，或添或削或釐，奔忙中，胡草而呈，尊諒如何？公與先生之稱，朱子於陳靈稱先生，於羅豫章稱其字而不稱先生，豫章是李延平之師，朱子又師李延平之門人，則私淑之師，其尊敬何如，而只稱其字耶？蓋一爲成文，而無大何於義理，則以朱子之精詳，亦不屑於累易其稱。吾儒從其義而如舊。初偉詩鳳鳴于朝陽，故日初出而延佇于梧桐也。雖初非鳳德，其於待出賢大之意，未足其不可。四偉詩望裡遣，故要識奇絕登登前進也，屋後低則尋常樓姪也，亦無事於登追

也。并加細諒焉。服弟，亡兒初期，只隔數月，益覺如燬之悲，而六兒年踰有室，婚事又急，故定婚于延日鄭門，而陰二十一日行禮于光州市國際禮式場爲算，凡事奔忙而已。與孫式京或光而居，家無應作五尺之童，奈何奈何？恭俟回音，不罄。

### 與族孫錫禹

清和佳節，體上動止佳裕，業務益昌否？溯往之念，恒切于中。族拙，一印苦樣，幸何他提？歸家見之，則六兒起昇婚事，諸兒輩已爲準備，大小無漏，以陰四月二十一日，行禮于光州市國際禮式場定算，私幸私幸。自笑老而無結者，徒爲空想，而枉貽賢宗廣求之應，事雖未果，而厚眷可感。謹此追謝，仰惟情照。

### 與族姪起薰

歸鄉卽爲書問，約如金石，而行役爲憊，未能踐言。此是年老者本色耶？可呵可悶。謹未審清和侍棣候福履多綏？恒切詹湫。到家聞諸兒定六兒起昇婚處，大小諸兒輩皆爲準備，以陰四月二十一日，行禮于光州國際禮式場，私幸之大，自笑老而無倚者，徒起空想無餘。履筇於賢從及錫京從，於心不安。謹此追謝，仰惟情照。  
金淳律，金淳澤，鄭海英，尹承鎬，權寧珏。

### 與李克軒冕雨【56025，全北高敞郡古水面禮智里】

向荷榮顧，巧值弟不家，使御者旋發，聞甚悵悒。光驛班荊，又爲車留所促，卽分東西，尙今懸想，搖搖如縣旌無所泊。謹問旋旆利稅後震良康裕？仰頌仰頌。服弟，連以第六兒婚事，忽擾度日。念一

日行婚禮于光州市國際禮式場，厥後三日于歸，新人靜淑叶望，私家之幸也。但第二兒亡日，只隔數旬而爲初期，如燬之心，又難抑遣，更覺人情之喜悲有不相掩。悶何悶何？俯託尊兄祖直長公碣銘，近纔伸紙入而草呈，文拙意淺，安可曰仰副揚先之誠乎？只自愧悶耳。華宗鏞雨及令堂咸前，轉致此意，如何？不備，謹狀上。

### 與金武彬【54315, 高興郡占岩面梧里】

十舍脩程，坐屈尊駕，而遂購降之願，感幸莫甚。厥後月改而虧至下弦，尊體膺休，大都均吉否？仰頌俯禱。弟，兒婚順成，而新人莊重叶望，私門之幸也。俯託序狀碑表碣，難孤遠顧之懇，掃忙入思，今始成草。來月初二三日頃，幸賜枉顧，切企耳。

### 與金永福【54315, 高興郡占岩面梧里】

向枉，適以婚事，關心奔忙，未能從容據穩，一宵分話，曷足以當十年書？卽喜旋悵。謹詢蝸令尊體清祺？遠溯不任懂懂。弟，兒婚順成，新人叶望，私門之幸，而亦爲老年一慰也。所託文字，難負盛教之丁寧，入思累日，近始成草。來月初二三日頃，與華宗武彬兄，聯鑣枉顧，如何？

### 與曹毅煥【500, 光州市山水二洞三十八班五三七六, 曹毅煥子曹基昌】

積年阻閱之餘，遠賜賁駕，喜不可量。未罄褫積底懷，臨曠旋分，悵如有失，吾無定情者耶？抑兄能使人喜悵交至者耶？恭惟榴令靖體膺休？種種神注，不以山疊水複有所間隔也。服弟，一是滾汨，而亡兒常期，只隔一旬，如燬之情，時有難抑。悶何悶何？愚齋遺稿序，其於同宗丈人行身後之事，有不可恕，故忘拙構呈，望須斤正入用，如何？

### 與丁宗杓【500, 光州市東區山水洞五一五의二九】

錫憲愆尤積躬，老而不死，再昨日哭亡兒小菴，五內如燬，更覺尤切，只自悶迫而已。賢閣慎節，近得快蘇耶？恒所翹祈。向因不家，使賢者題鳳而旋鞭，思之淒然。晴坡翁教思碑，其門生所營豎者，則前面大書當曰‘晴坡李先生教思碑’，而後面年月日下當書曰‘門生契立碑’，文則非門人所撰，當書曰‘李晴坡翁教思碑’，而因書碑文，於義爲得，以是諒之，庶無駭人視聽，如何？碑文及文券，郵送，考領切仰。

### 與族孫錫禹【110, 서울特別市鐘路區慶雲洞一〇一의一, 探求堂】

頃於迷息之合卺，過蒙禮扶，厚眷可感。非賢從敦睦風誼迥出等夷，孰能有此？潦暑頻禪，體度增吉，業務日就張擴否？是所頂祝。族從，兒婚順成，子婦婉孝，庶可慰老去涔寂之情境，而陰六月之旬，哭亡兒小菴，五內如燬，更覺難以爲懷。一喜一悲，亦人生之所難免者耶？世系圖，婚禮後即爲着手，五六日後當書芝溪公派，以是盛諒，而賢從諸弟及子姪孫名單，平書郵送，千企萬仰耳。

### 與族姪起薰【110, 서울特別市鐘路區桂洞一四七의二五】

向書，想獲入照矣。更問溽暑，侍棣體度怡愉湛樂，一視平吉？日友經籍溫新之工，日進月新否？恒所遠禱，千萬不已。族從，兒婚順成，子婦順婉，是爲晚年佳事，而六七日前哭亡兒小菴，心焉如燬，又復如新。喜悲之難有相掩，有如此者耶？自念自遭慘以來，眼精益衰，雖不至於喪明，有非前日視力，衰矣奈何？世系圖，非累月精力不可編成，故經婚而即爲開硯，五六日後當書芝溪公派，以是盛諒，而賢從子姪孫中，未登前譜者名單，正書郵送，千企萬仰耳。

### 與孔鍊雄【潭陽郡水北面大舫里】

錫憲頓首。不意凶變，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恭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經襄奉，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如？伏願強加疏食，俯從禮制。某，以脚部不仁，叫楚四五朔，今雖小可，而難遊振刷，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疏，不備謹疏。

### 與蔡奎泰【全北扶安郡舟山面松亭里】

錫憲白。不意凶變，賢閣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恭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暑雨洽旬，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某，脚部不仁，已是六七朔，今雖小可，而遠道非衰萎者可涉，故末由奉慰，悲係增深。謹奉狀。不備謹狀。

### 與金容肅【忠北中原郡東良面早洞】

錫憲白。不意凶變，賢閣孺人奄忽違世，承訃驚愕，不能已已。伏惟伉儷義重，悲悼沈痛，何可堪勝？暑雨支離，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錫憲，昨歲季夏之旬，遭第二兒慘喪，近經小葺，五內益復如燬，更覺西河氏之喪明，情或其然也？遠道非衰萎者可涉，末由趨慰，悲係增深。謹奉狀，伏惟監察。不備謹狀。

別紙。

赫蹄之一來一往，心謂庶可爲覲降之階梯。又復寂寥而經歲經年，鴈足無可係魚腹無可藏之致耶？忽承炊白之報，驚愕之餘，可感不我江湖之遠念。吉凶相問，禮不可缺者，而半千長程忘矣，奈何？荷江書院復舊後，禮成及今春享，承望帖者二度，而初以孫兒有崇入院治療，再以往季夏之旬哭第二兒慘喪，期服在身，末由駿奔。暮年情境，不足爲愛我者說道。若作此行，擬訪仙庄，而事多違劃，悶何悶何？

### 與鄭同周【57012, 鳳凰面竹谷】

錫憲頓首言。不意凶變，先夫人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踰旬朔，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伏願強加飭粥，俯從禮制。錫憲，役事所魔，奔慰，其於憂戀，無任遠誠。謹奉疏替慰，仰惟哀照。不備謹疏。

### 與鄭文基【57012, 鳳凰面鐵川水閣】

錫憲頓首。不意凶變，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緬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踰旬朔，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飭粥，俯從禮制。錫憲，役事所魔，末由奔慰，悲係增深，謹奉疏替慰。不備謹疏。

### 與徐相烈【57012, 鳳凰面鐵川馬洞】

錫憲頓首。不意凶變，先府君奄棄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緬惟孝心純至，思慕號絕，何可堪居？日月流邁，遽踰旬朔，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氣力何似？惟冀強加飭粥，俯從禮制。錫憲，役事所魔，末由奔慰，悲係增深。謹奉疏替慰。不備謹疏。

### 與宋在檜【光州市東雲洞栗谷】

雨中送客，自是薄德主人，而穿雨必行，亦豈可日知霽行潦止之道乎？自太上觀之，則其或以不吝情去留，謂之達觀乎否？爲之一呵。車便無倘遲延而反旆利稅？怡愉湛翁，不瑕有損？詹溯者摯。弟，山窓寂寥，而時有故友之過，慰瀉則多。然留連百壺之飲，則亦

又難得，安能滌蕩千古之愁耶？譜序，自念膚淺，一言不足，使君子家史重輕，而盛教鄭重，不敢孤違，構送于南洞華宗，仰惟情照。

### 與宋熙貞【光州市東區南洞九一】

仙旆一過，窮鄙生紫，而座席未暖，倏爾言旋，真所謂雷逢電別也。然昂昂風儀，恂恂言論，一見可知，令人可愛可敬。青青子衿，悠悠我思，何日可已？損弟，自是枵疎跽蟄，而每被故舊之不遐，時扣蓬蓽，而困廩如洗，無可酬情，謂之奈何？譜序及誌狀錄，宋氏大同寶鑑，郵便付呈，領納切仰，而華宗柏輝兄案下抵書，亦并付，逢場傳致，如何？

### 與吳成根【50281, 光山郡本良面明道里】

豚兒之合盃，與華宗并賜賁趾，使座上風儀，太不草草，眷注之厚，仰感無斃。爲酒食以速鄉黨僚友，先王之禮重附遠厚別之義，可謂至矣，而貧既未能令亦有制，未免隨俗俯仰。客則聞風而至者，達于數百，感鏤之餘，實多惋悶。潦暑頻禪，填箴湛樂，溫燻有造？爲祈千萬。損弟，七耄醮子，媳嬌淑婉，些慰涔寂，而去月初旬，哭亡兒小葺，心燬如新，久不能已矣。楣記，爲表期愛之私，忘炎略草，倘無舛於命之之義否？

### 與崔敬堂允煥【光山郡大村面良菰里】

梨棗之役，爲諸賢仰頌，爲謀之忠，我東有益齋櫟翁稗說·谿谷漫稿·眉叟記言，而皆自序其言，雖撝謙，亦可見期待之不輕也。敬堂漫錄，必有自序，而僕未之見，妄添蛇足，知罪知罪。雖然是用盡愚衷，不容一字加減，尊諒如何？

## 與鄭海英【光州市雞林三洞八五의二〇】

一日清會，風誼款洽，胸中茅塞，庶幾刊落矣。歸臥山窓，鄙吝復萌，但恨無人惺惺喚起于寂寞之濱也。仲秋氣清涼意漸緊，填篋湛翁，拇恙近果快痊利於折旋否？慰祝之至。弟，右掌微發濕疹，時覺疔癢，方在藥治，悶何悶何？向於奉審祀版時，見諸位座臺坼裂，不能穩奉牌子，私心切有未安者矣。不佞忝在有司之地，亦與有責，故敢此更煩。與華宗別有司及諸氏，商確，求新美之材，易之于秋享之內，使四方之士駿奔祠內者，尤起敬虔，如何如何？夫牌子，神靈之所憑依也，而祠宇之主體，不能穩定，每於開閉櫝時，未免動搖於尊奉之義，實爲欠典。安在其優肅如聞如見乎？勿孤賤意，至祝千萬。

## 答崔敬堂允煥

書纔去而答即來，可知繾綣情緒不以山水之隔而有間也。嘉俳令節，隔在數紫，竊想，秔稌登熟而充羨，果蓏熟而端垂，烝畀于廟，退與婦子胥樂，西成亦大丈夫閑居者之一樂，豫爲獻賀。世弟，昨歲末今歲初，以右脚不仁，叫楚四五朔，入夏快痊矣。秋氣漸涼，似有更發之漸，悶何悶何？百世有辭之下，即肖雲趾美也。以是尊諒如何？

與柳漢秀【柳雲龍十五代宗孫，有四男，相鵬相勳相桂相宣。慶北安東郡豐川面河回里】

於鄉見河回，於人見尊慈，今年嶺行，可謂遂宿昔之願矣。追感先祖共鄉之親，更念雲仍離析之情，舊懷新悵，有所難遣，而荷賢主翁款洽之誼，竟宵穩據，勝讀十年書。莫非重講兩家祖宗之宿緣所致，而若非尊慈汎愛無親疎之仁，又能得此？翌於賤發，遠餞津頭。及將上船，船上稚童問曰，“何來貴賓，得謙菴宗孫之遠餞乎？”聞來益覺厚眷之迥出尋常也。連日沍寒，經體佳茂？令允相桂甫，晤紱於行驛，不過晡曛之間，而觀其粹英發外，中所蘊藉，有不可量矣。與伯仲季，湛翕壘篋，以致堂上之安樂矣。并是仰頌者也。歸後即當書謝，而素稟懶慵，近來尤甚，因循三朔。見此暮，蹶起把毫，即夜口占拙韻，略加修潤，更寫而兼呈，幸賜報瓊，以爲後日相思之資，如何？爲祝經體獻發增祉。不備謹上狀。

崖翁主鬯了氏，緣薄所致，雖未遂覲降，然向往之私，數字草付，倘可登照否？

宿河回柳謙菴雲龍宗家，贈主翁柳漢秀。

豐山家世憶千年，明月綠楊何處是。

曾是祖宗元白綠，下枝嶄嶄水涓涓。

【謙菴六代孫養眞堂諱泳所建養眞堂，韓國寶物三百六號登錄。門外有登錄碑。】

與柳寧夏【柳西崖十四代宗孫。安東河回】

錫憲白。雖姓不同，追憶祖宗共鄉數百年，而至於同貫雲仍迫遠之情，每過豐山，悵然興感，未嘗不懂懂往來於尊邊也。昔在申城浦先塋酌獻之行，擬訪謙崖兩翁遺蹟於河回，因與其賢嗣，說盡懷舊之多少，巧值載塗雪凜而未果。今秋墓祀之行，幸逢華宗相桂雅士

於安東市車內，因為同行，暮宿謙菴宗宅，翌以漢秀兄前導周覽西厓宗宅，則秩秩棟宇井井門欄，悅若承先生之罄歛，使人起敬。只緣錫也膚淺，德不及董五經，信息不大，主翁夙駕豐山學院，未遂覲降於艷仰之地，而徑發，尚今茹怒。雖然其當構守成之孝，則不可以面之有無有聞而無語，故感艷之至，謹以數字仰頌。倘休咎颺縷否？征鞭如有指嶺之日，另圖耑語。然八九人事，亦何可必也？為祝餞迓泰亨。不備謹上狀。

### 與崔敬堂允煥

令允冒寒委顧，勤意可感，而即日言旋，未修數字替申相期之厚，尚今悵結矣。此歲又將盡，經體候錫以難老，僉允善待做課否？既頌且禱。弟，滾汨人事，費得如金，歲月無一實着，只自憫迫而已。漢錄刊役之無礙亟成，可見吾兄作成之化，浹於遠邇泊門下諸徒服勤之誠，仰賀無斁。此事中州固多，而我東近世亦往往有之，勿以人言掛念，如何？為祝獻發益亨。胡草，謹狀上。

乙卯十二月。

### 與族大父槐山承箕【號雲山。忠州市校峴洞一七九】

同根之親，未得源源徐樂悅話，雖曰勢也，恒切憾然于中矣。伏惟歲暮，尊體保重，寶覃均迪否？仰溯區區。族孫，滾冗度了，而常以豐洪寶鑑之未能亟成，念念不舍，方在校閱世系圖之手鈔者，往往神弛，亦不敢言勞，悶何悶何？彈琴臺詩集，有時閱吟，忠臣之魂，樂士之韻，依稀於詞章之間，千載之懷，悠悠難已。非他詩壇徒役於花鳥月露之比也。靡尊座遠存之惠，何以得此？良感難已。為祝尊體獻發吉慶。謹狀上。

## 與金源直

向奉賀帖，未卽修謝，忽見此歲將暮，豈可曰仰副眷愛之厚耶？恭惟靖體佳迪？溱往勞止。損弟，偃息山窓，惟以率無警，爲分幸耳。梅能衝雪欲放妍腮，柳亦待臘將舒黝眼，窮陰之中綠陽漸長，回泰消息，卽睹於斯，善家休徵，應亦與俱能矣。爲祈餞迓亨吉。謹狀。

## 與邊敬中時淵

松沙先生文集拾遺，及年譜補略，斯文大事，而淵源後生，或月日至焉。其哀次董仰，獨貽勞于高明，雪牕寒屋，呵手披卷，倘不發從事獨賢之吟哉？每於念到，有何以贈之可酬伊勞之恩。昨造巧值令姪女結婚之辰，未能仰慰勤意而退，暮歸山屋，明月入戶，尤不勝介介。吳州見月，千里相思，我思古人，與獲我心矣。問于表士，則挽祭篇登梓亦強半云。大事順成，抑先生英靈默祐者歟！仰感俯幸，罔知攸措。弁文，依教構呈，而忽有激於中州之蔑聖毀經，無所不至，益覺吾人之粗下魚魯，皆先輩開牖之力，故辭氣之間，抑揚太過，倘亮在微意否？

## 與鄭松湖雲翰

向枉未得穩敘，繼而萍逢於超然亭，臨曛而分，亦未遂聯鞭于光城，至今悵結耳。歲聿蜡令，經體亨嘉？同刊錄編輯，近果順挨耶？仰禱者摯。弟，近以官促，修理弊屋，僅庇雨雪，土役則以寒沍未施，是亦不無擾惱于方寸拙劣，可呵。松江集分帙，族姪起昌君，爲謀之勤，期於善後，而偶以族弟俊弟，忽因車故，入院數月，尙未快蘇，故不得已謀渡于安君相彩。昨日起昌以萬元躬來而清算，且以未安之意轉告于兄云云。其意則誠可佳也。附詩十首，皆是拙構，而意長辭短，未吐景慕之私者多。以高明之見，或可櫟括而付驥，如何？

婦兒適有來候，故因便數字替伸，萬元金亦付送，惟領納切仰耳。

### 與吳柄烈【50114】

向於季秋之令，逢晤華宗沙隱兄於德林祠，槩探安節，慰瀉良深。厥後即擬書伸，有意未就，衰懶人事，因此可知。悶何悶何？陽生之令，靖棣體度湛翁？沙隱兄昆季，壘簾和樂否？并是仰溱懂懂者也。損弟，十月之初，爲參始祖直學公以下四世墓祀，路出安東之豐山，四五日傳轉，向于京，參墓祀於高陽，費得十餘日力，而歸家則西成僅畢，而以屋宇改良，有官促，今月初着工修屋，僅庇雨雪之上漏。其餘土役，則以寒互未施，居處窘礙，爲對賓友，實多不安耳。尊先臨履齋遺稿刊役順成，使姘節懿德，宣著百世，非高明奉先思孝之誠，孰可與此？仰賀無斁。荷此專寄，使塵案光紫千萬，何等不遐厚眷，良感千萬。謹此書謝，不備謹狀。

### 與金寬彬【54315】

望柱，金君圭桓洪鍾之來，得聞近況，無大何，亦可慰遠戀之多少。損弟，以修屋未了，居處窘礙，而賓朋式日踏至，實多未安。先府君碣文，構呈，而恩擾忙草，恐有誤字，更考先係與孫錄，入刻如何？華宗武彬永福兩兄，近候吉祺否？禮當各幅修候，而擾甚未爾，轉致耿結此意如何？不宣謹狀。

### 與金道彬【543】

縱無前日之雅，今春因令從氏梧隱兄之枉顧穩敘，仍知高明爲止齋公之肖胤。向往之心，不以面之有無而有間者。何者？以止齋公與我先人石川府君，同是松翁之徒故也。竊想高明亦同此意也。損弟，淺蔑朽物，而猥荷止齋集弁文及狀德之託，以其爲先君同門友，故不

敢固辭，率爾草呈。荷先生之惠寄，奉便薇盥奉讀，則不之按作而入用，託名爲榮，何感如之？若聞警效，所得實多，第待明春之暖，如有理屐南征，則歷紱爲料，然衰朽人事，亦何必也？餘留，不備謹狀。

### 答李來儀【全北任實郡任實面渴馬里】

昨歲之暮，獲拜惠書，憑審征鞭利稅，仰慰叶曷既？恭惟開元，靖體與時俱喜否？頌禱之至。弟，依遣爲幸耳。盛教尊先祖生員僉知二公碣銘，參考譜冊與世德錄三四度，而參酌構呈，與春谷兄一次共覽而入用，切仰耳。客擾，不備謹狀。

丁巳正月初六日。

### 與鄭海峻【光州市梧峙洞】

天輪循環，於焉歲改，懷仰尤切。恭惟服體與春俱吉，令伯氏連爲湛翁耶？仰頌區區。弟，舍伯依寧，率亦免警，私幸何喻？歲內相晤時，欲問華宗之派系，而未詳其名，故未能遂意矣。今始諦其名義，而別紙書錄呈。如非貴里之同族，或者陽池之同族耶？忘勞探伺而書示，則何幸如之？客擾，不備謹狀。

### 與宋基善【高興占岩面大龍里(梧里)】

歲換新舊，懷仰倍切。春正尙寒，靖體珍迪？華宗在萬兄，暨隣里二金兄二申兄，連得均安否？并仰頌者摯。損弟，謾添一齒，只見頭雪之增富，衰朽奈何？尊先阡表，依狀潤色添刪而紱，但生年與西齋先生幾世孫，狀中見漏，故生年及代數，空虛而寫呈，參考譜冊而填入，切仰耳。文拙筆弱，倘加恕諒否？客擾，略此不備，謹狀。

### 與金武彬

索居山樊，迂愚空疎，不足重輕於當世士友之林，而執事以爲忝在同淵源之末，愛不知惡，託以屢世不朽之文字，不堪當不敢當者，而難孤盛教之勤懇，參狀草呈。惟願參考正其訛舛而入用焉。梧隱記，亦爲構呈，然只可爲吾兩人相思不忘之資而已。文拙不可掛人眼，慎勿填楣如何？恭俟德音之不遐。不備謹狀。

## 與金武彬

小春兄之來，得聞征鞭利稅，靖體連衛佳勝，慰瀉曷既？弟，近有淳昌靈岩咸平光州諸士友之委訪，頗免涔寂，而亦窮山奇緣也。而枵腹空疎，無以副其遠來勤意，旋切愧汗耳。尊先祖祭壇碑，依教搜忙構呈，而筆拙少能揄力，覽後揮棄，更求良手如何？華宗月山兄，近得連勝否？禮當各幅修問，而恩卒未爾，以是轉照切照，切仰耳。此歲將盡，惟祈獻發增祉。謹狀。

丙辰臘月旬日。

## 與金永福

歲內枉顧，未罄底蘊，午晤曠分，忡黯之情，想無彼此之殊矣。連有仙鄉諸友之往來，節宣佳穩則聞之數數矣。但不若相接芝宇而款攄，何悵如之？尊先屢世阡銘，顧此枵腹，自不量力，強副而兄之懇，筆弱不能發揮述德，還切慙然而已。月山記，略草而呈，未寓朋友責善之誠，倘亮在否？留埃回音，不蔽。

## 與林晚洙林廣洙【長城郡森西面水海里】

壯年舊交，相晤於白首之年，其喜躍如，而未分一宵話，數餉而別，臨歧茹悵，反以記面之爲喜。別多會少，所以從古爲恨而難免者耶？征鞭利稅，而靖體珍迪？是所遠外顛禱。弟，每逢故人之過我，

率多乍別，是則德不足所致，謂之奈何？尊先阡銘，非淺陋鹵之可抽筆，而率爾草呈，自顧慙然。望後櫟括入用，如何？何當更晤以紱褫積之懷耶？前頭之事，雖不可必，而翹企則甚耳。不備謹狀。

丁巳正月廿五日。

### 與金容鶴【50003, 光州市荷白洞】

往往萍逢，庶不歸江湖之魚矣。各因有事，未遂穩討。分後思之，只切切怛而已。非謂委訪于川上寂寞之濱，多少說話，娓娓半日，慰感之極。靖體珍迪？恒庸仰頌。弟，連以客擾滾汨度了，儘覺煩惱。尊先阡銘，近始申紙入思，拙構而呈。其於辭澁意淺，何亮在是仰耳。不備謹狀。

### 與金源根【56031, 全北高敞郡雅山面龍溪里】

昨秋之枉，以我滯京，故未免使征鞭旋歸，聞甚悵憫矣。俄因再顧，一宵穩討，有以瞰其學邃，見富有過人者，不無靚降差晚之恨，從今而始，相期以源源奉紱，有資衰朽之破閑遣寂，如何如何？先大人孝碑，非草菜寒跡之所堪把筆，而屢枉之勤，丁寧之教，不可愬然。且有月潭普亭二故友之前述，故敢以附驥之意，荒草而呈。然其於辭不成章，何兢希雅亮？不備謹狀。

### 與崔鶴均【17017, 羅州郡旺谷面化丁里】

曾無雅分，而因東均華宗，得聞風儀豈弟，篤於追遠，屢世先阡，與諸宗詢協而表豎石儀，不勝欽艷。錫熹，衰朽之深，所幸率下不告警矣。尊先碣銘，依華宗所教，郵呈于尊名，下諒在是仰耳。不備謹狀。

## 與金相莢【50210，長城郡北下面中坪】

頃枉未遂一宵之分話，高車促發上程，未幾雨色淋漓，是知天欲留客而主人情薄使客徑發也。堪爲一呵。厥後屢逢碧農兄，槩探安候，得免太寂寂，些慰憧憧。弟，與兄分後，入京因抵忠州荷江書院，參享，還棲後，又駿奔于月井高山詠歸七松諸祠，惱矣奈何？先大人晚河公夢遊錄弁文，非淺蔑之所敢抽筆，而盛懇既不得辭，故妄有構草。然使公愛君憂國至誠惻怛之意，不能發揮於百世之下，何今月廿八頃，與碧農兄幸賜賁枉，以圖一席討議，如何？

丁巳三月。

## 與朴熙泰

礪文惠送，至感至感。窃讀全篇，文勢豪健矣，但佚而不書者多。若疏斥尹元衡，啓劾李栻，立荒山大捷碑，得晦菴東萊真像而槎選，展誠請罪，李洸拔薦權元帥，把守雲峯旅原峙，是先生事奏之昭昭千古者，則一不可漏也。奈之何全爲見漏耶？可恨可恨。雖然是數百年古礪，且爲大臣之筆依舊，仍存爲十分穩當也。其所漏落者，當爲刻書顯刻，則今番墓表之役，亦必有而不可闕者也。但託文非其人何？謹摭湖南節義錄，及貴譜小註，參以不佞所述遺墟碑，商量累日，刪其繁而摘其要，磨琢而敘之，文勢雖拙劣，用盡不佞精力者也。切勿一字加減，而入用如何？石面若狹，則稍細書之亦可也。以是諒之，如何？

玄雄，卽南平之古號也。崔掌令洪主簿洪僉正，皆起義於南平道川，有留屯雲峯旅原峙之事蹟，則先生遣玄雄軍者，卽指公所領軍也。主簿卽不佞十二代祖壺隱公也。

## 與春谷康仲

恭問歲暮，經況益佳否？遠頌不已。滯京夏秋，涯角落落，疇昔相隨

於文酒團樂。若兄者，曾未得以一紙修問，縱緣宗事旁午之致，其實則慵與性成，自絕于眷愛之地者也。馳心日夕，兄自鬱悒而已。秋暮還棲，拜謁棣牀，則舍伯自長水縣庠契會而歸，有日矣。卽授以十幅珍書，曰此春谷兄轉致于君者也。仍道兄渥顏華顛勝似前年，聞來自不禁欣歎。曰“道腴入眞，不知老之將至。心廣而體胖，致有若此者歟！”披閱佳貺，則字字畫畫，莫非珠樹琪莖龍翔鳳翥，況又末幅標題盛眷丁寧者乎？雖尺蔡拱璧，不足爲寶也。乃瞿然曰，‘以錫之渙，獲此盛貽，無亦已泰者乎？’爰命孫兒，作屏于表具社，以爲弊居之長物，從此葦戶增彩萬丈。其曰感荷，不止例語而已。古人有瓊琚之報於木瓜之投，其厚意非曰自廉者可及。茲以洩勃一行，仰酬二百顆珠玉，未知是亦於報施之道，猶賢乎已乎？奉呵奉呵。所居無麋鹿魚鱉之可，以爲禮略干錢文，仰助除夕一醉之資，頌情如何？恭祝獻發景祉。謹狀上。

### 答權寧珪【忠州市校峴洞荷江書院長】

頃自荷江書院復建禮成，連承兩度禮建，初以孫兒有所崇入院，次因次兒亡而期服在身，未克駿奔，勢也無奈，而執事之風誼之款厚，則到今事不忘者存，不以觀降之有無有間也。今又勝拜寵簡，其能賢賢克盡淄衣誠盡力於百事之地，可知也。良感且頌。荷江書院及慕賢亭吟，并舍伯所錄二首，合四首付呈，倘加推叩入錄，則厚眷可感。

### 與高允柱

種種拜晤承誨，剪去胸棘，未嘗非蔑劣之大幸，而適有宗事及始祖墓祀，將以廿六抵京，同京人作慶北安東豐山之行，來月六七如頃，始爲還巢，殊言遠役，預爲茹憫。庸是未參尊俎之列。伏惟尊諒。

## 與趙光萬

載塗雪濤，遠荷委訪，獲接芝宇，端嶷之姿安詳之俄，何處得來？亦既覲我心即降，詩人先獲我心矣。坐席未暖而言旋，其爲茹怒之心，想無彼此之殊矣。損弟，空疎迂拙一朽物，而寂寞窮峽間，故遠友之枉屈，枵腹如洗，俾無毫補而歸，只增忉愧而已。尊師爲石汀門徒，而石汀公與我吾先君石川洪奎植，同是松翁之徒也。揆以淵源之親，隧銘不可以不文固辭 故草率構呈，倘可合於入用否？惟亮在，是企耳。那倘一晤以敘褻積底懷耶？雖不可必，而翹企則甚耳。不宣，謹狀。

## 答朴來鎬【潭陽郡水北面大舫里】

頃枉穩紱，餘慰尚在未旬，而又奉惠翰，儘覺友情之繾綣不以雲山而有間也。書來有日，旅況佳迪？尊堂安候，問問入聆，得無陟岵之懷否？馳溯勞止。損人，日有友朋之遠顧，枵腹兼神眩，無以奉酬，其眷愛之厚，寔爲愧憫者也。所託二碣，惠擾中僅僅草呈。但語澁意淺，不能仰副揚先之誠，何入用與否，惟在盛諒之量宜裁處矣。擾甚，止此。謹謝狀。

## 與趙光萬

一句兩晤，若慰積歲阻懷。朝晡數禫，經體慥索有進？是所區區之望。損拙弟，還棲粗安，幸私。孝碑，拙草郵付，筆拙弱少發揮，可愧。不宣，謹狀。

## 與朴來鎬

兩歲之內，再度枉顧，勤意可感。從而覲其精力，斷斷乎述家之風，

何等善事？是亦平日讀書之力，有得於奉先思孝之道也。慰賀不  
舍。但使不佞，屢相黃繭幼婦之役，眷注則可荷，顧湫劣，筆弱少發  
揮，未副尊門揚先之懇何。第念，在昔兩家祖先嗣爲兄弟之誼，則  
君我俱是通家子弟也。其爲戀戀，豈尋常之倫哉？惟源源講磨，應  
不無相長之益，而衰朽日甚，難於振作，君亦不仁於行脚，并是憫然  
者也。惟願持續于刀圭，亟奏蘇快，有協遠祈，如何如何？訥軒公狀  
礪，并爲同封，領照是仰耳。

### 與宋大燁【高興郡占岩面鳳南里】

冒暑遠訪，意勤情摯，何感如之？謹未審，夔路勞攘之餘，靜履起居，  
不暇有損，比隣僉友并得安穩否？溯往勞止。弟，無聊塊居，竹屋太  
寂，時有遠友之過，庶可破閑，以是自慰耳。所託碑文，自無旌聞之  
典，石役太盛，而世既無太史之職，莫非不尊不信之流也。誰能發  
黃繭幼婦之辭，使草野懿行淑德，不朽於千古乎？弟每任金石之役，  
以是兢懼者，故謾及之，仰惟尊照。

### 與申小春南植

別後日再禫，逢族姪起昌，始知其未遂晤敘而徑發，益不禁悵然。  
冬日已暮，寒天遠役，倘無勞攘之餘憊耶？世事奔忙，從古如是，謂  
之奈何？服弟，先伯喪事以後，終鮮之嘆，去益尤切，只自悶迫而  
已。不有遠近賓朋之相尋，其何以慰遣時日耶？聾菴處士兩公阡銘，  
謹演其別號之義，而排敘實跡，然筆弱小發揮力。覽後更求極筆，  
如何？二狀并呈，領納切仰耳。小堂陽元兩兄，連衛佳穩否？擾甚  
未修各幅，轉致此意焉。餘在續後，不備謹狀。

### 與奇宇大【長城郡西三面大德里】

先府君，曾於己丑年間，萍晤於高山，因莊軒說道，知其有山水之樂而遍踏名區，拙構先亭次韻云。早年踏盡好江山者，暨記實也，人事風燈，已作千古之別，而遺稿登梓，茲蒙惠貺，讀搜勝錄一篇。其十之二三，則吾足跡未到處也，而隨處細討，亦猶髣髴於遊目騁懷，若使先府君在，而親聞其役景之興，則其喜又當何如耶？撫卷興懷，曠感難禁，繼而誦高明述家之美。略此，謹狀。

### 與李昌憲

一場談文，徵角胥鳴，近來盛事。非高明溫燭之篤眷愛之厚，何以得此？未洽半日，冒雪言歸，行者沛然，雖若不覺其勞，送者黯然望之，其能安於心者歟？車便倘即為接續，使萱闈得無倚閭之望乎否？馳溯不已。追記及碣文，釐正說到壬燹於八十餘年之後，非余初料所到。且熟思之，雖非此等語，自有親貼不朽之資，故連日默商而釐正，幸勿深咎焉。雖然作者其殊，文勢之同一機軸，亦所難期。苟於公不為累德，則結辭之殊，亦何傷乎？誌與狀之引用，壬燹仍舊，亦無妨矣。此歲只餘數日，仰祈怡愉獻發增祉。

乙卯十二月二十六日。

### 與李昌憲

阻茲三歲，忽荷委訪，喜可躍如。日曛塗濘，倘無梗澁於鰲山往返，而定省無瑕，究經益腴否？馳溯切切。損弟，間因遠友之叩門，粗遣涇寂，山居之一幸也。尊先祖襄翼公墓表追記，依教董敘，而但事行見漏於原文，不可不補闕，故略之又略。字多辭蔓，素不嫻於述作，三多故也。悶何悶何？更又思之，事業之焜耀國乘，若公而姑未宣揚，姱德於隧道，實為後人之致慨者也。一表石，曷足以備悉生平者？庸是妄自擬作碣銘，以貢高覽，雖石不具於當日，其於謁大碑

于大方家時，或不爲無助於參照否耶？然非高明相悉之地，不佞又安欲費盡耄力而張皇至此乎？都恃亮在。

### 答盧源泰

初夏拜書，仲秋稽謝，慢不及勤，忸怩上面。住優令辰，吾東名節也。稻熟魚香，果肥菜膩，五畝之宅，一年佳興，太不草草，而兄我俱以宗事，一嶺一洛不能家食，昨始還棲，恍若瞥眼世界，主念稀餘之年，奔食於千里漢北，雖曰宗事之不得不然，然亦安得無秋思之寥慄者乎？惟吾兄素稟剛壯，頤養有道，庶乎免夫矣。見書卽爲入思，略貢愚見者，非曰彼勝於此也。只爲講討之義也。覽而如有一半句之得，則商量入用，亦不遐有妨耶？弟，以今月二十日，復爲入京，似費數個月，苦矣奈何？兄以那間復作嶺行耶？不備，謹謝狀。

### 答盧源泰

賤書纔發，寵翰適到，未卽修謝，而荐拜金玉之不遐，良感眷注。但承以美慎浹月彌留，警慮不淺。謹詢，書後晡朝復積，調候幸占妄五否？兄之氣力，素稟剛韌，雖在稀年，可埒強壯，兼以從事于求仁蓄德，榮衛自定，二豎之退聽，當在不日矣。以是仰慰且禱。弟，僅遣前樣耳。滄院楣記，其於後學羹墻之地，已承盛教，固當盡瘁鳴哀，而恨無大手法，拙劣爲愧。兄乃獻以萬金若執幣於先生長德然，惶愧罔喻。書中訂論謹悉，而古龍之稱，不過二十年，且滄洲爲賜額，則表題之首，當日滄洲，於翌年也之下添入。其始也因地而稱古龍，九字房沙溪非門人則可刪。殫誠竭力四字，近於鎖細，不必書可也。滄洲之義，依兄初書所示而改正，退河諸先生之下，既云皆切偲之親，又曰麗澤尤精，則交遊二字，昭在不言中，若添入二字，則不啻文義疊牀，文勢亦未穩，并爲亮燭，如何？仍念，猥托契末，近二十星霜，而尺書往復，自今伊始，數朔之內，至於再三開示明詳，非兄之愛我，何以得此？從厚答有輔仁，

其與適道之地，切仰耳。仰祈獻發增祉。謹謝狀。

乙卯十二月二十四日。

### 與盧源泰【52118】

前書想獲入照矣。陽復之令，經體佳裕，叶此遠外頌禱否？弟，以官促修屋，僅至上掩雨雪，土役則以寒沍，姑未着工，留待解凍日，對賓友窘礙莫甚。滄洲書院重建記，重違盛教之丁寧，草率構呈，入用與否，惟在尊諒耳。生平固陋，未讀先生全集，狀礪亦未奉覽，故只依廟庭碑，而簡拔爲記，倘不爲損於先生盛德否？且爲文當歸重於前輩之作而述之可也，見狹未爾，奈何？仰惟珍翫，遠副賤望。

### 與族弟亭憲

摻裾遵路，條已一候，馳想愈切。靖履休旺一依昔時否？族拙，近以屋蓋易瓦，耕地整理，官促如火，而役力極貴，財政亦窘，眉難展年耳。毅菴墓表，草構而更寫，懸吐一本，同封而郵呈，倘免浮沈之患則幸也。第念懸吐者，終不若原文之鄭重，更加思量，以原文入刻，如何？

### 與盧源泰

玉州萍逢，喜可躍如，旋判南北。友情之合，終無奈於雲雷水山之分，古今所嘆，豈吾兩人獨可免得者耶？瞻望雁雲，只切悠悠。頃奉惠函，亦可亞面，慰瀉曷既？弟，爲參始祖以下四世墓祀，於慶北安東之豐山及川前，九月念之發程，五日後，自安東抵京圻之高陽裡，獻于弟五六世墓前，入京宗會，而還家則日已十月之旬矣。十月旬頃還家，則西成僅畢，而耕地整理及蓋屋易瓦，官促如火，人力既貴，物價亦騰，迂儒守家，所可誇者，愚拙而已。奉呵奉呵。盛教滄洲書院重修記，當竭鈍庶

伸平日景仰之忱者，而心亂與麻，姑未細謹入量，但恐吾兄之更有書促，故姑以數字仰呈，倘加燭諒否？自以晚不過至月晦內爲料，恕諒如何？餘在續后源源，不備謹狀。

### 與申小堂萬植申小春南植兩兄

古人有雪月訪友者，爲其興致所到，寒不足怕也。況洞雲雱雪，非月郎之宵，無佳興之可乘，而不遠十舍，櫛沐風雪委訪，窮峽迂拙，庸夫其所訪，則可謂謬計矣。然二兄骯髒之氣，不以年厚而挫，可謂十倍於子猷之爽興過飛而旋漫不見所懷伊人而去。健羨健羨。禮有來往報施，當膏秣造軒，致謝慇懃，而奮飛無翼，恨結徒積耳。載塗雪濘，間關利稅，宗事鞅掌之餘，靖體均泰否？頌甚頌甚。客擾中，艱辛討暇，二碣文草呈，尊諒如何？留埃回音，不罄。

丁巳正月廿四日

### 與申陽元

謹詢蜡令，靖體清爽刊業邁進否？追憶往者，半年相守於正齋集刊役，朝夕晤敘，實不禁憮然興感也。錫憲，過得兩旬，又添一齒，歲月催老，苦矣奈何？盛門鳳亭梨岡二碣銘，依小堂小春兩兄之託，付于湖南印刷所，領納如何？不宣，謹狀。

### 與申小堂萬植申小春南植兩兄

靚降之始，已歎風儀之軒昂，對話半餉，又得其溫藉之厚，其爲古家法度濡染可知也。未罄底懷，征鞭言旋，何悵如之？弟，謏固淺生也，不足有無於斯世，而枉辱高駕之相過，而罔有以仰副勳意，既感且慙。鳳亭梨岡兩阡銘，難孤盛教，草付于湖南印刷所華宗陽元名下，第當有通奇矣。亮照如何？歲將垂暮，恭祈饒迓清祺。謹狀。

## 與姜菊史璘

今月之朔，爲問舍伯患候差劇，行于高士洞外科醫院，即日旋還，故未造仙庄而敘多小褻積底懷，尙今茹悵不已。謹未審，秋涼尊體旺休，玉允善侍否？溯注不任懂懂。弟，舍伯患候彌留數月，別無差效，方寸亂矣。舍伯華甲，在去辛丑七月，而有自述敘懷，故謹茲錄呈，依押韻，賜以贖和，庸表生平相隨之厚誼，則何幸如之？舍伯及弟所次菊史韻，亦失草稿，并爲抄送，切仰耳。會晤未易，臨紙忡黯。不備謹狀。

## 與奉春史萬沂

八耄高齡，疾馳百餘里程，委訪於蓬葦寂寞之中，眷愛之厚，難以毛穎可旣。未分泛菊一杯酒，託以車忙促發，故人之誼，尙有如是耶？薄在於弟，更何提喻？北望馳情，猶倍於未拜時也。謹未審，經轄利稅於濛霏之裡，倘無勞攘之餘億耶？服弟，滾冗度了，無足仰聞耳。所託壽藏銘，繙閱古集，舉多自銘，非平生知舊之相畫者，鮮能當此役，誤被枉託，何等情愛，而意未圓滑，文不腆潤，大負兄之所望，荒蕪之筆，僅爲塞責而已。反爲駢顏耳。觀和日月，兄百歲後，子孫之所當別爲追記于下之者，故中間不置補填之處，以此諒之，如何？座擾，略草。謹狀。

仙鄉多碩儒，更與爛商加討爲好。

## 與金鶴珍

月井禮筵，各有攸事而致慙，故未暇穩據其私情而分。翌以抵京，淡望而還棲，始知華旆委訪弊庄，題鳳而歸，恨不能奉迎而講討也。涼生已久，爽氣襲人，儘覺秋興之漸佳也。恭惟尊體泰亨佳吉？頌禱之至。弟，以先蹟之譯解編印，于今七載，出入京洛，殆四五十度，

而今秋庶可工訖，私門之幸也。景仰契序，先生文武忠孝爲千古表臬，孰不景仰？弟則每閱吾先子石崖先生文集，讀先生請謚啓，聞風挹德，早自童丱，故披瀝區區之衷，而弁于契案。文辭巧拙，初不暇恤也。休咎唐突否？不備謹狀。

丙辰八月十五日，弟 洪錫憲 拜上。

### 與金駙洙【500】

摻裾幾何？殆盈四五載。懸想，安得不搖搖如懸旌之無所汨乎？昨春轉聞，先集之將入梓，郵付先生手草慕賢壇碑文時，略寄數字，仰問刊役之挨去，惠覆差池，或者歸於喬沈耶？尋常訝鬱矣。今夏始獲先集之專寄，不我江湖，何等厚眷？第恨紛冗相尋，一未趁刊所仰助大役之成也。家兒便轉聞，秉塵于光市瑞林校，敦體舒泰於四益之地耶？地近梓鄉，便是錦衣之還，是庸仰賀。冊到時當書謝厚眷，而延拖至今，此是衰懶者本色，只自憫愧耳。歲內另圖一晉穩敘，而衰朽人事，亦何可必也？不宣，謹狀。

### 與金駙洙

向晉巧值休期，得遂半日穩敘，慰瀉曷既？朝晡數禪，敦體一直奉晤時迪吉否？恒庸翹企。損契，卽到鰲山，邊君以姪婚離鄉，故未得對討，問于書士，則松沙集拾遺及年譜補略鉛寫過半云。大事順成，吾黨之幸也。爲感不些。鰲南集分帙，當廣詢而處理矣。以是諒之，如何？家兒事，高明既爲發說，則因勢先導，千企萬仰耳。爲祈獻發增祉。謹狀。

乙卯十二月。

### 與洪喆憲【金安】

千里漢城，忽挹清儀，慰瀉曷既？日氣晴朗，西風爽襟，正是一年佳節也。怡愉增嘏湛翁經否？頌頌不已。族拙，賤齒已踰八九，亶合守戶聽子，而今此先蹟之編纂譯解，爲吾宗之大事，不敢言勞，庶竭魯鈍。期於亟成，而延拖七載，送盡酷吏。又見秋風紅葉飄，鄉園入夢，實難以爲懷。先府君碣銘，把筆臨紙，不禁感古。編末數語吐寫私情，倘可諒存如何？不備謹狀。

蔥擾日甚，未暇定草于韓紙，甚非文字家所爲也。并諒焉。

### 與崔春江日錫

倏忽分袂，悵何可言？定省怡愉以時連旺否？頌禱千萬。弟，歸家視案，有高興宋友桂伯請碣文，恨未在家晤敘也。今發京行，而來十五日土曜還家，十六日入京爲料，伊時晤敘，如何？不備謹狀。

### 與宋桂伯【54315，高興郡占岩面沙亭里】

澹對軒中一宵晤攄，幾乎忘域，而尊能不我江湖，遠道委訪，何等厚眷，而緣於不家，使華旆經發，實多未安。端陽之節，尊體連旺？仰頌之至。錫憲，明日又發京行，心神馳忙，而盛教有不可孤，故碑文謹構呈，而辭拙義淺，未副揚先之懇，奈何？伏惟尊諒。

### 答崔春江日錫

故人一書，透炎關而墮塵案，辭意清爽，非食煙火語，畫勢遒勁，飄飄乎，若龍之翔鳳之翥，一快讀來，已覺汗消而膈涼。況情狀以班箠清風者乎？清風到處，故人若可見，而溯洄莫及，宛在水中央，不須蒼葭白露之洲，而忡黯更切矣。鷄架陳悃于樊溪象筵，龍鳳懇得于一中鐵肩，仰賀。今夏洛行之尤非等閑，步跟竹亭，自古發爽籟而生清風，不須扇枕而定省無瑕。龍潭到今，吐寒涎而蘇煖苗，穡

事占豐，獨爲旱熱中兄家吉頌，栢悅曷既？弟，固有故舊之折簡，浴乎砥江，吟于超然亭，煮仗于月井書院，而送盡長夏耳。先丈行狀，誼不可負兄懇，故妄有抽毫，而文弱少發揮何，更求良手，亦非害於義者。伏惟清涼，那當一晤耶？翹企卽深。不備，謹謝狀。

### 與鄭鳳在【咸平郡月也面月也里(尊村全촌)】

吾先子石崖先生文集中，有書烈婦尹氏行狀後者，尹烈婦，卽華宗東樵後睡二兄之先祖諱明一字伯舉之夫人也。其文中有曰，伯舉之鄭，自古以法家聞，孝烈之旌世不絕。其在箕城有八烈婦，同一綽楔者。在松沙有兩世俱給復者，往年竹樹鄭孝子者，又贈官云云。余讀而擊節嘆賞者累矣。擬詳其實行，久未遂志，往年以東後二兄之託，序尹氏烈行錄，茲又猥蒙盛教記亭，得詳八烈婦之貞節，可謂遂宿之願矣。悚然起敬，感戢罔涯。亭是東晉兩氏之經營，不可獨致詳於華宗，故記中不及此語，尺素仰陳私悃，亮燭如何？拙構意淺辭弱，未能發揮懿德，倘不爲名亭之累耶？只切慙然耳。不備，謹狀。

### 與鄭鳳在【一名應變。咸平郡月也面月也里】

與尊門先世，累有相攸之親，故每逢尊姓諸賢，不知中蔦蘿之誼溯及於前代，忽忘其面面生疎，語言之間，或致狎昵化詼謔而失對賓之禮。向日之於兄覲降之初，亦有此失而兄其恢諒矣。奉呵奉呵。節次啓蟄，而餘寒尙峭，燕申旺休？遠外馳溯，不任忡忡。弟，偶爾觸寒感疾，擁衾數日，神色憔悴，憫何憫何？大抵爲文，必先詳其人悉其事，然後下筆，得免杜撰模糊之弊，兄亦穩知者也。盛託二碑中，若晚養公，則僅僅摭出於譜註而敘之，文雖拙下，庶無爽實之謬。晚翠公，則全無可考處，故只依兄言而敘之，安得免汰哉之誚乎？覽後揮棄，更求良手，如何？晚翠堂記并世系譜付呈，領納切

仰耳。

## 與金碧農相晉

國策致重於三江開發，而本道之南，爲滎江上流一防湖，道川將爲內外觀光之經由，故耕地整理及屋宇改良，官促如火，而人力貴於黃金，物價騰如鵬翼，正是康衢路中獨馳九折坂也。心亂如麻。未暇伸紙入思，故延拖至此。近偷不閑，胡草而呈，惟望兄之鑿括入用耳。

## 與金相晉【50221】

黃蘂彤葉，益助懷苑。高山之下，黃菊暎階，澹軒之前，艷楓挾路，所懷倍徒於葭露之洲。而薄緣蔑生，有事于始祖墓祀，將以廿六入京，與宗人諸同作慶北安東豐山之行爲料。未參講會席末，悶何如之？因念春有之兒婚，秋以先祀，適丁于契會，使乙卯一年阻闊若千里，古所謂好事多魔，正爲若賤今準備語也。浮生一會，亦有數存焉者如是耶？可呵可呵。略草，謹狀上。

## 與曹圭復

春正賁枉，繼而承書，何等眷厚？慰瀉良極，而厥後入光者數三，每因事忙卽旋，一未趁謝高軒，安敢望厚恕耶？兄有孔北海之風誼，座上之常滿，樽中之不空，孰不欽仰？稱以東都主人，亦非過語也。今承碧農兄之簡告，兄惟獨賢于契會，招請全省之文友，講信契會，尤不勝欽艷之至。弟，好事多魔，化緣太薄，來日曜爲弊宗中央總會，事勢不得不往參，故孤負吾兄之盛誼，於心不安。茲以紙上替申，伏惟尊諒。

## 與金相晉

帶方歸路，忽分於秋城，過驛爲離，笛之連促，未分柳舍一杯酒，茹愁尙今餘存于胸中矣。近間經況，想益入佳否？頌頌不已。弟，乘曛歸鄉，金友容均太源自三道而來訪不遇，將歸須車于里驛，巧而相晤，携入于弊棲，信宿而別。繼有高興寶城靈巖諸士友，聯鑣委訪，振刷靡暇，既未赴超然。餞春之祖道，又以弊宗中央總會在來日曜，身負誌狀編纂之任，勢不得不參于高陽永慕齋會席，故亦違鳴陽之文會。浮生一合，豈非有數存焉者耶？仍念近來，弟也未參風詠盛會爲六七度，而昨春則以兒婚也，餘皆以京行有魔也。弟年若在強壯，孰不以十上之季子目之耶？然賤齒已積榴核，且今之于門學是僂倭之餘派，則與弟竿瑟之不相能，世所共知。倘免得非情之譏耶？昔人有以一夜話勝讀十年書者，然苟能志同道合，吐肝瀝膽，傾困倒廩，則一時片言之合，可有辭於後世，豈待一夜之長而後可能哉？今春自高山而詠歸，自詠歸而滄洲，入廟將事蒼蒿，悽愴興感于前哲之道學文章，退而講論遺集，振作吾輩從事於斯斃而後已之意，亦是盛事。未始非兄與我既蒙之一幸，數日之比，一夜則雖曰生平鉅厯不爲道語，而風詠之真義，則不外于此。兄其亦如賤意否耶？非吾兄，吾又不道此矣。惟祝加愛珍蓄。

## 與鄭雲鳳【151, 서울特別市冠岳區奉天四洞五九三의三〇番四統五班】

涯角落落，未能源源奉晤，恒切悵結矣。婦兒之來得聞，省體珍迪，寶罩均慶，慰瀉之深，查拙，近間有事于院祠詞垣之間，奔走十餘日，近始黏席，儘覺煩惱自貽，奈何？曩者婦兒歸寧，適以臨產之朔，吾曰不可以勞苦貽於親家，說之再三，而竟必行之，使兄家內外老少，咸受其勞，言念爲舅爲祖，而晏坐遠方，於心實多未安矣。產後四十餘日，始見媳嬌，抱玉童而入門，其骨格也，聲韻也，似不凡庸。豈非吾兩家之幸耶？慰素不淺淺。謹以紙上數字替申衷情，仰

惟情諒焉。

丙辰三月二十三日，查拙 洪錫憲 拜拜。

### 與曹永晉【潭陽古西面月山】

頃枉穩紱，餘慰尚存。春事屬暮，靖體佳裕？華宗相雲兄，近果有芳園之敘樂否？仰頌者摯。弟，近以體舍改築，日事紛擾耳。所託誠齋墓銘，忘拙構呈，文不達意，覽後揮斥，更求良手，如何？不備謹狀。

丙辰三月十日，弟 洪錫憲 拜拜。

### 答花巖祠任員高允柱金太錫鄭東會

謹承書，尊體保崇，仰慰之至。尊祠享員之薦望，仰想厚眷，固當竭蹶駿奔於尊俎之列，而谷城山仰齋獻官望帖三日前來，再明日逢其齋任柳維石兄，於玉果詠歸書院祭官出標席上，快許以九日趁期入齋，同是十日享祠，而只緣書來之差後，末由遂誠，伏惟尊諒。

### 與洪起薰

謹承惠翰，憑審，怡愉之慶，湛翁之樂，與春與泰，而出版業所占佳新移。并是仰賀千萬耳。族拙，又添一齒，氣力益衰，而凡事益多煩冗，憫何憫何？難於堪遣者，道川爲榮山江上流，大草潭來往經由地，故屋宇改良，耕地整理，勢所不得已者也。人力貴於黃金，而役事出如雨筍，儘覺擾惱。孫女結婚，又在今月旬一，則似於二十四五日間入京，以是尊諒如何？

錫禹從，歲新後亨吉，而業務邁進否？并是遠祝不已者也。轉示此意。

## 與洪起薰

節啓晴明，萬化新暢，仰惟侍棣體度與序并旺？事業秩秩進就，使斯世文化得免瞽盲之歸否？仰賀且祝。族拙，歸鄉後連以頭痛見苦，似是去夏秋間過費精神之致也。隨而服藥，暫差復作，衰矣奈何？豐洪寶鑑，幸有賢姪及錫禹君，以心以物不斷長久之力，得底順成，不啻吾宗之好大事業可資，考證家之捃摭，亦不爲無助於斯世文化界也。中心欣慰。竊想一般矣。錫禹君所遭，寔出意外，聞不勝驚駭。竊欲一次面慰，而可得其期會否耶？隨宜相示，切仰切仰耳。冊子頒布于各大學圖書館及各國圖書館，無漏，至望至望耳。

## 與李啓和

久阻之餘，奉晤穩據，其爲慰喜，想無彼此之殊矣。春事方殷，而晚寒尙峭，節宜動止佳裕？華宗東憲兄，亦得亨吉否？仰溯俯禱。姪下，以忠壯祠位版改題事，祠中諸儒躬枉有託，且送獻官望帖，故不得已十九日作光市行，二十日參享禮而還，餘儻尙存，憫何憫何？松塢公墓碣銘，重違勤教，國譯而付郵。更使能於國文者潤色，切仰耳。不備謹狀。

姪拙 洪錫憲 拜拜。

## 與金宗燮【全州市南老松洞】

歲去而所得者，懶也煩也。坐於斯二魔，未能遂意者十居八九。除他說話，先大人之大歸也，既不能哭故人之靈筵，又未能越十舍而協贊於故人遺集之刊，亦爲懶煩所魔也。此何人斯？然而高明有恢廓量度，不我江湖，寄贈以先集，謂不佞猥托先人之末契也。其重父友講先誼風誼，迥出常格，衷心仰頌不已。竊念尊先祖守愚齋公，有挽我先祖酒隱公詩，而數百年後，與先大人重講世好，依先大人

之類託，抄寄以自然堂公同泮錄者，誠千古奇事也。長使兩家後承更續世好，如今日者，顧不在於先集之尊閣塵案者乎？此尤爲感戢罔涯也。芝宇則雖未覲降，靈犀之相通已久，故翾縷至此，倘能諒此介介休咎煩支否？爲助掃塵之清算，萬元金郵呈，領納切仰。那時更借惠風而褰裾有日耶？臨紙只恠忡悒。不備謹狀。

## 答朴在文

鯨海千里，雁書一幅，何等眷厚，不我江湖。于十五年之後，若求斯世，久敬於友道者在文，想不得讓一頭地。一感一頌。尊王考忍菴記，難孤遠友之懇，強拙構付。辭不達意，覽後揮擲，更求良手，如何？會晤未易，臨紙益增忡悒。略此，謹謝狀。

丙辰二月日。

## 與崔敬堂允煥

未挹德儀，歲幾周矣。鄙吝之萌于中，亦隨而丈餘。頃被枉顧之惠，半日承誨，向之填塞，預抵不覺脫然刊落。昔非不知，仁者及人之澤，固如是，而到今尤覺其切也。清和令節，對篇討義，溫燭不釋，不知老之將至，非兄伊誰？健羨健羨。服弟，室人以微恙，叫楚澆旬，今則稍可。身亦不健，昨日劑藥于光市仁和堂，瞻望仙庄而歸，興悵而已。雲岡碣銘，重違盛教，構呈，而筆弱少發揮何，覽而棄之，更求大手，切仰耳。洙甲侍況，亦穩否？不備，謹狀上。

## 答白永基【光州市大仁洞，人和堂藥房】

向奉惠書，卽未修謝，缺禮多矣。倘加恢量否？節屆清明，尊體以時亨泰，大都綏迪？是所仰禱。錫熹，僅保前劣耳。尊先祖休庵先生，莅宰鄙郡，興學作士，迥出群侯，到今尚頌，而文集中有可參考者，

故仰請于尊案所藏矣。不靳惠借，汎愛之厚，可爲感佩，今始穩送于人和堂藥房金雅士處，奉領切昂耳。餘在續後，不備，謹謝狀。

## 與文炳善

光驛萍逢，實出意外。青青柳色，宛是渭城春光，而奈車笛促發未分一杯酒何？歸臥山牕，尤覺悵然耳。征轄利稅，靖體清爽否？慰溱之至。弟，寒食東風浪送于驛路，而未和古人馬上之吟，是亦下山景色漸臻於渾漫詩興者耶？奉呵奉呵。尊族丈狀德，既蔑繡虎手法，只尋磨驢之跡，而略加增刪，所謂塞責而已。然託非其人，兄亦不爲無失，以是裁量，則幸何如之？非久惠枉，預庸翹企。不備狀上。

與曹白鉉【潭陽郡古西面金峴里(雲峴)。現住，光州市山水二洞二六統五班三〇三】

靚降之初，已歆風誼豈弟，繼聞孝友之風，出於尋常，能守先丈遺謨，令人起敬。別日復多，靖體增佳，韡床湛翁？令宗叔桐雲兄，種種得遂悅話否？仰溯憧憧。錫，由夫昔劣耳。先丈孝友，爲鄉人所知久矣。宜得大家健筆，顯刻于阡，而先輩學已凋辭，故謀及于不佞，此意敍于銘中矣。素以不腆之文，強副盛懇，行狀亦并呈，俯略切企耳。

## 芝山祠儒會所

錫憲白。家門不幸，昨秋伯兄又南公，奄忽喪逝，摧痛酸苦，不自堪忍。期服在身，以禮以私，不可出入於院祠清肅之地，故謹茲仰告。伏惟尊諒。

戊午二月十五日。

## 與金太錫

新春清祺？曩於甥姪淳律便得詳，實副詹禱。見月再望，春已仲矣。經況連迪否？弟，依劣耳。連以遠近賓朋之枉顧，人事紛擾，巴鼻莫尋，靡是非蓬葦中遺寂之一幸，而空疎迂愚，無以仰副厚眷。何類託通文，今始構呈，櫟括入用如何？漁村遺稿，俟後便寄呈爲料，亦盛諒切仰耳。不備謹狀。

涼澤雅君亦裕佳，而淳律亦侍率無警否？并是懂懂，而未修各幅，彼致此書如何？

## 答姜燐【全州市多佳洞一街六〇의二】

昨歲內承慰狀，修謝而付于還郵，倘免洪喬之浮沈，而入照棊几否？又此承二稿之惠，而華餞隨之，從而知遠存之勤，豈不是感佩者乎？兩皆衰暮，而喜見春和之至，上天之至仁，無物不愛，果如是矣。對酌山花，一杯復一杯，亦豈非今春傳來之逸興耶？餘在續後源源，不備謹謝狀。

## 答吳成根【光州市本良面明道里】

鵠原之痛，莫非家門之不幸也。以賤私情忖度，益覺終鮮之嘆，應無彼我之殊，憫憐奈何？轉聞以下部之不仁，不利於遠程云，近間筮得妄五之吉耶？是所遠祈。錫，歲內家率有告病者，叫楚四五朔，今則快復耳。臨泉齋遺稿刊役，栢悅之地，爲之燕賀不已。弁文此世求於聲氣相應之地，實難指的誰何，而似聞長城金毅齋黃中兄先世，與臨泉齋公有道交云。與基柱兄商量，而請於毅齋兄，切仰耳。靈光李疎軒宗烈，襄度公之後，正祖朝文科掌令，而文集中有次臨履齋八景詩。長城金石泉亭進，題趙重峯同殉于錦山，而文集中有臨泉齋文字。皆爲收錄於臨泉齋集否？

## 與金鶴珍

屢辱枉顧，一未造謝，其爲缺於往來之禮，何悚甚悚甚。忠壯公遺蹟保存遭禍記，把筆臨紙，又不覺長太息而掩涕。摭其概要於兄所錄，而更考表里綸音，則若曰忠壯公金德齡遺稿手蹟，令湖南伯，模刻頒之道內，板本藏之忠壯院字云云，故書以完營錄梓也。以是盛諒如何？不備謹狀。

與洪起薰【서울特別市城東區中谷洞一四一의一六。電話，四六一八二七】

錫憲白。家門不幸，伯兄又南公，奄忽喪逝於昨歲陰八月二十二日，摧痛酸苦，不自堪忍。因於時制只載全南日報及全南每日，未通個訃于親戚故舊，於心不安耳。令允婚禮，迨此夭桃之令，而日吉辰良來後百福之川至，已兆於旭雁之朝，其於宗誼，不勝欣抃耳。揆以情禮當趁參禮筵，而衰癯未遂，略干金仰呈，以親念品代領情如何？不備謹狀。

戊午陰二月三日，宗末 錫憲 狀上。

與吳錫萬【靈光郡畝良面三鶴里】

頃年，牛山祠綱儀之成也，因鄭松南圭綜，及華宗基燮氏之請，與奇莊軒老章，往參席末矣。禮纔成，而有終日之雨，故宿於牛坪華宗家。伊時與華宗敘面者多，未知尊亦參席，而使不佞得遂覲降之願否？日久而渺不可記也。依林晚洙兄所託，墓碣及舊草文并付郵，領納後回照如何？

答族大父承箕【忠州市校峴洞五七九의三〇】

錫憲白。家門不幸，去陰八月念二日，伯兄又南公奄忽喪逝，八旬

殘年，罹此終鮮，摧痛酸苦，不自堪忍。因於時制不通訃書，只爲載記于新聞紙上，蔑禮可慙，而忽承惠書，可感平日眷愛之厚也。茲因謝狀追告，悚甚悚甚。荷江書院誌刊役，春享禮畢後旅酬之席，曾傾鼎鑪者，而今承頒帙，仰賀大事之順成，爲斯文之慶幸也。謹閱慕堂先生墓表，未司憲府正言云者，考於官制，正言是司諫院官職也。憲府二字，似是諫院之誤也。無奈監印時未及詳審之致耶？整正而頒帙如何？此處頒帙，謹爲塗改耳。不備謹謝狀。

### 答族大父承箕【忠州市校峴洞五七九의三〇】

明錫稽顙再拜言。家門凶禍，去陰八月念二日，先祖考又南公諱復憲，奄忽棄背，痛苦摧裂，不自堪勝。況又先人早已見背，孤露餘生承重大故？幸有仲叔季父俱在，而從祖父從而相之，斂葬利畢，哀感之極。因於時制不通訃書，只爲載記于新聞紙上矣。尊座荷江書院誌頒帙，皮封書以先祖考諱啣者，罪生不通訃之過也。悚甚悚甚。茲因謝狀，謹爲追告，荒述不次，謹疏。

丁巳十二月念四日，孤孫 洪明錫 疏上。

### 答鄭祖憲【31211, 忠北陰城郡金旺面道晴里】

錫白。家門不幸，去陰八月念二日，伯兄又南公奄忽喪逝，八旬殘年，罹此終鮮，摧痛酸苦，不自堪忍。因於時制不通訃書，只爲載記于新聞紙上，蔑禮可慙，而忽承惠札，可感平日不我江湖之厚眷。茲因謝狀追告，悚甚悚甚。仰想尊座刀圭之暇，不釋鉛槧之工，每於獻發，必寫感懷，應有啖蔗入佳之味矣。健羨不已。尋服生，迂愚空疎，枵腹只是茅塞，而謾使遠近愛而不知惡之賓朋，逐日徵文，座席忽擾，實未暇於塞責，自笑自憐而已。每歆尊座，以廣濟之仁術，續惠病蝨之山拙，而寒廚如洗，且微生高之乞隣聖訓可畏，故空簡修謝，倘怨欠禮否？如不遐棄，自後以古人案上題詩之義，只書

平安二字，而付于置郵亦足，切勿印札惠丹如何？遙祈迓新蔓祺。  
謹謝狀。

印札而頒，近日賭詩家之新習，切忌仰望耳。

### 答吳成根【光山郡本良面明道里】

錫憲白。家門不幸，去陰八月念二日，伯兄奄忽喪逝，八旬殘年，罹此終鮮，摧痛酸苦，不自堪忍。仰承仁恩特垂慰問，其爲哀感，但切下懷。臘寒甚酷，恭惟靖體動止萬福？錫憲，幸免他故，末由面訴，徒增哽塞，謹奉狀陳謝。不備謹狀。

服人某謝狀。

### 答姜菊史璘【520, 全北全州多佳洞一街六0-二】

錫憲白。家門不幸，去陰八月念二日，伯兄又南公奄忽喪逝，八旬殘年，罹此終鮮，摧痛酸苦，不自堪忍。因於時制不通訃書，只爲載記于新聞紙上，蔑禮可慙，而伏蒙尊慈特賜慰問，哀感之至，不任下誠。臘令酷寒，伏惟尊體動止萬福？某，幸免他故，末由面訴，徒增哽塞，謹奉狀上謝。不備謹狀。

服人 洪錫憲 狀上。

### 答姜菊史璘【全北全州多佳洞一街六0의二】

明錫稽顙再拜言。明錫，罪逆深重，不自死滅，禍延先祖考，攀號擗踊，五內分崩，叩地叫天，無所逮及。日月不居，奄經卒哭，酷罰罪苦，無望生全，即日蒙恩，就奉几筵，苟存頑息。伏蒙尊慈俯賜慰問，哀感之至，無所下誠。末由凭訴，不勝隕絕。餘奉疏荒迷不次，謹疏。

丁巳十二月日，孤孫 洪明錫 疏上。

## 慰許基洛【承重孫註】

錫憲白。不意凶變，令伯氏奄忽違世，承訃驚怛，不能已已。恭惟友愛加隆，哀慟沈痛，何可堪勝？臘令酷寒，不審尊體何似？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某，先伯喪逝後，尤覺衰頹，末由趁慰。餘謹奉狀。不備謹狀。

## 答金熙喆

錫憲白。家門不幸，伯兄又南公奄忽喪逝於昨秋，摧痛酸苦，不自堪忍。院祠之禮，雖總功之在身者，不可出入以其尚清肅也。況同氣之喪乎？謹茲仰告，伏惟尊諒。

## 答崔泳述

尺雪盈地，山齋闕寂，不謂郵人擎傳華牋，兼授佳貺，乃知人情所到。寒威不能阻滯也。何感如之？凭諦經履迪吉，實叶顛望之私。碁服人，先伯奄忽喪逝後，節四改而歲垂暮，益切終鮮之嘆，只自憫憐而已。每念高明以余有一日之長，連助藥餌，以爲歲例，其意在於將延老衰。顧此闕茸，何修而得此乎？施必有報，禮數之當爾也，而峽屋清冷，無以仰酬勤意，沒廉可忸耳。昔王佺期贈丹藥于伊川先生，先生送詩而修謝，末句曰‘我亦有丹君信否，用時還解壽斯民’。伊川大賢也。其經綸可以範圍天地，如有能用者，則極濟生民爲其能事，故道得自家胸中之蘊藉。若是如愚拙，則質菲學淺，雖欲舉好說而修謝，枵腹廖廓，傾倒無有。何只書五言近體一首，庸謝殷懃之情，以助一晒，照亮如何？餘冀獻發蔓祉，謹謝狀。

謝鳳岡崔君贈延年珍劑。

憐老贈珍劑，一如到十春。

我忘報施禮，只感意勤臻。

我作傷廉容，君爲過惠人。  
自今願勿復，責善輔眞仁。

### 與朴學周【務安郡玄慶面平山里】

阻久頗鬱矣。忽見委訪於寒沍遠途，爲感沒量。歲新啓矣，究經之工，與春益佳，有副遠友之期望否？菴服人，見此獻發，尤切終鮮之嘆，憫憐奈何？先稿弁文，託非其人，而若以辭拙終辭，則近於太斬，故草構而呈。覽而擲之，更求當世之大筆如何？不備謹狀。

### 與金玟洙【高興郡蒲頭面細洞里。現住，光州豐鄉洞五-九】

謹未審靖體萬祉否？仰頌區區。菴服人，歲暮愈多客擾，悶不可狀耳。所託文字，詳考印本行錄，則似有闕文誤字，未可憑據而輕率下筆，故姑留塵案，茲以仰告。退菴公忠肅公，兩世事蹟所載舊譜，及行錄舊本，忠肅公諡狀，兩世贈職年月，遷墓年月，并詳記携而一往如何？如有不得已形便，則郵付亦可也。卽俟回音，不宣謹狀。  
丁巳臘十六日。

### 與金玟洙

獻發有日，謹詢旅體穩迪否？區區願聞不已。歲內付書，日望惠覆，姑此泐寂無聞，訝鬱難狀。向託尊先三碣文，非淺劣者所堪下筆，故屢辭，而盛懇申摯，難恕而諾之者也。既有面許，不可宿諾，故更爲詳考行錄，則似多闕文誤字，不有尊門族譜，及文敬公金壽童所撰諡狀，及移墓于寶城年月，則不可輕易下筆者也。但觀齋公，則無立朝事君之實，故姑可據狀潤色爲文也。退菴靜軒二公，則既有歷仕歲月之長久，必多史冊之可徵也。如或一字半句妄言溢辭，則必貽笑於具眼，受責於公論者，故不可不慎重也。此意詳亮，而携諸

書惠臨，切企耳。餘在面敘，不備謹狀。

### 與金炳善【和順郡道谷面白巖里】

沐髮未晞，征轄促發，遂闕拚餞，街頭送別，可謂名浮於實堪，爲一呵之資也。暮抵鄉關，倘免擿植之俛俛耶？貢慮之切矣。兄以筋力既衰之日，猶汲汲於負薪之念，令人聞之可爲起敬也。弟，素稟闒茸，白首無聞，未副昔日先師愛我期我之厚，自顧增慙而已。通文，依盛教草呈，而入契金五千元，忘略汗呈，領情如何？恭俟回音，不戢。

丁巳十二月。

### 與丁升圭【務安郡玄慶面平山里】

季方風儀，豈弟雅勅，曾聞於春田故友，欽艷有日矣。料褻荷其白眉之簞路崑訪，一見可知爲法家子弟。古所謂君家兄弟不可當者非耶？坐席未暖，而言旋其車，卽慰旋悵。怡愉無瑕，獻發增祺，翹賀者至。莽服人，第六子婦以脚部不仁，五朔委席，今則快復，可謂災隨歲去福與春到也。私心慰幸耳。尊先小巖公阡銘，狀德太簡，若靡警賦中數句，實難下筆，故掇賦義而排爲序銘，盛覽可詳矣。不備謹狀。

### 與金鶴珍【光州市東區忠孝洞】

連日雪寒，似催歲暮，窮廬白髮，益切孤陋之嘆矣。向於暮程，征旆利稅否？緣於形便，未得苦挽而承一宵清話，思之尙今缺然于中者多矣。服弟，室人尙留光市第六兒處，以救護子婦所崇及稚孫也。所託文字，難孤兄致意之鄭重，自謂十分商量而構草，然未知能符於盛意耶？寒圃齋李忠愍公書札及文集，亦別封而呈，領納如何？

丁巳十二月。

### 與金鶴珍【忠孝里，光山金氏忠壯公宗中派譜所】

向蒙瑞玉鶴珍南浩僉尊兄賁賜委枉，得遂半日穩敘，感幸何喻？錫，學蔑識淺，而日去所添者衰病而已。憫憐奈何？尊先祖白灘公阡銘，見聞孤陋，不知曾有大方家之撰述，猥敢拙構，以副請文人之懇矣。曩於僉枉，得聞其詳，自不禁妄率之切于中者也。不但文拙辭淺，已有前人之述，則拙構不過無用一休紙，故以還收本稿之意，寄書于永燮兄，以是僉諒，切企耳。餘不備謹狀。

### 與金

伏惟春令，尊體崇吉？仰頌區區。弟，依劣不足爲愛我者道也。就昨秋拙劣所構白灘公碑銘，語拙辭劣，自知不可顯刻於公之幽宅者矣。尊宗鶴珍南浩瑚圭諸氏來言，已有前年大方家所撰，不必架疊云，聞不勝愧汗之至。不但架疊，而已前人有撰，後人之述，便歸無用休紙。以是尊諒，而弟之所草本稿，還送于弟，千萬企望耳。餘不備謹狀。

### 與鄭雲鳳【151, 서울特別市冠岳區新林洞九二〇二九八(八統六班)】

相距落落，未能數數穩攄，勢也奈何？春間婦阿歸寧而還也，得聞侍棣體吉綏，實副遠禱之私。厥後亢燠數月，而甘霖快霽，氣候之感，亦多異常，定省怡愉，一如昔時穩迪，寶覃均慶，璿孫善茁否？錫憲，家門不幸，昨年八月二十二日，伯兄奄忽喪逝，痛苦摧折，不自堪忍，拘於時制，未能各訃于當時，今因探安而追告，缺禮可愧。婦阿所崇快差，因是善調保無後慮，兩家之幸也。陰四月初，以高陽先山碑碣重豎事，留京四五日，未詳兄移住，故未遂歷訪之意。今於昇兒處詳聞新住，茲以數字替伸，耿耿之意情照是企耳。菲金貳萬圓，仰助大夫人饌價，領略如何？

戊午五月十五日，服弟 洪錫憲 狀上。

## 與朴

錫憲，謹齊沐上書于朴大統領閣下。錫憲於五一六即前，以宗門譜事留京，聞諸大學生倡言南北會談。竊自以爲以若政局求若所欲正，孔子所謂以不教民戰也。其免於禍難矣。繼聞李寬求徐珉濠，以鎮定諸生之意，講說于서울大學講堂，往而參聽，目睹大學諸生輕佻躁妄，不肯俛聽，二人遊說之談，竟歸烏有。自謂心曰，若此不已，政府不見信重於民衆，將有朝夕之患矣。不幾日，果有五一六義舉。錫憲，時方宿食于서울驛前關門樓 七層，夜過半，驚於脅鉆之齊鳴。起坐而達朝，義舉始終，鑿鑿目擊，的見絕無交刃流血之慘，而能收拾亂局於不數日內，人心安定。驚歎而贊曰，不有救時之血誠，上通于天，鎮物之洪量，遠孚於衆，孰能遂得？往古來今歷史，所無之偉勳，若是其順若反掌乎？所以敬服閣下之深仁弘義，延頸而望統一大業之亟成也。故往在一九六七年五月三日，閣下被選六代大統領也。恭進賀章，仰陳微衷矣。閣下以同月十二日，俯賜下答鄭重，未以常助好言望之。閣下汎愛達下之大量，出於尋常萬萬。固當隨時隨事，即陳千慮一得之愚見，仰瀆尊聽，益顯閣下詢蕘之仁，而更細思之，我無言責我無官守，而徒進瞽說，非村叟分內事也。即爲止之。頃年聞專用國文令下，乃曰‘此係國家億萬年大計，不可含嘿者也。細陳國漢并用之爲萬人之計。’閣下雖不即爲採用，亦不以此深誅，洪恩可感。試之數年，明見專用國文之爲弊不鮮。稍稍復編漢字於初等教科書，斯民之大幸也。夫相時射利，望僥倖於一時，乘機伺釁，覬捍禦之，疎忽莫不在於政權交替之際。今日是何日？內而政界不無壟斷獨占之貪夫，外而接隣不無磨匕窺門之凶頑，此誠危急存亡之秋。內外不虞之變，皆可懼也。當此之時，閣下復膺重選，斯是國家莫大之福，民衆莫大之慶也。錫

憲，亦億兆中一人，八十垂暮之年，若將見統一偉業於朝夕，故喜不自勝，恭進賀箋。伏願閣下，愛民以敬，而露丹心於白日，交隣以信，而重國威於泰山。統業亟成，如反掌也。不勝幸甚。

### 答李竹軒仁奎

錫憲白。家門不幸，昨秋八月二十二日，伯兄又南公奄忽喪逝，八耄殘齡，罹此終鮮，摧痛酸苦，不自堪忍。時制之損益，大異舊章，而家姪職在掌憲，故因時治喪在所難免。訃書亦不個告，只載卒日子申報。揆以吉凶相聞於知舊之義，憾然實多。謂之奈何？仙鄉諸友，連有絡繹，轉聞安候，則非不種種，而慵與成習，未修崙簡問候，反使尊兄先寄華牋，勤慢不相及。豈一舍而已哉？珍玩寵書，劃勢之迺勁，辭意之簡重，少無憾於前日。孰謂九耄胡考而有此矍鑠哉？學隨年進德與身潤，可徵於斯也。敢不拜頌？服弟，以吾宗先蹟之輯編，用盡拙力七載，始見完成於昨昨之年，而半千卷帙，已爲頒畢，私分之幸也。承以涼生枉屈之意，雖不敢必，而翹企則切矣。惟祝經候珍蓄，不備謹狀。

### 答柳在萬【光山郡本良面德林里】

陰廿二，卽承惠書，慰感沒量。示意謹悉，而宋述菴所撰德林祠記及建祠通文，并携而一枉，參酌彼此，而當爲更撰，以是企望不已。餘在面討，不備謹謝狀。

丁亥生爲十九歲於乙巳，故授既成之文，深思熟考而撰者也。然見述菴記，則自有好道理，幸勿歸咎於不佞焉。

### 與許政許鶴許斗萬

錫憲頓首言。先令人以靜貞之德，享期耄之大年，善家裕後之吉祥，

可書賢媛之傳，而奄棄色養，忽承哀翰，驚怛不能已已。以僉哀兄平日孝養之誠，猝當巨創，而國制損益於古典，經禮三百，殆無可施之時日，其於哀有餘，而禮無不足之，孝心安得無千古之憾乎？竊惟何子平八年不得營葬，常如袒括之日，若非飢荒師旅之日，則君子應不無太過之譏矣。聖人之制爲節度，防徑情直行以孝傷孝之意，可謂至矣。僉哀兄讀禮有素，安有是也？惟願強加疏食，扶持起居。錫憲，家門不幸，伯兄又南公奄忽喪逝於昨秋八月二十二日，摧痛酸苦，不自堪忍。家姪職在掌憲，只載卒日於新聞紙上，不通個訃，其於哀慶相聞之禮，亦不無缺如之憾矣。身多不健，末由奔慰，細書禮狀，亦以眼昏未能，姑以蚯蚓數字替慰，仰惟哀照，謹疏。

### 與鄭松湖雲翰

錫憲白。家門不幸，昨秋八月二十二日，伯兄又南公奄忽喪逝，摧痛酸苦，不自堪忍。時制不古，且家姪職在掌憲，不通個訃，只載卒日於新聞紙上，其於故舊間哀慶相聞之道，不無憾然。謂之奈何？間因婦兒所告，得聞道況舒泰，允副仰頌。弟，自昨秋以來，家憂相困不絕，而得免存歿之患，未始非幸事。入光非不頻繁，而每爲緊急所拘，朝去午旋，故諸兒輩處，或有隔年不足者，穉孫輩亦不無薄情祖父之譏，好笑而容受而已。向也自京還路，入起昇處，子婦獻余彤管曰，此乃松湖叔主頃枉而爲傳致於尊璋者也。忙手拱挹，仰感僕僕。此雖微物，其用至大，得其人，則上可以黼黻皇猷，下可以注疏經傳，而謾爲山間迂拙之所，占蚯蚓之劃鳥虫之聲，反使中書君不中書，而未能仰副兄之眷厚之萬一。物有幸不幸者非耶？會晤難可指的，臨紙只增忡悵，不備謹狀。

### 與宋海觀璟燮【高興郡高興面南溪里】

錫憲白。家門不幸，昨秋八月二十二日，伯兄又南公奄忽喪逝，八

旬殘年，罹此終鮮，摧痛酸苦，不自堪忍。典禮因時損益，而家姪職在掌憲，故不能個訃于知舊僉交。揆以哀慶相聞之義，實爲憾然。謂之奈何？因仙鄉諸友絡繹相因，獲承安節則數，而對晤芝宇則隔，以數歲居常悵結矣。茲承遠存寄惠，以尊門先德二憂堂公以下六世遺稿，塵案光紫，非拱壁大貝之可倫，何感如之？追念頃年故友孝燮君之便，尊門寄贈西齋實記，盥薇奉閱，則我從七代祖太史文獻公，耳溪先生良浩撰納竈之文，請文人基一氏，我五代祖考文科承旨石崖先生之切交也。景仰西齋先生忠節之餘，追感先誼之篤者有年矣。其後又奉領三乎齋遺稿於文燮氏，今又承世稿，從而歆誦。尊家文獻，可與呂正獻家十世相埒也。三星印刷社，似是尊宗氏所營，而字模甚正，印術亦精。然非尊體董役獨苦之賢，安能致若此善美也？一面十二行，一行二十六字，一依尊刊冊例，則一張刊費爲幾許耶？忘勞相示，則謀忠之仁，可爲感荷。伏惟尊諒。

戊午六月二十六日，服弟 洪錫憲 拜拜。

### 與兪炳球【서울特別市江西區禾谷洞，電信電話局】

錫憲，山間病叟，固陋寡聞，未知并世有令執之豈弟風範者久矣。近因孫兒豐錫之忝爲下僚，獲聞高風，自以爲幸。謹以紙上數字，庸替芝宇之相接，伏惟垂察焉。古之爲治也，通信迅速，只依驛駟而已。世界日闢，人文日進，吾邦之電便通信，始自前韓高宗二十一年甲申，至于今日漸次加設，四海之內，東西水陸，恍若接口耳，而對話技術之發達，莫非由於人智之發達也。當今之時，不有若令執之秉心公平執務恪勤，其何以能庶事井井部署秩秩日進於邁征乎？所以自聞高風實不勝區區仰頌者也。孫兒以鹵蔑之質，且乏家庭之濡染，凡事疎昧。伏願令執，時加鞭策而教迪之，其眷愛之惠，實所難忘者也。勿負賤託焉。餘在孫兒口詳，不備謹狀。

戊午流夏流頭節翌日，洪錫憲 再拜。

## 與康仁煥

頃枉，適近午天忽爲一陣火雲，將驅驟雨之先導，使亟熱逼座，叵耐鬱蒸，而征轄言旋，故不得苦挽矣。未幾雨忽滂沱，倘免中途冒濕而利稅否？若少須臾伺之，則快靈滌暑，亦可穩據數餉，而恨未能焉。追念介介難已。泓穎之域，那時不費得多少多精力，惟於暑榻強運汗肘，尤爲憊惱，倘有把桑落流霞而從傍酌之以滌熱腸者否？昔程伯子作字時，甚敬曰不欲字好，則此是學蓋惡工夫也。吾每見高明臨紙揮毫，只見其敬之一字而已。可謂得明道遺法矣。劃益勁而面益腴者，非斯之效歟？可歆可誦。先王考墓銘構草，而有餘白，故蚯蚓數行，以替對晤，仰惟情亮。

流頭節，服弟 洪錫憲 拜拜。

## 與金淳律

早餘又霖，氣候乖常，爲問侍棣體履平迪，榮柱近間還來，而諸兒充健善課否？願聞不已。外叔，率下依遣前樣，私幸也。按天機大要，則尹坐宅舍門路吉方，巳丙門·未坤門·戌乾門三處最吉。以汝家排置形勢言之，則未坤門最宜，與學家相議，量宜爲之，是仰耳。

戊午六月日，外叔。

## 與金在華【51081，全北益山郡黃登面不老里】

錫憲白。先夫人養德毓祉，大耋享康，善家裕後者多，而奄棄色養，遠承郵訃，驚怛不已。仰惟孝心純至，而猝當巨創，初終諸節，何以經紀耶？哀有餘而禮無不備，人子爲親事亡如存之，惻怛不能已者，而當今之世，制度有損益，時日無儀節之可施，此將奈何？然何子平八年不得營葬，常如袒括之日，若非飢荒師旅之時，則君子應不無太過之譏矣。孝子愛親之情，應變制宜之節，應有其度，而常期也

深，故謾及於斯。惟冀強加疏食，俯從禮制。錫憲，家門不幸，伯兄又南公，奄忽喪逝於昨秋八月二十二日，摧痛酸苦，不自堪忍。家姪職在掌憲，只揭卒日於申報，不通個訃，其於哀慶相聞之道，安得無缺如之憾耶？遠道，非衰朽者容易可保，故末由趨慰。細書修唁，亦妨眼昏未能，以格外數字仰呈替慰，仰惟哀照。不宣謹疏。

### 與丁炳勛【高興郡浦頭面吉頭里雁洞】

匪謂枉顧寂寞之濱，獲遂靚降之願，已大是慰豁，而即日旋轉。未學陳遵之投井，所餘者怛怛而已。不我江湖，遠惠以尊從氏修庵公遺稿，顧此闕茸，何修而得此眷注之厚耶？昔在英陵辰際，群哲邁征，儒化方興，而高麗尚佛之風，猶未盡滌，有妖僧行乎之恣行無忌，不憂軒公之直諫疏于耽羅。其有功於斯文，謂之何如哉？尊家世禪賢祖心法，而不墜家聖，恒是欽艷者，而頃年尊宗八聲氏。寄惠以不憂軒集。今又奉修菴遺稿於尊座尊閣塵案，其爲生光，不啻連城之璧璨爛輝暎也。地不甚近，促膝講討，勢之不易者也。臨紙忡悒，不備謹狀上。

戊午七月二十二日。

### 答崔圭太崔章鎬

謹承尊書，仰感眷愛之厚。尊先祖敏休公先生，盡瘁麗室，扶危濟傾，奠安五百年宗社，永終其譽。至於配食太廟，有辭千秋，東土之人，百世景仰者也。螭顛龜跌之鑄，黃繭幼婦之說，於先生不足爲重輕。然其於水不忍廢，地不忍荒之義，則亦後生之不可已者也。而僉君子齊誠亟就，先生在天之靈，其不曰余有後不棄基耶？堪爲歆誦。竊惟金石之役，太史之任，而僉君子以爲今無其職，謬謀於山間病叟，固辭不得，猥拈弱筆，倘不爲累於先生盛德耶？知罪知罪。錫憲，家門不幸，昨秋八月二十二日，伯兄又南公奄忽喪逝，摧痛酸苦，不自堪忍。練期在邇，尤不勝鴿原之思，未副盛教。伏惟

尊諒。

戊午八月一日。

### 與李春谷康仲

錫熹白。家門不幸，昨秋八月廿二日，伯兄又南公奄忽喪逝，摧痛酸苦，不自堪忍。拘於時制，只載卒日于新報，未能個訃於知舊，相從之地，其爲缺禮，倘可諒燭耶？秋氣快涼，尊體履游道義之域？仰頌不任。先伯嘗欲得吾兄驚雨泣神之筆，寫吾五代祖考石崖先生文科及第中試製頌文，作十幅屏障，寢病數朔，未果而歿。是弟所稔知於昔侍韞牀之日者也。鴿原之淚，尙未乾，而練期在邇，追想未遂素志，爲之代悶。吾兄倘爲亡友不惜一揮鐵肩，則斯亦古人解劍懸墓之風誼也。未知盛意以爲如何？徒恃平日眷愛之厚，有是亂縷。先祖製頌，別紙錄呈。規劃字數，與屏幅量宜裁定。如以書畢相聞，弟當躬進携來爲料耳。

### 答昌寧曹氏門中

謹拜惠簡，承審肯構肯堂而不棄基，無荒無廢而修世業。尊門追遠思孝之誠，可倫於安仁述家之風，歆誦曷既？錫熹，家門不幸，昨秋八月二十二日，伯兄又南公奄忽喪逝，摧痛酸苦，不自堪忍。練期即在，伊日未副盛教，伏惟尊諒。

### 與吳成根

重陽，是日漫誦，古人‘便插茱萸少一人’之句，縱陟彼岡，無處瞻望，謂之奈何？賢我俱是淚灑鴿原，而墓草已宿，鬱陶之懷，際此令節，想無彼此之殊矣。將自傷強慰者，仰慰仰慰。錫，翌日路過宋兄在檜孝廬，故入慰其棘梅欒欒。歸棲聞之，則從姪婚禮在於今月二十日，行于光市云云，故遞便更告，二十二日賁枉仰望耳。餘在匪久

晤敘。謹狀。

## 與任月坡永宰

八耄老翁，冒炎委訪，私心不安，先於感幸。從以知其鳳山祠通狀事，有所商確，尊賢好古之盛，尤可欽服。斜曛微陰，征轄利稅，啓居清勝否？嚮溯靡懈。服弟，近因制憲節休暇，兒孫四五，遠自京湖而來省，一席悅話，頓忘酷熱之侵襲，靡是非衰境一幸也。弦翁妥享，通文重違，崑訪之誠，詳加思量，而意淺辭拙，終不得好文，奈何？先生親炙於大賢門下，學問之盛，乃其實德，若夫節義，學問中一事，故拙構措辭之義，大概如斯。伏惟尊諒。

## 答安兼山秉柝【求禮郡文尺面土金里】

音耗之闕，尺地猶若涯角，況六七舍地三四歲阻耶？兄我俱罹周燧之服，而先伯之喪，在昨秋而日久，故兄有轉聞之便，追輓而陳平日之情，慰書而寬孔懷之悲。何等眷存之篤？而令咸違世於今夏，始承華幅而聞不勝驚怛。恭惟以平日慈愛之深，悲慟之念，何可堪勝？伏願深自寬抑，以慰遠誠。遠塗非衰朽易保，末由奉慰，悲係增深。自念鴿飛春原，雁孤秋天，基草已宿，雖陟彼岡瞻言，渺茫而已。鬱陶奈何？類詢除授拜之異名，弟亦所未晰然者也。家有藏書，故就考大家所撰先正誌礪年譜，則退溪墓碣文，高峰奇文憲公所撰，而曰‘拜修撰，歷正言持平副校理校理等等。甲辰春以校理召還，除弼善，遷應教典翰，病免。爲司饗院正，復授典翰，授司僕寺正。丁未秋授應教，壬子夏拜校理，承召還朝，除執義。乙卯春東歸，拜僉中樞，授同中樞，拜工判大提學，授知中樞，拜禮判，授知中樞，拜大提學吏判右贊成’云云。栗谷謚狀，月沙李文忠公所撰，而曰‘拜戶曹參議，除清州牧使，拜司諫典翰，拜承旨大司諫吏曹參議

全羅道觀察使，皆不赴。拜大司諫’云云。牛溪謚狀，亦月沙所撰，而曰‘授吏曹參議’，又曰‘三拜同知’，又曰‘除大司諫’云云。尤菴墓誌，屏溪尹文憲公所撰，而爲一萬六千餘字曰，‘拜敬陵參奉，除教官，甲午擢拜都承旨，乙未除吏曹參議，陞禮曹參判，拜吏判’云云。揆以群書，除與授，似無別般異義。但於六卿三公，皆曰拜。漢書曰拜大將，拜之最尊則可諒也。按趙月臯所撰蘆沙先生行狀，則先生屢承恩除，而只供職六日於典設司別提。時則於持平掌令執義工參，不可以無疏辭看作供職也。審矣，其不逐條，而曰‘不赴者’，抑嫌文勢之疊復於數月之內者耶？國制嘉善嘉義【從二品】，則追贈三世，先生十月陞嘉善，故十一月追贈三世，而十二月行焚黃禮也。謝履之稽緩，事紛心擾，巴鼻莫尋之致也。非欲偃蹇於平日切偲之地也。倘加海諒焉。

### 與崔惟默【靈巖郡西面鳩林，竹亭】

石役利就，先懿宣著，尊門追遠之孝思，可爲柯則于叔世，使民德歸厚也。健羨欽誦。錫憲，事多掣肘，未副禮速盛教，尙今悚悶，而料外春江兄委訪，致以貳萬金，曰‘斯吾全宗之合心禮謝也’。自顧以微塵之身，托名於先生之碑，已是夥榮，而前以腆幣，又此誠表，只今愧汗，罔知攸措。却之不恭，禮當躬謝，而忽擾未爾。每向人說道尊門之厚意則屢矣。近少寬閑，謹以數字，替面追謝。伏惟僉諒。戊午十月十二日。

### 與金碧農相晉

溪隱亭講會，迎餞罔儀，霎奉清裾，靡暇穩討。且未知旋旆之早晏，在於那間，而臨曠環眄，則賓發已多，不謂毅齋與兄，亦在供發也。問於

海石，亦不知云，無乃憂故彌月之家，事急杏林，場藿無積，不能使遠來之驂留而不發者耶？曰非也。子猷之筇，未及叩安，道之扉而去，吾之兄則既見海石矣。既上溪隱亭矣，清興之曼曼，可謂十倍於子猷有是哉？鬢鑠也。若海石之恨未設醴，弟之恨未吟陽關一闕者，區區私情也。豈足以知乘興而來，興盡而去之豁達丈夫之志者耶？奉呵奉呵。頃於超然亭之會，拙構有草，藏在囊裏，而到於聯軸之後，卽酒卽餐，而離筇交劇，忘未付驢而發，今始撥囊而知見逸，故茲因還郵之便，而呈于清案，以助一哂，并謝前日之負罪。伏惟尊諒。

### 與吳基柱【50005, 光州市林洞七八】

憶昔枉顧穩討，茫然若夢境。搖搖懸想，忉忉可已？憑華宗成根便，聞體度美慎彌留，而猶汲汲於蒐刊臨泉齋公遺集，不敢少須臾措念矣。除拜先集之寄贈，可見有志竟成，何等歆頌？兄可謂克盡負薪之責也。弟，群兒住光，往還可謂頻繁，而冗故所縻，未能久留，故每擬一訪仙庄，問慎候差劇而未果，只貢遠外之慮而已。近間靜止何如？惟祝妄五有慶。不備謹狀。

### 與金駟洙

曾因觀兒口達，聞美慎亘歲彌留，衰慵之甚，一未書問差劇，只切遠外貢慮而已。客臘之令兒，自求禮歷候而來傳，以調養有道，至於快復，聞不勝喜幸。新元呈吉，體度循序益旺？頌祝不任。損弟，學疎辭拙，而謬託以先王考海翁公阡銘，揆分固所不敢以世好家後生，有不可固辭，故就狀略加潤色而敘，筆弱少發揮力，更與良手槩括入用，切仰耳。一枉之教，非不感荷，而第恐遠塗之役，有損於調餘節宣，故付于兒便，盛諒如何？餘在續後，不備謹狀。

## 與任月坡永宰

歲聿云暮，叵耐蕭索矣。匪謂賁枉，寒屋生光。際有族姪婚慶，因遂數日連裾，何慰如之？頰託孝詩，豈曰拙構可掛人眼？盛意蓋欲托斯而要敘積阻之懷也。其繾綣情緒，可荷可感。謹草而呈，推敲入用，切仰耳。餘祈獻發蔓祉。謹狀上。

戊午十二月十九日。

赤心孺慕出天真，純孝如公有幾人。  
侍側供歡能養志，感神受佑復回春。  
誰將金管揚姸節，宜豎龜趺曉敦倫。  
哲嗣克承詩禮業，津津餘慶永年新。

## 答金熙喆

阻餘惠書，慰瀉之至。錫熹，夏初身罹薪憂，刀圭罔效，兒輩請治療于病院，故不得已從之，入于光州舊濟衆病院，施術受治，月餘而退。今又月餘行步，尚不能任意，衰暮之質，其難快復於時月之間，悶何悶何？景賢書院重建時，講堂之未即營豎，事出土林無有官府之捐助，若古右文之時所致也。尋常慨嘆者也。今承以開會討議，聞甚耳醒。名添有有司之列，固當赴于席末，協贊允臧之謀，而勢難登程如右，故以書替伸。伏惟尊諒。

## 答李喜鳳【長城邑梅花洞】

華函珍重，而謝覆稽緩，知罪知罪，而命之所奇，身罹薪憂，受療于光州慈惠病院，月餘還家，今尚圍圉，難振所致也。幸勿厚誅如何？所託偉引，向者伸紙入思，只有荒草，未及潤色，還家更加追琢者，而素以鹵蔑之學，加以久病之餘，思道藁塞，安得免佛頭布糞之譏乎？且施術治療，而姑不能任意偃仰，故字劃亦未免蚯蚓，而難孤盛

教，率爾草呈。伏惟尊諒，付于令胤者，取其信便也。并加尊諒。  
己未六月二十八日。

### 答姜菊史璘【520, 全州市多佳洞一街六0-二】

委臥病牀於光州濟衆院，施術受治，月餘還家，則兄所寄贈武陽書院誌，免喬沈而穩到，益覺兄尊賢好善之誠，至於終焉允臧，與吾黨諸友共其幸也。何等仰賀？向者見玉潭書來，搬移于太平二洞一二五七統一班權炳熙方云，想兄早得入聞也。其間動靜，種種入耳，得免涔寂之懷耶？願聞不已。病保坐臥不便，所欲言者多，而不能遂意。姑此不備，謹謝狀上。

己未五月二十九日，弟 洪錫憲 拜謝。  
金友鍾燮，近亦平穩耶？是亦願聞耳。

### 答奇玉潭寬【520, 全州市太平二洞一二五七統一班，權炳熙】

承惠書，未幾身罹薪憂，刀圭罔效，兒輩請以入院治療，故不得已從之，受療于光州濟衆病院，施術快治，月餘退家，尙今圉圍難振，悶何悶何？移住新屋，倘卜綠楊之芳隣，得同看明月之故人耶？遠切慰賀。近得菊史所寄武陽書院誌，而讀之，自以爲幸曰，是雖寂寥一篇，猶可以使先生祖孫之倡明之大，繼述之賢，尤有宣著，發揮於吾道晦盲否塞之日，苟能令及門私淑諸家後生，知道屈與屈，道伸與伸，隨遇樂之。講明于素患行患，素夷行夷之道，不問不知。朝聞夕可，便在於是，而先生之道，不以人之顯晦世之升沈有所斷續也。賢執所謂覺吾生之不如丘隅一物者，亦衰世之意也。使人聞之，自不覺爲之發慙於不能知止於至善也。如愚拙者，敢不以斃而後已爲心，期於桑榆之收，以副賢執之所警規者耶？徐待秋風之蘇病骨，一圖晉敘，兼晤菊史，而老病者事，亦何必也？楮短辭長。不備，謹謝上狀。

己未六月二十八日，洪錫憲 拜謝。

## 與羅甲運

頃枉穩紱，慰瀉之深，俯詢祠宇額號之義，高明與不佞兩人之意，便是千萬人之同意也。復何重言？美國首都命名之義，孰不聞知？然不可以此等例，蔑我小華爲君諱爲親諱爲祖先諱爲賢人諱之義也。千萬諒之，勿使有後日之悔學國之笑，切仰耳。不佞於先生，雖有內外親之殊，猶是血氣相禪之外裔也。其所景慕之地，不敢含默，更以書告，盛諒切仰耳。

下記愚見亦爲參考，與士林討議，去短取長，豈非慎重之道乎？

一表忠，二遞菴，三海平【海賊平定之義】，四晴海【龜船所之海氛快晴之義】。

## 答盧源泰【52118，任實郡三溪面後川里】

一別兩歲，音信渺茫，美慎彌留，獲拜華翰，而始聞況關節重崇，非比尋常之症，今也則幸筮妄五云，貢慮之餘，旋庸慰賀。弟，家門不幸，昨秋八月念再翌，先伯奄忽喪逝，終鮮之痛，尙今難已。時制一變，家姪職于掌憲之地，故不敢生乎，今而復古，只書卒於申報上，不通個訃，其於故舊間吉凶相聞之道，謂之何哉？今因來書之謝，而始姑兄必厚誅免不得世白也。吾兩人居既稍遠，面之不能數數，勢也無奈。效古人葉上題詩之意，只書平安二字于短簡，用置郵而相通，猶可爲見面之亞。弟因慵與爲友，而未果，兄能奮筆於久病之餘致意繾綣，此是友道也。感嘆何極？楮短辭縮，而不能盡意。惟祈獻發蔓祉加護。謹謝狀。

戊午十二月十二日。

答鄭祖憲【31211, 忠北陰城郡金旺面道晴里】

聞所不欲聞，見所不欲見，莫非詭譎罔狀，斯世事也。紫陽夫子嘆百家衆技充塞仁義者，紛然雜出于五季之時矣。今則東西一家，而書不能同文，民共異政，而行不能同倫，潰亂不翅五季之時可比也。後有紫陽夫子出，倘謂以何如哉？雖然人無父母，不能有此身，故惟父子之倫，則凡民之謁然感發，善端有不能已者也。一玉渭隱二公，出於一家，兩世實蹟刊行後先，苟能使世人因其感發，而留意於聞所當聞見所當見，則孰不愛讀兩世實蹟乎？是則未始非尊座繼述之賢與有力於脫流反真也。爲之仰頌。

答徐丙極【650, 慶北榮州郡榮州邑明珠里】

新奠伴春祝鄭重之辭，  
郵人傳道川寂寞之濱。  
非愛我之厚眷，  
其從何而得斯。  
繼述之賢往者已傾鼎鑑，  
汎愛之弘今日又睹楮墨。  
既深感銘，  
謹此仰射。

與楊貞奎【543, 寶城郡筏橋邑善根橋通】

與先大人款洽度三夏于洛州客館，屈指燧已十五改矣。踵以尺書往復者四五矣。萍晤光市者數度矣。然而書不能盡意，會不能盡情，兩皆一般，別後還切雲樹之思而已。赤虬歲凶，白雞憂惡，先大人

遽作雲鄉之遊，而蘭報茫然，既未得一哭象筵。遺孤負薪，文稿爰登棗梨，荷惠存而遠寄，獨憮然而披卷，完在伊人在書中央。懷舊潸然，謂之何哉？頌故人之有後托世契于賢嗣。

遺稿中拙名憲字，誤書以憲，訂正是仰耳。

答洪哲憲【133, 서울特別市城東區求義洞二〇一—一〇, 新營織物工業社長】

握別光驛，悵仰政深矣。際承惠翰兼寫真，以審遠塗利稅，體度裕吉，實副仰禱。族拙，漫添齒髮，業無所成，浩嘆奈何？冬日不寒疑似春和，或者泰和元氣將來消息耶？豫切抃欣。不備謹謝狀。

與李源箕

頃年幸遂靚降之願於盤松精舍，而冬日已曛，載塗雪濘歸思鞭心，故未得一夜讀十年書，尚今茹恨矣。尊座以鐵肩神腕，曾有相我先祖卽將府君碑役，使阡道增光，豈不是銘感在心？向迆之忱，未嘗小弛于中，故茲於先人墓碣之役，不得已倩機篋族大父便，仰懇表碣二文之書者，而非幣蔑誠，不敢擡頭，裁書仰塵尊案矣。忽承先施華翰，付以先人墓表之書，既愧蔑禮於前，繼感德愛於後。謹詳盛教，以寫紙罽，間不合於字數，虛費神腕，聞來甚悶。然得隴望蜀，操狹願廣，非不知冒廉，而更茲仰懇，先人墓碣銘草本，并此書而還付，勿爲揮斥，書而下惠，千萬伏望耳。餘在續後，不備謹狀上。

答李源箕【서울特別市鍾岩洞】

一月之內，再承辱札，孰謂湖洛千里落寞？乃知人情所到，泰山失其高，溟海失其深也。況先人碣銘，凝心揮毫，字字珠玉？若使刻手亦能注神，若兄不剝喪字體原型，雖樵牧亦必知敬，驚雨泣神之筆，尤

不敢肆伐斫也。在錫憲不勝感幸。弟，近有宗內總會開席於道川之漾碧亭，期在廿日，而湖洛諸宗，期以數日前到妥協，故方在翹企中矣。何當一握庸敍襃積耶？不備，謹謝狀。

## 與許中菴基洛

夏既辱賜遠慰於光之病棟，入秋以來，再荷委訪，回顧屋脊，光紫燁燁，感戢罔量。詠歸院誌編摩之役，一倣筆院誌者，以其一體高景之地，尊其已行之書也。如有疑訝處，更考筆院誌，而留意精詳切仰耳。弁文固知不敢，而春既有士友諸賢之託，兄又申之，故露拙草呈，幸須與高明大家斤正入用，使昔者諸友之託不歸於妄也。松沙集詳考目錄，則原集二十五，目錄一，續集一，合二十七卷，而兄所寄贈編帙，欠詩及疏文一二卷，而爲二十五卷。討暇更考書藏，早晚覓便而付如何？

## 與族孫錫禹

探求堂相別，未幾賢從枉罹，千萬夢外之厄，孰不爲之代憫？至若族拙六七年相從於先蹟刊役，凡事商論意同議協，便若兄弟。聞來中心憂忡，豈但以尋常宗誼而已耶？雖拘於時制，未遂一次面慰，涔寂之懷，其爲忉忉，則何日可已？遠外忽聞，歸家調養之喜報，以情以禮，志切對晤歡洽。不量老衰，二次入京，而巧值出外，未遂素志而歸，悵然心思，至今不釋。竊想起薰從爲說此情狀而入聞矣。然而老懶成習，尙晚一書仰慰，悚甚悚甚。安得免泛泛等閑之誚乎？春寒尙峭，靖棣體度佳迪，所業日進昌盛耶？窮陰之後陽春敷和，苦惱之餘泰運必臻，天理之常也。以是仰慰且賀。族拙，家門不幸，再昨年秋，先伯奄忽喪逝，痛苦摧酸，終鮮之嘆，謂之奈何？身亦蕭索日甚，已非前樣，神耗精欠，似未久作陽界人，公道然也。只自憫憐

而已。第以初夏清和之辰，一擬晉敘，說道前日事，而衰老人事，亦何可必也？意長辭短，留在續後，不備謹狀。

別記仰託。

家兒起昇，職務于全南教育委員會，九年而升進于回甲，去年初轉任爲羅州郡教育廳管係長，方在勤務，而聞文教部有增員之說，有志于進出中央，而蹤跡生疎，茫無階梯，奈何奈何？仰惟賢從，應多舊交，親友方在樞要而勤務者矣。幸爲老拙，勿惜一次緊託，如何如何？幾日間家兒必有委訪矣。指示方針，至於叶願，切仰切仰耳。蓋此等事，極知冒廉，然凡事周旋，不于相親之地仰託，則遠外生疎之人，於何緊託乎？以是深亮，切仰耳。

### 與洪千植【本良面山陰里】

清明佳節，日月協吉，龜蓍咸從兩世碑役，應爲順成矣。遠外誦祝之至。役畢而還，倘無餘憊之成惱耶？族姪，近作長城高山書院享官，一宿而還，繼作谷城詠歸書院之行，亦一宿而還，晚景遠役，非無困惱，而有事之地，不可偃蹇，以負相知之愛我也。所託文字寫呈，入用與否，惟在尊諒耳。不備，謹狀上。

### 答金貞鎔【57053，康津郡七良面永豐里】

二旬之間，兩度賁枉。既遂觀降之願。且飽豈弟之德，所得如山，而料褫又辱惠書，致意繾綣，顧以渙忍，何修而獲此於兄耶？爲感罔涯。奉讀來書，辭義暢達，劃勢過勁，從知早年篤勤之工，到老緝懋，入於精妙閭奧也。既歆且誦。弟，質菲學蔑，年近八耄，猶是枵腹控，而頃者何力不敢違兄謬託，謾爲泚筆於碣銘齋記，然自訟拙澁而已。兄反以溢辭稱美，是豈所望於愛我者耶？從後勿復，過

情之譽，以直諒之德，施責善之愛。弟當感鑄肺腑，有補桑榆之收矣。是所顛望者也。顯武公實記序及大碑銘，曾爲過目於淵松二大集，仰慕忠義久矣。今奉所惠實記全集，尤詳前日之所未詳者。非兄愛我之深，何以得此？尊閣枯梧，時時奉閱，其於課忠責義，爲補大之其可賓也。不翅尺素拱璧之倫哉？客擾中胡草，蚯蚓數行，惟祈經體珍翬。不備，謹謝狀上。

華宗永熙兄，亦爲穩迪否？未修各幅，爲致此耿悵焉。

實記參考正誤記。

金貴榮號東園尙州人。

金應南諡忠靖公。

### 與吳成根【光山郡本良面明道里】

得令胤書，聞攬揆稱觴出於舞彩之獻忱。節屆清和，家盈吉祥？琴瑟鐘鼓，樂縞綦之好，述芝蘭瑤瑜，趨鸞鳳之佳兒，此是塵寰仙緣，濁世清福。客自三山，爭賀五湖之帖，盤登八珍，莫非十洲之味。僕，宗會在明，盛緣難得。昔聞君子贈人以言，茲舉拙筆賀壽以序，爲祈珍翬。

### 答高光秀【潭陽郡昌平面柳川里】

阻闕六七歲，忽承先施華翰，來汝之教，不我江湖之厚眷，感鑄罔喻。尊先祖悔過公碑役，遂曠世未遑，俾幽德益章，阡道生輝，非尊門奉先思孝之誠久而益篤，豈能容易成就於世？況紛遯之日者？仰賀萬萬。禮當躬造，庸副眷注之厚，而宗內有逐年總會在於十日，湖洛嶺諸宗，期以數日內前到妥議，故素意未遂，尊諒切仰耳。意長辭短，胡草，謹謝上。

## 答高光秀【潭陽郡昌平面柳川里】

荐拜芳訊於一朔之內，寔出不圖，仰認叔度之量，不欲高自位置，惜墨如金，不肯輕投一札，若陳遵者也。不翅蔀屋生光如山如河，遣意鄭重，面上三斗俗塵，胸中十圍柴棘，不覺脫然刊落。若使得遂時月之肩隨而挹其餘芬，則所得又豈一書之比哉？顧自洩瀆，未能奈之何。其蓬芮射精神，祇垂祐尊先祖悔過公碑役順成，而黃繭幼婦，馳彩貞珉，使潛光幽德章於百世，雖安仁述家之風，寔難與儔。夙忱竟成，應多心忮而體胖，敢此追賀。惠贈月峯集，便是第二正氣錄。錦谷先生弁文，所謂‘若及於月汀編錄之時，可以兩世爲三三節爲四益當有光’者，寫出全集真面目。吾族祖耳溪先生碣銘，所謂‘正色埒端，諤諤敢言，毅烈之子，忠烈之孫’者，知德之辭，直裁明白，發揮無餘，可謂千載之知己也。今又重鐫而廣布，使人讀之益深，景慕激勵，有以感發。其同然之義氣，爲補於風化，必夥矣。敢不恭心莊誦繼爲頌孝孫克家之賢乎？但今之譯解，不知其自何等人拊出，摘其影響，而務快俗人之耳目，與本文正義大相徑庭未始非斯文之一大變怪也。自家被皆有循例之病，況其餘人乎？爲資參考集中所載吾族祖諸公事實，略記而呈。洪{雨/集}，字景澤，號撚髭，文敬公墓堂履祥三子，生員文科掌令贈吏參。洪靈後改名囊，字澤芳，號秋巒，{雨/集}弟，生員文科禮曹參判，贈領相，李月沙壻。洪柱元，字建中，號無何堂，囊子，尙宣祖一女貞明公主，封永安尉，諡文懿公。五相三文衡，二十五卿，八文諡，皆其後也。洪良浩，字漢師，號耳溪，文懿公柱元玄孫，生員文科吏判大提學，入耆社，文獻公，有文集五十卷。子義俊，號薰谷，文科吏判，三入甌卜，入耆社，諡文穆公。孫敬謨，號冠巖，生員文科吏判，入耆社，諡文貞公。會晤未易 臨紙忡悵。謹謝狀。

己未四月二十八日，洪錫熹 謝狀。

### 答吳和烈【光山郡本良面明道里】

承惠翰，因審春堂華甲在邇。高明昆季，以愛日之誠，擬舉祝年之觴，廣速遠近士友，非孝思之至，稱觴於如今之世，其亦難矣。仰頌不已。散人，宗內有逐年總會，每以四月之旬，昔會于高陽之永慕齋，今年則會于道川漾碧亭爲計。湖嶺京鄉約以咸集，勢不可不參，故未副盛速，爲欠喜慶之道，心則缺然矣。遙祈春堂九如之壽福。謹謝狀。

### 與宋海觀璟燮【高興郡高興邑南溪里】

歲內二華宋之過，辱賜惠書，仍審震良無損於寒威栗烈之節，既副遠溯之私。弟，劣不足道，而荷齋洞歲饌之助，不幾日，荐蒙兄之垂問，感與愧并。未卽修謝，雖因華宗之促發，是豈曰副相愛之至意？國有弑變，千古之羞，客年正是厄會，而爲朔風所驅去，涖灘青陽擁瑞祺而到，尊家百福，爲之仰賀。水使公阡刻，舊碣之闕略，固當及時補書而託。非其人，固辭不獲，妄爲下手，猥不可言。餘具夾，謹上狀。

夾紙。

光海元年己酉，爲萬曆三十七年，則三十九年爲光海辛亥。諭書在於是年，則公之拜水使，似在光海朝。更爲詳考，而陞拜上，添入光海辛亥似好，商量焉。

### 與宋璟燮別紙

光海元年己酉，爲明神宗萬曆三十七年，則三十九年卽光海三十辛亥也。諭書適在於是年，則公之拜水使，似在光海辛亥。更爲詳考，而於碣文中，陞拜之上添入光海辛亥，尤爲詳明，商量處之，是仰。汲都人發子房塚，有古史出，大異所傳于世。杜羔見先人數行文字於屋柱煤烟之中，極致敬意。

右二節緊如新出文字相符，故文字家多引用。

### 答宋海觀環變【高興郡】

邦國不幸，元首被弑，世變罔極，可以人而無愧於蜂蟻乎？所可道也，言之戚也。昨秋永護亭契會，席不暇暖而高車旋發，修契有司海石姪，以未投轄留飲，尚今爲恨。況識荆先於海石而爲庚交者乎？恒切怛怛之際，華家奉惠書而到，滿紙腆辭，遣意繾繾，喜適百朋，慰感可斗？厥後禹晡數禫，道味益入真腴，啓彭澤之樽，餐菊落英，塊扎塵埽，不入淨界，仰賀俯禱。弟，身罹薪憂，去榴夏，手術治療于光州基督病院，數月而快差。然神氣漸敗，催衰尤甚，悶憐奈何？齋洞首任之望，出於料禡，自顧闕茸，不足以齒於髦士之末，而謬被儒薦，揆分則濫，而固辭嫌於愆然，故謹當依教矣。一箱金橘，居山者難得之珍果，而佳貺意勤，先妣忌日在邇，擬爲奉薦，何等感荷？華宗旋發，未卽修謝，翌日參蘆沙先生學術講演會，懸板式於光州市道廳前三成印業社，信宿而罷，稽緩至此，仰惟尊諒。謹謝上狀。己未九月二十六日。

### 與林根燁【長城郡森西面水海里】

去歲之暮，荷遠訪厚眷，而巧值從孫婦于日，客擾未能穩討而分，尚今茹悵。獻發有日，體上吉祺，令族叔靜養動止，與春俱泰？并溱仰之至。錫，病餘衰狀，又添一齒，無足向人說道，只似眷安爲幸耳。二碑銘，依狀略加潤刪構呈，而先大人卽我之同庚生也。臨紙別有所感，故恨未遂覲降，而銘墓此意敘于其中，亦古人有已例故也。以是諒之如何？不宣謹狀。

令族叔前，禮當修新歲之賀，而擾不能遂意，爲達此意，則或可恕諒耶？

### 與宋東圻【高興郡豆原面松亭里】

屢挹清儀，歲雖久而尙記誰某？向枉相對，頓然不覺衰矣，視若霧中花，奈何？想爲發一笑也。錫，左脚不仁，尙無快效，悶憐而已。所託文字，仙鄉多大手在，而謬訪山中劣夫，是爲盛諒之失計也。此等文大異常套，故屢日入思而僅掇，然未知其無爽於謀猷之實際耶？不宣謹狀。庚申正月二十五日，損記 洪錫憲。

### 與曹棟承

生并一世，尙晚覲降，跽蟄固陋，只自恹悶。鼎山祠誌弁文，難孤華宗之謬託，妄爲泚筆，而依華宗之教，郵付于尊座，仰惟尊諒。

### 答褒忠祠儒會所書【院任金相晉·崔南鎮·金裕新·奇世澤·高先春·高永斗】

恭承簡通，感佩罔喻。節迫清明，恭惟尊體萬休？仰頌仰頌。來汝之教，固當竭蹶駿奔，惟以先考墓莎役，在清明日，故未副盛教，伏惟尊諒。庚申二月十七日。

### 答金炳國【南原郡寶節面眞基里】

一月之內，一枉一書，勤意可掬。春雨和洽，無物不暢，可見上天愛育之仁，則亘萬古一貫也。此時經體益懋，慥索得到昭曠之域否？頌仰之切。錫，去清明節，營豎先考墓前表石及碣石，諸般石物，歲內運于墓側，是日董役方就，而大雨終日，以翌日畢功，是亦可曰少伸孺慕之思耶？所託墓表，既無文獻之可徵，則勢不得依狀潤刪而已。以是亮燭否？非面莫可穩據，略此不宣，謝狀。

### 與李洪林

山廚冷淡，雖葦鷄黍之備，自謂兄必不負二月旬間之約矣，邴音尙遲，訝菀難狀之際，令愛遠到，始承美慎彌留，入院受療，聞不勝驚，貢慮千萬。春和益暢，妄五之喜，當在不日矣。以是仰慰。所教可知，出於相愛相期，然數字國文，終不可詳其所指何意。待兄所崇快差，申命于令允，兼以譜冊而起送，切仰。略干錢，仰助刀圭之資，領情如何？餘祈調候快復，謹狀。

### 答詠歸書院儒會書

恭惟暮春，尊體享吉？仰頌者摯。敬承望帖，有事之地，固當竭蹶駿奔，而十七日，與宗族幾人營作哀行，未能副教，謹茲仰告。伏惟尊諒。

### 答金碧農相晉

逢處難別，分時相思，尤切於晚景，益覺友情之不可缺於倫常也。承書爲喜，奚適百朋之錫而已哉？弟，爲宗族所携，近作湖西嶺南關東之行，於江陵拜栗谷先生文成祠，吊申忠壯公毅魂于烏嶺，悵光陵駐蹕地于俗離山。此行既非按節衣繡觀風察俗，而在於七七晚景，實有愧于批風擺月。然其於傷心于漢城古宮，亦可曰出一格。第恨未能以吳楚乾坤之句，攄發胸中之硯礪，謂之奈何？春會期必赴於席末，以贖昨秋未赴之失矣。曾與南原後川里金雅東基，期會于伊日，方在掃榻而待，故素意未遂，是亦好事多魔之致耶？拙覷，斤正付驥，則可荷不遐之惠，切仰之至。

### 與金碧農相晉【長城郡長城邑梅花洞】

元首之被弑，六百年後初有事。世變至此，凡爲圓顛方趾於吾土者，孰不驚倒？普痛恒暘之中，又當如春之節，惟天意則好生，垂憐黎民之寒，俾得免于疲癯殘疾，若昔雨穀之時者耶？服體嘉麻，是所頂

祝。弟，病餘神氣催衰，未能翼如，好事多魔，自爲悶隣而已。生平迂愚，出言爲辭未祛粗荒，尤有南豐之恨，而見此詩題於此日，胸中硯礪有按住不得者，故緘口構草仰呈，以助一哂。倘蒙斤正，則不遐之惠，尤可感戢。

### 答安泰時【寶城郡寶城邑宅村】

半日靚降，重講五世之先好，其爲慰豁，罔容云喻。戶外風塵，不入高士之門，體道益泰，啖經入腴？仰頌靡懈。弟，株守昔拙，無足仰浼者。錄示諸賢中石崖，卽我五代祖諱鳳周字子敏雅號也。中英祖己卯司馬，而居泮宮時，大司成徐公命膺，稱文章似蘇東坡，可爲湖南東坡，號曰南坡。正祖辛丑，舉才行，除徽陵參奉，不就。癸卯登文科，官至承旨，有文集三卷，行于世。集中有牛山集刊行時呈大溪書院院長書，故爲講世好。曾以一帙冊，贈呈于杯山兄矣，杯山惠覆致感謝之意，而幽明之隔，已作千古，悵歎奈何？隱峯精舍遺墟碑建立追慕韻，歸則書付于鍾宣兄，蒙惠覆書，并爲尊諒如何？諸賢名單略記謾見，亦爲尊照。餘在續後，不備謹謝上。不愠齋公諱與字生年，書示如何？

### 與李春谷康仲【任實郡屯南面新基里】

指期折簡，喻續風詠，好音洽耳，約與隣近五六契友共赴矣。時適戒慎，十舍砥路，便作鳥道千里，竟失所圖，喟之奈何？去月小晦，因全州奇玉潭寬·後川金東基二君之來，得聞北省別無大生梗，事出奇幸，便是好消息，爲之頌頌。未知光羅外參席者幾人？能成清團於忽地駭浪之中，快飲北海之樽，詠歸城南之山耶？兄我俱是八耄，一席穩據，數數難得，而好事多魔，始知故人一合亦有數存焉也。拙構所草付呈，而又露拙仰呈春谷經案下，恭俟報瓊於投瓜之。餘伏惟尊諒。庚申五月二日。

## 答筆巖書院執綱僉座書

伏惟仲秋，尊體保重？仰頌仰頌。錫熹，一病數朔，手術治療，所崇則快差，而神氣敗耗，一日之程，便隨數夜叫楚，不堪齊宿，未副盛教。伏惟尊諒。己未八月十三日，洪錫熹 再拜。

筆巖書院執綱僉座下。

## 答奇玉潭【寬】【全州市太平洞二街一五二 權雨熙方】

久病之餘，神氣漸敗，儘覺衰朽之促，秋懷寥慄，已非前歲之比。華箋遞到，滿紙辭意，莫非出於相愛之至，慰瀉良深。新移之後，凡百似多窘踣，而君子素履，藥天知命，應有無入，而不自得之活潑矣。菊史所慎，八耄之年，調養有道，能作戶庭之樂，矍鑠哉是翁也！顧此萎葍，憚於遠役，膏秣相從，有意未就。三老一席，對晤娓娓，只增夢想憧憬而已。蘆沙先生學術講演，在於十月間云，聞甚喜豁。頃日朴君來鎬，踵余說道，故仍與行光州市浩仲家，略聞其行事節次。請余以國譯年譜，故不揆膚淺，敢為抽濡，倘可免郢書燕說之誚耶？環顧一世，昔日相從而師之者，盡作青山，蓋出於不得已之強諾也。竊以為使先生之道，發揮宣著而不墜於地，正在於淵源諸家後生，尊所聞行所知，能明其所得於天之明命，得志而行乎世，則不忘堯舜君民之心，不得志而處乎家，則不渝顏樂原貧，不惑而埃命而已。若夫正道實學之隨時醇醪，而有所屈伸，有世以來免不得者，謂之奈何？彼今日新學輩，雖不能深知先生，然同具彝性，能知尊信而為善，樂出於講座？是亦可以為聳動瞻聆，正所謂彼於此則有之矣，故吾聞而喜之，祈其順成也。高山享禮，或可奉晤？餘多少留，不備。謹謝狀。己未八月二十六日，錫熹 拜。

## 與高在哲【光山郡大村面鴨村里】

夏間冒炎委訪，討罄褫積底懷，又相與披閱正廟時刊行湖南節義錄，恭審尊先祖竹村公，僕先祖壺隱公諱民彥，從忠烈公倡義事蹟，連載一紙。竊揆編纂之義，則忠義之可相伯仲，已有公論也。兩家後承，安得歇后於通家之誼耶？兄能遠存鹵蔑之弟寄贈，以竹村集及松鶴世稿者，卽此義也。良感眷注之厚，禮當造門拜謝，而久病之餘，憚於遠役，未遂齋意，謹以紙上數語替謝。伏惟尊諒。

## 與崔日錫

荐賜賁惠，蓬圭生紫，感荷可斗？遠程勞攘之餘，哀體不瑕有損，而善爲支將，寶覃珍迪否？遠溯不任憧憧。弟，病餘神氣似有催衰，悶何悶何？敬堂崔兄允煥，遽作修文郎於地下，今日是入地之期也。生長老死，公道無奈，而地上之友，失一舊交賢朋，安得不悵然？方作臨壙哭訣之行矣。先丈阡銘，方在入思中，而姑以朴氏阡表郵付，仰惟哀諒。非久惠枉，預庸翹企。不備，謹疏上。乙未八月二十九日，弟 洪錫熹 疏上。

## 答洪起薰【서울特別市鐘路區公平洞3 前衛文學社】

省禮言。承惠疏後，月改日積，時變勢幻，出於意外，懷想憧憧，有倍平昔。仰惟哀棣體以禮支安，業務邁進，倘不以時變有所異同否？既慰且祝。錫禹從前此入京時，賢從以爲外出，故未得面慰。過去風浪，心常缺然中，今夏一付郵書，說道中心之區區，尙無回答，未詳其安節矣。今承以身泰業進，慰喜不可量也。族末，一病三朔入於光州基督病院，手術治療，所崇則快差，而神氣漸敗，催衰尤甚，悶何悶何？起學姪與余先後入院，而存沒之患在於一日之內，追想昔日追逐討議之後，只有惻然難忘者，謂之柰何？仁叔喪事，聞甚驚

愕，而相距落落，未能赴矣於即遠之行，勢也奈何？豐洪寶鑑再版云，幸有願讀者多，後生少年欲詳自身來處，倘因是心而孝弟之心油然而發善，事其父兄推及於社會，振起老老幼幼之風，則此身之七年焦心勤勞，庶幾有補於風化之萬一耶？誤落表當固發見書冊，而此亦衰耗精神中，專精着力難有假隙，不可無時月之晚，以是哀諒如何？紙短辭長，言不盡意。僅疏，仰惟哀照。己未十一月。

【泳述男潤柱·奉柱·錫柱，女吳仁教，父九鉉，號靜軒，丁酉生，母固城金氏，父日洙，母朴準陽女，襄惠公贊吉後，乙未九月一日生】

### 答朴在文【濟州道濟州市老衡洞正尊部落】

遠焉隔海，久焉隔年，幾乎群魚之江湖矣。能存衰朽，此生既辱惠幅，又貺以漢拏靈茵，感不容喻？不佞，少也受業于安學海先生秉宅，先生本濟州人也。爲余說道故鄉風土者，詳故夙知其風淳俗厚矣。自與賢執，相知十八年，二度書信，辭意珍重。繼述家之風，到老愈勤，於是益信先生之言，從而知淳厚風氣能毓成孝善之人也。二韻追次，以助一哂，其奈南豐之恨，不足掛人耳目何？奉呵奉呵。至若本州通文之託，可謂賢執未及深恩也。既有城均館長朴性洙贊揚文，足以不朽於千秋，又何屑屑於州郡之通文乎？昔車滄浪雲輅論文章曰，“秕孚三百斛，不如精米一石。”以今論之，館長之文，比諸州郡之作，即精米鑿鑿者也。更求秕孚而奚爲？更爲商量斷念，是所切仰耳。明春三月約，與十餘友作濟州觀光之行，伊時或可穩攄耶？前年拙作亦草呈，并爲照亮如何？己未十月一日，洪錫熹 拜拜。

賢執之徵文於內陸者，可謂富矣。然試更思之，諸作之中，若有倭讎之前，辱食其祿而飽飫者，則實不可與於孝烈之作也。故文不以多爲貴也。

## 答章山祠儒會書

伏惟陽月，尊體與時道長？仰頌仰頌。錫憲，一病三朔手術治療，所崇則快差，而堇存形殼，不堪遠役齋宿，未副盛教，伏惟尊諒。己未十月日。

## 與安鍾宣【寶城郡福內面眞鳳里圓峯里】

青青子衿，悠悠我思，我思古人，先獲我心。拭青卽席，償薪欣豁，一宵聯裾，滌蕩千愁。留飲百壺，心則如蜜，而今夏罹重祟，手術治療後，神氣漸敗，堇存形殼。不堪持久之力，故賀儀纔畢，卽爲出場，一則期趁發車時刻也，一則恐有投轄之留也。馳黑夜歸棲，更思之，報往拔來，未免禮貌之疎率，倘或恃度而休咎？高車翌發，不以勞攘有損於動地否？竊念尊年躋隆肩隨之，弟亦漸迫八耄，天之假年，非不厚也。人之假時，何其薄也，而識荆半百有餘乎？穩據堇三四度，若論此事，誰任其咎？非德菲年遜少弟之過耶？其於迫尤難這何？抑又思之，苟所道者同，直所事者同，誠無往而非靈犀之相照也？朝暮遇者存，雖卷中人，可尙友千載之上，況生并一世，距纔宿春者，安可曰無朝暮遇耶？惟施輔貴之惠，昕夕切仰者也。文康先生精舍遺墟，蝸龜競蠹，繭白井楷，士林之幸也。謹步拈韻，露燕賀之誠，倘加郢斤而付驥，則受賜大矣。甌縷傷支，不備，謹上狀。己未十月十一日，洪錫憲。

精舍會墟古澗東，任他風月自相通。

廢荒不思羹墻地，琢石鐫文賀告功。

右隱峯精舍遺墟碑竣功感題。

## 與柳在得【光山郡本良面德林里】

匪謂華宗在萬君來訪，憑審小春之令，靖體休旺，慰瀉之至。弟，夏

有所崇，入院手術治療，數月而愈，尚今元氣未復，莖支形殼，自爲悶憐耳。德林祠安享諸賢事實，略加潤色而呈。仰惟尊諒。

### 與黃秉濬【靈巖郡靈巖邑烏谷里】

車笛促發，未能穩紱於久阻之餘，旋焉告別，何悵如之？厥後未浹旬，咸兄文義善氏之枉，轉聞無大何，爲慰不些。錫，連日爲參先祖墓祀，強馳峻嶺斜峽，脚戰而息喘，益覺病餘催衰之甚也。記文神氣蕭索之餘，屢日入思，難得好說，故寫實而寓勤勉之義。仰惟亮照。

### 與金淳律

阻久，念切平時猶然，況歲暮在邇，連日雨雪者乎？倚彩連穩，願言不已。叔，依遣，而從孫明錫，定婚于光州市居金門，來二十三日午後二時，結婚于光州禮式場。以是告于汝母，而母子并來，望望耳。

### 與丁炳勛【高興郡漣頭面雁洞里】

雪白競銀，月滿如鏡，浦上景物，便是山陰之夜，清興可乘，而十舍夔程，遂使子猷之筇屐，未遂安道之訪。茲以紙上數語，替申忉怛之情，兄其清鑑，倘以爲亞面耶？歲且窮矣，經體茂膺百福？頂祝不任。弟，依遣，而來二十三日，將行從孫禋禮，私家之幸也。尊先大人之興學關邪，無忝于不憂軒先生家法，其令德可書，而牲石之銘，託非其人，筆弱少發揮力，奈何？覽後揮棄，更求良手，切仰耳。惟祈獻發蔓祉，謹上狀。己未十二月十五日。

### 與沈均澤【谷城兼面大明里】

載塗成濘，雨色淋漓，而莫留程鞭，出餞驛頭，在傍者應笑余以雨中送客矣。情薄可愧。陽復之令，靖體連衛茂相？區區馳想，不任忉

怛。弟，諸率依遣，分幸何喻？永思齋記，盛教鄭重，不敢辭謝，拙筆  
構呈，以兄之高見，更加櫟括，入刻切仰耳。不備謹狀。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9

## 성 남 만 록 1

인쇄 2023년 9월 11일

발행 2023년 9월 22일

발행인 천득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교점 권수용(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위원)

편집제작 도서출판 사람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1

전화 062-227-7820 팩스 062-227-7823

<비매품>

ISBN 979-11-90608-69-5(93060)

본 도서는 2023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